

피노키오만남장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2006-2012)

4권 : 여성주의 · 노동/빈곤 · 보호주의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날

피리산만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2006-2012)

4권 : 여성주의 · 노동/빈곤 · 보호주의

초판 1쇄 발행 2013년 9월 1일

펴낸 곳  청소년활동가상징 **활기**

이메일 hwalgy@daum.net

전화번호 070-4228-1908

홈페이지 <http://cafe.daum.net/Life2010>

가격 1권 전5권 100,000원

파란만장했던 6년의 발걸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를 발간하며

우리는 오늘, 이제는 역사의 심연 속으로 사라져간 한 조직의 파란만장했던 숨결과 발걸음을 담은 기록물을 세상에 내 놓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존재를 말하지 않고 한국 청소년운동의 오늘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자부심, 그리고 네트워크가 남긴 실천과 고민의 흔적들이 오늘과 내일의 청소년운동에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유산을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이 책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파란이 있는 곳엔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첫 돛을 올렸던 2006년의 뜨거웠던 여름,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을 나서며 발표한 출범선언문에 담긴 구절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구절만큼 네트워크의 처음과 끝을 함께 밀어왔던 활동가들, 네트워크라는 함선에 잠시라도 승선했던 활동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변방에서도 가장 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청소년 인권 의제들과 활동가들을 모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을 형성해내고 말겠다는 다부진 욕심으로 출범했습니다. 청소년인권이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파란(波瀾)을 준비하자, 사회가 청소년을 설명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청소년인권론을 만들고 더 큰 파란을 조직하지는 마음으로 네트워크는 6년간 힘차게 노 저어 왔습니다. 때로는 주춤했고 때로는 어설프고 때로는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단언컨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저항하는 청소년들의 버팀목이자 ‘파란을 만들어내는 장’(파란만장)이었고, 청소년운동의 한 전선(front)을 확장해온 개척자였으며, 청소년운동의 오늘을 만들어낸 인큐베이터였습니다.

2012년 3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년간의 항해를 멈추고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로 통합/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청소년운동의 성장과 함께 네트워크의 소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른 청소년 단위로 옮겨가기도 했고, 청소년활동가들을 위한 재정적, 교육적, 이론적 뒷받침 역할을 수행할 조직의 결성 필요성이 새로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의 마감은 네트워크의 후신(後身)이라 할 ‘활기’의 시작과 함께 결정된 일이기에 서글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남긴 유산은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운동의 밑불이 될 것이기에 뜨거운 안녕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떠나보낸 지 1년을 훌쩍 넘긴 오늘에서야, 늦었지만 네트워크의 역사와 활동을 한 눈에 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엄선한 백서를 내놓습니다. 백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네트워크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모음입니다. <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의 도움닫기 워크숍을 거쳐 네트워크가 결성된 2006년 3월부터 ‘활기’로의 전환을 결정한 2012년 3월까지 이어진 활동과 조직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권은 학생인권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네트워크의 활동 기록을 모았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녔던 전국행진에서부터 청소년 거리행동의 날 행사를 비롯한 광장에서의 움직임, 폐쇄적 학교를 뒤흔든 스쿨어택(School Attack)과 청소년 저항 지원 활동 등 긴장감과 신선함이 가득했던 사건들의 현장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3권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보수 여론의 포화 속에서 일구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역사를 되짚다 보면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과 갖가지 고비를 넘겨온 활동가들의 놀라운 역량과 끈기, 그리고 그 고단했던 숨결을 함께 맞볼 수 있습니다.

4권은 학생인권 이외에 네트워크가 청소년인권의 새로운 의제와 실천을 발굴하면서 남긴 유산을 묶었습니다. 청소년인권과 반(反)차별감수성의 만남을 시도했던 십대 여성주의(걸 페미니즘) 팀, 2008년 촛불정국을 통과하면서 본격화된 보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린 보호주의팀, 청소년이 말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운동을 일구어내고자 했던 노동(빈곤)팀의 다채로운 시도가 남긴 결실이 이 한 권에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은 네트워크가 시도했던 다양한 교육/연구 사업과 연대활동 관련 자료들의 꾸러미입니다. 청소년인권캠프, 청소년활동가대회, 잇힌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재발굴한 연구사업 등을 다룬 자료들을 따라 읽다 보면, 네트워크가 청소년인권 이론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한 눈에 보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이제 가고 없지만, 청소년을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인권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백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운동을 조직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또 네트워크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지혜의 보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9월 1일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발간팀



1부	여성주의	15
<hr/>		
	한국성폭력상담소·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서신 교환,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두 번째 청소년/년&(성적)자기결정권>, 2008. 08.	19
<hr/>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두 번째 청소년/년&(성적)자기결정권> 웹 자보, 2008. 08. 20.	24
<hr/>		
	난다, 「여성-청소년, 보호주의에 묻힌 성적 자기결정권」, 『2008년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자료 모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	25
<hr/>		
	공현, 「위험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다」, 『2008년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자료 모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	28
<hr/>		
	난다,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저 어린 것이?”- 청소년/년, 보호주의에 묻힌 성적 자기결정권」, 인권오름 제 118호, 2008. 08. 27.	31
<hr/>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여성주의 팀 세미나 1차 자료 목록」, 2008. 10. 28.	35
<hr/>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여성주의 팀 세미나 2차 자료 목록」, 2009. 02. 04.	36
<hr/>		
	<빨강 물고기 시즌 2-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웹자보, 2008. 12. 13.	37
<hr/>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빨강 물고기 시즌 2-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자료집, 2008. 12. 13.	38
엠진, 「[내 말 좀 들어봐]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걸 페미니스트의 가족 바라보기」, 인권오름 제134호, 2008. 12. 24.	52
<빨강 물고기 시즌 2-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소장사진, 2008. 12. 13.	56
<안티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 웹자보, 2008. 12. 24.	57
<안티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 전단지, 2008. 12. 24.	58
<안티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 저항 캐롤 가사, 2008. 12. 24.	60
이성희 기자, 「“명박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청소년들의 ‘저항 캐럴」, 경향신문, 2008. 12. 24.	61
<깜깜한 크리스마스> 웹자보, 2009. 12. 24.	62
뚝코, 「[내 말 좀 들어봐] 참 깜깜했던 크리스마스」, 인권오름 제186호, 2010. 01. 13.	63
<깜깜한 크리스마스> 소장사진, 2009. 12. 24.	67
<3.8 세계여성의날 101주년 여/성, 폭력을 이야기하는 101가지 방법> 웹자보, 2009. 03. 08.	69
<3.8 세계여성의날 101주년 여/성, 폭력을 이야기하는 101가지 방법> 소장사진, 2009. 03. 08.	70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걸 페미니즘, 너는 어디로?”』 자료집, 2009. 04. 25.	7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걸 페미니즘, 너는 어디로?”』 워크숍 기록, 2009. 04. 25.	92
공현, 「[페미니즘인(in)걸] ‘소녀’를 원하는 사회」, 인권오름 제146호, 2009. 04. 01.	98
엠진, 「[페미니즘인(in)걸] 야오이, 그 곳에서 소녀 그리고 여성들이 만나야했던 이유」, 인권오름 제150호, 2009. 04. 29.	102
한날, 「[페미니즘인(in)걸] ‘여성’의 이름으로 차별을 거부한다는 것(1)- 여교사들이여, 학교를 여성주의 해방구로 만들자!」, 인권오름 제154호, 2009. 05. 27.	106
난다, 「[페미니즘인(in)걸] ‘여성’의 이름으로 차별을 거부한다는 것(2)- 조금 덜 아프게 맞은 대가는?」, 인권오름 제158호, 2009. 06. 24.	110
공현, 「[페미니즘인(in)걸] 신데렐라이길 거부한다. 밤길을 다니고 외박을 할 자유를」, 인권오름 제166호, 2009. 08. 19.	113
엠진, 「[페미니즘인(in)걸] 여성 + 청소년 정치까지 몇 km?- 여성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이야기」, 인권오름 제170호, 2009. 09. 16.	116
한날, 「[페미니즘인(in)걸] 여학생은 성적이 “너무” 우수하다. 도 대체 어찌라고~」, 인권오름 제174호, 2009. 10. 14.	119
공현,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인권오름 제178호, 2009. 11. 10.	123
윤티, 「[페미니즘인(in)걸] 밑바닥에 깔린 청소년 알바- 44만원에 그치지 않는 노동현실」, 인권오름 제182호, 2009. 12. 09.	127
엠진, 「[페미니즘인(in)걸] 스무살이 된 걸(girl)이 보내는 편지」, 인권오름 제186호, 2010. 01. 13.	130

난다, 「[페미니즘인(in)걸 왜 소수자들은, 여성/청소년들은, 오지 랴이 넓은가- ‘그래도..’의 반복」, 인권오름 제190호, 2010. 02. 09.	133
어스, 「[페미니즘인(in)걸 고객님? 됐거든!!!- 10대 여성을 대상으 로 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뒤집어보기」, 인권오름 제194호, 20 10. 03. 16.	136
발새, 「[페미니즘인(in)걸 여성 청소년들의 팬덤시터를 말한다」, 인권오름 제198호, 2010. 04. 13.	139
한날, 「[페미니즘인(in)걸 여성청소년들의 팬덤시터를 말한다 2- 팬클럽의 정치화, 소비자로서의 권력인가? 10대 연예 노동자들 에 대한 연대인가?」, 인권오름 제202호, 2010. 05. 12.	143
난다·어스, 「[페미니즘인(in)걸 “아빠, 말해주세요!” 아빠는 말 해주지 않는다.- ‘반사회적인 소녀들의 시선’으로 보는 6.2.지방 선거 두등」, 인권오름 제206호, 2010. 06. 09.	147
뚝코, 「[페미니즘인(in)걸 잔혹한 소년만화의 테제- ‘소녀’ ‘정규 직’ 오타쿠가 본 소년만화 씹어주기」, 인권오름 제210호, 2010. 07. 07.	151
발새, 「[페미니즘인(in)걸 납량특집 공포영화 - 그 영화가 무서웠 던 더 무서운 이유」, 인권오름 제214호, 2010. 08. 04.	157
공현, 「[페미니즘인(in)걸 "부모님 모셔와"가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청소년과 여성, 가족 제도에 스크래치 내기」, 인권 오름 제218호, 2010. 09. 08.	161
발새, 「[페미니즘인(in)걸 ‘여성+청소년=여성청소년’이란 공식 을 넘어서자- 복합차별에 대해 아시는지?」, 인권오름 제222호, 2010. 10. 12.	165

엠건, 「[페미니즘인(in)걸] 30대 여교사와 10대 남학생, ‘반차별의 눈’과 만나다」, 인권오름 제226호, 2010. 11. 09.	168
윤티, 「[페미니즘인(in)걸] 마냥 ‘시크한 차도녀’가 될 수 없는 ‘10대 여성’, 나의 담배 연기」, 인권오름 제234호, 2011. 01. 12.	172
엠건, 「[페미니즘인(in)걸] 걸 페미니즘 “다시 보기”- 먼 길을 돌아와 당분간 굿바이」, 인권오름 제242호, 2011. 03. 15.	175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낀 함께 만들기 단체 제안서」, 2009. 08. 20.	178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낀> 홍보 웹자보, 2009. 10. 27.	181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낀> 메인 화면 사진, 2012. 08. 20.	182
우완, 「성폭력을 ‘교관’문제로 보면 대책이 없다. [좌담]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에 남긴 것」,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9. 09. 23.	183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1차> 전단지, 2009. 11. 07.	187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1차> 소장사진, 2009. 11. 07.	189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2차> 소장사진, 2009. 11. 21.	190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3차> 소장사진, 2010. 05. 29.	191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4차> 전단지, 2010. 09. 04.	192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5차> 전단지, 2010. 11. 06.	194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5차> 소장사진, 2010. 11. 06.	196
우완, 「10대의 ‘성’ 교사·학생의 거침없는 대화- 학교에선 말할 수 없는 솔직한 성과 사랑이야기」,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0. 02. 22.	197
해솔·날도, 「[내말 좀 들어봐] '내숭' 너머의 벽을 허물기 위해- 여성주의 교사모임과 함께한 10대 연애 워크숍 '내숭 뚫고 하이 킥' 후기」, 인권오름 제194호, 2010. 03. 16.	200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 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 다!」 논평, 2010. 04. 12.	203
한날, 「학교, 딱 걸렸다!- 젠더의 프리즘으로 학교 들여다보기」, 『인권교육센터 ‘들’·전교조 서울남부지회 주최 ‘좌충우돌 교 사 인권내공 쌓기’ 교사직무 연수』 자료집, 2009.	206
한날, 「영화 '친구사이?'를 '유해한 영화로 만들고 있는 것은 누구 인가?」, 『한국케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관 '영화 <친구 사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토론회』 발제문, 2010. 07. 27.	224
2부 노동/빈곤	229
<“청소년 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 및 워크숍> 웹 자보, 2008. 02. 19.	233
<“청소년 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 및 워크숍> 소 장사진, 2008. 02. 19.	234

따이루,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은 참 어려운 일이야」, 『청소년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外, 2008. 02. 19.	235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아르바이트 임금 실태조사 결과」, 『‘88만원 세대’조차 될 수 없는 노동자, 청소년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보고』, 2008. 06. 04.	238
양진비 기자, 「육설·성희롱 꼭 참고 일해도 돈도 못 받아요」, 프레시안, 2008. 06. 04.	255
양진비 기자, 「촛불 집회 탓에 장사 안 되는데...뒤통수를 쳐」, 프레시안, 2008. 06. 13.	259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2009. 03.	262
<메이데이 집회 1차 퍼포먼스> 소장사진, 2009. 05. 01.	267
<메이데이 집회 2차 퍼포먼스> 소장사진, 2010. 05. 01.	26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 「노동인권 연속 내부 세미나 커리큘럼」, 2009. 09.	269
<알리바바(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1차 직접행동> 웹자보, 2010. 02. 06.	270
<알리바바(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1차 직접행동> 소장사진, 2010. 02. 06.	271
<알리바바(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2차 직접행동> 웹자보, 2010. 03. 13.	272
<알리바바(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2차 직접행동> 소장사진, 2010. 03. 13.	273

<알리바바(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3차 직접행동> 웹사이트, 2010. 04. 10.	274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 「햄버거 100개 팔고, 정작 받는 시급은 1개 값도 안된다고? 이것은 무슨 경우? 44만 원 세대임을 거부한다. 최저임금 딱딱 올려라!! -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1811선언」, 기자회견문, 2010. 06. 25.	275
윤지연 기자, 「청소년 “최저 임금 받는 우리는 44만원 세대”」, 민중언론 참세상, 2010. 06. 25.	276
어쓰, 「청소년도 노동자다? - 청소년 노동의 쟁점 우적우적 씹어 먹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식지, 2011. 3.	278
<청소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기자회견> 소장사진, 2010. 06. 25.	281

3부	보호주의	283
-----------	-------------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의 이용 중 사무총장의 사과와 추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사업에 대한 미발표 성명서, 2007. 12.	287
공현, 「촛불이 낳은 고민들 속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7호, 2008. 07.	291
난다, 「미성년자 석방하라의 함정」,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식지 『파란만장』 7호, 2008. 07.	296
배경내(개굴), 「우리 안에 나부꼈던 너, 넌 누구였나? - 촛불의 ‘아이콘’들에게 보내는 투덜거림」,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08년 9·10월호	298

<p>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보호주의팀, 『레드 존'(청소년 금지구역)을 탈출하라! -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기』, 빨강물고기 자료집, 2009. 04. 11.</p>	304
<p>정열, 「[내 말 좀 들어봐] 그놈의 보호주의가 대체 뭐길래?! -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어 보니…」, 『인권오름』 제150호, 2009. 04. 29.</p>	316
<p>공현, 「[청소년과 인권] 보호주의를 넘어서야 다른 길이 보인다」, 『교회와 인권』 156호, 천주교인권위원회, 2009. 05.</p>	322

여성주의



개요

여성주의

2008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하반기 계획 워크숍에서 ‘학생 인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청소년 인권의 새로운 영역들을 발굴해 가자’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러한 목표에 맞춰 ‘소수자 팀’을 꾸리기로 결정했고, 활동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리고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여성주의적 감수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여성주의 팀’을 창설하게 되었다. 여성주의 팀의 가장 큰 목표는 10대 여성이 스스로 주체가 된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으며, 10대 여성 관련한 독자적 의제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여성주의적/반차별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공부, 10대 여성의 삶을 드러내고 차별적 인식을 바꿔내기 위한 언론 기고, 당사자 활동가 조직 및 담론 확산을 위한 직접 행동 및 선전전, 온라인에서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설 등을 계획하고 실천했다. 성별 권력과 나이 권력이 어떻게 서로 엉켜 붙어 작동하는지를 밝히고자 했던 <빨강 물고기 시즌2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나가자”> 워크숍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나 커플 중심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순종적 청소년의 이미지를 강요하는 크리스마스를 뒤집어보고자 진행한 2008년/2009년 <안티크리스마스 케릴라 액션>은 참신한 기획이 돋보인 행사였으며, 여성주의 팀 활동가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회자되었다. 2009년부터 총 22차에 걸쳐 인권 오름에 연재한 <페미니즘인(im)걸>은 약 3년 동안 여성주의 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다만, 2010년 중반부터는 팀의 활동 침체와 맞물려 소재 고갈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09년에 다음 카페에 개설했던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감>의 경우, 10대 여성의 눈으로 교감할 수 있는 여러 연재 꼭지를 만들고 회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도모했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 부족과 관리의 한계로 인해 2010년 후반부터는 새로운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여성주의 팀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단위와의 연대도 지속적으로 모색했는데, 그 중 여성주의 교사 모임 <빼빼 통스타킹>과의 좌담과 워크숍은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학교를 재구성하고,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각을 함께 나눴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2009년 9월, 큰 논란이 일었던 남학생에 의한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 사건을 다시 읽기 위한 좌담 그리고 2010년 2월, 10대의 성과 연애를 주제로 한 <‘사랑하는’ 학생들과 내숭 뚫고 하이킥> 워크숍 등이 그 중요한 시도였다.

여학교 앞 선전전 등을 진행했지만 10대 여성 당사자들을 활동으로 곧장 조직하기 어려웠던 조건, 청소년을 향한 차별 문제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는 성적(成績), 빈곤, 장애 등 다른 차별의 축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속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주의 팀은 2011년 초, 반차별 연구팀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명확한 활동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활동가 숫자의 부족으로 팀 전환 이후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드리는 질문

2008. 8. 1

1.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고민

청소년 인권침해는 매우 뿌리 깊은 성인 중심의 권위적 사고에 기반 해 있으며, 여성인권 침해 역시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부장적 사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소위 '대세'에 해당하는 가부장적 시스템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속하게 되듯이,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실질적 이익' 또는 '선택하고픈 /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가치인지가 엇갈리면서 함께 운동하고 싶은 이들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충돌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2. 청소년 인권운동의 문화에 대한 궁금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은 대부분 가부장제 문화를 인식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상적인 여성들입니다. 그러다보니 내담자, 회원, 주변 사람들에게 옷차림이나 화장여부, 기호품, 생애주기, 관심사, 적대적인 상대와 싸우는 방식 등이 '독특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만의 독특한 문화가 궁금합니다.

3. 청소년 인권운동에서 성(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운동의 쟁점은 무엇인지

성폭력사건을 지원하다보면 십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십대 여성이 합의하에 한 성관계에 대해 당사자는 전혀 원치 않는 파트너 남성에게 대한 처벌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야간 상담이나 주말 상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의 접근성이 적은 것도 있지만, 주변의 편견으로 인하여 자발성과 강제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피해를 쉽게 도움 요청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2007년 상담통계를 보면 청소년 본인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단독으로 직접 상담한 경우(대리인이 상담했거나 대리인과 함께 상담한 경우를 제외하

것)는 전체 1654건 중 40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1654건 중 본인이 단독으로 상담한 경우가 961건인 것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청소년의 섹스가 금기시 되어 있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일상과 가깝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4. 청소년 인권운동에서 성별과 관련한 운동의 쟁점은 무엇인지

여성운동은 성별에 따른 차별에 반대해왔던 역사를 갖습니다. 성차별, 성별 권력 관계 에 대한 반대는 여성 운동의 키워드나 쟁점을 구성해왔지요.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이런 쟁점과 관련해서 해왔던 운동이나 이슈파이팅이 있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러한 이슈파이팅의 주체들은 누구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에 따라 이러한 이슈에 대해 더 친근함/열정을 갖는 것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5. 청소년의 정의/범주/개념 에 대한 질문

5-1. 성폭력상담을 하다보면 가족 내에서 여성의 섹스를 금기시하고 여성의 성적 활동을 제한하려는 태도에는 성년/미성년의 구분보다 기혼/비혼의 구분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혼여성이 남성과 섹스를 했다는 징표를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혼여성이 계획 하에 임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을 할 경우 대부분 인공임신중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섹스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정보를 드러내는 것 역시 비혼여성들에게는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적 실천을 결정하는데는 자신이 20세가 넘는 성인이나 여부보다 가족들의 압력, 교육, 물질 자원 등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20대 초반의 비혼여성의 경우 가족 내에서는 청소년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청소년의 범주를 매우 다양한 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5-2. 열림터(열림터는 성폭력피해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집을 나와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가족 구성원-아빠, 오빠, 사촌 간 등-에 의해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입소에 연령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는 대부분이 청소년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규칙 등이 청소년 기준으로 정해져있다. 따라서 1,2명의 어른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을 때가 많아 어른들에게는 개별적인 기준을 주고 지키게 하고 있는데, 사회 경험이 적거나 대학생인 경우 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 많다. 그럴 때면, 과연 청소년과 성인을 분류해서 다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심이 들 때가 있음. 네트워크에서 생각하는 청소년의 범주, 혹은 이 범주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6. <보호>를 주된 활동으로 삼는 단체(열림터)에서 고민하게 되는 통제/보호/자율/책임 이라는 키워드

: 청소년과의 협상, 어디까지 어떻게?

열린터는 성폭력피해생존자 보호시설로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8,9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게 된다. 공동체 생활이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생활규칙들이 존재하고 필연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데 이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반응을 접하면 늘 멈칫하게 된다. 일례로 엄마에게 전화한다고 해놓고, 사무실 전화기로 좋아하는 오빠에게 전화해서 만날 약속을 잡은 소녀가 있다. 다음날 이 오빠가 자기 핸드폰에 찍힌 사무실전화로 이 소녀를 찾았는데, 이 내막을 알리 없는 선생님들이 이 소녀를 불러 오빠의 정체에 대해 케 물으니, 이 소녀는 사생활침범이라며 울부짖는다. 아이쿠! 말은 맞지만, 하지만 속이기 시작한 것 역시 본인 이 아닌가.

열린터는 여성운동단체가 운영하는 쉼터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이들의 인권이나 자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한 내부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에게 떨어지는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짜증 섞이게 말하고 하지 않으면서도, 요구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과 적절하게 협상하고 나누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네트워크 에서도 이런 상황들에 처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7. 10대/연령주의

어떤 집단이나 그러리라 짐작하지만, 10대들도 내부에 나이나 힘에 따른 서열이 있는 것 같다. 열린터도 크게 예외가 아니라 학년이 높거나, 오래 살았던 이들이 갖는 파워가 살아있다. 여기에 선생님의 위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등장하는 정도인데, 대개는 어른이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묻는 정도의 역할이다. 하지만 한 귀로 흘러가는 잔소리가 되어 버리는 것 또한 눈에 보인다. 청소년들이 나이로 인한 차별에 민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나이에 예민한 집단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는지, 해결점을 모색하는 지점이 있는지?(연령주의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던지)

8.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년들 사이의 차이와 그것이 '운동'의 내용/형식에 끼치는 영향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실상 다양한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담당자의 입장에서 학교, 사회에서 요구하는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것이 인권을 만들어가는 활동일지라도) 네트워크에서도 만나는 청소년들도 그들의(그들 부모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따라 활동의 결과, 타격, 효과가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활동하면서 접하게 되는 풍경은 어떤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답변

네트워크 내에서는 이번 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팀이 꾸려졌습니다. 한 차례 회의를 거쳐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어떠한 맥락으로 풀어보는 것이 좋을 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의 상을 말씀 드릴게요.

1.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 청소년은 쉽게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곧 통제의 명분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권리의 이양 및 상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보호주의적인 논리가 '미덕'의 탈을 쓰고 드러나는 양상을 우리는 최근의 촛불 시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복의 권위를 앞세운 예비군들,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는 구호의 등장은 투쟁의 주체로서 '우리는 여전히 남성/비청소년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과 청소년 인권 운동이 만나는 일차적인 접점으로 '보호주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보호주의'가 약자들을 대상화하는 논리임은 분명하지만, 실제 활동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 입장 정리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권력 차를 고려할 때, 피해자(혹은 약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보호'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들... **자기 안에 내면화된 '보호주의'와 '약자에 대한 우호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또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단 내에서 활동하던 여남 커플이 사귀기 시작했을 때, (물론 그들을 축하하는 마음이 우선이겠지만) 여성 회원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남 커플이 헤어진 후, 여성 회원의 활동이 저조해지거나 심지어 탈퇴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시작한 여성 회원을 우려하는 나의 시선이 "그러니까, 애들은/ 여성은 연애할 때 조심해야해"와 같은 '보호주의'적 시선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활동가의 자기 검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 등등 '보호주의'를 둘러싼 난감한 맥락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민적 권리 영역에서 예외적인 존재로 치부됩니다. **동등한 권한 및 자원을 지니고 있지 않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 하에서 동의와 자발성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나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사건/상황을 왜곡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10대 여성의 성매매 문제나 가정 내 성폭력 문제 등을 바라볼 때 고려해야할 **청소년의 특수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

청소년의 성 혹은 성폭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성소수자 내부에서조차 자신의 성적체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길 권유받기도 합니다. 집단 내의 '나이주의'나 '미성년'에 대한 배제는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배제의 양상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내부에서도 그 차이가 존재하고,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2차 성징 이전의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성인/남성 가해자(대부분의 경우)의 변태성이나 극악무도함을 강조하여 선정적으로 이슈화할 뿐 그것을 성폭력 사건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을 '무성적 존재'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근친에 의한 가정 내 성폭력이 비가시화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차 성징 이후 청소년의 성폭력은 '성보수주의'적인 시선에만 머물러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성숙함에도, 성에 먼저 눈을 뜬' 개별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적 행동으로 성폭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청소년을 둘러싼 집단 내 '나이주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

위의 3.과 관련하여 성폭력 상담소 내에서도 '나이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혹은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소 내에 10대 여성들의 모임이 있는지, 10대 여성들과의 관계 맺음은 어떠한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토론회 날짜 확정 및 기획을 위해 한 번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언젠가 괜찮으실지 의견주세요^^ 이번 포럼은 서로의 단체가 활동하면서 접하게 되는 실질적 어려움, 고민, 해결이 쉽지 않은 경계들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보는 장으로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함께 만들어 봐요. 나중에 뵈게요^^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두 번째** 청소년/년 & (성적)자기결정권

일시 : 2008년 8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센터 열린마당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그 두 번째 만남을 위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야기 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보호주의는 (왜) 나쁜가?' - 요보호 대상의 말할 권리, '보호'의 목적과 결과
- 청소년들이 많은 생활보호시설(원터)의 생활규칙을 둘러싼 고민들
- 다른 연령 사이의 가능한 소통과 '나이주의'
- '성(性)'이 위험한 사회, 책임과 권리 / 자율과 통제
- 청소년의 범주와 그 범주화의 의미(청소년들 사이의 차이)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섹슈얼리티 쟁점 포럼

성폭력을 이슈화하는 여성 단체에서 '성적인 것'은 늘 고민의 화두입니다.

성별 이질 규범 반대! 청년과 성녀로 여성을 이분화하는 가부장제 반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사소화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 반대!** 라는 페미니즘의 설명은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여성들과 이슈들을 통해 도전받고, 그 과정에서 확장, 수정됩니다. 여성운동의 주장과 구호를 성보수주의와 보호주의로 단순화시키는 언론과 사회적 편견에 맞서기 위해 운동의 전략을 새롭게 점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선명한 운동의 구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운동 전략 역시 그 복잡함과 어려움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언어는 '가부장제만이 아니기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설명력과 대안 모색 역량은 통합적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성적인 폭력'을 이슈화하는 여성운동 단체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찾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섹슈얼리티/성별 이슈를 주되게 운동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 단체와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운동의 경계를 발굴**하고자, 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의 내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난다, 「여성-청소년, 보호주의에 묻힌 성적 자기결정권」, 「2008년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자료 모음집」, 한 국성폭력상담소, 2009.

여성-청소년, 보호주의에 묻힌 성적 자기결정권

난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촛불집회에서 연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 때 기사가 났었는데, 대부분 기사 내용이 '집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는 여중생...'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근데 사실 전 집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고 그런 적 없는데, 그 때 언론들에서는 모두들 '집에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저 보내주세요 흑흑... 한 여중생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었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어린 10대 소녀로, 그 기사들은 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은, 보호해줘야 할 약자,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나는 누군가가 지켜줘야 했을까요? 왜 나는 보호받아야 할 어린 소녀일까요? 연행당할 때 '미성년자는 풀어줘라!'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10시 이후에는 집회에 남아있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건, 내가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이라 못하고, 안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술 담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짬질방도 10시 이후로는 보호자 없이는 출입 못 하구요. 숙박시설도 보호자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잠 못 자구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밖에 나와도 잘 곳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 건데, 그 유해환경에 '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선거에서 당선돼 우리가 다시 한숨 쉴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한 학생은 퇴학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청소년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청소년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해환경에 쉽게 물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는 약자인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해주겠다는 말 속에 권력 관계가 있는 거고, 보호라는 말로 포장된 통제나 억압, 지배가 있게 됩니다. 보호라는 말로 차단시켜 놓음으로써 격리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이구요.

보호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보호만 짝 없앤다면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호만 하는 것이 맞나? 그것은 현상 유지를 위한 방책이지,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지요 어느 선에서 차단만 시켜놓는 미봉책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고 했을 때 뭔가가 유해 하다면 유해 환경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출입 금지로만 그냥 금기시 해놓는 것. 성을 이야기 하자면, 그러니까 성을 금기시키는 이유는, '너희들, 잘못하면 임신할 수도 있으니' 인데, 지금 사회에서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낙태'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청소년들은 비청소년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낳아서 어쩔건데?'가 되어버리는거죠 또 사회적인 시선들, '아니, 저 어린 것들이.' 하는 비난의 눈길. 하지만 청소년들이 임신 했을 때, 낳아서 양육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임신을 하면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을 통제해서 막겠다는 것은 문제를 덮어 놓거나 어느 선에서 눌러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을 금지했을 때, 보호하려 했을 때 보다 청소년의 임신을, 낙태율, 이런 것들이 수치상 줄어들 순 있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닌거고, 청소년의 행복과도 거리가 멀어지지요 또 사실 낙태 비율만 놓고 보자면, 기혼 여성의 낙태율이 제일 높다고 해요 임신을 하고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아이를 지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육 문제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양육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고 있는 사회의 문제인거죠

다시 보호주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자니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밤이 위험해지는 환경, 밤에 범죄 위험(성폭행, 납치, 살인 등..)이 높는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CCTV설치 정도로 해결하려는 것이나, 위험하니까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들. 그 위험한 상황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밤길 이야기는 '여성에 대한 보호'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든, 비청소년이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쉽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비청소년이 되어도, 여성인 경우 집 안에서 외박을 금지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행 사건에 대한 기사의 내용도, 실은 그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이었다면, 그런 식의 기사는 나오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에 있어서, 청소년 사이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성, 섹스에 관해서는 나이보다 성별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주의'라는 것에 '성적자기결정권'은 묻히게 됩니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아직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주위에 숨겨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 청소년이 섹스하기엔 사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 등등. 하지만 성에 대한 통제가, 청소년의 성을 금기하는 것도 있지만 비혼이란 범주에 청소년이 속한다고 본다면, 20대일지라도 비혼일 경우는 섹스했다고 하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청소년이더라도 비혼부는 없고, 비혼모는 있지요 임신후 결과에서, 여성 청소년에게만 더 많은 성적 통제가 가해지고, 남성 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구요 남성 청소년의

성경험이 여성 청소년보다 일찍 시작한다는 통계도 있고 경험에 대한 해석에서도 여성 청소년보다 남성 청소년에게 훨씬 관대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의 차이. 결혼을 중심으로 봤을 때, 결혼하지 않았다는 게 여성 청소년에게 훨씬 크게 적용하지요. 혼전순결에 대한 사회적 강박 같은 걸까요?

사랑니라는 영화를 보면 여성 학원 교사가 남자 아이와 여관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텔 종업원이 비난을 할 때는 그 여성에게 비난을 가합니다. 20대, 3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할 때에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는 여성에게 가게 됩니다. 그 때는 '저 발랑 까진 어린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아직도 쉬쉬하는 사회. 보호를 위한 건가요? 그렇다면, 그 보호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헌, 「위험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다」, 『2008년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자료 모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

위험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다

공헌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그 ‘특별함’

청소년(아동) 성폭력 사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분명 웬만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권력(물론 구체적 사건에 따라 +a가 있다.) 속에 일어난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 그리 다르지 않은 성폭력 사건일 텐데,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특별한’ 이야기들이 오간다.

사람들은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이고 비청소년 ‘성인’이 가해자인 사건(예컨대, 최근에는 혜진 씨 예슬 씨가 피해자였던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때는 천인공노(天人共怒), 인면수심(人面獸心) 등 한자어를 써가며 혀를 끝 끝 찬다. 그러면서도 집에서 무슨 변태 성욕의 증거가 발견되었다면서 가해자를 열심히 자신들과 다른 존재로 타자화 한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를 발동시켜서 성폭력 범죄자들을 더욱 뻥세게 처벌하겠다는 법률 개정 검토를 하고, 부모들은 아동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밤길 조심하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조심하고 등등의 조심 사항들을 내놓는다.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건(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2004년에 있었던 밀양에서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공론화되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며, ‘미성년자’들의 ‘충동적인’ 범행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고 청소년들의 ‘미성숙’함이 강조된다.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규제와 같은 조치도 항상 따라 다닌다. 최근에 있었던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서도,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한 조치는 결국 ‘음란물 규제’가 아니었던가?

분명히 아동-청소년들의 성폭력 사건은 대개 성별 권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 ‘전형적인’ 성폭력 사건이다.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가 반영된 경우도 많지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별 권력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라거나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것을 금기시하는 모습도, 여타의 성폭력 사건들과 비슷한 모습들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이 사회의 태도는 아동-청소년들의 특수한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청소년/년의 성적 결정권”이란 이름으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터이다.

청소년에게 위험한 성

그렇다. 청소년에게 성(性)은 위험한 것이다. 이 말은 어쩌면 여성에게 성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여하간 청소년들에게 성은 위험한데, 하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때문(가해/피해 모든 면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에게 성행위는 금기시되며 그러다가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난감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위험은 연령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특히 민감한 이 사회(이게 과연 ‘약자에 대한 폭력에 분노’하는 ‘순수’한 마음일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만 특히 강조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성폭력은 특히 위험하다. 하나는 ‘자라나는 새싹들’인 청소년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 인식 안에는 청소년에 대한 이중적인 고정관념들이 이중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성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청소년들의 성행위는 이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행위를 금기시하는 데는,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신세망친다, 라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문제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가 부여하는 생애주기-나이주의(나이주의라는 말은 여기선 매우 복합적으로 나이에 따른 권력과 위계를 뜻함과 동시에 나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생애주기의 의미를 지닌다.)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 고등학교 때인가 국어 선생이 “어른”의 어원이 성행위를 경험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가. 청소년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가 정한 청소년들의 틀과 지위를 벗어나는 일이기엔 위험하다.

최근 인기 도서인 『88만원 세대』를 보면 첫 챕터에 “첫 섹스의 경제학, 동거를 상상하지 못하는 한국의 10대”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10대들이 섹스를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구구절절 분석해놨는데, 옳은 소리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의 성행위를 금기시하는 것이 꼭 경제적 지위의 문제만은 아니다. 30대 기혼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경제적 여건이 매우 곤란한 경우 주변에서는 걱정을 하고 염려스러워 하긴 하겠지만, 10대 미혼(비혼)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에는 비난과 좀 다른 스트레스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청소년 안의 성별 권력

그런 이야기로 원고의 반절을 쓰고서도, 또 청소년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청소년’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들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존재한다.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들도 충분히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고, 일상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남성중심적인 성적 농담을 통해 친밀한 공모 관계를 형성하는 남성 교사와 남성 학생들의 관계를 봐도 그렇다. 최근에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성구매를 한 남성 청소년들에 대해 교사가 통제를 잘못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언론이나 사람들을 봐

도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다는 식의 판타지는 계속된다.(물론 거기에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성숙한’ 성인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도 같이 있다.)

또한, 바로 요 앞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이 금기시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또한 남성 청소년의 경우와 여성 청소년의 경우가 다르게 취급되며, 미혼/기혼 기준 또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매우 강하게 적용된다. 남성 청소년들의 성행위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난다의 발제에 충분히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만 줄이겠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

그래서,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 않은 이 토막난 원고의 끝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발제라는 게 원래 시원한 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함께 토론할 이야기거리를 꺼내보자는 것이니 속 시원하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홀대받는 권리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권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성적 권리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성에 대해 알 권리, 성평등(동성애나 성전환 등을 포함한)에 대한 권리 기타 등등을 의미한다. 비록 청소년의 성적 인 자유가 힘 있는 남성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자유주의나 프리섹스로 오인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 안에서 성적 권력 관계가 엄존하기에 수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다, 라고 하면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정도로 말하는 사람들도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야기하면 매우 과민하게 반응한다. 왜 이 사회는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에 대해서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것이 그토록 위험한가? 그것이 정녕 그리도 위험하다면, 그것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적어도 그 사람들이 18세 이전에 섹스를 하면 자궁에 질병이 생길 확률이 몇 배 높아지고 어찌구 저찌구 하는 이유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 아닐 테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성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을 권리가 아닌 보호와 통제, 위협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때 청소년들은 그리 행복하지도 못할 것이고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A4를 3페이지나 낭비했다는 것은 죄악인가?

난다,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저 어린 것이?” - 청소년/년, 보호주의에 묻힌 성적 자기결정권」, 인권오름 제 118호, 2008. 08. 27.

“아니, 저 어린 것이?”

청소년/년, 보호주의에 묻힌 성적 자기결정권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시간이 좀 흘렀지만, 촛불집회에서 연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 때 기사가 났었는데, 대부분 기사 내용이 '집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는 여중생'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근데 사실 전 집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고 그런 적 없는데... 그 때 언론들에서는 모두들 '집에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저 보내주세요 흑흑...', '한 여중생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었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어린 10대 소녀로, 그 기사들은 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은 보호해줘야 할 약자,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나는 누군가가 지켜줘야 했을까요? 왜 나는 보호받아야 할 어린 소녀일까요? 연행당할 때 '미성년자는 풀어줘라!'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10시 이후에는 집회에 남아있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건 내가 '청소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이 유해환경인가요?

청소년이라 못하고, 안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술 담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짬뽕방도 10시 이후로는 보호자 없이는 출입 못 하고요 숙박시설도 보호자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잠 못 자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밖에 나와도 잘 곳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 유해환경에 '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돼 우리가 다시 한숨 쉴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한 학생은 퇴학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청소년은 아직 판단력이 미숙

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해환경에 쉽게 몰들 수 있고, 그러므로 사회는 약자인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해주겠다는 말 속에 권력 관계가 있는 거고, 보호라는 말로 포장된 통제나 억압, 지배가 있게 됩니다. 보호라는 말로 차단시켜 놓음으로써 격리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보호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보호만 싹 없앤다면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호만 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아니라는 얘가지요. 성을 통제해서 막겠다는 것은 문제를 덮어 놓거나 어느 선에서 눌러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이유는 '너희들, 잘못하면 임신할 수도 있으니깐'이죠. 지금 사회에서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낙태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청소년들은 비청소년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낳아서 어쩔 건데?'가 되어버리는 거죠. 또 사회적인 시선들, '아니, 저 어린 것이!' 하는 비난의 눈길. 하지만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낳아서 양육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낙태 비율만 놓고 보자면, 기혼 여성의 낙태율이 제일 높다고 해요. 임신을 하고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아이를 지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육 문제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양육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고 있는 사회의 문제인 거죠.



보호주의에도 성별 차이가 있어요

여자니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밤이 위험해지는 환경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니까 그냥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되겠죠. 어찌 보면 밤길 이야기는 청소년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보호'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든 비청소년이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쉽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기를 벗어나도 여성인 경우 집 안에서 외박을 금지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지요. 제 연행 사건에 대한 기사도 사실은 제가 남성이었다면, 그런 식의 기사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호'에 있어서 청소년 사이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요.

특히 성, 섹스에 관해서는 나이보다 성별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아직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주위에 숨겨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 청소년이 섹스하기엔 사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 등등. 그런데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것도 있지만 비혼의 성, 그것도 비혼 여성의 성을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혼부는 없고, 비혼모는 있지요. 임신 후에도 여성 청소년에게만 더 많은 성적 통제가 가해지고, 남성 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남성 청소년의 성경험이 여성 청소년보다 일찍 시작한다는 통계도 있고 경험에 대한 해석에서도 여성 청소년보다 남성 청소년에게 훨씬 관대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만 주어져 있다면 권리가 아니라 권력이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 섹스를 하지 않을 권리는 어찌하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에게도, 청소년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 있는 거야 당연히!” 라는 이 당연한 말이 왜 현실에서는 부정되는 걸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남성들에게만 허용되는 권리라면 그건 권리가 아니라 권력이잖아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거나 상대적으로 여성이 착취당하하거나 하는 구조적인 폭력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끄덕끄덕 맞장구]

난다 님의 글을 읽으니 여러 가지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왜 청소년의 성을 사회가 금지할까, 언제부터 금지되었고 왜 금지되었어야 했나, 청소년에게 성이 과연 위험한가, 위험하다면 누구에게 위험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그동안 제대로 던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내부의 성별 권력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왜 학교가 두발규제를 하면서도 여학생의 머리 길이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할까? 여학생에게 머리를 더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은 과연 관대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통제일까? 왜 청소년 인권활동가 중에는 십대 여성이 별로 많지 않을까? 왜 청소년 인권모임 안에서도 연애가 깨지면 여성이 활동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 걸까? 학교 안 성희롱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생리결석 문제는 왜 청소년 인권운동 안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나?

아직 우리 사회에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지지 못했지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난다 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이주의나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억압 등 넘어할 고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과 관계된 성폭력 사건이나 청소년의 성경험 등을 다루면서도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되고요.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성에 대한 솔직한 자기 경험과 어떤 때 성별 권력 관계에서 억압을 느끼는가에 대해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그게 중요한 첫 출발이 될 수 있겠지요 [배경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여성주의 팀 세미나 1차 자료 목록」, 2008. 10. 28.

여성주의 팀 세미나 1차 자료 목록:

- * 고정갑희, 「학교, 가족, 시장의 공조체제-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교육」, 『여성이론 제4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 * 또하나의문화 편집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 또하나의 문화, 2003.
- * 배경내,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아동 : 아동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진보평론 제17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 * 조주은, 「‘정상가족’은 정상이 아니다」, 『여성과사회 제16호』, 창비, 2005.
- * 한국여성연구소, 『새여성학 강의 개정판』, 동녘, 2005.

여성주의 팀 세미나 2차 자료 목록:

- * 정미숙, 「청소년 성평등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을 향한 도전, 이제는 소녀들의 파워다: '소녀'로 성장하기, '소녀'들의 힘기르기』,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7.
- * 우옥영, 「학교 현장과 '여성', '평등'에 관한 문제와 대안」, 『십대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은 가능한가? : 청소년 성평등 정책 포럼』,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6.
- * 원미혜, 「십대/여성 정책의 도전과 과제 : 적극적 조치, 실질적 평등의 관점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4집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7.

〈빨강 물고기 시즌 2-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웹자보, 2008. 12. 13.

다시 시작하는 청소년 인권 놀이터

빨강 물고기 시즌 2

갑갑하고 좁은 어항 같은 학교, 학원, 집, 거리, 그리고 사회.
 물갈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썩어가는 어항 속에서
 우리는 배꼽배꼽 아가미를 허덕이며 처절한 자맥질을 해냅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
 주문을 외워보세요.
 순간, 세상이 짜잔~ 하고 변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속 한편에서 빨강 물고기 한 마리가
 꿈틀대며 헤엄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청소년들의 마음 속 빨강 물고기를 위해
 청소년인권놀이터 "빨강물고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빨강물고기 시즌2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을 같이 재밌게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청소년인권에 관심 갖기 시작한 분, 청소년인권운동의 주변을 맴도는 분,
 발칙한 청소년 행동에 힘을 보내고 싶은 분 모두 헤엄쳐 오시길.
 나이와 권위를 잇는 비청소년 분들도 환영입니다.

12월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Girl Feminism),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girl 걸 페미니

며: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장소: 전교초 서울지부(아수역 7번 출구 승지빌딩 8층)

"집밖으로 걸/어 나간다"는 지금까지 외부의 비판이나 개입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집/가족에서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여성의 독립과 자립의 꿈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같이 만들려
 합니다.

<프로그램>

시작부터 기대되는 오프닝, '말괄량이 삐삐 룩스타킹'
 여성과 청소년이 권력을 지닌 세상, 석탈곡 '이갈리아의 자식들'
 드라마와 영화 속 가족의 천태만상을 분석한, 몇 가지 쟁점 토론

이와 함께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여성주의 팀이 새발췌 발간한
 '미니 자요집'을 연말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상세 문의는 카페(cafe.daum.net/youthhr)
 손전화(한달 011-9014-8304)를 이용해주세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빨강 물고기 시즌 2-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자료집, 2008. 12. 13.

◆ 특별 기고

고달_ 만화 “가족처럼 모셔요”



◆ 걸 페미니즘 1

울 가족? 뭘 쓰지? 뭘 쓰지? 방바닥에서 뒹굴뒹굴거리며 고민하다가, 마침 동생이 옆에서 TV 보고 있길래 함 물어 봤다. “아, 너한테 가족이 뭐냐?” 뚱한 표정으로 대답을 앓더니, 흘깃 방문 밖을 내다보고 나서 툭 내뱉은 말. “귀찮은 거.”

멍답이다, 멋져부러.

마침 거실에선 셋째가 한참 엄마에게 갈굼을 당하고 있던 중이었다. 친구집 좀 작작가라부터 시작해서 방은 왜 이 꼬라지냐 빨래는 왜 자꾸 만들어 내놓느냐까지, 딱 내가 미연이만 하던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자주 들던 소리들이다. 왜 귀찮다고 했는지 십분 이해가 갔다. 엄마의 잔소리는, 한 마디로 소음공해다. 시끄러울뿐더러 신경을 마구마구 긁는다. 나한테 하는 말이 아녜데도 듣고 있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카악. 욕 좀 하지 말란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리 없는 절규도 몇 번씩 하게하고. 이런 소음공해를 하루 평균 꼬박 한 번씩 들어야 한다는 건 분명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 밖에도 이 집안엔 귀찮은 것들이 넘쳐난다. 우리 집은 무척, 시끄럽고 정신없고 지저분하다. 자그마치 일곱 식구다. 부모 둘에 자식은 다섯, 그것도 딸만 다섯 오 자매다. 방은 치우기가 무섭게 어질러지고, “조용히 좀 하자” 소리는 무한반복 해봤자 무한히 씹힌다. 그나마 요즘은 세 꼬맹이들(셋째 12살, 넷째 9살, 다섯째 6살)이 좀 크긴 커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아, 근데 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게 단순히 꼬맹이들이 자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엔 여러 겹의 속사정이 있었다.

오자매 사이엔 명확한 서열이 있다. 둘째가 대뺑이고, 세 꼬맹이는 딸마니들이라는 구도인데, 세 꼬맹이들 사이엔 셋째가 또 나머지 둘보단 위치가 높다. 꼬맹이들이 예전보다 조용해진 것도 이런 서열구조의 영향이 있었다. 둘째가 심하게 장난치고 떠든 애에게 손들기 등의 벌을 내리며 제압을 시도하던 것을 시작으로, 애들이 점점 얹전해졌다. 둘째의 스파르타식 교육과정으로 인해 아이들이 서서히 길들여져가던 모습을, 나는 보았느니. 둘째가 무섭게 굴수록, 처음엔 장난 같았던 벌이 점점 진지해지고(흡사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그것처럼)애들이 둘째 말이라면 찢절매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둘째의 “조용히 해!” 한 마디에 꼬맹이들이 정말로 조용해지 것쯤은 일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둘째가 물 떠오라하면 셋째가 군말 없이 물 떠오고 셋째가 공책 좀 갖다달라고 막내한테 시켰는데 막내가 말을 안 들으면 “야!” 왈왈하면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식의 문화가 또아리를 틀었다. 보면 여기저기 명령 식 말투가 난무한다. 이거해, 저거해, 안 해? 험악한 목소리. 대충 스치듯 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데, 정신 차리고 제대로 들여다보면 좀 무서울 정도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난 뭘 했느냐 하면, 철저히 방관했었다. 둘째가 애들 데리고 뭘 하든, 애들 조용히 시켜주니까 좋길래 그냥 내버렸다. 특별히 스파르타식 교육에 나서지 않아도 난 둘째보다 언니고, 그것만으로도 둘째는 나가진 통

제하지 못 한다. 그 결과 아무 일 안 해도 자연스레 난 꼬맹이들한테 윗대가리였고, 나 역시 물 떠오기 같은 심부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켰었다. 권력, 강자와 약자는 가족 내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언니가 동생한테 그런 것쯤 시킬 수도 있지’는 개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시키고 명령할 수 있다니, 시키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에게 갖는 폭력성은 그 어떤 허울로도 가려지지 않는다. 그 허울이 가족이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권력에 대한 애길 조금만 더 해보자면, 사실 서열의 최상층은 말할 것도 없이 엄마 아빠다. 예전엔 아빠가 엄마보다 컸었는데 이젠 둘이 비등비등하다. 엄마 성격이 워낙 팔팔해서 가끔은 엄마가 아빠보다 위일 때도 있다. 엄마가 아빠와 위치가 비슷해지고 가끔은 더 위도 될 수 있게 된 시점은 엄마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아빠에 비해 훨씬 돈을 적게 받는 아르바이트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부터 부쩍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빠가 일을 그만두고 엄마만 일을 하던 무렵엔, 엄마의 파워가 그야말로 최고조, 엄마가 대빵 아빠는 깨갱이었다. 이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알게 된 건, 부부 사이의 권력관계는 경제적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구나 하는 거였다.

내가 올 가족을 생각하며 떠올렸던 단편 몇 개를 늘어놓았다. 말 그대로 단편이다. 자매들 사이의 위계관계, 경제적 능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부 사이의 권력, 써놓고 보니 어째 조금 부정적이다 싶은 느낌의 것들 밖에 없지만, 이 글 밖의 우리 가족은 권력이니 뭐니 내가 했던 말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인방에서 쇼프로를 보며 완전 화기에애하게 웃고 떠들고 있다. 글 안에 있는 것만이 전부 아니다. 또한, 지금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역시 우리 가족의 전부 아니다.

동생은 가족을 ‘귀찮은 거라 말했다. 엄마가 생각하는 가족이 뭐고 아빠가 생각하는 가족이 뭐고, 둘 한테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가족 속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 지는, 엄마의 잔소리와 아빠의 술주정을 통해 대충은 알고 있다. “내가 집안일 하는 기계도 아니고 말야.” 엄마의 한탄,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다들 정말 그리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가슴이 서늘해졌던 아빠의 푸념.

가족 안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이유로 제대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나만 해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에 시야가 가려져 그동안은 올 가족들 노는 꼬락서니(군대를 연상시키는 자매들 사이의 문화 등)가 어떤지 잘 모르고 살았다. 가족이라는 덮개를 걷어치우고 나면 보인다. ‘나를 평화로운 우리 집’ 이라는 환상 뒤에 있는 실체가 보인다. 자신을 집안일 하는 기계로, 돈 벌어오는 기계로,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며 사는 개인들이 보이고, 서로를 그런 기계로 강제하는 엄마라는 위치, 아빠라는 위치, 자식이라는 위치의 굴레가 얼마나 그 개인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지가 보인다. 가족이라는 평화롭고 따사로운 단어와는 전혀 안 어울리는 ‘권력’ ‘위계’ ‘강자’ ‘약자’ 등의 단어가 올 가족 내에서도 얼마나 횡행하고 있었는지가 보인다.

내게 있어 ‘가족’은 그냥 나랑 같이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좋은 가족’을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위계 따위가 없는 관계를 맺는 일에는 관심이 있다. 중요한 건 엄마랑 아빠랑 동생들이랑 나랑 가족이란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걸 쓰면서 처음 한 생각이다. 자기 가족 뜯어보기, 요거 요거 꽤 괜찮다. 이 글 읽은 사람들도 다들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추천!

‘어머니 CEO’와의 투쟁이 시작된다?

“학생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세요.”

두 달 전, 무한 경쟁을 조장하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 기다란 현수막을 펼쳐 든 몇몇의 여성들이 이들의 행렬을 가로막았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소속이라는 이 여성들은 생태학습 등의 편법으로 학생들의 시험 볼 권리를 막는 전교조 교사들을 규탄하며,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등교거부가 의무교육의 교육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이들 논리의 부당함은 둘째 치고, 이들이 이렇듯 강력하게 ‘학모’의 정체성을 띄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가 자못 궁금해졌다.

강남 엄마 열풍, ‘어머니 CEO’ 등 요즘 기혼 여성의 대세는 ‘자녀 교육 매니저’란다. 물론 특정 지역,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보통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실현 가능한 일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꿈의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학원 하나 과외 하나 더 보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들이 수도룩한 것으로 볼 때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많은 어머니들의 욕망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가족 안에서의 권력은 어른, 그 중에서도 남성 가부장(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은 거의 어머니가 전담하기 때문에 자녀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간섭은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성년’인 청소년의 권한을 부모(어른)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충동적인’ 청소년이 자신의 욕망을 솔직히 드러내는 순간 그 충동은 어머니와의 싸움으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피곤해서 학원을 빠지거나, 기분 전환 삼아 염색을 했거나, 애인과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발각’되는 경우 그것은 곧장 ‘일탈’로 규정되고 용돈 삭감 및 외출 금지 등의 ‘규제’로 이어진다.

어머니는 가부장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분명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서있다. 그러나 청소년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그들을 규율하고, 관리하는 억압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요즘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어머니의 압박의 정도 또한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현재적 권리를 주장하며 가족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는 청소년은 어머니를 적으로 삼아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일까?

동전의 양면- 가족 내 어머니 역할의 강화와 청소년의 억압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포괄적인 애정을 모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미지화 되어 있다.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앙 속에서 자식을 움켜 안고 죽은 어머니의 모습은 사랑과 헌신으로서의 모성의 발현으로 추앙받는다. 이와는 달리 자식(주로 아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이끄는 어머니의 모습은 뒤틀린 모성의 예로 영화나 드라마에 곧잘 등장한다. 모성의 본질이 사랑이든 집착이든 간에 둘 다 모성을 여성이 가진 본래적이고, 자연적인 품성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모든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서 초인에 가까운 용기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에 어머니가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여성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을 쉽게 여성의 고정적인 특성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것이 특정 시기 이후에 더욱 강조되었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제도화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순진무구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기의 탄생과 모성을 전제한 여성의 어머니 역할의 강화는 동시에 이루어졌다. 가족이라는 말이 같은 핏줄의 부모와 자녀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근대 자본주의 등장부터이다. 가족이 부부 중심의 폐쇄적 단위가 되어감에 따라, 그 단위의 산물이자 유지의 근거이기도 한 아이의 존재가 더욱더 중요해졌다.¹⁾ 아이의 양육과 미래에 대한 책임은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이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모성을 지닌 어머니의 역할이자 의무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여성의 무모수 노동에 기대 값싸고 안정적으로 재생산을 담보해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복원한 국가 정책의 결과 여성과 아동/청소년은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겪게 되었다. 여성은 사적 공간인 집에 유폐되어 어머니와 아내로서만 그 역할을 인정받았으며,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각종 권리를 부모에게 위임하는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제도화된 모성, 어머니와 청소년의 굴레

특히 우리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모성의 실현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났다. 해방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의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개인의 보호는 오로지 가족에게 달려있었다.²⁾ 가족의 이해가 곧 나의 이해와 일치하고, 내 자식이 잘 되어야 나의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내 자식에게 나와 같은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어머니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소를 팔고, 전답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켜 계층 상승을 이루겠다는 환상이 어머니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이들 중 절대다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각종 교육비용에 휘둘리며 부잣집 자식들과 몇몇 특출한 자식들이 성공하는 틈바구니에서 들러리 역할을 할 뿐이었다. 현실과 이상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여전히 교육의 관문을 통과하여 사회적 성공을 거머쥘 수 있으리라는 환상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은 경쟁 사회에서 가족을 성공으로 이끄는 재테크, 자녀의 입시 경쟁을 성공적으로 지휘하는 능력 있고 적극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강조되면서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쥐고 주체적으로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³⁾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 자신으로서의 삶의 주체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화된 모성의 역할이 끝나고 어머니에게 남는 것은 사회 보장 제도 없는 사회에서의 빈곤하

1) 배경내, '아동기의 신화를 넘어', "200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2) 임옥희, '제도화된 모성과 자녀 교육 히스토리', "여성이론 4호".

3) 이박혜경, '신가족주의와 여성', 여성학 특강 발표문.

고 우울한 삶일 뿐이다. 모성은 사회적인 비용 부담을 개별 가정의 여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자녀 양육의 문제를 전적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만 축소시킴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제도화된 모성은 여성의 삶을 옥죄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집안에서의 자녀, 즉 청소년의 억압과도 연결된다. 가족 내에서 제도화된 모성이 실현된다는 것, 양육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동시에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의존도가 절대적인 청소년은 무권력 상태에서 학대와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모성이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아닌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권력의 차이에서 오는 경제적, 정서적, 문화적 분배의 문제임⁴⁾을 살피는 것은 가족 내에서의 청소년의 억압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핵심적이다. 집에서 노동하는 여성에게 집이 사적 공간이 아니듯, 청소년에게도 집은 사적 공간이 아니다. 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학습하는 공간이며, 더욱이 학교 교육에서의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집은 학업 수행의 또 다른 공간으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기 전 잠시 머무는 공간,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수면을 취하는 공간인 집은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규율과 규칙이 아이들을 지배한다.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한 '어머니 CEO' 현상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경우 집에서의 억압의 강도가 강화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가족이 경쟁의 단위로 부상하면서 학교, 사회에서의 압박이 노골적으로 가정 내에서도 지속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사처럼,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감시 및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청소년은 자기 여가, 학업, 노동에 대한 계획에서 더욱 소외되고 관리의 대상자로만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친부모이거나, 친인척이거나, 아동보호시설이거나. 아이들의 욕망은 '아무도 모른다'

가족 내에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강조는 어머니인 여성 자신에게도, 그 역할의 대상자인 청소년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모성이라는 제도화된 굴레를 통해 양상은 다르지만 중국에는 공통의 사회적 이탈을 겪고 있는 어머니와 청소년은 함께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서야한다. '어머니가 청소년의 적'이라는 문제 설정으로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어머니와 소통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자'는 식의 해결책은 느슨하기만 하다. 어머니와 청소년의 모순된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기존 가족의 개념과 자녀 양육의 개념 자체에 판지를 거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극단적인 물리적인 폭력만이 가족 안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학대 또는 폭력이라는 기존의 좁은 인식의 틀을 바꿔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권력관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청소년이 직접 자기 권리의 주체로 일어설 수 있으며 어머니 또한 새로운 관계망 속에서 자기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모의 권력이 보장되는 제도화된 산물인 친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던져져야 한다. 최진실 씨의 죽음 이후 친부인 조성민 씨에게 자연스럽게 친권이 부활하게 되는 법령의 허점을 놓고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친권 결정이 나와 한다"는 여성계의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친권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를 위한 친권은 없다. 친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무력화와 삶 전반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전제하기 때문에, 친권개념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고서 가족 내 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⁵⁾

4) 임옥희, 앞의 글.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혈연 가족 중심의 가족 제도의 해체, 특히나 같은 피를 나눈 부모에 의한 청소년의 양육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혈연 가족 중심주의는 여성이 ‘어머니’가 아닌 다른 존재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약하고, 청소년이 부모나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과 가족을 꾸릴 경우 ‘비정상’적이고 결핍된 환경에 놓여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끝을 맺는 입양아 친부모 찾기 TV 프로그램만 봐도 우리 사회의 척박하고 결핍된 가족관이 여실히 드러난다. 막연히, 맹렬하게 친부모(주로 어머니)를 찾는 입양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송 내용에서 그들의 결핍된 정서를 강조하고 친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배경을 유독 구슬프게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양아⁶⁾ 자신이 느끼고 있는 욕망과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에 혈연 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중시하는 이 사회의 강력한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에 의한 아동의 양육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그 당연함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은 아무런 사회적 지원도 없이 위험 상황에 노출된다. 어머니가 떠난 후,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다 발견된 4명의 아이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정상 가족 중심 시스템의 허점과 그 외곽을 잘 보여준다. 당국에 신고하면 아동보호시설에 분산되어 들어가야 하니 신고할 수도 없고, 나이가 어려 취업을 할 수 없으니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도 없었던 아이들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죽거나 ‘아무도 모르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해 간다. 아이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주어진 선택지대로 양육될 수 있을 뿐이다.

즐거운 우리 집? 지겨울 뿐이지!

청소년은 오지랖 넓은 어른들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주체적 권리와 독립과 자립을 필요로 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사라져야 여성이 가족 내에 묶여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명분인 모성 이데올로기와 청소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의무 역시 사라질 수 있다. 여성이 어머니 역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이에 대한 유기 또는 책임 방기가 아니다. 도리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가족 또는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구멍난 사회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진실을 건드리는, 까칠하고, 버릇없고 그리고 위험한 청소년과 여성들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여성이 함께 집밖으로 걸/어나가야 ‘즐거운 나의 집’의 환상은 깨질 수 있다.

5) 친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 자료집의 공현 글 참조.

6) 성인이 되어 부모를 찾는 경우 더 이상 입양 아동이 아닐 텐데, 계속해서 이들을 ‘입양아’라고 호명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의 어릴 적 입양 경험을 강조하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부각시키는 명칭은 아닐까.

교과서나 백과사전에서 흔히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자 매우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는 ‘가정’에도 ‘폭력’이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은 ‘가정폭력 등 특례법’이나 ‘가정폭력방지특별법’처럼 법 명칭에서도 공식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말이다. 아니, 사회의 기본적인 중요한 구성단위이자 ‘건강’(‘건강가족’)해야 할 가정에 폭력이라니! 더군다나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정도로 그 실태가 심각하다니!

이 ‘가정폭력’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과 자식에 대한 부모/어른의 폭력이 있다. 가정폭력에는 이와 다른 가정폭력의 유형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유형으로 저 둘을 꼽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저런 폭력들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셋을 꼽는다면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도 포함될 것이다.)

가정폭력을 가족 간의 사적인 일로 간주하고 개입을 꺼리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청소년·아동에 대한 폭력을 ‘체벌’이라고 하며 그 정도가 극히 심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인식은 자식에 대한 가정폭력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이야기를 낫설게 느끼겠지만 말이다. 그나마 여성(아내)에 대한 폭력이 범죄이며 폭력이라는 인식이 옛날보다는 조금 더 확산된 건 여성운동의 성과라고 해야 할까? 다만 분명해보이는 것은, 현재의 가정이 청소년과 여성 등 약자에게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가정에서 청소년들은 이런 직접적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인권침해나 제한을 당연하게 경험한다. 여성들도 여러 가지 제약, 불평등, 인권침해 등에 노출되어 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글에서 언급될 테니 포괄적으로만 표현될 테니 넘어가고, 이처럼 폭력들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빈발하는 것에는 그런 폭력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조건과 구조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 조건과 구조는 가정/가족의 조건과 구조일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가정/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자체의 조건과 구조이기도 하다. 가족과 사회는 제법 끈끈한 공모 관계에 있다.

권리이자 의무라는 이중 불행

친권은 청소년의 가족 안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하기 위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개념이다. 흔히 친권은 권리이자 의무라고들 말한다. 이 말은 실로 친권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친권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친권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억압할 권리(권력이라고 해야 옳을까?)인 동시에 친권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의무라는 점에서 말이다. 말하자면 이중의 불행인 셈인데, 민법상 친권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권 행사 대리, 법정대리인 등등도 그렇지만, 포괄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통용되는 친권은 더욱 그렇다.

친권을 가진 사람은 NEIS 시스템이나 성적표나 에이즈 감염 사실 통보나 위치추적 등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청소년의 정보인권이나 사생활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침해할 수 있으며, 거소지정권이나 징계권이나 보호·교양의 권리 등을 근거로 청소년들의 삶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강압적 힘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해서, 징계를 한답시고 학대를 하거나 말라비틀어질 정도로 굶기거나 하지 않는 한은, 적당히 두들겨 패거나 감금하는 것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친권은 가족에서의 청소년인권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주요 요소이다.

그러나 동시에 친권을 가진 사람은 청소년을 양육할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떠맡는다.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이 나라에서 들어가는 돈도 돈이고,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질서를 조금이라도 어지럽혔다 하면 금방 자식을 어떻게 키웠나, 가정교육이 안되었다, 등등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사회적 보장 및 지원이나 교육 등은 부족하고 미비하기만 하고 교육 시스템도 막장이지만 어떻게든 키워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는 이 사회에서 양육을 맡고 있다고 간주되는 여성(어머니 등)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정/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에서 친권의 재구성은 피할 수 없다. 친권은 약화되어야 하고 분산되어야 하고, 어찌면 사라져야 한다. 친권이라는 게 법적인 것인 동시에 워낙에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니만큼, 가정안에서의 청소년인권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의식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1~2인 친권자의 독점적인 영향력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공동 양육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친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으니, 그 중 으뜸을 '주거'의 문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집 떠나와... 어디로?

“집이나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연은 너무나 기구하고도 장대하기만 한데, 이 넓은 지구 위에 막상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는 게 가솔이 지나는 보편성이다.”

김진숙 씨가 『소금꽃나무』 중 「눈이 없는 용」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열다섯 살 가솔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첫 부분에 쓴 이 말처럼, 가족/가정을 나오면 우리는 이 넓은 지구 위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자신을 보게 된다. 물론 아주 잠시 몸을 의탁할 곳들은 있을 수 있다. 찻집이나 여관(그나마 이조차 '청소년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다.)이든, 친구 집이든, 친척 집이든. 그러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주거를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도 가솔을 그동안 서너 번 정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같이 사는 강아지의 처우 때문에, 성적이나 학원 등의 압박 때문에, 그리고 진로 문제 때문에 등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 공통점은 가정/가족에서 부모에게 종속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부모의 뜻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삶에 회의를 느껴서, 아니면 그런 것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저것 행동에 앞서 생각하는 게 많은 성격이었던 내가 가출을 결행하지 못한 것은, 집을 나와서 결국 갈 곳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가정/가족에서 부모에게 종속되어 사는 삶이 불행해서 그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보려고 가출을 생각하는데 도무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갈 곳은 훈련소 아니면 기숙사(기숙학원??) 말고 다른 어디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

이는 따져 보면 이 사회 일반적인 주거권 및 부동산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가정을 떠나서 새로 살 주거공간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부동산 거품 사회에서, 3~4명(가족)이 연합해서 돈을 벌어도 집 하나 구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가족/가정을 떠나서 살 곳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적 권리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나, 더 많은 노동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주거 현실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정/가족에 대해 불만을 느끼거나 거기에 매여 있는 삶에 불행을 느끼더라도 쉽사리 가정/가족을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현재의 가족/가정을 넘어서 대안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사람들의 주거권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들이 가능하겠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청소년 생활 보조(또는 소득 보전), 노동 기회 확대 등과 가정에서 벗어나더라도 주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시설이나 시스템 확립 등을 이야기해볼 수 있다.

가족 복원의 꿈?

가족에 대한 이런 지적들을 '배부른 소리'라고 일축해버리려 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란 것을 안다. TV나 신문에 연일 나오는 것은 가정이 없어서, 가족을 잃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들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족을 잃는 것 / 가족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너무 분명해 보이는데, 어찌 가족을 해체시킬 게 뻔한 그런 위협스러운 주장을 하느냐는 것이다. 가족에 종속된 삶을 벗어난 독립을 꿈꾼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가장', '고아', '10대 미혼모', '조손가정', '붕괴된 가족'의 삶을 비추는 영상들은 가족 없는 삶의 피폐함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등,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추구하고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와 조건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질문해보아야 한다. 왜 가족이 무너진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가족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고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사회적 보장들은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의 반증이며, '정상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습들이 강고하다는 의미이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요구도 정확히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라는 요구이자 평등에 대한 요구로 보는 것이 옳다.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청소년과 여성의 더 독립적인 삶을 위한 이야기들은,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이런 '정상 가족'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불행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오히려 가족 복원을 외치며 '건강 가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불행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족은,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이 사회의 기본적 구성단위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가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행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불행한 가족'은, 가족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회복한 가족", "즐거운 집", "가화만사성" 등등의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행과 폭력을 필연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가족을 복원하는 데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재구성하고 서로 더 독립적일 수 있고 더 평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



<이갈리아의 딸들>. 처음 이 책을 접하고 읽는 동안, 이상하게 잘 읽히지 않아, 몇 번씩 되돌아가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를 반복했다. 보통 나는 글이나 책 같은 걸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이미지나 그림을 떠올리며 읽는 편인데, <이갈리아의 딸들>을 읽는 동안은 그림이 잘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오는 '움', '맨움' 등의 생소한 단어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참고로, '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 '맨움'은 '남성'을 뜻한다.) "결국 아이를 돌보는 것은 맨움이야."로 시작되는 이 책의 첫 장면부터 나는 '익숙하지 않음'을 감지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무엇이 익숙하지 않았던 걸까? 왜 익숙하지 않았던 걸까?

뱃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페트로니우스, 맨움이 무슨 뱃사람이냐고 비웃는 여동생 바, 맨움의 페니스를 받쳐주기 위해 맨움들이 입는(입어야 하는) 폐호, 신문을 보며 큰 소리로 투덜거리는 아내를 위해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는 남편, 그렇게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일명 '하우스바운드(housebound)'로 묘사되는 맨움들. 그렇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과 남성이 뒤바뀐 채, 등장한다.

여성과 남성이 뒤바뀌었다니,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될래?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다. 지금이 무슨 남녀 차별이 있느냐, 지금은 남성/여성이 평등한 시대다, 여성들도 바깥일을 하질 않느냐, 집안일도 나눠서 하지 않느냐, 조선 시대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다르다. <이갈리아의 딸들>에서의 일상생활들, 인물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새삼스럽게.

이 소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게 된,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콕콕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특히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니까...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사실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한 것들로 가장 대표적인 월경, 임신, 출산이 그것이 어떤 사회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얘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갈리아에서는 여성의 월경, 임신, 출산은 굉장히 성스럽고 위대한 일이다. 여성, 움의 특권인 것이다. 이러한 이갈리아의 움의 특권은 움이 자연과 생명이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다. 여성들의 평균 월경 주기가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갈리아의 달력을 아마 이 월경 주기를 한 달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갈리아의 일년은 열 세달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도 여성이 자연과 가깝다는 것은 꽤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로 얘기되어왔다. 이것 또한 남

성중심적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았던 것들이 사실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아닐까 싶다. 소설 곳곳에서 틈틈이 발견되는 '신조어들도 나를 콕콕 찢러주었다. 무심코 받아들였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남성중심적인지 알게 해주었다. 역사를 herstory로, 영웅을 sheros로. 제일 눈에 띄는 건 단연 '웬(wom)'과 '맨웬(manwom)'이다. 영어의 '우먼(woman)'과 '맨(man)'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분명하다.

<이갈리아의 딸들>이 보여주는,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지금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느새 '맨웬'의 입장에서 '웬'을 원망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건 더더욱 아니다.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방식-서로가 대립하고, 싸우고, 원망하게 되는-이 아니라, "그래서 불쌍해"/"그래서 여성들이(남성들이)문제야"라는 결론이 아니라, "쭈쭈뽕뽕한 그녀"를, "볼륨업 예쁜 몸매"를, "발과 척추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예쁜 하이힐!"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세상을 함께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다.

“대리 크리스마스” 가 아닌 “안티 크리스마스” 를 제안해요

크리스마스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구세군냄비나 자선? 서로 사랑하는 남녀 커플? 눈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만 받아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 이야길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집에서 부모에게 또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서 가족과 함께 있기 싫은 청소년이나 여성/ 결혼할 생각이 없는 비혼 여성/ 이성이거나 당연한 것처럼 넘쳐나는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압박스러운 동성애 커플/ ‘크리스마스 때만 따뜻한’ 자선의 손길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먹고살 것과 제대로 된 집을 보장해줘서 언제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이그화도가네트외크는 가족/가정에 믿음표를 달고 청소년이그의 입장에서 가족/가정을 고발하고 재구성하는 활동,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를 준비하고 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의 가족주의, 이성애주의, 온정주의를 비판하고 비탄하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의 문제의식을 알려나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크리스마스 카드 대신 인견 카드 나눠주기/ 가족주의나 이성애주의, 온정주의를 비판하는 전시/ ‘민중캐럴’ (또는 ‘저항캐럴’) 패러디 공연/ 크리스마스 날만 선물을 갖다 주는 산타가 아니라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바꾸자고 말하는 ‘블랙 산타’ 활동 등 여러 가지 상상들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कै러라 시위를 할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모집중 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이게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력쿠저력쿠 공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청소년이그단체만 할 일이 아니라 여성단체, 동성애단체, 사회고성이나 사회권에 관해 응을 하는 단체들도 다 같이 해볼 만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 단체들에게 어떤지 조심스레 제안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대리 크리스마스” 가 아닌 “안티 크리스마스” 를 위한 활동, 계획과 같이 해보지 않으실래요? ^^

엠건, 「[내 말 좀 들어봐]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걸 페미니스트의 가족 바라보기」, 인권오름 제134호, 2008. 12. 24.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걸 페미니스트의 가족 바라보기

엠건(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걸 페미니즘이라고?

청소년인권과 페미니즘의 만남, 이 말이 내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깔끔하게 ‘걸 페미니즘’을 설명한 말인 것 같다. 청소년이라는 위치와 여성이라는 위치는 여러 모로 닮은 면이 많다. 촛불집회에서 “여자, 애들은 뒤로” 소리를 들으며 ‘배제’라는 불쾌한 경험을 공유했던 것도 그렇고, ‘여리다’ ‘약하다’ 등의 이미지에 묶여 있는 탓에 특하면 약자화 되어 성인·남성들의 보호를 강제로 받는 처지에 놓이는 것도 그렇다. 그 뿐인가. 마초 남성들이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따라야” 따위의 뺨소리를 하며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는 모습은 끈대어 른들이 “애들은 암전히 어른 말씀이나 잘 듣고...” 운운하며 권위적으로 청소년들을 대하는 것과 꼭 닮았다. 이토록 닮은꼴이니, 청소년인권과 페미니즘의 만남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청소년인권과 여성인권을 동시에 말할 때, 가장 먼저 또 자주 나오는 얘기가 가정(가족)에 대한 얘기다. 가정은 청소년·여성이 공통으로 억압 받으며 생활하는 첫째가는 영역이다.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여성·청소년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얼마나 억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그런 건 그동안 많이 해봤다.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 한다.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헛갈렸던 부분인데, 단순하게 말하면 ‘인권의 사각지대나 최후의 안식처냐. 정체를 밝혀라, 가족!’ 뭐 이런 거다.

가정(가족)의 두 얼굴, 최후의 안식처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

언젠가 집에 있으면서, 집 밖에서와 달리 인권이고 나발이고 썩 다 잊어먹은 채 못 되게 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펄쩍 놀랐던 적이 있다. 그 때 처음 ‘가족들한테 왜 더 막 대하게 되지?’란 의문을 떠올리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다 감싸주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름답기는커녕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

인데, 뭐” 무심코 해왔던 말이 폭력과 인권침해에 관대하게 만드는 주문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았다. ‘가족’이 무조건적인 이해와 용서를 요구하는 관계임을 의미하진 않는다. 가족이라도 괜찮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분명 존재하지만, 가족이라서 괜찮아야 하는 건 있어선 안 된다. 그런 ‘가족 면죄부’가 가정을 또 하나의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족’이지 않은가. 이때의 가족은 (현실과 동떨어져거나 말거나) 무조건 아름다운 그 무언가다.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

서도 그나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그래도 가족 뿐’이라는 생각. 이른바 최후의 안식처로서의 가족이다. 모든 가족은 이렇다 혹은 이래야 한다는 인식은 사람들의 환상과 기대의 산물에 불과하다.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다. 환상이든 기대든 간에 어쨌거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낀다. 내가 헛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따뜻해 보이는 가족 안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그래도’ 가족에 대한 끈끈한 감정을 버리지 못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은 정겹고 따스한, 이 지상의 마지막 보루다. 실체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느낀다. 이런 사람들을 뭐 어째. 좋다는 데 어찌라구. 하지만 지금 와 다시 생각해보면, 가족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이러한 끈끈한 감정은 방치되어선 안될 ‘함정’이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가족만세’스런(?) 감정이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지 알게 된 후 내가 내린 결론이다.

감정의 함정은 거짓논리보다도 훨씬 더 교묘하고 견고하다. 가족에 대한 감상에 취하는 만큼 내가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이 현실에 상관없이 미화되고, 가족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만큼 가족이란 이유로 폭력마저도 허용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가족 면죄부가 달리 생기는 게 아니다. 전엔 감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거나 했지만 이젠 생각이 다르다. 가족에 대한 끈끈한 감정이 은연중에 가족 내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면, 이 감정은 위험하다.

“가족 내 폭력 등 다 알지만 그래도 가족은 안식처니까 어찌구...”하는 이유로 가족의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건대, 인권의 사각지대로서의 가정과 최후의 안식처로서의 가정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가정은 최후의 안식처’라는 환상(구라)은 가족주의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환상(구라)은 사실상 가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의 보다 깊은 원인이다. 다들 알고 있었다고 난 몰랐다. 그래서 이 기회에 꼬인 머릿속 정리 좀 해봤다. 정리가 나름 잘 돼서 머릿속이 조금 깔끔해졌다.



빨강물고기 자기소개 프로그램 진행 장면

집에서도 불편하게 살자

가정이 정말로 자신의 ‘안식처’인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집이 안식처가 될 수 있냐 없냐의 여부는 가족 내 자신의 위계(권력)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진다. 한마디로, 돈 벌어오는 아빠 등 권력이 큰 사람들한테 가정은 휴식처일 수 있지만, 매일 엄마 잔소리에 깨지고 용돈에 협박당하는 청소년들한테 가정은 결코 휴식의 공간이 아니다. 나는 최근 그걸 실감하고 있다. 어렸을 땐 집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이젠 그러저럭 꽤 편해졌다. 나이가 성인에 근접하면서, 부모가 예전만큼 쉽게 나



“이갈리아의 자식들” 역할극 중 한 장면: 유스 이갈리아는 여성, 청소년이 권력을 지닌 가상의 세계

를 다룰 수 없게 됐으니깐. 빨강물고기에서 유스 이갈리아 상황극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약자로 사는 게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의 남성-성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강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항상 조심한다. 내가 약자인 면만 보면서, 내가 강자인 부분은 모르는 척 하지 않으려고. 가족들이 나에게 가하는 폭력은 거부하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내가 가하는 폭력엔 관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집에서만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기도 하고, 편하게 지낼 곳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정의 구라를 받아들이면서 편하게 살지는 못하겠다. 집에서 ‘역사’ 불편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진다.

[끄덕끄덕 맞장구]

가족/집을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내가 남의 집 일에 간섭하는 것도, 누가 내 집 일에 간섭하는 것도 그리 유쾌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 자신의 집에 대해 왈가왈부 하면 그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과 일치시키고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거리두기. 언제나 문제는 거리두기입니다. 연애든 가족이든 흔히 ‘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자신과 너무 가까워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지요. 사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간섭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의 관계와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대화와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어야 관계의 조정을 통한 합리적

인 판단이 가능할 텐데, 적어도 가족은 그것이 쉬운 공간은 아니지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분쟁의 조정 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의 권력관계에 기대 도덕적으로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집에서 아버지에게 대들면 버릇없는 자식이고, 아내가 남편보다 주장이 강하면 '남편 잡아먹을 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공간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매우 편한 공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억눌러야 하는 억압의 공간이 되기 쉽지 않나요? 그래서 쉽게 사적인 공간이라 여겨지는 곳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또는 잘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 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아내 구타나 아동 학대가 떠오르지요. 그리고 그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꽤나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폭력이 반복되도록 만드는 권력의 차이, 가족 내 여성(아내)과 남성(남편) 또는 자식과 부모 간의 권력 그 자체에 손대는 것은 여전히 불경한 일로 여겨집니다.

집에서 끊임없는 가사노동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집이 사적 공간이 아니듯,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권리를 부모에게 위탁하고 자상한 '보살핌'(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 역시 집이 사적 공간일 수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경제적, 정치적 자립을 지원받지 못하고 온전한 개인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는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질 때 해결될 수 있어요. 집밖으로 나가 거리두기를 시도할 때 관계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것이지요.

울퉁불퉁한 돌덩어리를 매끈한 옥돌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 안에서 빼격거리는 나의 모습은 지워야 하는 욕에 티가 아닐 거예요. 내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즐거운 나의 집'이 나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족 안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이 직접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지요. 반짝반짝 아름다워 보이는 '가족'이라는 허상을 깨는 일은 현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일 거예요. [한낱]

〈빨간 물고기 시즌 2-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밖으로 걸/어 나가자!〉 소장사진, 2008. 12. 13.



[세상을 바꾸는 걸 페미니즘, 집 밖으로 걸어.나가자!]

안티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

정말로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행복한 날일까???

크리스마스. 그날은 악령들이 출몰한다!

“ 크리스마스는 남녀
커플들 쌍쌍이 즐기는
연인들의 날이지! ”
이성애 연애 중심주의 악령

“ 크리스마스에만
나처럼 불우하고 힘없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
온정주의 악령

“ 크리스마스에는
말 잘 듣고 안 우는 착한
아이들만 선물을 줄 거야. ”
착한아이주의(?) 악령

“ 크리스마스는
따뜻한 가족과 함께! ”
가족주의 악령

크리스마스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일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쓰나미처럼 거리에 넘실거리는 가족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온정주의...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 아니다.
울지 않고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겠다는 산타는 대체 뭘미?
사랑하고 연애하라고 외치며 소비를 조장하는 이 거리. 그런데 그속에도
동성애 커플들이 설 곳은 많지 않다.
크리스마스 때 반짝하는 자신 분위기는 이 사회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으면서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카메라에 담는다.

크리스마스 악령들을 퇴치하는 **안티 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

같이 해보지 않으실래요? ^^

게릴라 이동 경로 :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악령이 출몰하는 곳곳!
인사동 북인사마당 1시 - 종각역 2시 - 명동 거리 3시 (예정. 악령들이
워낙 신출귀몰해서 바뀔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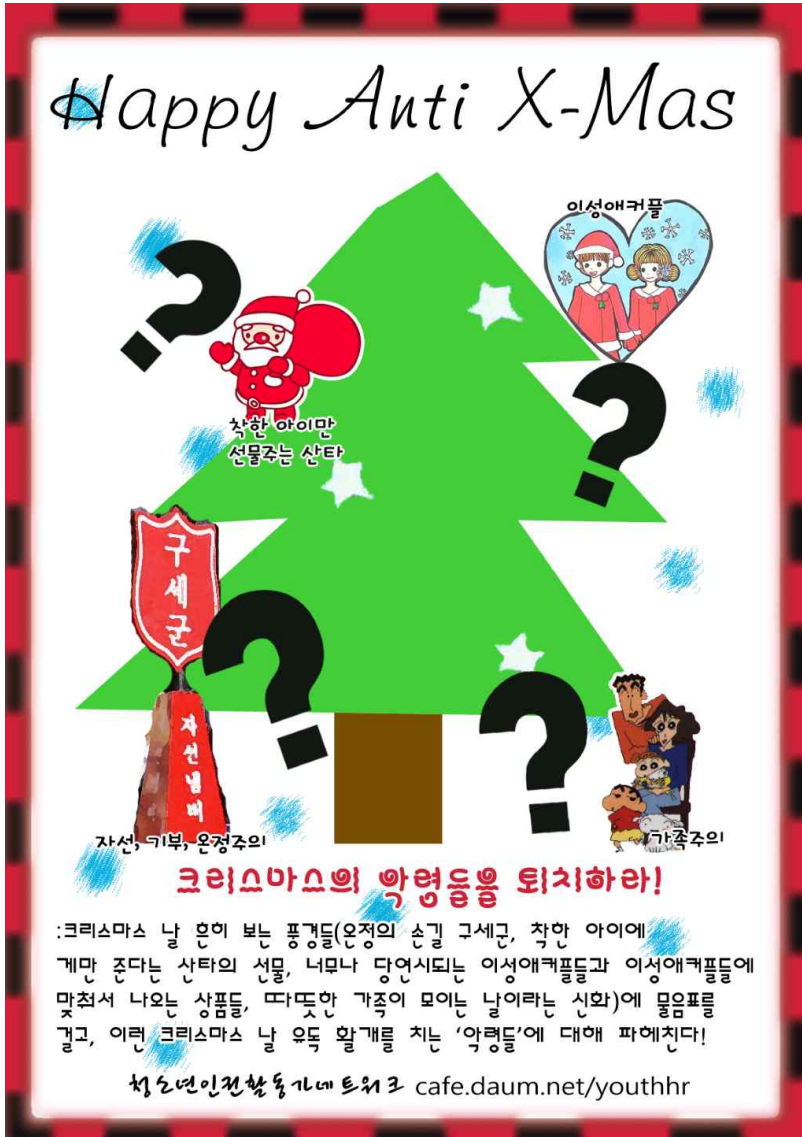
게릴라 아이템 : 악령퇴치 전시물, 저항 캐롤, 블랙 산타 퍼포먼스, 안티
크리스마스 카드 증정 등등

게릴라 드레스 코드 : 검은 계통의 옷과 모자

게릴라 긴급 연락책 : 한남 011-9014-8304 (같이 하시고픈 분들은
문자나 전화를 살포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킹
cafe.daum.net/youthhr

〈안티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 전단지〉, 2008. 12. 24.



우리 곁에 숨어있는 크리스마스의 악령들

악령1 산타의 선물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에게만 준다는 산타의 선물. 산타 핑계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얻고 강요하려는 속셈, 누가 모를 줄 알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가져 살지 않아도 되는 매일매일,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다!!

악령2 커플친구

크리스마스, TV, 상점 모두 이윤을 위해 커플친구를 조장하지만, 친구에 머물 수 있는 커플을 오로지 남-여 이성애를 하는 커플들 뿐. 크리스마스의 연애담론은 성소수자에 대해 생각이나 하고 있나? 대안적 연애, 다양한 사랑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다!

악령3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가족에 대한 편견 하나. "엄마 아빠 자식으로 이루어짐" 편모, 편부, 1인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역시 똑같은 가족! 정상(비정상)가족 따윈 없다고. "집은 따듯한 휴식처다" -- 집에서 여러 폭력, 차별이 썩는다. 청소년인권침해, 여성인권침해 등등 심각! 무턱대고 가족에 대한 환상에 매달리지 말지이다. 가족을 바꾸자!

악령4 구세군

운정의 상징 구세군! 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에 반짝 하는 기부가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 가난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건 못나 사회다. 집과 먹고살 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가 사람들의 운정에만 기대며 보자들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외면하는 길, 이제 그만!

그렇다고 이 악령들이 크리스마스 날에만 잠깐 머물다 사라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 크리스마스 날 유독 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까닭에 '크리스마스의 악령들'이란 이름이 붙었을 뿐, 이들은 365일 언제나 사람들을 곁을 맴돌고 있다! 이들을 전부 퇴치하는 날까지 에벌바티 ANTI X-MAS!

〈안티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 저항 캐롤 가사, 2008. 12. 24.

1) 놀면 안돼?

놀면 안돼 놀면 안돼
놀 정신이 어딴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착한 아이래

명박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명문대인지 지방대인지
일제고사로 알려주신대

잠도 못 자 놀지도 못 해 짜증만 나 살기가 싫어
성탄절만 놀면 뭐해 엄만 공부해라 잔소리

울면 안돼(왜?) 울면 안돼(왜?)
이딴 세상 살면서 울지도 말래
싫어 관둬 이젠 그만해

2) 가방 좀 보자 일기 좀 보자

가방 좀 보자 가방 좀 보자 담배가 들었나
일기 좀 보자 일기 좀 보자 무슨 생각하나

학교에 갇힌 청소년들은 사생활 침해당하며
집에선 체벌 잔소리 감시 오늘도 숨막혀

긴긴해가 다가고 성탄절 오면
당한 것도 잊고서 선물 하나에 좋아해

무서운 학교 갑갑한 가족 바꾸고 싶다면
크리스마스에 속지 말고 뛰쳐나와보자

이성희 기자, 「“명박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청소년들의 ‘저항 캐럴’」, 경향신문, 2008. 12. 24.

“명박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청소년들의 ‘저항 캐럴’

“놀면 안돼 놀면 안돼/ 놀 정신이 어딴어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착한 아이래

명박 할아버지는 알고계신대/ 누가 명문대인지 지방대인지/ 일제고사로 알려주신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저항 캐럴’이 울려 퍼졌다. 저항 캐럴이란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더욱 강조되는 가족주의, 이성애주의, 온정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울면 안돼’와 ‘창밖을 보라’를 개사한 것. 이들은 캐럴을 개사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고사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비판했다.



‘안티 크리스마스’ 운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들. ©경향닷컴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을 ‘크리스마스의 악령’으로 규정했다.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세군’에 대해 “반짝 하는 기부가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 가난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못한 사회”라고 비판했다. 착한 아이에게만 준다는 ‘산타의 선물’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산타를 핑계로 ‘순종’을 은근히 강요하려는 속셈”이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편모, 편부, 1인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으므로 “무턱대고 가족에 대한 환상에 매달리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크리스마스 때마다 당연시되는 이성애 커플들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해 생각한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게릴라 행동단을 조직해 서울 인사동과 종각, 명동 등에서 ‘안티 크리스마스’ 운동을 펼쳤다. 검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 카드 대신 인권카드 나눠주기 ▲가족주의나 이성애주의, 온정주의 비판 전시 ▲‘블랙 산타’ 퍼포먼스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다.

깜깜한 크리스마스
해피 안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친구랑 더 놀면 안 돼?
루돌프의 시급은 얼마일까?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없는 커플들도 있다구!
오뎅고치 사먹어주고 산타 옷 입고 사진 찍어주면 끝인 거야?
근데 우리 집은 철거됐는데? T_T

매년 이맘때 즈음-
크리스마스 시즌에 만날 수 있는 익숙한 풍경들에 불편
함을 느끼며 물음표를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그 물음표, 그냥 던져버리지 마세요!

크리스마스가 불편한 사람들, 크리스마스를 까다!
혼자 까지 않고 같이 까서,
〈깜깜〉한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온 몸으로 느껴보고 싶은 모든 〈깜〉자들은
어여 오삼~ 가서 멀하냐구요? 일단 한번 까봐요!
검은 옷을 입고 와주세요~ ㅋㅋㅋ

나름 이브의 밤~임~
12월24일
오후 3시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홍대입구역 4번출구 근처)

문의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10대 여성주의커뮤니티〈깜〉
난다 : 010-9916-1461

참 깜깜했던 크리스마스

뚝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안티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오는데 애인이 없으니 울적하고……. 근데 '깜'에서 안티크리스마스 액션이란 걸 한단다. 오호라? 기발한 듯? 하기도 하면서 이거 솔로들의 열폭아님— 하기도……. 2008년에도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여성주의 팀에서 하는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깜' 에서(헤엑헤엑) 안티크리스마스 액션 팀이 되어 기획을 하게 되었다. 올해 두 번째인 이 액션은 올해 '



깜깜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뚜껑을 여니 안티 커플보다 좀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이성애 커플 중심주의, 온정주의, 청소년 보호주의, 소비주의를 까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다. 이성애 커플들을 위한 날이 된 크리스마스, 일 년에 한 번 반짝 하는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딸랑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리에 나설 수 없는 청소년들을 만드는 크리스마스, 기회다 싶어 관련 상품을 마구 팔아대는 덕에 휴가도 가질 수 없이 초과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만드는 크리스마스

막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하고 생각하니 또 막막하고..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말풍선 피켓이었다. 서너 명이 하나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풍선을 들고 서 있는 것. 우리는 각 상황에 맞는 말풍선을 만드느라 머리를 쥐어짰다.

말풍선에 간단한 상황을 담고 그 이야기에 대해 발언하는 식으로 캠페인을 했다. 포장지에 구호를 적은

스티커를 붙인 '깜 껌' 을 나눠주고, '밟을 거리'에서 우리가 지근 지근 밟아주고 싶은 것들을 적은 종이를 밟기도 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려고 멈춰서고, 힘내라고 응원하거나 호응했다. '밟을 거리'를 밟고 지나가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있었고 내가 로리타양복을 (로리타복플렉스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입고 갔었는데 어떤 분이 내 모습을 그려주시기도 했다. 두 시간 정도 했는데 나중에는 다들 목이 쉬고 너무 추워서 다들 고생을 했다. 사진에 있던 것처럼 알바몬을 광고하는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기도 했는데, 광고를 잘하고 있나 감시하는 사람들(정말 뜨악했다. 그걸 감시할 인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광고 일을 하면 될 텐데..ㅎㅎ)이 와서 같이 하지 말라고 했다. 씩씩했다.



홍대 거리에서 배포했던 '깜 껌'과 전시했던 '밟을 거리' 사진: 박 김형준

세상의 찌는 것들!

여러 비정규직 알바들의 초과노동이 있어야 빵집에서 케익도 사 먹고 밤늦게까지 문 여는 술집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완성된다. 기업들은 크리스마스가 대목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더 고생하는 날일뿐이다. 마음껏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성애 커플이고, 솔로는 참 '처량하게' 집에서 TV영화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커플들이 넘치는 거리가 더 외롭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 커플의 경우는 모처럼 데이트를 즐겨도 칙칙하게 같은 여자들, 남자들 끼리 몰려다닌다는 측은한(?) 시선을 받기 일쑤. 사람들은 자선냄비에 돈을 넣고는 나는 좋은 일을 했고, 이 세상은 참 훈훈한 곳이라 생각하고는 산뜻하게 다음 1년을 보낸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타고 정부주관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좀 하고, 정치인들도 기부 비슷한 거 좀 한 다음, 우리나라는 참 복지 좋은 나라라는 뺨을 친다. 청소년들은 '어린 게' 늦게까지 밖에서 싸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찍일찍 집에 돌아가서 가족하고 꼭 '부모님하고' 지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은 어찌라고)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강요당해서 그나마 밤늦게까지 놀 수도 없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은 다시 학교와 학원에서 짊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좀 더 발랄하게

거리에서 이런 것들에 관해 우리가 발언을 하면서 참 발랄한 방법이긴 했지만 마냥 발랄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말했는데, 너무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안들

도 당사자에게는 정말 급하고 절실한 문제인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속에서 간질간질 하는 것들이 올라왔다.

크리스마스는 참 사람이 느슨해지는 날인 것 같다. 이제까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뼈뺌하게 바라보는 것을 많이 접하지 못한 탓도 있고, 연말이랑 겹쳐서 뭔가 들뜨는 기분이 더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위를 돌아본 적이 별로 없었다. 안티크리스마스 액션을 기획하면서 살짝 반성도 했고, 더 생각해 볼 거리도 얻었다. 우와, 진짜 '깜깜한' 크리스마스다. 진짜 우울한 세상이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준비 모임이 모이기가 힘들어서 마지막에 정신없이 영성하게 준비했는데 앞으로는 더 뼈뺌하게 준비하고 싶은 욕심도 난다.

10대 여성주의의 가장 큰 무기는 발랄함인 것 같다. 무거운 주제도 거침없이 꺼낼 수 있고, 더 발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발랄함은 사람들에게 더욱 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 발랄함이 내용의 가벼움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경계해야 하는 면이 있지만, 이 세상의 '찌는 것들'을 좀 더 발랄하게 깔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 글은 2009년 12월 24일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깜>에서 진행했던 안티크리스마스게릴라액션 시즌 2 <깜깜한 크리스마스> 후기입니다.

[끄덕끄덕 맞장구]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생일일 뿐이다. 더군다나 확실한 생일도 아니고,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혹은 조작된) 생일이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간,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그 분은 이런 휘황찬란한 생일상을 아마 걸어 차실지도 모르겠다. 아니, 이 생일상의 주인은 원래부터 그 분이 아니었던 거다. 여성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며 차린 제사상이 결국은 편하게 노닥거리던 남성들의 뺨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고단해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모두가 따뜻할 것 같고, 모두가 축복받을 것 같다. 딸랑이는 종소리, 자그마한 선물 바꾸니, 해맑은 웃음소리, 행복해하는 연인들. 이 훈훈한 크리스마스 풍경은 도대체 누구의 작품일까. 이 신비로운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인간의 노동이다. 부드럽고 달콤해 한 스푼만 먹어도 온몸을 전율케 하는 그 케이크도, 그리하여 만면에 띄우게 되는 그 웃음도,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축복이다. 이것이 기실 '보이지 않는 손'이다. 누구도 보려하지 않기에 삭제되어 버린 그 손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신비를 빚어낸다. 공인된 빨간 날에도 쉴 수

없는, 아마도 더욱 손놀림이 바빠질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을 까발리기 위해 우리는 흥대 거리로 나섰다.

멋들어진 크리스마스 풍경은 어디까지나 설정이다. 더할 것은 더하고, 빼 건 뺀다. 예쁘고 잘생긴 선남선녀 이성애 커플, 엄마 아빠 손잡고 이곳저곳 둘러보는 아이로 구성된 '정상 가족'은 많을수록 좋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커플은? 진하게 키스하는 레즈비언 커플은? 딱 보기에 어려 보이는 청소년들은?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거나, 나오더라도 금방 들어가야 한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돈이 있어도 '불편한' 존재들은 거리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편안한 계산인가? 그런데, 돈마저 없다면, 이 그림에 포함될 최소한의 전제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 정답은 사진 속에 있다.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선물 보따리와 함께 찾아오는 부자 손님들의 인증샷 찍기.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크리스마스가 조금은 떠들썩해지는 순간이다.

크리스마스가 불편해 모인 사람들이 어느덧 2년째 안티크리스마스 게릴라 액션을 벌이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급진적 구호는 외치지 않는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빨간 날, 이마저 없앤다면 얼마나 인습인가. 다만, 좀 다르게 보내자는 것이 우리의 취지다. 자본에 찌든 크리스마스가 걸어오는 주문을 까버리고, 많은 이들이 자연스레 거리로 뛰어 나오는 이 날, 운동적인 감을 한번 키워보자는 거다. 돌아오는 2010년 크리스마스를 감감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감>에 흔적 남겨주시길. 한 해 동안 각자 까다가 크리스마스에는 함께 끼는 신비를 경험해 보자.

[한낱]

〈깜깜한 크리스마스〉 소장사진, 2009. 12. 24.





3.8 세계여성의날 101주년

여/성, 폭력을 이야기하는 101가지 방법

2009년 3월 8일(일) 시청 청계광장

정각 12시!

우리의,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3.8 세계여성의날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모여 일선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 다시 새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반차별 노래부르기, 파켓 줄넘기, 춤추는허리 공예, 송극 설명서, 팝 공연, 자유발언대, 원형행진 등

드레스 코드: "나만의 드레스, 어설피더라도"

3.8 세계여성의날 101주년 - 반차별기획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성폭력수용회관경을 위한 한일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평선, 한국계이단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황린교회 여성인권 소모임

함께해요!

...반차별 기획단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자신이 당하는 폭력에 대하여 말조차 할 수 없는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방치된 침묵 속에서 가정폭력의 결과 '죽임을 당하거나 죽이던가' 극단으로 내몰리는 이주여성들, 군내, 직장내 여성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 반면에 (성)폭력 가해자보다 더 잔인한 언론들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2차 가해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삶을 파괴하고 낙인을 찍는 성폭력 언론들입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6년 당시 황우석 연구에 난자를 기증했던 여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되었다. '국가의 이익'이라는 거대 프로젝트에서 여성의 인권은 늘 '대수를 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어왔으며, 2009년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9년, 여전히 여성들의 인권에 무관심한 국가와 권력 의뢰기관, 재판부들. 규탄하며, 끊임없이 사회의 반성을 촉구해 온 여성들의 용기에 지지를 보낸다.

- 언니네트워크

성폭력은 젠더로서의 여성과 남성이라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력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하겠지요. '정상'이라는 임의의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장애인/성소수자/성소년 등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도 이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소수자에 대한 폭력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폭력을 없애려면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력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진보, 우리, 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은 어디서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 안전한 집이나 있으라고? 가족도 완벽한 방법시스템도 우리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럼 사실이 대안이라고? 보ろ라는 미명아래 사실 내 폭력은 오히려 정당화되고 은폐된다. 장애여성에게 보ろ가 아닌 안전한 권리를 보장하라!

- 장애여성공감

'보ろ 대상'의 대표주자 여성 그리고 아이. 실질적 권리로 사회에 대한 발언력도 없는 여성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전방위 통제, 그리고 '보ろ해주겠다'던 남성들의 폭력, 여성청소년들을 일방적인 권위로 손결한 육체와 순종한(?) 정신의 틀 속에 우겨넣는 사회 속 '아빠들'이여. 돌려가라!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팀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이 강간죄로 인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판결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민번호는 여전히 1로 시작합니다. 그녀를 여성으로 인정함이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현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구분 이 여전히 개인의 결정에 맡겨져 있지 않고, 법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들합니다.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평선은 개인의 성별이 "검열"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평선

연세 성폭력 살인 사건을 계기로 되살아나는 <여성 성 통제>의 음모를 경계하라!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 든든한 남자의 에스코트는 해결방법이 아니다! 여자는 약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여성들에게 필요한 건 고통과 마음을 강하게 하는 훈련! 단단한 근육과 욕심! 여성들에게 더 강한 몸과 더 넓은 세계를 보장하라!

- 한국성폭력상담소

본(bone)차이나? 이브의 후손들이여~~ 단단하고 가늘고 마름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이브는 본차이나? (본차이나의 특징은 골분이 50%정도 함유되어 있어 더 단단하고 더 가렵다.) 교회안에서 여성은 아직도 남성보다 열등한 제2의 존재로 여겨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억압적인 교회 내 윤리방식에 대해 여성 스스로도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것은 가부장적인 유대교의 차관인에서 잉태된 잘못된 성서 관념을 오늘 날에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성서는 여성의 눈으로 다시 읽혀지고,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한다.

- 황린교회 여성인권 소모임

〈3.8 세계여성의날 101주년 여/성, 폭력을 이야기하는 101가지 방법〉 소장사진, 2009. 03. 0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 “걸 페미니즘, 너는 어디로?” 」 자료집, 2009. 04. 25.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과 함께 하는

“걸 페미니즘, 너는 어디로?”



언제, 어디: 4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랑방 큰 회의실

진행 순서

☞ **몸 풀기 맘 열기(10분)**

: 분위기 봐서 2개 정도 흥흥

☞ **저기, 근데, 일단, 페미니즘은 뭐지?(10분)**

: 나의 느낌과 경험을 통해 페미니즘 이미지 그려보기

☞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가봤어!(25분)**

: 자신이 알고 있는, 또는 참여해 봤던 10대 여성 관련 사업을 종이에 쓰고, 한줄 평 적기

☞ **오오, 우리가 조사해보니(25분)**

: 여성주의 팀에서 조사한 여성단체/성소수자단체 10대 여성 관련 사업 역사 및 평가 발제

☞ **쉬는 시간(10분)**

: 딱 10분

☞ **이제는 걸 페미니즘!(50분)**

: Before & After "페미니즘을 만나니 이렇게 고민의 변화가" 난다와 엠건의 증언록

: 여성주의 팀 계획 공유 후 의견 나누기, 아이디어 덧붙이기

[페미니즘과 춤을- 공현/산다 개사]

자신의 꿈으로 페미니즘을 이야기해 봐요

종아리가 얇아야만 치마 입나요 얇든굵든 길든짧든 잘만 입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웃 고를 때 한마디씩 하죠 "너 그거 진짜 입을거냐"

옆집 아저씨와 버스를 탔지 그 아저씨 내 다리 자꾸 보며 힐끔거리려
대체 뭘 그렇게 보는 거야 힐끔대지마 다리 닳아요 보지 말아요요요

학교에 교복이 (헤이) 없어진다면 바지든 치마든 괜찮을 텐데
화장 안 하고 (헤이) 회사엘 가면 시원하고 건강해 괜찮을 텐데

마초들 눈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오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오 자신을 만들어가요~

야식 먹고 싶을 때는 먹어봐요 청소녀도 할머니도 먹어봐요
그깃 몸매 무슨 상관이예요 다 같이 맘껏 먹어요 이렇게-

나이 많고 남자여야 밤에 다니나요 나 여성이고 어리지만 다니고 싶어요
그러나 엄마아빠 내가 늦게 오면 한마디씩 하죠 "여자에게 일찍 좀 다녀라"

촛불집회에 나가 있으니 여학생들 자진권이 시키려고 애써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호가 아니야 성폭력 없게 만들어봐요요요

학교에 교복이 (헤이) 없어진다면 바지든 치마든 괜찮을 텐데
화장 안 하고 (헤이) 회사엘 가면 시원하고 건강해 괜찮을 텐데

마초들 눈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오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오 자신을 만들어가요~

산책하고 싶을 때는 산책해요 청소녀도 할머니도 산책해요
그깃 밤이 무슨 상관이예요 다 같이 산책해봐요 이렇게-

춤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청소녀도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깃 몸매 무슨 상관이예요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읽기 자료]

여성단체/성소수자 단체 10대 여성 관련 사업 뜯어보기

정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걸 페미니즘 열쇠를 찾아

걸 페미니즘이란 게 대체 뭘까? 청소년인권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실현시켜보겠노라고 시작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팀은 둘째 걸음 정도를 내딛어보려는 순간부터 이런 질문에 부딪혔다. '여성 청소년'의 경험과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발굴해내고 여성 청소년들을 운동 주체로 만들어보자 뭐 이런 맥락에서 '걸 페미니즘'이란 말이 나왔는데, 뭔가 막막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어떤 운동을 특징짓는 주요 요소는 크게 봤을 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누가(주체)' '왜(목적, 목표)' '어떻게(수단, 방법)' '무엇(이슈, 쟁점)'. 걸 페미니즘 운동은 기본적으로 여성 청소년이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었기에 이 운동의 주체는 여성 청소년들일 것이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들의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참여하는 여성 청소년이 아닌 활동가도 있을 것이고,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페미니즘 관련 활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도 주체일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은 여성 청소년들의 현실을 개선해나가고, 여성주의와 청소년인권이 만나는 주제들에 관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운동을 하지는 것이겠지.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가 잘 보이지 않았다. 운동의 첫 걸음, 도화선이랄까 방아쇠가 될 수 있을 만한 '꺼리'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모호했다.

그래서 백지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하려는 시도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청소년인권운동과 여성주의 운동 등에서 해온 역사와 맥락을 찾아보자. 우리가 하려는 운동이 대체 뭘지 탐색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운동과의 차이점, 변별성을 통해 좀 더 쉽게 그 운동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 기사, 책, 영화제 등 매체와 얽힌 10대 여성 관련 담론/사업 (엠건)

<10대 여성은 매체에서 어떻게 보여지나>

1. 한테 모아보기

10대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찾았을 때,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힘든 처지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 관한 이야기. 미성년자를 이용한 불법 성매매, 성폭력 등 어려서 더욱 불쌍한 '피해자' 1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싱글맘, 가출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10대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둘.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 의 세 키워드가 뭉쳐져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청소년 관련 담론 전반이 그렇지만) 여성청소년에게 관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꺼리'는 보호주의적 시선으로 볼 때에야 비로소 발견 되어 보호를 위한 대책 위주로 논의된다.

2. 청소년 속에서 '여성'을 들여다봤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

소위 청소년 비행('집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착실히 학교에 다니는 모범 청소년'의 틀을 벗어나는 행위)왕알로 가득 찬 청소년 관련 담론들 중에서도, 유독 여성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하는 억압은) 그들의 '몸' 과 결부될 때가 많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일례로 여성청소년의 가출은 청소년 가출에서 따로 떼어져 나와 독자적으로 논의 될 정도로 중요성 있게 다뤄지고 있고, 이는 여성의 몸이 성매매 성폭력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무진장 높다는 현실 and 사회의 보호주의의 만발한 인식에서 기인한다.

그 밖에도 몸 관련 얘기가 순결 같은 케케묵은 주제를 포함해 최근 원더걸스 소녀시대 등으로 인해 불거진 소녀의 성적 대상화 얘기까지 그나마 나오는 듯. 그 다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10대 레즈비언에 관한 이야기인데, 관련 사업이 뚜렷하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가 다른 여성 청소년 관련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느낌. 마지막으로, 가문에 콩 나듯 새롭게 있는 것이 10대 여성과 노동, 대안적 성교육, 고정된 성역할이 낳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 정도.

여성 청소년에 관한 담론의 이런 제한성이야말로 (주로 가정을 벗어난 육체가 위험한 10대 여성에 관한 이야기만)이야말로, 이 사회 속에서 여성 청소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 위치에 대한 걸 반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물씬물씬 든다.

3. 나누어보기

이야기 영. 위험한 그녀들- 십대 여성의 가출, 성매매, 싱글맘 (보호, 문제시, 지원, ...)

이야기 하나. 여성청소년, 여성 또는 소녀로 규정지어진 존재들- 고정된 성역할에 관한 이야기
살다보니 '소녀'가 되었다더라. 사회의 요구대로 만들어진 소녀들, 그래서 우울한 소녀들

[참고] 우울장애의 성별차/ 사춘기 시기 여성들이 더 많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

하나. 신체변화의 스트레스 남자들의 신체변화는 또래들 사이에서 우상거리로 여겨지는 데 반해 여아들의 신체변화는 가려야 할 꺼리(여인으로 성장하는 길은 수치심을 익히는 과정과 유사)

10대 여성들에게 유독 '수치심'의 정서가 많은 것과는 관련이 있을까?

둘.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예뻐질 것에 대한 요구, 성적대상화와 성적공격에 대면

셋. 여아의 성취의식은 고정적인 성역할(남성- 독립성, 자율성/ 여아의 성취추구, 남아들과의 경쟁- " 여자답지 못 하다" 취급)의 굴레 속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좌절되기 쉬움.

이야기 둘. 여성청소년의 몸- 관리(규제)와 소녀소비의 이중주

10대 여성의 성을 향한 사회의 두 가지 태도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키는 소비지본주의와 여기에 찰싹 달라붙어있는 10대들의 도피문화(노는 애들 문화?), 완고한 성보호주의(순결해야 할 여자아이). 순결 강요와 어린 여성에 대한 소비가 혼재하는 모순적 상황

[참고] 젊은-어린 여성은 몸에 대한 금기로 인해 성시장에서 '특별한' 가치를 만들었다. 여성의 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로 여겨진다. 청소년이 성 시장에 등장하 금기시되었던 청소년의 몸에 대한 남성의 욕망이 드러났다. 청소년의 몸은 남성들이 추구하는 순결과 금기를 동시에 갖고 있다.(- 김고연주, 길을 묻는 아이들-원조교제와 청소년)

이야기 셋. -에서 여성 청소년으로 살아가기

학교에서

: 학교 안에서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문화적 폭력/ 한참 멀고 먼 성교육

[참고] 남학생의 경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성 지식은 많이 학습하지만 그 양적 풍부함에 비해 성 가치관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야동'을 통해 남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위험하게도 일방성과 폭력성이다. / 여학생의 경우 비공식적인 경로란 음담패설 정도라서 성 지식을 학습할 수 없을뿐더러 공포 혹은 환상만을 키우며, 야동을 보는 남학생들을 징그러운 놈들로 취급하기가 일쑤이기 때문에 여남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 한 쪽은 뒤틀린 과잉, 다른 한 쪽은 뒤틀린 협소함이랄까.

일 하는 곳에서

: 기회가 더 적을뿐더러 위험하기 까지 한 10대 여성 노동. 게다가 10대 여성은 노동환경 특성 상 유사성매매업소로 빠지기가 쉬움.

가정에서

: 가부장 씨의 딸내미 집에 가둬두기(통금 외박금지), '여자는 이래야 해' 주입하기, 남동생이랑 차별

이야기 넷. 여성청소년과 소수 정체성의 만남-10대 레즈비언, ..

그들이 마주하는 건, 기존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더해 여성이기에 더 심하게 쏟아지는 폭력

<이런 책과 영화들이 있더라>

1. 소녀들을 위한 책, 또문소녀

:출판사 '또 하나의 문화'가 발간하는 소녀들을 위한 책 시리즈

또문소녀 기획단이 밝히는 또문소녀가 나온 이유, “남녀를 뚜렷이 구별하고 제한하는 사회에서는 여자 아이들을 위한 책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 (중략) 소녀들이 여자됨으로 인해 주눅들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문소녀 시리즈 간단소개

-**소녀 멘토링 가이드**(지은이, 카라파인): 소녀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인 '걸스 인코퍼레이티드(Girls Incorporated)'가 개발한 활동들- 소녀들이 굳세고 똑똑하고 용감해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다.

*걸스인코퍼레이티드

걸스 인코퍼레이티드는 1945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소녀들의 권리를 지키는 운동을 벌여 왔다. 걸스는 소녀들이 남에게 기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적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녀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 왔다. 소녀 하나하나가 집에서, 학교에서, 지역 사회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소녀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소녀들의 지혜**(캐서린 디 위움):유명 배우, 스노보드 선수 등 다방면의 여자 어른들이 소녀들에게 들려주는 가지각색의 충고 모음.

-**초경파티** 편안하게 당당하게 초경을 맞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소녀 그리고 섹할 줄 아는 이들을 위한 수학, 소녀 그리고 앞서 가는 이들을 위한 기술**

흔히 남성(남자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이공계 분야로 소녀들의 관심사 확장하기, '소녀들의 과학책동무' 시리즈

간단평가: 초경파티 소개 글에 '여성됨에 대한 격려' 라는 말이 나온다. 딱 이 말로 요약이 되는 듯싶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억압에 부딪히는 소녀들에게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긍정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고자 하는 프로젝트

가정 학교 대중문화 등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의미의 '여성'으로 어느덧 정형화 되버리고마는 소녀들에게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에 억압적인 요소들-부당한 강요들(암전하기 수줍기 깨끗하기 연약하기)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그것은 '틀'일 뿐이고 충분히 틀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시도라 생각.

아쉬운 점/ 여성-소녀에게 대한 고정관념, 편견을 깨부수는 방식으로 '고전적인 여성상을 벗어난 여성들의 존재 보여주기'를 자주 하는 듯. 하지만 이런 방식의 '특수한/잘난 여성 보여주기'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느낌이 강해서 잘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게다가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엄마나 이모 등 소녀의 주변 여자어른들이 먼저 읽어서 이런 걸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는 소녀들을 이끌어주자' 컨셉인 듯? 소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자 어른, 소녀에게 일차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 등등의 표현이 군데군데 나오는 걸 봐서 이끌어주는 성인, 이끔을 받는 여자아이의 구도가 책 구석구석에 은근히 깔려있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봄. (책을 직접 읽어본 게 아니라, 소개글과 목차만 보고 쓰는거라 확신은 없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 가이드>

내 몸은 내 스스로 지킨다! 지하철, 버스 변태에 대처하는 호신술 안내서.

:종이쪼가리 읽기로 끝나는 학교의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보다는 훨씬 실질적이라는 느낌. 세상에 변태가 왜 이리도 흔한지... 일상적인 성폭력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호신술 배우기, 참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게 있는 지도 다들 모르는 관계로 쓰이지 못할까봐 아까비. (돈 문제로 2004년 초판 이후 못 나오고 있다는데..)

덧 의견: 호신술 배우는 거랑 엮어서 변태추방 캠페인 같은 것도 했음 좋겠다. 오는 폭력을 막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런 폭력의 원인-근본적인 문제(?) 얘기도 같이할 수 있도록.

3.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청소년 특별전: 걸즈 온 필름

소개: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 혹은 무성적 존재로만 인식되었던 10대 여성이 하나의 온전한 주체임을 주장, 지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전으로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대면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10대 여성들에 대한/의한 영화(후자의 경우, '소녀들의 크레인지 카메라'라는 타이틀을 걸고 상영)를 상영.

*영화들을 다 소개하면 너무 길어지니, 이 청소년 특별전에서 다뤄진 영화들이 대충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만 간략하게 늘어놓으면-

호모포비아 사회에 대한 도전, 가부장 사회의 여성 차별/가장은 남성'이라는 주류 미디어의 고정된 이미지에 도전, 10대 여성의 삶과 정체성이 그들의 몸과 분리되어 사고될 수 없다는 점 드러내기. '미숙

한 몸'이 아니라 변화하는 몸'으로서의 10대 여성의 몸, 10 대 이주 여성의 정체성 찾기, 현재 한국을 살아가는 10대 여성의 삶 (2008)

고정되지 않은 정체성, 불안정하거나 억압적인 삶의 조건, 미래에 대한 꿈 등 10대 여성 들의 삶에 개입하는 다양한 문제들(2008, 걸즈 온더 로즈)

평이라기엔 뭐한 소감: 걸즈 온 필름 개설취지 읽으면서, 무지 개념 있는 영화제 같다고 생각. 우왁왁. 작년에 했던 영화들 못 봐서 너무 이섭. 영화가 다뤘던 얘기들을 굳이 늘어놓은 까닭은, 이런 게 다(?) 여성주의 팀에서 앞으로 다룰 만한 얘깃거리들 같아서.

또하나의 문화(또문)/하자센터의 “소녀들의 페미니즘” (한날)

- 고정희 시인 10주기 추모제 준비하며 탄생
- 고정희의 시를 텍스트 삼아 여성의 삶, 역사, 여성적 글쓰기란 무엇인지, 그 언어를 배움. 이것들을 문화 작업 형태로 표현하는데 집중. 노래, 슬랩, 파티와 워크샵 디자인물, 영상이나 다큐 작업으로 재창조
- 세 번에 걸친 파티와 답사 여행. 첫 번째 파티는 10대부터 80대까지의 만남. 고정희에 대한 추억 나눔. 두 번째 파티는 고정희 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 소녀 페미니스트들의 자기 성장 나눔. 마지막 파티는 고정희 시인의 죽음을 새로운 연대의 계기로.
- 소녀(밝고 명랑, 순수, 순결, 수줍음)- 페미니스트(드셈, 피곤한 여자)고정된 이미지들을 뛰어 넘는 시도
- 남성 위인만 넘쳐나는 사회에서 고정희를 매개로 언니들의 역사가 다음 세대의 기억으로 이어지도록.
- 이후 하자센터에서 10대 여성 미디어 교육 등 후속 지원이 있었음. 여성들이 다양한 매체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해주는 방식의 활동에 초점을 맞춤. 여성들의 세대 간 연결, 지혜의 공유.. 이런 느낌도 좋음. 실제 판을 진행하면서는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확인할 길은 없는. 10대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살피고, 현재적 요구를 고민하는데 있어 '고정희'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을 매개로 삼은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

성소수자 단체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한날)

맑음이 10대 성소수자 운동 역사를 간략히 정리한 것을 봤는데, 그 흐름을 바탕 삼아 다른 단체들 상황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1. 10대 성소수자 운동의 꿈틀거림


시기	활동	구분	내용
2000년 이전	리퀴드 / 아쿠아 / 고추밭 / Any79	인터넷 커뮤니티	
99 ~ 01	달팽이	부산경남 청소년 이반들의 문화집단.	청소년 동성애자인권학교, 청소년 이반문화 워크숍, 청소년 동성애 인권문화지 발행
2000	단어 ‘동성애’ 인터넷에서 청소년 검색 금지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인터넷 내용등급제에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19세 미만이 검색할 수 없는 단어가 되면서 십대 성소수자의 활동이 잠시 멈춤
2005	여성영상 집단 움 - 호모포비아 박멸프로 젝트	십대 여성이 반을 대상으로 하고 직접 참여, 감독한 다큐멘터리 제작	직접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학교제도가 가한 폭력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 영화 ‘이반검열1’이 있음. →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자 감독이 그 영화 뒤로 여러 감독과의 대화나,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십대 인권에 대해서 외치며 활동.
2007	여성영상 집단 움 - 호모포비아 박멸프로 젝트2탄	다큐멘터리 제작	십대 레즈비언 3명의 커밍아웃과 여성이반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담은 영화 ‘OUT- 이반검열2’ 가있음. → 영화주인공이자 감독인 십대 레즈비언 한명의 최초 레즈비언상담소 십대활동가 활동.
2007 06	여성영상 집단 움 - 내친구엘 카	미디어 워크숍	비디오 제작과정교육을 통해 십대여성이반이 직접 만든 단편영화 5편이 있음. →수료 작을 만든 십대 레즈비언 3명이 모여 ‘불휘’ 라는 십대 여성영상집단을 만들

시기	활동	구분	내용
			<p>10대 레즈비언을 위한 영상 워크숍</p> <h1>내 친구 엘카</h1> <p>참여자를 모집합니다 ☺☹☹☹☹</p> <p>내 친구 엘카는 학교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이성애만이 정상이라는 이성애우월주의와 동성애 혐오증으로 인해 억압 받는 10대 레즈비언들과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10대 여성들이 창의적인 문화 생산자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비디오 제작 워크숍입니다. 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10대 레즈비언,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10대들이 카메라와친구가 되어 고민을 풀어봅시다!</p> <p>신청 및문의 여성영상집단 움 02) 3141-1369 011-9032-8594 이메일 : womact@hanmail.net 홈페이지 : www.out.or.kr 주관 여성영상집단 움 주최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p> <p>워크숍기간 2007년 7월~9월, 주2회 총16강 워크숍과정 비디오 제작과정 (저제한 내용은 추후 워크숍 홈페이지 공지)</p> <p>참가대상 10대 레즈비언,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10대 여성</p> <p>모집인원 총5명</p> <p>모집기간 2007년 5월 5일~6일 30일까지</p> <p>참가비! 무료</p> <p>워크숍 홈페이지 www.out.or.kr나 이메일, 전화로 신청</p> <p>여성영상집단 움은 2001년 결성되어 영상으로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이며, 여성이반미디어교육(2005)을 주최하였고, 10대 동성애자에게 가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반검열1(2005)과 10대 동성애자의 커밍아웃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out: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2007)를 제작하였습니다.</p>
2007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물보라프로젝트	10대 여성이 반의 가출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p>십대 레즈비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p> <p>→처음으로 십대활동가라는 말이 등장하고, 소수의 십대활동가가 탄생하며 십대여성이반 인권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p> <p>→기존 사회적 공간에서 차별받는 지점을 밝혀내려고 했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통제적 '쉼터' 모델과 다른 10대여성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복지 모델에 대한 고민과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잘해보지)</p>
2007 08 15	청소년성소수자커뮤니티 Rateen -	십대 성소수자 스스로가 기획하고 진행한 십대 성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성소수자 청소년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할 수 있는 기회, 소외감의 극복, 을 목적

시기	활동	구분	내용
	이 반 놀 이 터	소수자를 위 한 행사	→ 최초로 십대성소수자가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두모여 (LGBTAIQ~) 직접 기획해서 만듦.
2007 12 ~현재	무 지 개 행 동 - 퀴 어 주 니 어	무 지 개 행 동 (전진급행동) 안에서 활동	긴급행동 10대 팀에서 시작. 십대들이 주체적으로 10대팀이라는 팀을 만들어 비십대들과 함께 활동하게 됨.
2008 02	대 구 여 성 영 상 상 영 공동체 핀 다 - 여 성 관 객, 카 메 라 를 들 다	청소년 여성 이반을 대상으로 영상교육과 단편영화 제작.	영화주인공이자 감독인 3명이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감독과의 대화 등을 통해 얘기를 나누며 사회적인식의 변화를 추구.

시기	활동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너들이 내 맘을 알아?"</p> <p style="text-align: right;">2008년 6월 20일(화) 저녁 8:30분 청소년 이반~ 그녀들이 이야기!!!</p> <p>*본지도 없고 말 잘마더 나눈적 없는데..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서로가 하는 말. 그래서 만나기로 하는 날~</p> <p>★10대 레즈비언 문화활동가 '볼취'와의 만남 ★장래보지님과 청원님이 들려주는 '가출 10대 성소수자 여성.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10대 여성을 위한 거리 상담 프로젝트' 이야기 ★본 정기상영회에 오시는 분들중 40분께는 기획 가이드북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57가지 질문'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 청소년 이반 단편 - 대구여성영상상영공동체 "핀다" 영상제작교육수료작</p> <p>< 여자, 애인 > 2008 6' 50" DV 컬러 제연다큐 위 애인, 말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여자든 남자든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10대 성소수자 위와 일상을 담고 있다. 애인과 남자친구를 동일시하는 친구 때문에 겪어야 했던 난감하고 당혹스러웠던 하루를 상상극으로 표현하였다.</p> <p>< 無色인간 > 2008 10' 07" DV 컬러 다규 잇을 성욕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한 무성애자는 소외되고 고통될 수밖에 없다. 무성애중심적인 사회를 무성애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성애자가 낯설고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p> <p>< 상경-두여자의 한 여자 > 2008 14' 13" DV 컬러 제연다큐 짓기 서울에 사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다. 여자친구 예기도, 서울을 다녀온다는 예기도 얼마예전 비밀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나는 열여덟 레즈비언 청소년이다. 한때는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할만큼 힘들었던 이제는 더이상 '레즈비언'이란 사실이 나에게도 남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다. 그렇지만 가장 힘들때 힘이 되어야 할 가족은 오히려 가장 큰 불안과 걱정거리의 요소였다.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엄마에 대해 고민하는 내 모습은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레즈비언 정체성을 오직 가족만이 모르는 다른 청소년 성소수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내친구 옐카" -여성영상집단 "옐" 청소년 이반 영상제작 워크숍 수료작</p> <p>< 10대 L 용어 나눔어 > 2007 7' 22" DV 컬러 다규 이방 10대 L용어 5개만 알면, 60대 레즈비언도 10대 레즈비언과 대화할 수 있다!!! 10대 레즈비언들이 쓰는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유쾌! 상쾌! 코믹한 10대 레즈비언 용어 집합이!!</p> <p>< 입마살인마수사건 > 2007 4' 41" DV 컬러&흑백 제연다큐 기기 13살 기기는 레즈비언이다. 어느날 엄마는 기기에게 레즈비언이 먹으면 죽게 된다는 알약을 먹으라고 강요하는데... 19살 기기가 13살 기기를 추억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p> <p>< 색안경을 벗어라! > 2007 9' 38" DV 컬러 인터뷰다큐 성준 10대 레즈비언이 10대 레즈비언을 만나서 속 깊은 토크를 나눈다. '편견의 색안경' 을 벗게 되는 10대 레즈비언들의 상처와 웃음!</p> <p>< 레즈비언 파이터 > 2007 6' 33" DV 컬러 액션코믹극 천재 천재는 호모비아 (동성애혐오자)인 여자 친구에게 체인다. 상처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천재는 레즈비언 파이터로 다시 태어났는데.. 호모비아를 박멸하는 귀엽고 신성한 레즈비언 파이터의 대활약!</p> <p>★본 정기상영회는 무도시사회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정기상영회를 위하여 영상배급과 심의에 힘써 주신 여성영상집단 "옐"과 아웃팅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결정해주신 10대레즈비언 문화활동가 "볼취"의 천재님, 성준님 더불어 청소년 이반 청원님, 그리고 현재 청소년 이반 길거리 상담프로젝트에서 활동하시는 장래보지님께 감사드립니다.</p>
2008 03~09	한국 성적 소수자문 화인권센	십대여성이반 거리이동상담	십대 레즈비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을 중심으로 십대여성이반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 고민 등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소통을 위한 활동

시기	활동	구분	내용
	터 - 퀴어@		<p>10대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활동들을 마련. 거리이동상담을 마무리 하는 신촌공원 축제를 ‘10대여성이반기확단’을 만들어 진행.</p> <p>→10대여성이반들이 차별받는 어떤 ‘문제적’ 상황에 개입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덜 어렵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되돌아보면, 퀴어뱅 활동에서는 10대여성이반의 삶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발견하는 작업보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서비스를 ‘주기에’ 바꿨던 시간은 아니었나, 반성해본다. 어느 새 나도 모르게 10대여성이반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짓고,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찾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잘해보지)</p>
2008 06~10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육색찬란 + 깍지끼기	멘토링 활동, 강의와 레즈비언캠프	<p>세대 간의 교류를 위해 십대여성이반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다.</p> <p>→ 십대가 멘티, 비십대가 멘토가 되어서 활동을 하며 인권운동에 관련된 강의 등을 한다.</p>
2008 07~현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십대이반미디어작렬	십대여성이반을대상으로, 라디오교육과 웹진 교육을 진행.	<p>일명 12미작. 라디오와 웹진을 통해 십대 여성이반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p> <p>→ 공동체라디오와 웹진을 적극 활용해 10대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p>

시기	활동	구분	내용
			
2008 08 15	청소년 성 소수자 커 뮤니티 Rateen - 이 반 놀이 터	강의와 상영 회, 레크리에 이션 등의 소 통의 시간 기 획	십대 성소수자 스스로가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점, 다양한 정체성이 어울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매년 8월 15일 예정.
2009 01	KSCRC겨 울 아카데 미	십대이반워크 샵: 페미니즘 은 나의 힘?	<p>비교적 작은 이야기 규모를 만들기 위해 규모 최소화. 7명 정도.</p> <p>브레이어를 푼 페미니즘(그동안 나의 삶은? 나는 무엇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가출을 일삼는 페미니즘(왜 가출을 욕망하는가, 자기주도적 가출? 여성과 남성 가출의 차이? 일반과 이반 가출의 차이?)/콧수염을 단 페미니즘(남자는 무엇, 여자는 무엇?)/침대위의 페미니즘(섹스, 연애, 상처, 폭력에 관한) /행동하는 페미니즘(5장으로 구성)</p> <p>섹슈얼리티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10대여성이반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을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잘해보자)</p>

시기	활동	구분	내용
2009 01~	K S C R C 거리이동 상담/레인 보우 링 추진 중		10대여성이반들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욕구 파악을 통해 내부 문화 소그룹을 형성하여, 그들의 '끼'를 유쾌하게 드러내고 동시에 내부 문화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잘해보자) 여성재단 후원으로 세대 간 역사 발굴 사업인 '레인보우 링' 진행 예정.(잘해보자)

[덧붙임]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인권정책팀 활동

: 레즈비언 상담소의 전신인 끼리끼리 때부터, 십대 이반과의 만남 학교차별 사례 자료 꾸준히 모아옴. 심층면접 등을 거쳐 자료를 많이 수집함. 자료집 발간, 정책적 조언 등도 할 예정. 상담의 기본 바탕에 여성주의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음. 상담 건수 중에 상당수가 10대 여성 상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권정책팀

SCHOOL KILL US

10대 이반 학교 내 차별사예 신고
<http://www.isangdam.org/skillu/schoolkillus.htm>

10대 이반 여러분 - 학교, 참을 만 하세요?

학교의 무자비한 이반검열! 교육과정의 동성애 혐오!
 이반이냐며 전학을 시킨다? 모든 사람이 이성을 만나 결혼한다?
 이반이냐며 강제를 받아가는 건다고? 커튼은 못 오리 남녀서클?
 선도부는 동성애임을 보고 이반을 잡기만한다? 동성애자는 범죄자?
 레즈비언 친구를 들지 말라고? 동성애자는 음란한 사람?

하지만 대부분의 10대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 상대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른들도, 친구들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는
 10대 레즈비언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10대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그 현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0대 레즈비언 여러분의 삶을 담아낼
 『10대이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알려주.

여러분이 써주시는 이야기는 학교의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로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개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이런 실태조사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의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신고해주세요!!!

<http://www.isangdam.org/skillu/schoolkillus.htm>

200602 10대 레즈비언 인권 관련 활동 <십대 이반 만나기> 거리에서 십대 이반 만나고, 고민 나눔

200712 스쿨 킬 어스<10대 이반 학교 내 차별 사례 신고>

200805 학교종이 평등 <10대 이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신촌 공원 등에서 10대 레즈비언 친구들 만나기, 10대 레즈비언 상담 사례 교육

2. 현 10대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평가 지점(맑음 글 참조)

공간문제: 공개적으로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장소의 부족, 지역적 불균형

다양성 부족: 다양한 정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부족(레즈비언/게이 따로 문화 형성, 트랜스젠더 문화는 거의 전무), '십대 성소수자 문화' 없고 친목 문화 획일적임

인권운동: 십대 성소수자의 자발적 의지 부족, 십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지지기반 취약(소수자 내 소수자, 후원 꺼리는 경우 많음, 특정 비청소년 단체/레즈비언 중심), 기존 성소수자 운동에서 쓰였던 언어에 대한 고민

교육: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 부족, 교사 자체의 인권감수성 부족, 성정체성 상담 여건 부실,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 왜곡 심각

3. 조사를 해보니 이런 정리가

- 비청소년 성소수자 단체들에서 꾸준히 10대에 대한 조망을 해왔다. 자신들이 보냈던 청소년 시절에 대한 기억,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 당해왔던 경험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교의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정체성 고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그에 대한 지지 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 KSCRC 등 비청소년 단체들은 주로 10대 이반 여성들의 삶, 기출 등 그녀들의 이야기 듣는 것에- 학교 안의 호모포비아, 이성애 중심주의, 이반 검열 등 실태 조사 및 상담 등- 초점을 맞춰 활동해 왔다. '페미니즘'으로 그 이야기들을 엮어 보려는 시도(십대여성이반 페미니즘 워크샵 등)가 새록새록 이루어지고 있다.

- 열심히 해온 단체들 내부 평가 보면, 당사자 운동의 중요성이 그들 운동 안에서 이미 떠오르고 있다. 점차 당사자가 운동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해주고, 교육하는 활동들로 경향성이 이동하고 있다. 퀴어 주니어, 라틴 등을 보면 당사자 그룹화도 활성화되고 있다.

4. 몇 가지 생각들, 10대 성소수자 운동과 페미니즘의 교차점?

4.0. 정체성(소수성)의 정치

: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받아들이는 것. 일상적인 모든 것이 관계의 문제고 그것이 곧 정치적인 문제다.

: 애인과 어떻게 잘 지내야하는지,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10대 성소수자들의 일상적인 고민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마련.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의 일상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4.1. 학교와 사회에서..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동시적인 균열들

: '10대, 여성, 이반' 그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드러내며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여성에 대한 성별 이중규범(여자는 자고로 이러해야지~)과 이성애주의-섹슈얼리티(여자는 남자와 자야지, 여자는 결혼한 남편하고 섹스를 해야지) 통제는 연결된다. 특히 학교 공간에서 그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권 보장을 외치는 것은 성별규범을 학습시키고 이성애주의를 공고히 하는 학교 안의 변화를 이뤄내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니 학교에서 이반 검열 등 통제가 더욱 심한 것이 아닐까.

: 10대 여성이반들은, 자신의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일하는 곳에서도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차림이나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 '동성에 혐오발언을 간접적으로 들었다', '욕설 등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 '남자가 하는 일이라며 고용하지 않았다'의 응답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옷차림이나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 '남자가 하는 일이라며 고용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으로 성정체성 때문은 아니나,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적인 옷차림'이나 '여성적인 태도'와는 다른 걸모습과 태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성에 혐오나 성소수자 차별이, 직접적으로 성정체성을 이유로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성별체계에서 벗어난 모습과 태도의 지점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을, 10대 여성이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4.2 가출, 새로운 가족 문화?(잘해보지 님 글 발췌)

: 가출의 의미? 이성애주의와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 연결됨(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을 합법적인 가족의 형태로, 노동력의 재생산 보장, 성역할 학습). 착한 딸을 거부하는 십대 레즈비언 언니들.. 이들이 집을 나가는 것은 단지 '그들의 탈선'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학생으로서나 착한 딸로서 요구하는 규범적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해 다른 꿈을 이야기하고, 욕망 펼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공간과 안정적 관계의 부재의 영향이 크다.

: 긴 시간을 거의 매일보고 놀게 되니 친분이 두터워 지는데 이때 가족문화가 많이 생긴다. 친한 언니, 친구, 동생한테 실제 가족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딸, 아들 같은 실제 가족 구성원처럼 친(親)을 맺는다고 한다. 이때 10대여성이반 친구들 실제 가족 안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나 고민을 서로 얘기하며 지지해주고 의지해주고 의지 받으며 정이 더 두터워 진다. 이렇기 때문에 10대여성 이반에게는 친구라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도 많다. 친구 따라 가출하거나 친구 따라 외박한다던지 이것은 일반 10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 받는 10대여성이반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가족애가 매우 두텁다.

-> 기존의 가족 체계를 흉내 내는 문화긴 하지만, 기존의 혈연 중심/정상 가족의 틀을 흔들고 있는 것은 분명. 그러나 20대 이후에는 '탈반'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사회에서 호명하는 '20대 여자'와 '20대 이반'의 정체성이 충돌하고, 어떻게 '이반'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부족한 이들에게 탈반은 유일한 미래 일지도 모른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공현)

1. 10대여성 관련 활동에 대해 대충 조사해본 감상

10대 여성에 대해 '10대'를 강조하기보다는 여성 청소년들을 어떻게 '여성'으로 정체화시키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10대 여성들을 교육의 대상, 상담의 대상으로 보는 사업들이 많다. 성교육, 10대 여성들이 기존의 여성성에 대한 관념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으랏차차라거나 지리산 종주, 외모지상주의 등...) 활동, 성폭력 피해 10대 여성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게 하기 위한 활동 등.

2.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8 10대 여성 축제 : "별빛 망토 소녀들 서울을 누비다" "소녀들이 안전한 서울". 호신술배우기, 호신 무기 만들기, 소녀들 서로의 안전의식 확인 등...

자립지원 : 심리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 자립 지원.

브릿지(거리상담) : 성소수자, 의료지원, 가출예방, 위기개입 등.

학교 성교육: 반차별, 섹슈얼리티, 성관계, 피임, 성병, 즐거운성/안전한성/당당한성 등. 학교로 직접 가서

함.

지역사회 연계 : 보호시설, 대안학교 및 공부방 등에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본래 가출 청소년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곳.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을 보면 가출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 관한 활동을 주로 했음. 상담, 길거리상담, 자립 지원이 주된 활동.

3. 한국성폭력상담소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북 : 2004년. '작고 여린 소녀'가 아니라 '쏘녀'로 재명명. 공간별, 관계별로 성폭력 유형과 이에 대처, 성폭력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문제제기, 호신가이드, 피임법 등이 주된 내용. '쏘녀권리헌장'을 보면 여성 뿐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당하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엿보임.

친족성폭력피해청소년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 자료집을 돈 주고 샀는데 아직 다 읽어보진 못한 -_-; 친족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활동 자료집.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 지침, 지원 백서 등... 별책 형식으로 친족성폭력피해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담은 부분이 눈에 띈.

10대여성 다른 몸 되기 : 여성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 무예훈련, 춤, 자전거, 수영, 지리산 종주, 10대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패턴과 각본 읽기 능력 기르기. 축구대회, 운동회, 성소수자청소년, 경찰범죄팀 관람/견학 등. 이런 경험들을 온라인 카페에 일기 형식으로 자기를 관찰, 성찰하게 하는 방식이 특기할 만함.

4. 한국여성민우회

외모지상주의 인식 개선 사업 : 시범학교 교육, 홈페이지 제작, TV와 잡지 모니터링과 고발, NO다이어트 거리 캠페인, 간담회, 토론회, 십대들 눈으로 본 영상 공모. 딱 10대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보긴 어렵지만 주로 10대 여성 대상으로 진행.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교육, 캠페인 사업.

5. '걸페미니즘', 또는 '걸페미니스트'에 대한 생각

한국여성민우회 사업은 10대 여성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늘푸른여성지원센터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10대 또는 청소년의 지위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상당히 '인권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이라거나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 일부 내용 등. 그러나 활동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청소년이나 10대라는 부분에 그다지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간혹 언급되

긴 하지만.

걸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라는 측면에서 영페미니즘, 30대 페미니즘, 40대 페미니즘(?) 등과도 연속성이 존재한다. 즉, 걸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사람은 그 이후에도 자기 삶에서 페미니즘을 중요한 화두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페미니즘 뿐 아니라 '청소년인권'에 대한 인식도 중요. 예컨대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연재한 만화나 한국여성민우회의 관점 등을 보더라도, 대개 10대 여성을 곧 여성(모성, 성차별 등을 경험하게 될)이 될 존재이거나 단지 '특수한 지위의 여성' 정도로 파악하는 것 같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 청소년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고민, 인식이 걸페미니즘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걸페미니즘이 반드시 그 둘의 교집합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페미니즘 영역을 다룰 때도 있고 청소년인권을 다룰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둘을 모두 사용해서 상호관계 속에 세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상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페미니즘과 청소년인권(청소년니즘?)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

또 하나, 여성 청소년 사업은 이미 상당히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여성 청소년들을 페미니스트 또는 인권활동가로 직접 정체화시키고 활동을 만들어가는 류의 것은 많지 않다. 대개 여성 청소년들을 상담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사업이 많다.

(걸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의문. "페미니즘" 부분이 강조되고 "걸" 부분이 강조가 안 되는 것 같기도. 영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가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즘 일반과 어떤 변별점을 가지는지를 아는 건 어느 정도 아는 사람만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총결 비스무리

여성단체들이 십대 여성과 관련되어서 한 활동, 성소수자 운동에서 해온 활동, 대안교육운동에서 해온 활동 등을 이렇게 조사해봤다. 성소수자 운동의 경우는 몇 년 사이에 청소년 당사자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런 활동들에 좀 힘이 실리는 것이 보였다. 페미니즘이나 인권 전반에 대한 고민과 결합되는 것도 최근에 살마리가 보이고 있었다.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십대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십대 여성이 직접 활동가가 되거나 활동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교육 대상, 상담 대상, 지원 대상, 단기적인 참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십대 여성을 곧 본격적인 여성이 될 특수한 여성 정도로 보는 경우도 많았다.

일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는 명확해졌다. 우리가 하려는 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나 여성주의자 정도로 인식하고 청소년인권에 대한 고민도 가진 여성 청소년들을 직접 조직화하는 것일 것이다. 어라라,

그런데 이거 또 명확해진 건 ‘주체’이지 ‘방법’과 ‘꺼리’는 그리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성폭력, 외모지상주의, 성역할 깨기, 다른 운동들이 해온 주제들을 보면서 약간 감이 잡히기도 했고 성소수자나 성매매 여성 청소년 지원 같은 종류의 활동은 우리가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까진 이야기됐지만, 여전히 딱 이거다 하는 게 보이진 않았다. 청소년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을 결합한 주제들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도 있기는 했지만 모호한 말일 뿐 -;;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을 시작할 ‘꺼리’를 탐색해보았다. 유력하게 이야기된 게 학교에서 성폭력 문제였다. 많은 여성 청소년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여성 청소년들의 경험을 언어화하는 첫 고리가 되기 쉬운 것 같다는 평가랄까. 반대로 여성주의 하면 너무 ‘성폭력’으로 대표되는 것 같아서 좀 식상하지 않냐는 말도 있긴 했다. 두발복장규제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 또한 기존 청소년인권운동 주체의 반복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연애라거나 뭐 기타 주제들이 나왔지만, 여하간에 ‘꺼리’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학교 안의 여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조직화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뭐 지금도 가장 유력한 건 학교에서 일어나는 (주로 교사에 의한, 남학생에 의한 것도 있을 듯.)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것이다. (‘방법’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까지가 여성주의팀이 걸 페미니즘에 대해 논의하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다. ‘걸 페미니즘’이란 게 거창한 것 같지만 얘기해놓고 보니 좀 지리멸렬한 것 같기도 하고;; 요컨대 여전히 우리의 화두는 여성 청소년 당사자들의 조직화다. 조직화가 싫다면 ‘함께하기’고 뭐 어쨌건.

걸 페미니즘, 너는 어디로?’ 워크숍 기록

* 때: 2009년 4월 25일(토) 11시

* 모인 사람: 한날, 거북, 엠건, 반짱, 난다, 개굴, 동소심, 누리 + (나중에 온) 공현, 주맹, 게로게론

1. 몸 풀기 마음 열기

- 번호 놀이

2. 근데 페미니즘은 뭐야?

- 난다 : 관악 페미니즘 탄파라 언니들과 페미니즘 축제할 때 노래 개사를 했어요. 원래는 페미니즘이란 말 들었을 때 ‘페리는 말이 닫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미래에서 온 편지> 읽고 나서 멋있다 생각했다. 페미니즘은 청소년 인권보다 더 고민 지점이 이곳저곳에 있는 듯한, 복잡한 느낌이다. 걸어가다가도 보이고 광고판에서도 보이고 속옷가게 지나다가도 보이고..
- 엠건 : 어렵고 복잡해 보이고 똑똑해야 될 것 같은 느낌.
- 한날 : 여성주의라는 말을 처음 접한 게 스무살 이후. 그래서 10대인 난다나 엠건의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 있고 좋다. 난다가 개사한 노랫말과 비슷한 느낌이다. 내가 짜증나는 걸 대신 설명해주니까 시원하고 좋더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주변에서는 페미니즘을 학문 취급도 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 너네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학문은 아니라는 폄하가 일반적.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학문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과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 반짱 : 중학교 때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다. <박씨전>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페미니즘 이야기를 처음 접했다. 여성이 여성으로서 성공해서 영웅이 되는 이야기. 예전에는 여성들이 많이 폄하되었는데 그 시기에 그런 문학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대단한... 예전보다는 지금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지 않았나 싶다.
- 거북 : <페미니즘의 도전>이란 책을 읽었는데 진짜 하얀 건 좋고 까만 건 글씨 같았다. 매우 어렵게 생각 됐다. 그래서 잘 안 다가가져... 얼마 전에 신체검사를 했었는데 장난 아니었어. 몸무게 조금이라도 적게 적히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거.

- 엠진 : 조금씩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왜 마초라고 부르는지 알게 되더라. 지금 일하면서 느낀 건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할 수는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남성들의 일상 문화를 가까이서 접하면서 엄청 무서워지더라.
- 반짝 : 페미니즘 그러면 남성들이 엄청 적대적이라는 생각 갖게 된다.
- 누리 : 작년에 국제평화학 수업을 들었는데 마지막 토론 주제로 여성주의가 등장했다. 그때 쟁점이 여성부 폐지냐 아니냐. 발표 담당했던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급격한 반감을 표현하더라. 여성부도 없어야 하고 징병제에서도 여성도 군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 남성들이 페미니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꼴페라고 부르면서 싫어하는 남성도 있고 자기 반성하는 남성도 있고 중간에서 오락가락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행동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전부터 갖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 동소심 : 군가산점 얘기 한참 터져나올 때 왜 그 문제가 성 대결이 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모든 문제를 성 대결로 생각해야 할까 그런 생각 많이 했다.
- 반짝 : 남자는 군대 가는 게 의무인데 여자는 애 낳는 게 의무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남성들이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움찔달짝 못하게 되는...
- 누리 : 아까 말한 남자애들은 가만히 있고 여성들끼리 군가산점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었다. 남자들은 그런 현장에서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마구잡이로 쓰지 않을까 싶었다.
- 반짝 : 남성과 여성의 성적 대결 구도가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
- 한날 : 남성들과 얘기할 때 보면 군가산점제나 여성부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여남의 성적 대결구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군가산점제는 국가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인데 여성에게서 상대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페미니즘에서 남성과 여성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 청소년인권 이야기할 때도 청소년과 꼰대도 대립하는 부분이 있다. 어른들은 꺼져라가 아니라 어른들과 잘 살기 위해서는 대립해야 할 부분이 있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3. 10대 여성 사업, 조사한 내용 보고

기존 여성단체(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또하나의문화 등), 성소수자단체(라틴, 퀴어주니어 등) 등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살펴보고 평가를 해봤다.

□ 매체에서 다루어진 10대 여성 관련 사업(by 엠진)

- 성폭력 피해,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 싱글맘 등이 대부분을 차지.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주의가 자주 출현하는 걸 보게 된다.

- 고정된 성역할이 여성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다룬 글은 금쪽같이 건져올렸다.

- 조사하면서 청소년이 몸에 피해를 받은 이야기만 주로 나온다. 피해자, 약자로서만 보여진다. 청소년의 노동이나 고정된 성역할 등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소녀들의 영향력이 정말 미미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또하나의문화는 소녀기획단이 있어 소녀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출판. 어른인 여성이 소녀들을 이끌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아쉽다.

- 성폭력상담소는 <으랏차차 청소년을 위한 호신 가이드>를 발간.

- 서울 국제여성영화제에는 '걸즈 온 필름'이라고 해서 따로 개설.

□ 토론/하자센터 (by 한남)

- 고정희 시인 10주기 행사 때 소녀들의 페미니즘 사업을 했었다. 엠건의 이야기처럼 10대 여성은 성폭력, 가출 등 문제적 존재일 때만 등장. 그게 소녀들의 언어가 없기 때문. 그래서 첫번째 파티 때는 10대부터 80대까지의 만남, 두번째 자리는 소녀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세번째 자리는 새로운 연대를 기획. 이후에 10대 여성들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하면서 후속 사업을 하자센터에서 하기도 했다.

□ 성소수자 단체(by 한남)

-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주요한 전환이 이루어진다. 동성애가 청소년 검색 금지 단어가 되면서 10대 성소수자 활동이 잠시 멈춘다. <이반검열>을 계기로 당사자 활동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성영상집단 <움>이 영상 작업 계속 지원.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가출한 10대 레즈비언들을 직접 만나는 사업 시작. 결국 1007년 8월 15일 10대 성소수자들이 '라탄'으로 모이게 됨. 예전에는 10대 성소수자 여성들이 부딪힌 문제적 상황에 개입하는 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일상적인 삶과 연결시켜 작업.

-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학교안 이반검열 사례들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사업들이 있었다.

- 조사 작업 정리해보니...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정체성에 대한 자기 고민이 중요한 10대 성소수자들 이야기가 페미니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 있다. 여성에게 주어지는 규범과 섹슈얼리티(성애)와 관련된 주어진 규범과 연관 지점이 보인다. 또래 친구들과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점도 보임.

□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

-10대 여성들을 교육, 상담의 대상으로 보는 사업들이 많다. 10대 여성을 여성이 될 정도로만 사고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쉬웠다. 그동안 10대 여성 사업이 '페미니즘'만을 강조했다면, 우리는 '걸'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 총평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학교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야 한다는 쪽으로 여성주의팀이 이야기를 정리했다.

4. 토론

- 난다와 엠건의 수다 내용 공유 : 청소년인권을 알게 되면서 청소년, 탈학교라는 위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페미니즘을 알게 되면서 여성 청소년이라는 정체성까지 덧붙여지게 됐다. 확고해지는 건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확실하지 않은 건 내가 뭘 해야 하는 걸까 하는 것. 그동안 여성주의팀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고 신선한데 할 일이 많다는 느낌 그런 건 있다. 이번 워크숍 준비하면서 인터넷 조사를 했었는데 여성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마치 유명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운동 안에서도 잘 얘기가 안 되니까. 네트워크 남성들은 여성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더라.
- 엠건 : 자료집 쪽 보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게 궁금한지 들어보자.
- 한날 : 10대 청소년들이 모인 당사자 모임은 없고 라틴이 거의 유일한 10대 모임. 대개 비청소년 단체들이 판을 깔아놓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현실. 늘푸른여성센터가 10대 여성 축제를 매년 해 오지만, 10대 여성들은 그냥 관람자에 그치게 되더라. 우리 청소년운동에서 핵심 키워드가 두발 자유와 체벌금지인데, 걸 페미니즘 이야기할 때는 키워드가 잘 떠오르지 않더라. 이수나로에 남성 회원들이 더 많은 이유를 생각해보게 되는데, 청소년 인권 이슈도 남성 경험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무성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다.
- 엠건 : 두발 제한도 남자애들을 더 잡는 경향이 있다. 여자애들은 잘 안 잡으니까 두발 자유 문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체벌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성 청소년들이 더 청소년 인권 이슈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게 아닐까.
- 한날 : 여자애들은 봐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성과 남성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버리는 일이 있다. 그래서 두발 문제로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학교 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이야기꺼리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

- 주맹 : 여성주의팀 활동을 보면 뭔가 색다르고 필요한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 활동이 남성중심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티 크리스마스처럼 상큼해보이는 활동이 있다.
- 계론 : 주류 문화에서 청소년이 그려지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주류 미디어에 대한 도전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엠진 : 여성 청소년의 눈으로 학생인권 바라보기 중요한 것 같다. 우리 키워드 잘 떠오르지 않는 게 억압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 공현 : 2, 30대 여성에 비해 10대 여성이 직접적인 억압을 덜 경험하는 게 분명한 듯하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 엠진 : 학교가 워낙 폐쇄적이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 아닐까.
- 난다 : 두발이나 체벌 같은 게 심하니까 주로 그런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 거 아닐까. 여성이라기보다는 학생이라는 게 더 먼저 다가오는 것 아닐까.
- 한날 : 우리가 무리하게 쟁점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이 살짝 들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여교사 모임에 다녀오면서 걸 페미니즘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 페미니즘을 자임하면서도 체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독자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
- 반짱 : 우리 여자 담임이 남자애랑 여자애들 차별한다. 남자애들한테만 엄청 잘해주고, 여자애들한테는 툭 툭 쓰고 남자 선생님은 남자애랑 여자애 때릴 때 다르다. 중학교 때는 변태가 있었다.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슬쩍 껴안는.
- 개굴 : 학교 안에서 언제 학생보다는 여자 또는 남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지?
- * 차마길이 짧게 입을 때, 가려달라고 얘기 듣고 여자라고 생각했다
- * 휴대폰을 금지시킨 이유가 남자애들이 여자애 치마 밑 찍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 * 남학생들이 여학생 외모 가지고 등급 매기는 이야기 들을 때. 우리 학교 신입생들 쪽쪽빵빵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 * 남자애들이 모여서 여자애의 성격, 외모 등을 이야기할 때. 성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외모와 연결시킨

다. 또는 여자애들끼리 자기 몸매에 대해 이야기할 때.

- * 중학교 입학할 때 머리 빡세게 깎았을 때
- * 체육시간에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때, 농구를 싫어하는 남성도 있을 수 있는데 농구를 시킬 때. 축구랑 피구 나누거나 체육복 색깔도 다르고 짝 피구(남자가 여자 때리면 안 되고, 남자애가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규칙)할 때.
- * 댄스 배울 때. 여성-남성 파트너 짝 지을 때.
- * 교사들의 음담패설 또는 성적 코드로 농담 던질 때
- * 성교육 시간에 순결 이야기하고 피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남자애들이 콘돔을 쓰면 쾌감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킁킁 거렸을 때. 그럴 때 내 느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은 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성적 경험을 무용담처럼 이야기될 때.
- * 여성들이 성적 코드로 이야기를 했을 때 미친 년 취급하거나 왕따 시키는 경우.

- 한낱 : 서울 남부지역 청소년아카데미 같이 하고 있는 우돌이 학교 안에서 토론동아리를 만들었다. 페미니즘을 주제로 CA 때 그 학생들과 만나볼 계획이다.

- 개굴 :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연루돼 있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지침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in)걸] ‘소녀’를 권하는 사회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페미니즘과 청소년니즘’, 또는 청소년인권.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놓겠노라고 야심차게 기획을 던졌는데,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할 말들은 많지만 딱 잡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단 쉽게쉽게(?) “청소년”인 동시에 “여성”인, ‘소녀’(십대 여성, 청소년, 여성 청소년, 여러 가지 말들이 가능하겠지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한다. ‘소녀’라는 이미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소녀’라는 이미지

‘소녀’는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더러운 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선하고 때로는 정의롭다. 예를 들어 2008년을 달군 촛불집회에서 등장한 ‘촛불소녀’를 생각해보라. 촛불소녀를 단지 촛불집회에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한 것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정치적 순수성과 순수한 정의감, (두발규제, 교복 등의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순수한 열정으로 거리로 나온) 착한 촛불 등의 이미지와 메시지가 있었고, 이를 통해 촛불집회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촛불소녀뿐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는 너무나 많다. 어린 소녀의 순수한 눈망울을 강조하는 CF에서, 마법소녀로 변신해서 악마나 외계인을 무찌르는 소녀들에게서, 소녀들이 세계를 구원하거나 가족/친구들을 구원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서, 소녀들은 순수하고 ‘비정치적’이며 정의로웠다. 이런 이미지는 사실 ‘어린이’, ‘아동’, ‘청소년’(청소년의 경우 위태롭고 충동적인 이미지와 순수한 이미지가 ‘미성숙’의 이름 아래 엮여 있다)의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여성’이 결합된 ‘소녀’에서는 그것이 더욱 강화된 그리고 좀 더 특별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소녀의 이미지는 모순적이다. 순수성의 이면에는 성욕/성애의 대상인 소녀가 존재한다. 이른바 로리콤(로리타콤플렉스)이 대중문화 캐릭터 취향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을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마법소녀물 애니메이션에서도 남성들은 세일러복이나 드레스, 미니스커트 등으로 변신(코

스프레)하는 소녀들의 모습에서 성적 긴장과 욕망을 느낀다. 나이 어린, 젊은 여성들을 가리키는 “영계”라는 표현이라거나,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또 어떤가?

이러한 욕망의 대상인 소녀의 모습은, 순수성의 이미지와 배치되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여성이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자 성적인 상품이 되는 사회에서, ‘순수’의 이미지는 성욕의 대상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 남성들은 지켜줘야 한다는 ‘부성본능’(??)과 지배하고 싶다는 ‘욕망’을 동시에 자극하는 대상인 소녀들의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자신이 남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재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여성의 젊음을 여성의 주요 상품자원으로 만드는 사회 풍조를 강화하고 확대한다.

청소년과 여성은 둘 다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둘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당하는 동시에 지배의 대상으로 규정당하고 있으며, 약한 존재, 좀 더 순수한 존재, 사적인 존재(가정/가족)로 위치 지워지고 있기에, 그 둘의 이미지는 쉽게 결합될 수 있다. 이 결합은 ‘소녀’라는 또 다른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이미지를 낳는다. ‘소녀’는 청소년인 동시에 여성인 존재이며, 그 둘의 결합 속에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소녀’는 더욱 순수(사회적 무지, 약함)하고 때로는 (순수함의 환상 안에서) 선풍하며, 동시에 더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미지(욕망의 대상)인 것이다.



인기 있는 ‘소녀들

‘소녀 아이돌’들은 ‘소녀 소비’의 모양새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민여동생’ 문근영이나 보아 때도 연예계에서 이런 트렌드는 있어왔다. 그들은 순수하고 착하면서, 사랑-연애에 대한 열정과 순정을 가지고 있고, 적당한 ‘섹시함’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문근영 시절에는 좀 더 지켜주고 싶은 순수한 ‘여동생’으로서의 이미지가 강조됐으며 보아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좀 더 ‘섹시함’의 비중을 늘려가는 정도였다.

최근의 원더걸스나 소녀시대, 카라 등에 이르러서는 ‘소녀 아이돌’들은 섹시함이나 귀여움 등을 더 전면적

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더걸스와 소녀시대는 모두 더 노골적으로 ‘소녀’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기획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원더걸스는 짧은 교복치마를 코디하는 등 섹시한 ‘영계’로서의 컨셉에 좀 더 비중을 두었고, 소녀시대는 ‘소녀’로서의 귀여움, ‘사랑스러움’을 좀 더 강조한 정도일까. 순수한 이미지와 성욕/성에/섹시함 사이의 줄타기와 긴장감...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인기는 ‘소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 없이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 또 다른 ‘국민 여동생’, ‘국민 요정’ 등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연아의 인기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김연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물론 부단한 연습 끝에 이루어낸 피겨스케이팅 실력 덕분이다. 하지만 만약에 김연아가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 ‘국민 영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 김연아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피겨스케이팅 자체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남성 스케이터는 김연아만큼 인기를 얻지는 못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느낌의 인기를 얻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김연아를 보는 시선은 훌륭한 스포츠인에 대한 존경이라기 보다는 기특함, 귀여움, 사랑스러움에 더 가깝다. 나이가 적은 여성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업적을 이루더라도 ‘소녀’의 이미지 안에 포섭되고 마는 것일까?

‘소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러한 ‘소녀’의 이미지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영화, 소설, 만화, 광고, 온갖 재현물들 속에서 ‘소녀’의 이미지가 유포된다. 이런 ‘소녀’의 이미지는 소녀들의 삶을 규율하는 역할까지 한다. 치마 교복을 입고 온갖 두발/복장/자세 규제를 당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거나 하면 여학생이 조신해야 한다는 잔소리를 교사들에게 들어야 하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삶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등의 아이돌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 청소년들이 있다. 이런 ‘소녀’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이고 예쁜 모습이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 누군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들에게 남성들의 입맛에 맞는 모습이 되라고 권한다. 그 말에 따라,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 인간 상품으로 살아남기 위해 여성 청소년들은 ‘소녀’가 된다. ‘소녀’의 이미지는 이렇게 소녀들의 삶을 왜곡시키고, 이런 여성 청소년들은 다시 ‘소녀’의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보부아르를 패러디하자면,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소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소녀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때

‘소녀 권하는 사회’는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지위와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만들어진 ‘소녀’의 이미지를 통해 사회는 청소년들, 여성들, 소녀들의 삶의 현실을 은폐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욕망들을 소비시키는 역할과 기존의 여성/청소년상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우상(아이돌)이 된 소녀’들에게 맡긴다. 그렇기에 ‘청소년니즘’ 그리고 페미니즘은, ‘소녀’의 이미지에 맞서서 좀 더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전에 여성단체들이 <‘소녀’가 아

닌 ‘쏘녀’>라고 외치며 강하고 적극
적인, 그리고 기존 ‘소녀’의 틀을 벗
어난 여성 청소년 상을 제시하는 것
과 같은, ‘소녀’에 대한 도전이 필요
하다.



엠건, 「[페미니즘인(in)걸] 야오이, 그 곳에서 소녀 그리고 여성들이 만나야했던 이유」, 인권오름 제150호, 2009. 04. 29.

[페미니즘인(in)걸] 야오이, 그 곳에서 소녀 그리고 여성들이 만나야했던 이유

엠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들의 포르노, 야오이

야오이는 여성들의 포르노라는 말이 있다. 모든 야오이가 포르노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런 성격이 강한 게 사실이니 맞는 말이다. 지금이야 ‘야한 것’을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 정도지만 중고등학교 땐 거부감 수준으로 꽤 반감이 있었다. 덕택에 야동(야한 동영상)은 호기심에라도 한 번 본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부류인 ‘야오이’에는 나는 유독 너그러웠다. 남자들이 손 붙잡고 뽀뽀하면서 ‘러브러브’ 모드를 펼치는 게 그렇게 훈훈하고 흐뭇할 수가 없었다. 섹스 수준의 야한 짓도 웬일인지 그냥 넘길 수 있었다. 어쨌거나 난 야오이 안에 있는 야한 것들에 관대했다. 사실 난 야오이를 통해 욕구를 그 때 그 때 풀었기에 특별히 결핍이 없었던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했다. 그동안은 야오이와 성적욕구란 단어를 함께 놓을 생각조차 못 했다. 내 안에 ‘성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불편했던 탓이다. 남성들만 나오기에 ‘야해도 괜찮은 야오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내가 스스로없이 성적인 욕구를 풀어낼 통로는 아예 없었을 것이다. 고집스레 자처한 성적인 무지에 갇혀 내 안에 있는 성적 욕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긍정하게 될 기회였던 셈이다.

여자들이 야한 것을 알고 접한다는 것은 ‘죄’다

어렸을 때부터 야한 건 더럽다고 생각했다. 딱히 사회가 원하는 ‘깨끗한 소녀’의 이미지를 의식했던 건 아니다. 깨끗한 소녀 따위 딱히 원한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더러운 난’이 될 수는 없었다. 더 나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도 아닌, ‘야한 것에 대해 무지한’ 정상과 ‘야한 것에 대해 박식한’ 비정상이라는 나뉘 속에서 정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10대 여성의 성적 권리를 논하기도 전에 사회는 ‘애들은, 특히 여자애들은 성

적인 것을 접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라 요구했다. 그 암담한 벽 앞에 10대 여성의 성적 욕구는 '자연스럽게' 씹혀왔고, 성적 권리는 출발부터 가로막혀있었다. 혈기왕성한 사춘기 남자에란 말을 혈기왕성한 사춘기 여자애를 바꾸었을 때, 분명 생소하게 또는 이상하게 들린다. 낯설고 이상스런 그 울림은, 성적 무지를 택하지 않는 10대 여성에게 '밝히는 여자애'의 딱지를 붙여왔던 사회적 폭력의 잔향이다.

여자애들은 순진하고 깨끗하다 또는 깨끗해야한다는 상식, 바꿔 말해 여자애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인정해서도 드러내서도 안 된다는 일방적인 강요이다. 이러한 폭력은 세간에서는 상식의 이름으로 통용된다. 여자애들이 남성들 간의 섹스를 표현한 야오이를 찾게 만든 상황은 '상식'의 뿌리 위에서 자랐다. 깊은 밤 케이블 TV에서 해주는 야한 영화를 처음 본 후 내가 느꼈던 감정은 스스로에 대한 역겨움과 죄책감이었다. 잠깐이라도 야한 것을 밝혔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 해 짙은 자기혐오를 느꼈고, 뒤이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죄책감이 찾아왔다. 웃기는 건, 같은 야한 영화라도 남성들이 주제인 영화를 보면 죄책감의 정도가 낮아졌다. 야오이 세계는 여성, 즉, 내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야오이의 한 장면

성애관계를 재현하는 야오이

야오이 안에 여성이 없다고 단순하게 말한다면 이는 거짓이다. 야오이에는 공,수 개념이란 게 존재하고 이들의 결합은 남성 역할을 하는 남성(공)과 여성 역할을 하는 남성(수)의 결합이다. 외모도, 성격도, 관계 구도도 이성애 관계를 상당 부분 비슷하게 재현한다. 말하고 보는 이들이 대부분 여성이기에, 야오이 소설이나 만화의 시점은 '수'일 때가 많다. 이 점에선 보통의 연애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10대 여성들이 읽는 이성 연애소설에는 섹스 장면이 거의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반면 야오이의 경우 섹스장면의 존재는 횡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독자들에게나 작가에게나 당연시 된다. 여성들은 분명 수에게 감정이입을 하긴 하지만 이때의 감정이입은 동일시가 아니다. 수가 남성임을 인지한 부분적인 감정이입이다. 막을 하나 쳐둔 셈이기 때문이다. 야오이를 즐기는 여성들의 심리는 일정 거리를 둔 채 공간 바깥에서 관찰자처럼 연애를 지켜볼 수 있다. 나를 직접 대입하기 쉬운 여성과 남성의 섹스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덜 불편하다. 성적인 것을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을 들키지 않아 자유로운 건지도

또 야오이 속의 여성이란 유령 혹은 잘 나와 봤자 엑스트라일 때가 많다. 나온다 해도 비중이 낮을 때가

많다. 야오이를 즐기는 여성들이 자신을 이야기 외부에 둔다는 건, 이야기에 나오는 공간에 대한 반응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 10대 여성들이 주로 보는 이성 연애소설에서 공간은 흔히 쓰이는 소재가 아니다. 그에 비해 야오이에서는 공간이 이야기 장치로 자주 이용된다. 자주 나온다는 건 그만큼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이고, 보는 여성들이 야오이에 나오는 공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디다는 반응이 아닐까.

감시의 눈길을 피해 10대 여성들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여성-자신'이 없는 공간을 통로인 야오이를 택한다. 야오이를 즐기는 것은 비단 10대 여성들 뿐만이 아니다. 왜 하필 여성들의 포르노가 남성으로 가득한 '야오이'가 됐을까? 남성의 성욕구만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욕구에 대한 인정조차 불평등한 사회에서, 야오이는 '여성의 욕구 드러내기'였던 동시에 또한 '자기 지우기' 이다.

여성들의 체념과 자기 지우기

나는 '야오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쉽사리 하지 못 한다. 쓰레기라는 표현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야오이가 못해도 야오이물의 70,80%는 되는 실정이다 보니, '동인녀'임을 알았을 때 눈살을 찌푸리는 상대의 반응에도 짐짓 이해가 가는 것이다. 야오이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야오이물이 갖고 있는 '쓰레기같은 점'까지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간 같은 끔찍한 폭력을 가볍게 다루는 점, SM물 등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게끔 만드는 야오이 안의 이상한 장르들, 수가 공에게 삽입을 더 해달라는 몸짓을 하며 '앙양'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남성들이 만들어낸 야동의 패턴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점 등 말이다.

그 외에도 야오이에 나오는 남성들은 지독할 정도로 마초적이다. 남자인물은 여성에 대한 음담패설을 하고, 여성을 성노리개쯤으로 여기는 듯한 언행을 구사한다. 분명 여성작가가 거의 대부분 일텐데 말이다. 물론 현실에 대한 반영이겠지만, 그렇더라도 똑같이 줄줄 읊어대야 하는거야? 열도 안 받나? 현실에 대한 체념은 쓰는 이들이나 읽는 이들이나 기본적으로 있다. 야오이 안 마초들을 자연스럽게 받아 넘기는 그 태도엔 '남자들이 짐승 수준으로 성 욕구로 충만하고, 거칠고, 여자 우습게 아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말도 안 되는 포용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 분노조차 생략한 상태에서 야오이 속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을 무감각하게 수용한다. 여성들이 야오이라는 공간으로 들어오며 '여성'의 존재를 지울 땐, '여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의지 역시 함께 지운 것인가.

여성이 '남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남녀 권력구도에 대한 전복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남성'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크나큰 한계이다. 야오이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곧잘 하는 장난 중에 망상놀이가 있다. 주변 남성들을 멋대로 이어 붙여 커플로 만들어버리는, 말 그대로 망상을 지멋대로 펼쳐놓는 놀이다. 학교 다닐 때 반 남자애들을 대상으로 나 역시 자주 했었다. 남성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내 맘대로 요리하는 경험은 위치전복의 쾌감을 준다. 여성들에게 남성을 관람한다는 것 자체가 마녀의 기분 같은, 속 시원한 못된 짓이기도 하니 야오이는 그런 면에서 위치전복의 쾌감을 마음껏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야오이 속에 나오는 앙양거리는 수 또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시켰던 짓을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시켜 깔아뭉개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

여성들이 자신을 지우지 않으며 얘기할 수 있는 날까지

하지만 그렇게 만든 남성은 결국 여성 자신의 모습이 다. 공(남성)의 지배욕구와 쾌감을 충족시켜주는 수는 그냥 '남성'이 아닌 '기지배'같은 수이다. '기지배'같기에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공 같은 진짜 남성은 하지 않는다. 공이 수에게 가한 폭력은 공수구도에 배어 있는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분리로 인해 결국 여성들 자신에게로 되 돌아온다. 남성들의 억압은 야오이 공간에서조차 존재한다. 자신들의 성 욕구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긍정적인 목적으로 야오이를 찾았지만, 여성 스스로 재현한 남성의 언어와 방식은 결국은 '자학' 과도 같은 야오이 세계 내부를 만들었다. 애시당초 여성의 입으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남성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서부터 한계가 생긴 게 아닐까. 화자는 여성인데 남성을 매개로 이야기하고 남성에게 대해 이야기 하면서, 결국은 남성을 위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아닌지.....

남성만 있는 세상-야오이를 만들 정도로 여성들이 지우고 싶어 했던 '여성'이란 뭘까. 아마도 지금 현실과 '부정 받고 억압받는 약자로서의 여성'을 지우고 싶어 했겠지. 소녀라는 굴레에 갇혀 어딘가 모르게 억눌리고 있었던 여성 청소년들이 남자애들의 이야기를 찾게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일 테고 여성들이 자신을 지우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날까지, 결론은 하나다.(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일단 ㅋ)! 여성 청소년이여, 자신의 이야기를 할지이다. 예블바디 걸 페미니즘!



야오이의 한 장면

한날, 「[페미니즘인(in)걸] ‘여성’의 이름으로 체벌을 거부한다는 것(1)- 여교사들이여, 학교를 여성주의 해방구로 만들자!」, 인권오름 제154호, 2009. 05. 27.

[페미니즘인(in)걸] ‘여성’의 이름으로 체벌을 거부한다는 것(1)

여교사들이여, 학교를 여성주의 해방구로 만들자!

한날(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10대, 자살, 미친년, 여교사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자율학습에 자꾸 빠지는 A에게 좋은 말로 훈계한 것도 석 달째다. 무시하듯 내 말을 넘기는 A를 보면 화가 솟구치지만, 매는 들고 싶지 않아 끝끝내 참아왔다. 어제는 뻔히 내가 보고 있는데도 가방을 찢 후 교실 문을 나서려 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옆 반 담임선생님의 매를 빌려 발바닥을 때리기 시작했다. 한 대, 두 대, 정신없이 숫자가 올라갔지만 내 손에는 어떤 감각도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A를 봤을 때, A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다.’

지난 5월 1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자살을 했다. 선생에게 발바닥을 110대 맞은 다음 날이었다고 한다. 체벌 사유는 자율학습 불참이었다. 110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체벌 사유도 그렇고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렇지만 소설이 아니다. 무심코 기사의 댓글들을 읽어보니 중간 중간에 ‘미친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체벌교사는 여성이었고, 교직 경력 5년으로 갓 기간제 교사 딱지를 댄 20대 ‘여교사’였다. 교장의 딸이라는 정보도 함께 쓰여 있었다.

사건의 자세한 맥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맥락을 안다고 해서 체벌한 여교사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나 또한 ‘기간제 여교사’라는 교사 중에서는 최하위 계급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고, 여전히 그 최하위 계급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교사가 남학생(혹은 여학생)에게 매를 들게 되는 경위는 대략 추측할 수 있다. 특수한 맥락들은 삭제한 상태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여교사의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면 위와 같지 않을까. 여교사는 아무리해도 ‘남교사’에 비해 학생들 앞에서 권위가 서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체벌은 아니다’라는 주문을 외워도 결국엔 ‘매를 부른 것은 너희들이다’는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거쳐 없는 매를 빌려서라도 때리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남학생의 여성화? 여교사의 남성화?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여교사 임용 비율이 90%를 넘어섰다고 한다. 자녀가 평판 좋은 남교사를 담임으로 만나려면 3대가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농담이 학부모들 사이에 나돌 정도란다.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남학생들의 여성화’가 우려된다며 호들갑 떠는 사실을 종종 꼬적거린다. 여교사가 남학생들의 교내 폭력을 막는 데 큰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의 성역할모델이 한쪽으로 치우쳐 문제가 된다는 거다.

개인적으로 나는 남학생들의 여성화를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학교든 사회든 공동체 내의 모든 기준이 남성으로 치우쳐 설정되어 있지 않았었다. 학교가 여성화된다는 건,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현존하는 마초들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겠지만, 적어도 ‘어린 마초’들의 재생산은 상당부분 중단될 게 아닌가. 여성화된 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의 군대 내 부적응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테고, 편향적인 성역할모델을 강요하는 군대에 대한 병역거부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얼마나 즐거운 상상인가.

그러나 보수 언론의 현실 진단은 언제나 그렇듯 오판이다. 안타깝게도 학교는 여성화되지 않았고, 그럴 기미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여교사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학교가 여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 남교사의 숫자가 줄면서 학교 안에서의 군대식 훈육이 덜 용이해진 측면은 있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 가치 규범을 전수하는 교육과정이 그대로이고, 가부장제화된 학교 구조가 그대로인 한 그동안 남교사가 맡아 왔던 역할을 여교사가 맡게 된 것일 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학교에서 대개 가장 엄한 여교사가 학생부장 또는 학년부장을 맡는다. 이는 가족 내 규율을 다스리는 엄격한 아버지의 상징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을 어머니처럼 세세하게 보살피는 것이 여교사들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평판이 엇갈린다. 애들 좀 엄하게 대하시라, 필요하면 좀 때리고 기합도 주라는 교장 또는 학부모들의 부탁이 여교사들에게 쏟아진다.

어찌됐든 교장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치더라도, 여교사들을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의 태도다. 남교사들 말에는 (그 말에 동의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갹쟁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말은 무시하거나, 싸가지 없는 반응을 보일 때 체벌을 하고 싶은 욕구가 불끈 든다는 한 여교사의 고백은 솔직하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 관계만을 고려하면, 교사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남학생과 여교사 사이에서는 성별 권력 또한 작동한다. 영화 ‘몽정기’에서처럼 남학생들은 여교사를 교사 이전에 ‘여자’로 보고 쉽게 대상화한다. 여교사들은 이 권력 차이를 뒤집기 위해 자신이 가진 교사로서의 권력을 활용한다. 남교사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픈 여교사들의 일차적 선택은 체벌로 이어진다.

예고된 실패 ‘남교사 모방하기 프로젝트’

그러나 여교사가 아닌 교사가 되고 싶은 수많은 여성들의 ‘남교사 모방하기’ 프로젝트는 실패를 예고할 수밖에 없다. 모범적인 교사의 기준이 남성인 한, 그리고 여교사가 남성이 될 수 없는 한 그녀들은 언제나 뭔가 부족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머물게 된다. 남교사의 지도에는 응하지만 여교사의 지도에는 불응하는 학생

들..... 이걸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규율과 훈육방식이 남성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반성문을 써야 집에 갈 수 있고, 학생들의 사적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학교 아닌가. 365일 공안 정국을 연상케 하는 학교를 유지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여교사 모습의 변화 (좌: 1966년 영화 '민검사와 여선생' / 우: 2002년 영화 '몽정기')

시키는 것은 군대식 소통이다. 일방적인 명령과 훈계의 언어가 학교를 가득 채운다.

학교 상황이 이러한 만큼 군대를 다녀온 남성, 누군가를 지배하고 명령하는 역할에 익숙한 남성들이 교사 역할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미 남성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설정된 학교에서 여교사들이 아무리 체벌을 택하고, 남교사와 같은 지도를 모방한다해도 남교사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혹시나 이런 지도 방식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일부 여교사들이 '성공한' 교사의 대열에 편입된다해도, '실패한' 수많은 여교사들은 성공한 여교사들과 비교 당해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여교사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리는 더욱 커지고, 문제는 남성이 기준인 학교임에도 서로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그 내부에 위계를 만들어낸다. 여교사뿐만 아니라 남성적인 가치를 체화하지 못한 남교사 또한 자신에게 부여되는 임무와 실제 자신이 원하는 역할 사이에서 외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여성-청소년, 소수성의 연결

또 하나 더 큰 함정은 여교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권력을 성찰하지 않고 동등한 교사로서의 지위만을 요구할 경우, 학교 안의 또 다른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 이도 어린 것들이 남교사들이 뭐라고 할 때는 풀면서 왜 나에게만 풀지 않는지'는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젠더적 분석이 가능한 문제다. 그렇다고 그 문제의 방점이 '남교사와 마찬가지로 내 말에도 학생들이 풀어야 한다.' 가 되면 곤란하다. 학생이 교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교사 앞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면 그것은 왜 곧 대드는 것이 되고 싸가지 없는 행동으로 읽히는 걸까. 청소년은 보통 미숙하고, 여리며, 아직

경험이 부족해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이미지화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당위와 연결되며, 학교 안에서 수많은 인권 침해 행위도 방조되며 옹호된다. 곰곰이 살펴 보면 이는 사회 속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이미지와 많은 부분 유사하다. 여성은 약하며, 어린 존재기 때문에 남성들과 동등하지 않으며, 남성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사회 곳곳에서 교묘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실현되어 왔다. 여성성이 태어날 때부터 고정되어 있는 특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만들어진 개념인 것처럼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청소년/학생’에 대한 이미지도 의도를 가진 구성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군대식 규율 문화 아래서 여성과 청소년의 소수성은 마주친다. 미성숙한 학생들은 학교가 바라는 인간상이 될 때까지 인간이길 포기해야 하며, 불완전한 여교사들은 교사로 인정받기 위해 남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길, 여성성을 극복하길 강요받는다.

문제의식의 이동해야 해법 찾을 수 있어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하는 체벌 등의 폭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러한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가르치려 하는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한다. ‘아자를 꼭 시켜야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 ‘왜 아자를 모두에게 강제해야 하는가, 왜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과 내가 갈등을 겪어야 하는가’로 문제의식이 이동해야 다른 식의 해법을 고민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그린마일리지(학생들의 상벌점을 전산화하는 시스템, 체벌의 대안으로 논의됨)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다.

학교를 여성주의 해방구로!

요즘 학교가 어수선하다고 한다. 학생들이 예전처럼 순하지 않다고 한다. 스승과 제자의 애뜻함이 살아있는 옛날의 학교가 그렇다고 말한다. 사회는 학교가 흔들리는 이유를 남교사의 부재에서 찾고,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여교사들을 동원한다. 군 생활을 추억하는 남자들에게 그럼 다시 군대에 다녀오고 싶냐 물으면 백이면 백 아니라고 한다. 그곳이 얼마나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공간인지 알기 때문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도 놀려먹는 시대에 선생의 한마디가 법으로 군림하는 학교는 한참 이상하다. 학교의 어수선함은 학생들의 타락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모순이 터져 나오는 현상에 다름 아니다.

역발상을 해보자. 이 어수선함을 기존의 억압적인 관계를 바꿔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남교사가 사라진 학교에서,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흔치 않은 공간에서 여성주의적인 관계맺음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수평적이고 평등한, 불필요한 규율을 강제하지 않는, 젠더 권력의 문제와 나이 권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실험들을 학교 안에서 시작한다면, 학교가 여성주의 해방구가 된다면, 얼마나 통쾌할까. ‘여성’의 이름으로 매를 듣지 않는 것은 곧 남성들이 만든 규칙과 세계를 거부함을 의미한다. 체벌에 반대함으로써, 무너져야 마땅한 학교 권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학생 인권과 여성주의는 이렇게 만난다.

난다, 『페미니즘(in)걸』 ‘여성’의 이름으로 체벌을 거부한다는 것(2)- 조금 덜 아프게 맞은 대가는?, 인권요람 제158호, 2009. 06. 24.

[페미니즘(in)걸] ‘여성’의 이름으로 체벌을 거부한다는 것(2)

조금 덜 아프게 맞은 대가는?

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이란 걸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한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라는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 날의 경험은 나를 흔들어놓았다. 그러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면서,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청소년인권은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인권은 내가 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은 학교 안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는 것인데, 두발자유나 체벌금지나 또는 강제야자 반대 같은 게 대표적인 목소리이지 않을까 싶다.

성별에 따른 폭력의 강도 차이

이제 1년 조금 넘게 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캠페인어든, 집회든,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문화제이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학교가 정해놓은 선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을 꽤 많이 만났다. 처음엔 무조건 많이 만나는 게 중요했다. “청소년들의 직접행동이 중요해요!” 라고 외치면서 여기저기 얘기하곤 했다. 그러다가 요즘엔 점점 어떤 ‘현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학생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성 청소년들보다 남성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분노가 더 크고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서명을 받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할 때는 적극적인 액션이 다들 비슷비슷하긴 한데, 행동을 고민하고, 불만을 더 크게 터뜨리는 쪽은 남성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현상’이다. 왜 그럴까? 왜 남성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을까?

기억을 더듬어보면 확실히 남성청소년들(앞으로는 남청) ‘신체적인 폭력’에 노출되기가 더 쉬웠던 것 같다. 어렸을 때, 친구끼리(남자애들끼리) 때리고 맞고 하고서 집에 들어오면 “뚝! 울지 마!” 하면서 남자애들은 싸

워가면서 크는 거라고 말하곤 하는 상황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반대로 어느 누구도 여자애들이 서로 치고 박고 때리고 하면서 크는 거리는 애길 들은 적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교사들이 체벌을 행할 때, 여성청소년들(앞으로는 여청)은 상대적으로 더 살살 때리기도 하고, 봐주기도 한다. 똑같은 잘못-이라고 규정되는 것들이었는데, 나는 손바닥을 맞고, 나와 같은 반의 남자애는 허벅지를 '거칠게' 맞았다. 왜 그랬을까? 답이 나오긴 한다.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강하게 커야 하니까. 어릴 때부터 거칠고, 강하게 커야 '진짜' 남자 소리 듣지.

그래서일까, 남청들의 적극적인 액션은? 더 많이 규제 당하고, 더 많이 잡히고, 더 많이 맞기 때문에? 더 불만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체벌은 남성청소년들 사안일까

이렇게 보면 학생인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체벌'은 여청들의 이야기라고 하기엔 거리가 있는 것도 같다. 확실히 여청들은 상대적으로 체벌에서 비껴나 있다. 남청들이 100대를 맞는다고 하면 여청들은 40대를 맞는다고나 할까. 그래서 남청들은 여기에서도 불만을 표하곤 한다. "여학생들은 왜 살살 때리냐", "여학생은 왜 덜 잡냐", "남녀 차별이다." 등등. 체벌의 강도나 횟수로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여청들은 남청들보다 더 나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걸까? 여청들에게는 체벌을 안 당하는 대신, 그 체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폭력이 존재한다. 광주의 한 학교에서는 교사가 별로 한 여학생에게 치마를 벗고 교실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시켰다고 한다. 여청들에게는 이처럼 '수치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벌'을 주곤 한다. 거칠고 강하게 자라기를 요구받는 남자애들과는 달리 착하고 부드럽게 자라기를 요구받는 여자애들을 꽤 순 없으니, 몸 처신 잘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끊임없이 존재한다. '체벌 대신 성추행을 당한다', '더 많은 통제를 당한다' 라고 하면 너무 비약일까나.

성별 권력이 인정하기는 싫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한, 더없이 폭력성이 드러나는 공간인 학교에서, 비록 '학교'라는 특수성-교육의 장이라든지, 하는 걸로만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여성/남성이 아닌 '학생'으로써 입시경쟁의 문제가 주로 부각되는-덕분에 묻혀있으면 묻혀있지 그것이 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성역할은 구분되어 왔다. '성'의 구분이 아니라, '성역할'의 구분이다. 철저하게. 이런 성역할, 거기다 청소년을 연결해볼까? 성역할의 구분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게 하기 위한 기대도 확 커진다. 청소년은 기대 받는 '자원'들 아닌가. 이 사회를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 틀에 맞춰진 좋은 여성이, 좋은 남성이 되길 우리는 기대 받는다. 그래서 여청과 남청은 다른 방식으로 통제당하고, 다른 폭력을 몸에 각인하고 살게 된다.

체벌에 다른 성역할 고정과 학생들 간 분리 효과

체벌은 태초부터(!) 폭력이다. 학교 안 남청들에게만 더 많이 가해져서, 차별이어서가 문제인 것이 아니다. 체벌로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런 폭력을 겪으면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성역할을 더

욱 명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 먹고 살아온 이 사회를 알게 모르게 유지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교는 그런 점을 미처 보지 못하게 만들고, 누가 더 맞고 누가 덜 맞았는지 치사한 차별-평등 논리만 오가게 된다. 그래서 더 무시무시하다. 그곳에서 남성청소년들은 여성청소년을 공격한다. “나도 맞았으니, 그리고 나도 걸렸으니, 너도 맞아야 하고 걸려야 해.”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곳이 학교다.

폭력은 학교 내 권력질서에서 발생한다. 벌을 받는 일은 학교에서 벌어진다. 그렇기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처럼 똑같이 맞는다고, 벌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당장은 더 맞고 덜 맞는 차이가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런 차별 대우(?)의 피해자는 여학생 남학생 모두이다. 벌 받는 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건, 어떤 방식이건, 매한가지다. 남청들이여, 여청들과 손을 잡을지어다. 당신들의 고통은 여성들이 그만큼의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여, 꾸준히 폭력을 행하고, 벌을 줌으로써 청소년들을 통제해야한다는 생각이 깊이 박힌 낡은 학교에, 성역할을 깨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만들려는 무시무시한 의도를 가진 이 사회에, 함께 손을 잡고 어퍼컷을 날릴지어다.

공현, 「[페미니즘인(in)걸] 신데렐라이길 거부한다- 밤길을 다니고 외박을 할 자유를」, 인권오름 제166호, 2009. 08. 19.

[페미니즘인(in)걸] 신데렐라이길 거부한다

밤길을 다니고 외박을 할 자유를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기숙사 통금시간은 8시? 10시?

나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다. 기숙사는 당연히 여남 공용...일 리는 없고 여자 기숙사와 남자 기숙사가 마주 보고 따로따로 있었다. 어느 가을날, 내가 속해 있던 만화동아리는 중간고사가 끝난 걸 축하하며 동아리 회식을 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고고씽. 주구장창 일본음악에 애니메이션 OST를 불러대서 ‘일반인’들과는 도무지 눈치 안 보고 노래방을 즐길 수 없는 인간들이 많았던 동아리 특성상 회식 후 노래방은 나를 필수 코스였다.

그렇게 노래방까지 갔다가 기숙사 근처까지 왔을 때 시간은 대략 저녁 7시 반쯤. 조경이 잘 되어 있는 학교를 다닌 터라, 기숙사 옆에는 나무들과 잔디가 살고 있는 공터가 있었다. 해가 붉은 색조를 띠기 시작하고 조금씩 어둑어둑해져갈 무렵, 그 공터에서 만화동아리 사람들 10여 명에서 얼음뎡과 술래잡기가 벌어졌다.

그런데 채 30분도 하기 전에 여학생들이 가야 한다면서 빠지는 게 아닌가! 왜 가야 하나고 물어보았을 때 돌아온 대답. “기숙사 통금이 8시.” 남자기숙사에만 살아봐서 통금 시간은 여남 기숙사 똑같이 10시인 줄만 알았던 나는 그야말로 깜놀했다. 8시에 방별로 점호를 하고, 8시 이후에는 기숙사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니. (물론 남자 기숙사의 10시 통금이라고 해서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8시는 너무하지 않나? 토요일에 학교 끝나고 회식하고 수다 좀 떨다가 노래방 갔다 오면 8시는 눈 깜짝할 새 아닌가. 이처럼 성차별은, 결코 다른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밤길을 되찾자, 달빛시위

달빛시위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다. “달빛 아래 여성들, 밤길을 되찾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매년 하는 시위다. 여성들에게 위험하니까 밤중에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여성 단속(?), 성폭력 피해는 ‘야한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는 피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식의 헛소리들, 그리고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사회에 맞서서 “밤길을 되찾자”라고 외치며 달빛 아래를 누비는 것이다.



6회 밤길 찾기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

청소년의 경우는 어떻게 문득 작년에 있었던 촛

불집회 때가 떠오른다. 경찰들은 밤이 깊어지면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밤 10시가 넘었으니 청소년 여러분은 귀가해주시시오”라고 방송을 해댔다. 한 촛불단체는 집회를 열면서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을 자진 귀가시키겠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꼭 촛불집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피씨방도 노래방도 찜질방도 모두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다. 무슨 청소년들이 신데렐라고 밤 10시가 마법이 풀리는 시간인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위험한 밤길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은 집요하다.(유일한 예외는 학원, 지숙 등 ‘공부’뿐이다.) 여성들의 경우에 맞먹을 정도다. 아니, 적어도 여성들의 경우는 밤 10시 이후에 출입금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럼, 여성 청소년들은? 여성이면서 청소년인 그들은 더 많은 제약에 마주해야만 한다. 남자기숙사는 통금 시간이 밤 10시인데 여자기숙사는 밤 8시인 바로 그 차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차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그렇게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기숙사 통금시간 뿐 아니라 집집마다 있는 ‘통금시간’도 보통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 더 이르다. 그냥 밤길을 돌아다니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혹시 외박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청소년들의 외박이 대체로 잘 허락이 안 되지만 여성 청소년들이 외박하겠다고 하면 집에서는 더 난리가 날 공산이 크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도 체감하게 된다. 같이 밤늦게까지 집회를 하거나 회의/토론을 하거나 놀려고 하면 청소년들은 꼭 집과 실랑이를 해야 한다. 그냥 알아서 집에 잘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너그러운 집이다. 외박이 까다롭기 때문에 MT를 가기도 힘들다. 여성 청소년들은 그걸 더하다. 밤 9시만 되어도 자리를 떠나는 청소년들은 여성 청소년들이 더 많다. 일반적으로, MT나 밤샘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청

소년 활동가들 중에는 남성이 많다.

신데렐라이길 거부한다

고미숙은 “이팔청춘 꽃피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라고 질문하고 청소년이라는 존재를 비판적으로 추적하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청소년의 존재 기반은 학교와 가족이다.”(김현철, 고미숙, 박노자, 권인숙, 나임윤경 『이팔청춘 꽃피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60쪽) 이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집(가족)과 학교(그리고 학교의 연장선상인 학원)에만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청소년들이 밤길을 돌아다녀선 안 되고 외박을 해서 안 되는 것 속에는 청소년들은 가족(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교사, 학원)의 감독과

보호 하에 있어야 한다는 이 사회의 룰이 있다. 외박은 이런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들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곳에 몸을 맡기는 일이기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허락받지 않는 외박을 이렇게 부르지 않던가? 가출(家出:가족으로부터 나감)이라고

사실 여성들에게 밤길을 금지하는 논리와 청소년들의 밤길을 금지하는 논리는 고만고만하다. 여성들/청소년들에게 밤길은 위험하니까. 여성들/청소년들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여성들/청소년들은 집에 있어야 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성들의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소 약해진 듯하다. 꾸준한 여성운동의 결과로 여성이 남성 가부장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자식/청소년들은 부모/보호자들의 소유물이라는 식의 생각이 강고한 것 같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데렐라가 되어간다. 밤 8시, 10시, 혹은 12시에.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신데렐라가 되길 거부한다. 80년대에 사라진 통금이 여성&청소년들에게만 존재하는 현실에 저항한다. “밤길을 되찾자!”는 여성들만의 구호가 아닌 청소년들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이르러서 더욱 강고해지는 이 ‘밤길 금지’, ‘외박 금지’ 논리에 맞서서, “밤길을 되찾자!”는 누구보다도 여성 청소년들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여성주의(페미니즘)와 청소년인권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만나며 서로 힘을 더해가는 것이다.



〈회 밤길 찾기 시위 홍보 웹자보〉

엠건, 「[페미니즘인(in)걸] 여성 + 청소년 정치까지 몇 km? - 여성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이야기」, 인권오름 제170호, 2009. 09. 16.

[페미니즘인(in)걸] 여성 + 청소년 정치까지 몇 km?

여성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이야기

엠건(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대규모 촛불집회의 불을 당겼던 '촛불소녀'는 과연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에 불을 당겼을까? 글쎄. 작년 여름, 촛불소녀 아이콘의 엄청난 유행 속에서 촛불소녀 소리가 듣기 싫어 '촛불소녀이길 거부한다' 라는 제목의 글까지 쓴 적 있던 나로서는 그 때의 기억을 회상하며 이 말 밖엔 할 수가 없다. 촛불소녀는 그 때에나 지금에나 촛불 정치의 액세서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어리고 연약한) 촛불소녀로서 어른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집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까지,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촛불소녀는 성인들의 집회를 활성화하는 이미지 아이콘으로 소비되었을지언정, 이쉽게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정치까지 몇 킬로미터?

촛불집회 초반에 여성 청소년들의 참여가 '소녀' 이미지로 부각되어 화제에 오르는 걸 보면서, 이 사회가 여성 청소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란 언제나 '소녀 이미지' 를 소비하는 형태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청소년, 여성,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소녀까지, '여성 청소년을 구성하는 정체성'들은 하나같이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정확히는 청소년도 여성도 소녀도 정치와 멀어질 것을 요구받는 존재들이다.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가 제도적으로 막혀있다. 20세 이상인 사람만이 선거권을 갖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사실상 시민이 아닌 존재다. 거기에 더해, 남자들이 정치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구조적 무관심을 갖게 만든다. 소녀는 말할 것도 없다. 소녀는 그저, TV속 소녀시대처럼 깨끗하고 어여쁘고 순수하면 된다. 여성 청소년들은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정치에서 '배제'된다.

그 결과일까? 여성 청소년들의 일상은 성인, 남성, 기타 등등 씨들 위주로 구성된 사회 구조 및 문화에 지

배당한다. 대학 가면 풀어준다는 말에 학교에 자유를 반납하고, 1교시 아침부터 은근슬쩍 어깨를 만지는 남선생의 손길에 참을 인(忍)자를 백만 번쯤 새기고, 쉬는 시간이 되면 '소녀시대' 짱을 외치는 미디어의 뒤통을 상기하며 비비크림을 찍어 바른다.



영화 <하나와 엘리스>의 한 장면. '깨끗하게, 순수하게, 어여쁘게!'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소녀' 이미지

진절머리가 나는 등교의무, 선생 직함 단 변태들의 만행, 강박이 된 외모 꾸미기 등등. 살맛안 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원래가 이렇게 생겨먹은 세상, 이미 태어나버린 걸 뭐 어찌겠어. 살려면 대충대충 맞춰 살아야지.' 근데 이게 착각이었다.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세상이란 없다. 원래 그런 거라 여겼던 많은 것들

은 실은 정치적 결과물이다. 위에 예로 든 여성 청소년의 일상 역시, 성인 남성 기타 등등 씨들이 각기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권력 따위를 깊이깊이 반영한 정치적 결과물인 것이다.

여성 청소년 부르기, '청소년' 혹은 '소녀'

여성 청소년, 청소년 같은 말들은 아직까진 낯선 단어다. 그동안은 뭉뚱그려 청소년으로 불리거나 소녀로 불리거나 둘 중 하나였다고 본다. 전자가 청소년 관련 담론 안에 젠더문제를 의식하는 목소리가 미미했음을 뜻한다면, 후자는 여성 청소년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사회의 환상과 요구에 맞춘 여성 청소년의 상인 '소녀'만이 난무함을 말해준다.

여성주의팀 활동을 하면서 보편적일 거라 생각했던 학생인권 분야도 실은 남성 청소년 중심의 의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다. 두발규제나 체벌은 상대적으로 남성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더 큰 사안이고, 남성 청소년들이 주로 주도하는 의제였다. '청소년'이라는 단일한 키워드에만 머물기엔 같은 두발규제 문제라도 성별에 따른 억압의 형태와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과 욕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여성 청소년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필요해진다.

'소녀'와 관련해서 여성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자기주장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자주 느낀다. 난 '소녀'로 불리는 게 좀 띠껍다. '소녀'는 여성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단순 호칭이라기보다 10대 여성들을 몇 가지 이미지 안에 가두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얘기를 직접 하지 않으면, 결국 '소녀'처럼 대상화되어 특정 틀 안에 맞춰지길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정치적 권리가 없다는 건,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사회에서 그 사회가 강제하는 틀에 맞춰서 잡자코 살아야

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하자!

자기 삶을 외부에서 강제하려할 때 이를 거부하려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순간, 인간은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는 게 아닐까? 가령, 소녀 이미지에 대한 거부를 글로 말로 열심히 표현하고 다닌다든가, 학교 내 변태교사들을 응징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여학생들의 징계위원회’ 만들기를 주장한다든가.

정치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식과 언어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소 익숙한 것들이나 좋아하는 것들에서 정치를 찾아도 될 테고... 요즘은 팬클럽에서도 꽤 멋진 정치가 일어나는 듯싶다. 특히나 소속사 측에 대항해 동방신기 팬클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념 찬 움직임은 팬덤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만든다. 또 교실 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끼리끼리의 수다에도 정치의 가능성은 숨어있다. 선생 뒷담을 까거나, 비리 가득한 학교 욕을 하거나, 그런 수다판은 가장 자연스런 형태로 분노가 자라나는 곳이다. 그러니 모르는 일이다. 이런 수다가 발전해 훗날 어떤 사고(?)를 칠 수 있을 지. 훗~.

팬클럽이든, 수다와 뒷담이든, 기존의 정치에 얽매지 않는 정치스럽지 않은 정치하기! ‘여성청소년들의 정치’로써 자유분방하게 즐겁게 진실하게 무엇이든 할 수 있길! 세상에 맞춰 사는 건 그동안 많이 해왔지 않은가. 이젠 세상을 우리에게 맞춰 볼 차례다.



뒷머리를 바리깡으로 밀린 남학생. 여자는 긴 머리, 남자는 짧은 머리의 공식이 성립된 사회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조금만 더 머리가 길어도 쉽게, 훨씬 깡깡한 규제를 받는다.

한날, 「페미니즘인(in)걸」 여학생은 성적이 “너무” 우수하다. 도대체 어찌라고~, 인권오름 제174호, 2009. 10. 14.

[페미니즘인(in)걸] 여학생은 성적이 “너무” 우수하다. 도대체 어찌라고~

한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날 활동가의 자기 고백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시절, 나는 ‘모범적인’ 여학생이었다. 민망하지만, 그랬다. 공부도 곧 잘했고, 반장도 몇 번 해봤다. 선생님들의 예쁨도 꽤 받았다. 학교 안에서 가끔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건 그냥 그 날 재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였다. 청소년 인권? 그런 거 전혀 몰랐다. 지금의 정신 상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공부에 매진했다. 그만큼 성과도 있었고, 보상도 받았다. 당시에 내가 성차별을 받았던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 학업성적과 임원직 수행으로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뛰어넘은 나는 어느 찌질한 남학생들보다 훨씬 인정받았다.

차라리 객관적인 점수로 평가받았던 그 시절이 여성인 나에게 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걸까? 요즘 국방부가 군가산점 부활을 운운하는 걸 보면 처참한 느낌마저 든다. 아무리 졸업성적이 좋아도 '용모준수'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하는, '군필자 우선'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학교 밖보다는 균형 잡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우세가 학교 안에서는 가능한 거고, 여남평등은 학교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평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내 이야기를 해보자. 어렸을 적 엄마는 내게 “찰흙으로 고추를 만들어 붙여줘야지.” 등등의 농담을 많이 했었다. 내가 그다지 ‘여성스러운’ 외모를 갖추고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엄마는 언니에게는 보이지 않는 다른 종류의 기대감을 내게 품었고, 나는 내가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는 무게를 어릴 적부터 지고 살았다. 지금도 내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엄마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엄마가 미안하다. 예쁘게 놓아주지 못해서. 그만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돋보일 수 있어. 열심히 해. 엄마가 밀어 줄게.” 엄마의 진솔한 충고는 나의 처절한 인정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광파르였다. 변호사든, 기지든 뭐가 똑똑하고 멋져 보이는 직업을 가지려면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야 했고, 좋은 대학에 가야만 했다.

물론 이런 경험이 내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탈학교 청소년 활동가는 자퇴를 고민하던 시절 담임교사가 했던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너 자퇴 해가지고, 어디 시집이나 갈 수 있겠니?” 나의 엄마도, 이 담임교

사도 여성인 우리가 맞이하게 될 쓰디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라 생각한다. 어찌면 본인들이 여성으로서 살아오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를 나눠 준 것일 수 있다. 비록 그 지혜가 우리가 가진 조건 자체를 성찰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여학생들, 너무 똑똑해서 ‘문제다’?

소 팔아서 장남만 대학 보내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여성도 남성과 나란히 취학의 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었고, 기회 자체만 본다면 성차가 두드러지지 않는 시점에 온 것 같다. 학업 성취도 평가 분석이나, 특목고 진학률을 보면 여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이 남학생들을 앞질러 가고 있다고 한다. 남학생 학부모들은 내신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남녀공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남고/여고로의 전환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까지 일부 학교에서는 ‘남녀 내신 분리 산출’이 관행이기도 했다. 남녀의 뇌구조 차이를 근거로 남녀공학 폐지론을 주장하는 보수논객들도 활개를 친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함을 생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뇌의 크기까지 들먹였던 것이 우생학 아니었던가. 이제 여성 생물학적 우수함을 거꾸로 반증하고 있는 셈이니 도리어 반가운 일일 수도 있겠다.

사실 이런 분석들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것 자체가 이들의 논리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그 분석에는 문제가 있어. 여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야.” “우리 여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있나? 좀 못하도록 노력해 볼게.” 얼마나 우스꽝스런 답변인가. 왜 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걸까? 여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되 남학생들 보다는 살짝 못하는 오묘한 성적 관리 기술을 익혀야 하는 걸까? 이러한 현상이 정말 ‘문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어떤 사회적 장벽이나 차별이 있고, 그것이 성적에 영향을 미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성적으로만 학생의 능력을 판단하는 평가제도 자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애꿎은 여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차별이 낳은 역설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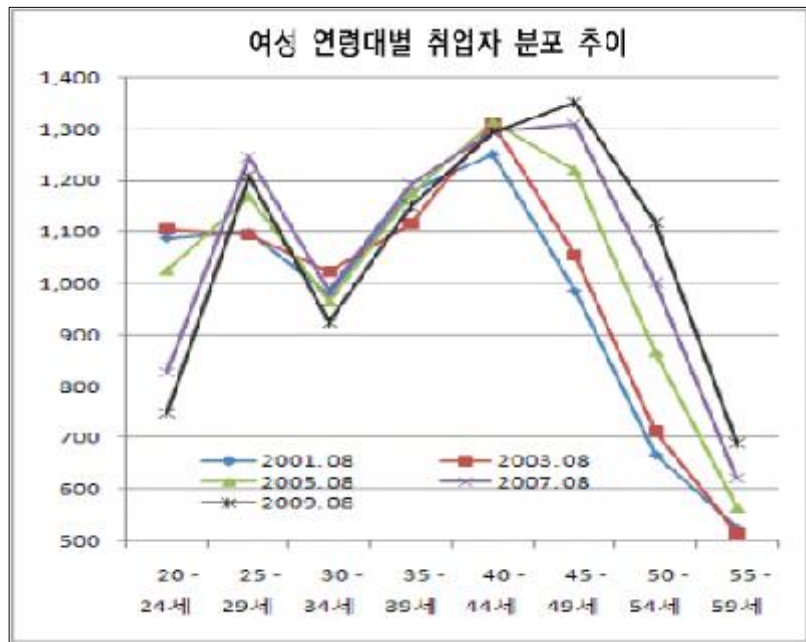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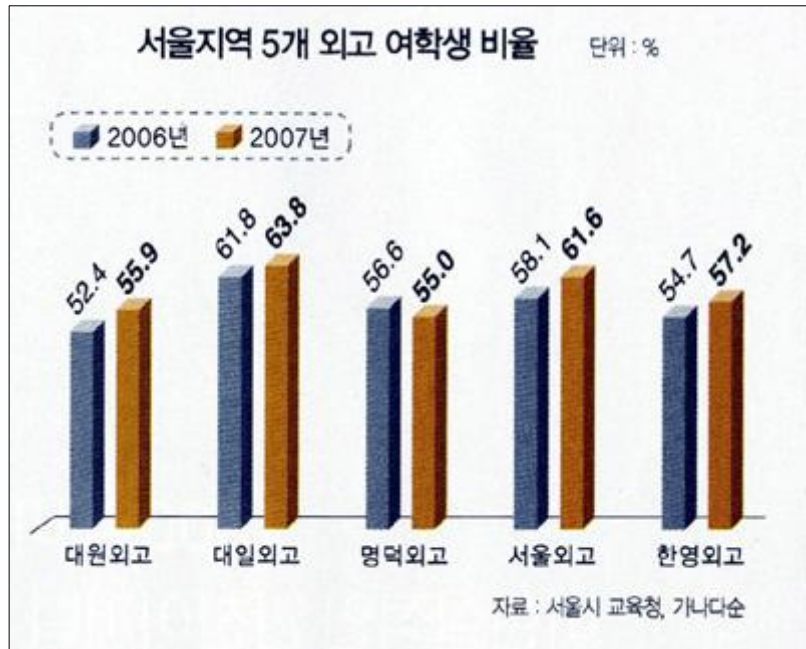
여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좋은 것은, 그만큼 그녀들이 성적 관리에 필사적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차별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성적도 뛰어나다는 거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뛰어나야 비로소 출발점에 설 수 있다. 따놓을 수 있는 데서 점수를 충분히 따놓지 않으면,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비슷한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잠재적인’ 능력자로 인정받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항상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어야 한다. 대학 진학 후, 20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어학 공부에 더 많이 열중한다는 통계는 그런 점에서 의미 있다. 여성 할당제 등 여남 간의 실질적 평등을 보완하려는 정책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는 못한다. 특히나 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한 시기에는 그마저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임용고시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암암리에 사립학교에서 남교사를 선호하고, 우선 채용하기 때

문이다. 쓸쓸한 일이지만, 군가산점제가 부활하면 이런 ‘여초 현상’ 조차 사라지겠지만 말이다.

정말 여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여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고 싶다. 평균이라는 통계의 가장 큰 함정은 변량들의 차이를 무화시키고 중간 값으로 환원시켜 버린다는 점이다. 모든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부를 잘하는 일부 여학생들이 있고, 그녀들이 한국 사회의 여학생을 대표한다. 많은 여학생들이 힐러리나 박근혜, 나경원을 동경할 순 있지만 모두가 그녀들처럼 소위 ‘성공’하는 여성이 될 수는 없다. 여학생들이 내신관리 능력이 뛰어난 건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간형에 부합함으로써 생존하려는 전략이다. 그냥 여성이 아닌, ‘똑똑한 여성’들은 사회에서 남성과 비등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그녀들을 ‘명예 남성’이라고 부른다.

어떤 교사들은 ‘참한 여학생이 반장이 되어야 교실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한다. ‘참한 여학생’이 교실을 주



도해야 교실 안 폭력도 줄어들다는 거다. 참한 여학생은 누구인가? 성격은 기본이고 성적도 좋아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조절하고, 교실 안을 침착하게 돌보는 ‘조용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순간,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혹 느껴진다. 이제는 기술과 가정을 분리하지 않고 여남이 함께 배운다고 한다. 출석부에 남학생 이름이 먼저 기재되어 있던 문화도 사라졌다고 한다. 학교가 옛날보다는 많이 변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의 ‘능력’을 바라보는 기준은 획일적이다.

평균을 갉아먹는 존재들의 반란

이러한 학교 안의 능력주의가 깨지지 않으면, 통계에 보이지 않는 다수의 여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끊임없는 열등감에 괴로워하는 여학생들, 학교의 기준을 비웃으며 학교가 아닌 거리를 택하는 여학생들에게 “그러니깐, 공부를 좀 더 하라니깐!”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한 명, 한 명 천천히 빛나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만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없는 학교에서 성평등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연재 글들이 청소년 인권에 여성주의적 상상력을 불어넣는 시도였다면, 이번 글은 청소년인권을 통해 자칫 페미니즘이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능력주의(성적 제일주의)’다. 학교에서는 못생겨도 공부를 잘하면 일단 인정받는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내면 역시나 인정받는다. 소수성에 기반한 다양한 차별들이 능력주의라는 거대한 프리즘을 통과해 그 빛깔을 낸다. 여성주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학교 평균을 갉아먹는 존재들’의 반란을 기획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현, 「[페미니즘(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인권오름 제178호, 2009. 11. 10.

[페미니즘(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몬스터’(우라사와 나오키 지음)라는 만화가 있다. 제목부터가 ‘괴물’인 이 만화에는 진정으로 천재적이면서 잔혹한 살인자, 요한이 등장한다. 그러나 절대악인 요한을 추적하면서 드러나는 진실은, 그 요한조차도 ‘인간병기’를 만들어내려고 한 어른들의 실험에서 비롯된 괴물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만화에서 요한이 사실상의 자살로 사라진 후, 남겨진 질문은 이것이다. “괴물은 누구인가?”

괴물이 되어버린 가해자

사형, 종신형, 거세,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최근에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에게 가해져야 하는 처벌이라면서 거론되는 것들이다. ‘조 아무개 씨’의 여성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라면서 “그런 새끼들은 처죽여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다. “가해자에게 인권은 없다.”, “짐승만도 못한 놈” 같은 말들 속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 그건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줄여서 가해자)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 아니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해자는 자신들과는 무관한 존재, 이해할 수 없으며 제거되고 박멸되어야 할 ‘괴물’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끔찍한 성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격리되기 전까지 이 사회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범죄는 사회적인 사건이며,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도 이 사회의 일부이다. 아동 성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보자. 아동 성폭력 범죄 가해자들은 학력이 낮고, 자이존중감이 낮고, 성적 좌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사회적 힘이 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음주에 관대한 문화도 원인이 된다. 애초에 남성으로서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다는 심리 자체가 남성 중심적 사회

문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여성/아동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하고 여성/아동이 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만들어지는 것 또한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21 제781호(2009.10.16.) 안수찬 기자의 「아동 성폭행범 처벌 ‘무겁게’보다 ‘확실하게’」를 참고하시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사회적 맥락이나 원인들을 외면한 채, 그리고 평소에는 폭력들에 관대한 모습마저 보이면서, ‘비정상적인 것’들로 돌출된 부분들을 잘라내려고만 한다. 마치 이백 대, 삼백 대를 때린 교사들에게는 ‘부적격 교사’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한 대, 다섯 대를 때리는 교사들에게는 관대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처벌은 학교의 폭력적인 시스템과 규제, 처벌에 관대한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한 대를 때리든 이백 대를 때리든 처벌은 근절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사회의 문화와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30대를 강간하든 아동을 강간하든, 강간을 하든 성추행을 하든, 성폭력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든 작든, 성폭력은 근절되어야만 한다. 아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차별과 폭력, 성적 대상화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여성단체가 조두순 사건에서 음주를 이유로 감형된 것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조 아무개 씨를 죽여버려야 한다고 외치며 ‘가해자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심하게 말하면 위선적이다.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자기 당 국회의원이 저지른 성폭력을 무마하려고 술잔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며 성폭력에 관대한 모습을 보였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 아무개 씨를 죽여버려야 한다고 댓글을 달고서 바로 다음날에 성매매 업소에 가는 남성들,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남자 상사들, 강간 포르노를 보면서 하악거리는 남성들, 소녀시대나 원더걸스의 ‘섹시함’에 속으로 야릇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뮤직비디오를 보는 남성들이, 없을 것 같은가? 다시 한 번 묻자면, “괴물은 누구인가?”

아이들은 공주님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동 성폭력에 특히 더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신체적, 사회적으로 더 약자인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더 비난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사람들이 아동에 대한 다른 폭력보다 성폭력에 특히 더 거부감을 가지며 분노하는 이유, 그리고 아동이 아닌 경우에도 신체적으로 저항할 만한 힘이 없는 여성이나 장애인이 당한 성폭력보다 아동의 경우에 특히 더 분

노하는 이유 등등.....

일단, 실제 그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권력 관계가 어떤지를 떠나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더 많이 분노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그것을 종족을 보전하고자 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근대 이후로 형성된 아동관도 한 몫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아동은 교육받고 보호되어야 할 존재이며, 무력한 존재라는 아동관 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끔찍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간다.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위치추적 서비스나 CCTV 등을 다루는 업체들은 광고를 한다. 아이들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서비스를 달고,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부모, 후견인, 교사 등)의 시야를 벗어나면 안절부절 못하는 어른들이 늘어난다. 안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 잘 알겠지만, 그 결과는 아이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아이들에 대한 감시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백스텔레콤은 한국의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과 치매노인 및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위치확인서비스를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이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4인 기준 3,911,000원) 이하 가정의 장애인(지적/정신/자폐성), 치매노인, 만 1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 모집인원** | 8,000명 (2009년 9월 이후 추가 8,000명 서비스 예정)
- 증빙서류** | 신청자(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매 (아이 단말기 가입자 동의), 신청자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기준 확인), 주민등록등본 1매 (+신청자가 다른 가구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매) (소득기준 확인)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매 (법정기준 확인), 치매진찰일 경우 진단서(보건소, 관공기관) 1매 (법정기준 확인)
- 신청기간** | ~ 2009년 8월 31일
- 신청방법** | 아이 홈페이지(www.aifi.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지적/자폐 장애인, 치매노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 제공해주는 위치확인 서비스.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본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보호자가 서류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 성폭력 사건에 분노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동과 성을 연관짓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사건의 끔찍함에도 분노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가해자를 ‘괴물’ 취급하고, 아동을 성과 연관지어 생각하기를 꺼려한다. 아동은 성과 무관한 순수한 존재로 남아야 하며, ‘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성을 얘기하기를 꺼려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성폭력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다.” 성폭력은 지극히 신체적인 범죄인데 말이다.)

이런 태도가 아동을 성적으로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로 만들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매듭을 푸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다. 아동이 성적인 존재이자 주체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명명하고 인식할 언어와 지식을 갖지 못하기 십상이다. 조 아무개 씨가 가해자인 이번 사건에서는 상해와 폭력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 아동이 자신의 피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작년에 대구의 초등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성폭력의 피해/가해를 특정하기도 어려웠고 때로는 그것이 성폭력인지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측면조차 있었다. 사건의 당사자인 초등학교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최소한 신체적인 측면에서 근력으로도 지구력으로도 아이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주의의 결과 아이들이 더욱 더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되고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된다면, 또 아이들이 성에 대해 더 무지한 채로 남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아이들에 대한 범죄나 폭력, 차별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이들의 삶을 완벽한 감시 하에 두고 아이들의 자유를 박탈할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어쩌서 아동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피해자’라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인지 이 불합리함을 참 설명하기 힘들다.

아이들 자신을 포함하여 이 사회의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성폭력 범죄 자체를 줄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닐까? 아동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잘 대처하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이야기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성에 살고 있는 공주님이 아니며, 아름다운 동화 속에 사는 존재도 아니다. 아이들은 이 사회에서 당신들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동 성폭력 사건은 어느 설명 불가능한 괴물이 우리가 지켜줘야 할 순수한 공주님을 납치한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의 현실이며, 괴물을 쓰러뜨리고 공주님을 성 안에서 보호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티, 「[페미니즘인(in)걸] 밑바닥에 깔린 청소년 알바- 44만원에 그치지 않는 노동현실」, 인권오름 제182호, 2009. 12. 09.

[페미니즘인(in)걸] 밑바닥에 깔린 청소년 알바

44만원에 그치지 않는 노동현실

윤티(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44만원, 청소년 비정규직 알바

나는 청소년 알바생이다. 시시in에서 얼마 전에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이름붙이길, 일명 “44만원 세대”라고 했다. 나는 여성이며, 청소년이고,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다. 요즘 청소년노동인권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 번 우려먹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뭐 비밀도 아니고 계속 말해서 났고 났을 얘기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ㅋㅋ 그래서 이번에도 내 경험을 가지고 한 번 청소년 알바생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탈학교 청소년인 나는 부모의 눈치 압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내가 번 돈으로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알바를 시작했고, 내가 처음 일했던 곳은 패스트푸드점이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일을 하였다. 내가 하는 일은 뒤편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남자애들의 일보다 더 편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건지 잘 몰랐지만) 남녀의 시급에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한 차이에 대해 별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그리 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면 할수록 진이 빠진다고 해야 할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계산대를 두드리고 주문을 받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다움’을 같이 팔고 있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야 알았다. 난 주문을 하러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맑은 목소리를 선사해야 했고, 버거를 만드느라 지친 몸에 못지않게 스스로를 여성스럽게 가다듬고,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여야 하는 ‘협한 일’을 해야 했다.

청소년들, 돈을 벌려면 성을 이용하랴구?

어쨌든 돈은 벌어야 했기에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그만두게 된 뒤에도 다른 일을 구하였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커다란 ‘일’이었다. 사무직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사흘 정도만 나가서 서류 정리 조금 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하루 4~5시간 일하고 일당은 2만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자마자 내게 설거지와 청소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 자기가 혼자 일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다고 이래서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집에서 잘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돈이 필요하니까 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그 사장의 사무실인지 집인지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주급을 받는 날, 그 기러기 사장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눈에 나는 큰 반항 한 번 못하고 ‘당해야’ 했다. 처음엔 다리를 쓰다듬더니, 나중에는 안아달라고 했다. 그 상황에서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냥 박차고 나와 버릴 수도 없었던 그 때를 생각하면, 더 치가 떨린다. 나는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사장이 원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었다는 것이 무서웠다. 여성청소년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구하려면 일단 이런 수모는 미리 각오하고 들어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그 오피스텔을 빠져 나왔다.

사실 처음엔 이런 일을 당했어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장의 해코지가 두려워서, 또는 이제 와서 하소연 해봤자 뭐가 있겠나 싶은 마음에, 내 마음 속에만 퐁퐁 숨겨왔던 것 같다. 많은 청소년 알바생들이 그러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밀바닥 노동,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

얼마 전인 11월 27일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실태’를 보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88만원 세대만도 못한 44만원 세대인 청소년 알바. 그래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밀바닥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다.

시급이 3770원이었을 때도 2100원, 2500원 등등 햄버거 한 개 값만도 못한 시급을 받으며 청소년 알바는 그렇게 ‘헐값노동’ 취급을 받아 왔다. 그나마 올해부터 시급이 4000원으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또한 청소년 노동자들에게겐 가혹하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일하는 도중에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휴게시간 따로 없다/휴게실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62.0%, 62.8%로 꽤나 높게 나왔다. 근로기준법에도 4시간 일을 하면 30분은 꼭 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쉼의 것도 사치일 뿐인 것 같다. 나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 매일 똑같은 버거만 먹으면서 좁은 곳에서 딱 30분 쉬게 해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30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으니까.

우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고용주(비청소년)들은 우리를 더 쉽게 대한다. 실제로 어떤 청소년은 일하는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손을 들고 벌을 서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노동자가 아니었다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일테다. 일단 ‘청소년’에 대해, 거기다 공부만 죽어라 열심히 해야 할 청소년이 ‘알바’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딱히 칭찬해주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만만한 존재다. 그래서 서비스업, 주문을 받는다거나, 전화를 건다거나 하는 업종에 있다 보면 손님들까지 우리를

막 대할 때가 있다.

용모단정(?)과 밑바닥을 벗어날 날은

나도 일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 하지만 확실히 변하지 않는 건, 여성청소년에게는 주어진 일 자리조차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힘들게 일하고 돈 많이 주는 알바는 난 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편의점 야간알바는 대부분 남자를 뽑고 오토바이배달이나 다른 배달 쪽 일도 거의 남자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알바도 성별분업이 되어 있다. 여성들은 상냥하고 예쁘고 안전한 일, 남성들은 힘쓰고, 몸부딪히고, 강하고, 험한 일. 우리는 그런 식의 험한 일은 여성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교육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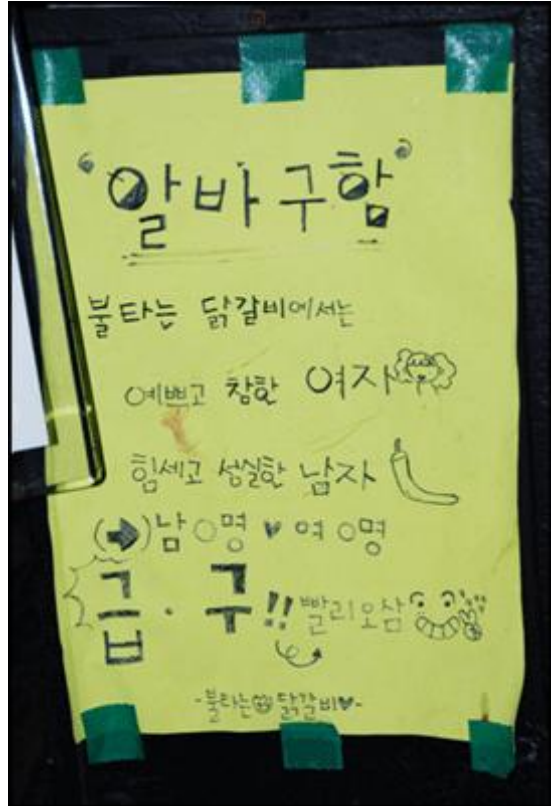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중매체들에서도 여성의 직업과 남성의 직업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준다. 그리고 남성 직업인데 그 일에서 성공한 여성들, 소위 말하는 '여성 엘리트' 을 보여주며, 이례적인 일이라는 투로 말하곤 한다. 그러면서 다른 여성들을 향해 말한다.

"너도 네 재주껏 해봐."

남성은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여성은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 다시 내가 알바를 구할 때는 '용모단정'이라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시간을 써야할 것 같은 두려움이 스물스물 생겼다.

여성청소년으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밑바닥 노동'인 청소년 노동에서 그 '밑바닥'을 뚫고 한참 더 내려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것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초초저임금인) 시급에 남녀차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손님들을 대할 때 아무리 토 나올 것 같은 손님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생글생글 웃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급 더 올려 줄테니, 애인이 되어달라는 마초 아저씨들의 더러운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야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과 청소년, 여성 청소년의 노동 현실은 언제쯤 밑바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청소년 알바를 모집하는 광고.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페미니즘인(in)걸] 스무살이 된 걸(girl)이 보내는 편지

엠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작년 겨울(벌써 작년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를 모티브로 영상을 하나 찍으려 했었다. 나와 내 친구들을 통해 막 20대에 들어선 여자애들의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시작했던 영상은 결국 이런저런 사건사고 끝에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는(못나서 그래) 자아성찰 다큐로 끝을 맺었다. 그래도 이 영상 찍는다고 친구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덕에 한 겨울을 나홀로 방콕하는 대신 친구들 그 해 살았던 얘기 들으며 보낼 수 있었다.

학교를 조용하게는 다녔지만 썩 성실하게 다니지는 않았다. 덕택에 학교친구로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이 열을 넘지 않는다. 그나마 지금까지 만나는 학교 때 친구로는, 내 친구의 친구들로 걸다리 관계를 시작해 아직까지도 '친구가 되고 있는 중인' 대여섯 명의 여자친구들이 있다. 학교 졸업하고 부쩍 만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이대로 멀어지는건가 멀찍이서 마음만 헛헛해하고 있던 차였다. 다큐를 찍는다는 명목으로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그리 벌어지고만 있던 거리를 좁히는 일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 친구집에 하룻밤 모여 놀던 날엔, 한 이불 덮고 예전 고등학교 얘기, 대학교 구린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오락가락하는 수다들을 찍으면서 빨리 이 카메라 걸어치우고 나도 같이 편하게 얘기하고 싶다 계속 생각했다.

12월의 끝자락, 홍대에서의 풍경

12월이 끝날 무렵, 홍대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살짝 비싼 스파게티도 먹고 거리에서 옷 구경도 하면서 놀기로 예전에 정한 날이었다. 내 똘똘 나뭇대로 고대했던 카메라 없이 맨 몸으로 애들이랑 노는 그 날이기도 했다. 좀 늦게 도착해서 만나게 된 친구들은 멀리서 보기에다가 가까워 티가 폴폴 나는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있었다. 점심을 먹으러 유명하다는 맛집에 갔다. 슬슬 배가 불러오매 쭈뼛, 애들이 디카를 꺼내들고 둘씩 셋씩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케이블 TV 프로 '남녀탐구생활'에서 본 게 떠올랐다. 음식을 앞에 두고 끈임 없이 사진을 찍는 내용의 '여자 편' 에피소드였다. 찹찹찰찰. 다 먹고 나선 역시 유명하다는 어딘가에 가서 달달한 케익을 먹었다. 케익도 역시 디카로 찍었다. 어쩌다보니 소개팅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선 인터넷 쇼핑에

서 질렸다는 부츠 얘기가 들렸다. 어느 순간 또 화장품이 보였다. 맛있는 케익을 남기고, 이번엔 바로 아래층에 있던 스티커 사진점으로 갔다. 찍는 등 마는 등 옆에 서있다가 애들이 사진 꾸미기를 하는 사이 가게 밖으로 잠시 나왔다. 영상을 찍는 동안 조금쯤 좁혔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의 거리는 카메라 없이 애들과 흥대에 서 지냈던 하루가 끝나자 무한대로 벌어져있었다.

'학생' 정체성에서의 졸업, '아가씨' 라는 정체성으로의 입학

그 날 흥대에서 내가 친구들에게 느낀 거리감은 적어도 우리가 각자 대학에 가거나 재수를 하고, 홈플러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청에서 일하게 되는 등,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살게 되며 벌어진 '차이'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놀란 건, 그렇게 달라지고만 있는 줄 알았던 친구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너무나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스무 살을 맞고 이십대 여성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남녀탐구생활의 '여자'와도 겹쳐질 정도의 20대 여성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이토록 끈질기게 따라오는 '단일함의 굴레'가 참 무섭구나 싶었다. 수백 명을 '학생'이라는 단일한 존재로 만들려는 괴물 손아귀에 붙잡혀서 십 몇 년을 살았다. 같은 공간, 같은 복장, 같은 시간표, 같은 질서 같은 단일한 조건들을 서로 공유하며 살다보니 수백 명의 다른 존재가 어느 샌가 단일한 존재, '학생'이 되어 있었다. 스무 살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 다른 옷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산다. 하지만 서로 다른 존재들을 특정 이익에 맞는 단일한 틀 안으로 우겨넣는 '같은 질서'는 활동공간을 학교에서 이 사회 전체로 확장한 채 여전히 반복된다. 학생은 학교가 무수한 청소년들에게 강요했던 단일한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그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적어도 학교 공간 내에서 약화시킬 정도로는 절대적이었다. 여학생들이 더 이상 '학생'이 아니게 된 순간, 졸업과 동시에 또 다른 입학이 시작됐다. 이제 '20대 여성' 혹은 '아가씨'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몸에 올라가기를 쫓아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욕구는 왜 자꾸 아이러니한 결말을 맺는지

성인이 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가기로 했다. 19세 미만엔 허용되지 않는 법적인 권리,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권위, 뭐 그런 기득권을 좋든 싫든 갖게 되었다는 경계해야 할 사실이 하나. 또 하나는 술 취한 대학가 위로 겹쳐지는 소비자본주의 올라불라 하는 지배 질서의 음흉한 환영에 덧댄 '새로운 소비자 하나 추가' 누군가 외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나쁜 환경이 둘. 그 날 친구들이랑 흥대 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했던 건, 함께 어울려 논다는 의미보다는 그저 소비였다. 정확히는 '흥대'라는 환상에 대한 소비였다. 그 환상을 가진 소비자들은 또 다시 흥대의 것을 비롯한 술한 환상을 조장하는 사람들 손에 소모되고 있는 지도 몰랐다. 예쁜 여자에 대한 환상에 소모되고, 소녀시대의 환상에 소모되고, 남녀평등시대라는 환상에 소모되고 우리가 하는 소비가 우리에게 대한 소모로 돌고 돌았다. 나라고 화장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이 좀 웃기지 만) 어른티 나는 옷을 입어보고 싶은 욕구도 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을 비롯한 여성들이 '예쁘고 늘씬해지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자라면 응당 그래야한다는 식으로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있는 무언의 강요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유지하려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교묘함이 더 깊숙이 다가올 때마다, 내 욕구도 단순히 내 것이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룰 수 없는 것들 속에서 내 욕구가 정말 온전한 나의 욕구일까. 남성 중심의 사회와 그 틀에서 생겨난 욕구의 실현이 그저 내 욕구의 충족만으로 끝날 리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 화장을 하는 것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간이 되기 위한 투자들도, 내 욕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자꾸만 '남'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아이러니한 결말을 맺는지. 약자들은 왜 욕구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건지.

사회가 요구하는 정체성이 인해 '나'를 지우기 전에

20대 여성이란 정체성은 내가 이십대 성인이고 여성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조합이 아니다. 남성들에게 섹스어필할 수 있는 성인여성, 혹은 가부장의 입맛에 맞는 참한 아가씨, 이 사회가 만들어낸 '20대 여성'이란 정체성. 이것의 정체라는 게 별 게 있겠나. 그리고 우리는 20대 여성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마주치는 성희롱을 눈 감고, 대학가 남자동기들의 지극히 마초스런 발언들에 무뎌지고...살아남기 위해서였는지, 어찌서였는지, 깊게 체념하고 수긍한 뒤에 속 뿌리부터 진득하게 썩어문드러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만 같았다. 조금씩 조금씩 더 '아가씨'가 되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애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더해가는 서글픔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됐다.

이십대가 된다는 게 점점 더 생각이 없어지고 알아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십대 여성이 된다는 게, 내게 향하는 폭력보다 그런 폭력이 아무렇지도 벌어지는 세상을 욕하는 것보다 시시때때로 거울 보고 화장을 고치는 게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는 결국 사회가 요구하는 '20대 여성'만 남고 '나'는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홍대에서 같이 놀던 날에도 사실은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내 욕구도 의심하고, 20대 여성(혹은 아가씨)으로 사회가 호명하는 내 정체성도 띠껍게 봤으면 좋겠다고, 난 이 놈의 사회를 도저히 못 믿겠으니 우리 같이 믿지 말자고, 그런 얘기들을 털어놓고 싶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다. [페미니즘 인 걸]의 꼭지에 대놓고 20대가 어찌고 하고 있는 게 잘 하는 짓인지도 다 쓰고 나니 문득 불안해진다. 그래도 마음만은 언제까지나 걸(girl)인 필자이니 이번만 너그럽게 봐주셨음 좋겠다. 아님, 페미니즘 인 걸 번외 정도로 치부해도 좋고

난다, 「[페미니즘인(in)걸] 왜 소수자들은, 여성/청소년들은, 오지랖이 넓은가- ‘그래도...’의 반복」, 인권
오름 제190호, 2010. 02. 09.

[페미니즘인(in)걸?] 왜 소수자들은, 여성/청소년들은, 오지랖이 넓은가 ‘그래도...’의 반복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늘 어느 순간 벽 같은 것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신나게 학교 욕, 선생 욕을 하다가도 누군가는 꼭 “너무 우리를 생각만 하지 말고, 선생님 생각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를테면 차별에 대해 수다를 떨 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때리냐? 진짜 그 선생 너무 심하게 때리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에이, 그 선생님이 좀 심하게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별은 허용되고 그래야, 우리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학교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친구들의 꼬덕거림이 따라온다. 늘 답답했었다. 왜 이 친구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들에 대해 그냥 그대로 수긍하는 거지?

비슷한 경험은 학교를 그만 두고서 인권활동이라는 걸 하면서도 자주 접했던 것 같다. 인권교육을 가서 학생들의 권리나 인권에 대해 얘기하면 청소년들은 ‘아무리 그래도’ 하면서 ‘선생님들’ 걱정을 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아빠는 회사 뒷담화를 까다가 내가 발끈하자, ‘그래도’하면서 ‘사장님’을 옹호한다. ‘사장님’도 나름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보기엔 아빠가 훨씬 힘들어 보이는데.

구조적 무감각과 ‘착하게 길들여지기

사람들은 쉽게 이 사회의 기준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주류적인 기준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 곧잘 ‘인권’을 이야기하고, ‘차별’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 한다.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기존 사회의 질서를 흔들고 침범하는 것이라 여긴다.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진 않다. 청소년들이 “아직 어린 것들이”라는 말에 맞춰 “그래, 우린 아직 어리니까 좀 더 통제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거나, 여성들이 이 사회 ‘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더욱 꾸며내고 혹독한 다이어트를 감행한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성들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

하려고 한다.

같은 사회적 약자로 닮은꼴인 청소년과 여성, 그리고 약자들은 웃기게도 강자를 먼저 걱정한다. 그러한 여성성과 약자성(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고)은 약자가 강자에게 훨씬 더 많이 잘 발휘되고 있다. 이는 성인 교사/남성-강자 중심 사회에서 그들 중심의 질서가 학생/여성 속에도 깊이 뿌리를 내려, 자신들을 둘러싼 억압마저 그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예전부터 ‘남성/비청소년의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살며 쌓아온 경험들이 우리들 마음 곳곳에 눌러 붙어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생존하기 위해 강자 입장 내면화하기

소수자/약자들이, 권력 있는 자/강자들을 위하도록. 그래서 이 사회가 뒤틀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는 우리들을 오랫동안 ‘착하게’ 길들여왔다.

그렇게 길들여진 ‘착한’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산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착하고 착실했다. ‘야간 자율학습’은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 성적도 그럭저럭 유지했다. 학교의 온갖 규제가 고통스러워도, 선생님들이 우리를 때려도, 나는 그 순간순간을 흘려보냈다. 그런 것들을 그만두라고 말하고도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착실하게 참아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또는 그 순간에 내 목소리를 내기라도 하면, 눈앞에 징계나 탄압이 떨어질 테니까.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낼수록 선생님들이 우리를 때릴 때마다 그걸 계속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괴로웠다.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거기에 그럴 만한 의미를 부여해버렸던 것 같다. 어쩔 수 없어, 라고 선생님도 그만한 이유-학생들을 대학에 많이 보내야 할-가 있어서일 테고, 그건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라고

먹고 사는 것,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눈앞에 보이는 탄압이나 징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쉽게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못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편입되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강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당화 시켜야 했다.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도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나는 덜 불편할 수 있으니. 그리고 그럴 때에야 나는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래서 나도 그러한 나 자신과 학교와 차별하는 교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창시절을 추억할 때처럼. 대학에 가고 나서, 자유시간이 많아지니, “아 그래도 고딩 땀 할 게 있었는데~”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수능 보기 전에는 수능공부=쓸모 있는 짓/나머지 전부=휴식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수능이 끝나고 이게 허물어지고 나니, 참 허무하더라는 것처럼.

너무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힘든 시간만 있었다고 생각하기엔 내가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소소하고 시시콜콜한 일들을 더 크게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 때는 그래도 좋았지, 그래서 좋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 이 체제를 구성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단한 구조를 직시하는 것은 여성으로, 청소년으로,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착한 아이’로 길들이는 국가의 통제가 점점 더 검은 그림자를 펼쳐오는 이 때, ‘착한 아이’가 아니면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쫓아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때, ‘국가’를 위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고,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때, 우리 이제 더 이상 착해지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 커다랗고 단단한 기준을 뒤집을 만한 발칙함과 깐깐함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

어스, 「[페미니즘인걸] 고객님? 됐거든!!!-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뒤집어보기」, 인 권오름 제194호, 2010. 03. 16.

[페미니즘인걸] 고객님? 됐거든!!!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뒤집어보기

어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어서 오세요 공주님~

에뛰드 하우스라는,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여성들을 공주님으로 만들어 주는 화장품 가게가 있다. 어떤 광고에서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를 외치며 잡티 없이 매끈한 피부를 자랑하고 또 어떤 광고에서는 깨끗함이 다르다며 무릎을 안고 앉아있는 모습을 내세운다.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10대 여성을 노린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추켜올리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내세우며 소녀의 순수함을 강조한다. '소녀들의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다.'



10대와 여성은 언제나 소수자였다. 그러나 10대 여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수자에게 어떠한 지위가 생기는 한 순간이 있다. 그들이 소비자가 되는 순간이다. 소수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자본가들이 깨달을 때 그들에게는 소비의 주체라는 지위가 생긴다. 그들에게서 돈을 뽑아낼 여지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소수자는 "고객님"이 된다. 10대 여성들은 에뛰드 하우스에 있는 순간만큼은 공주님이 될 수 있고, 옷을 사러 돌아다니는 때 만큼은 "어서 오세요, 손님"의 손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10대 여성들은 소비에 집착하고, 판매자들은 10대 여성들을 더욱 대접한다. 또 하나의, 어둡고 질척질척한 소비의 굴레가 생기는 순간이다.

사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충분히 넘치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소비의 굴레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10대뿐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대, 특히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10대들이 스스로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 지점에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애기와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 노동권의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상황을 봤을 때 직접 돈을 벌고 그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인 마케팅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본가들이 청소년을 보고 있는 시선 - 그들의 부모님의 지갑을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열 수 있는 통로 - 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성인, 그 중에서도 돈을 버는 성인에 경우에는 어쨌든 자신의 소득과 그 안에서의 지출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그걸 찾지 못하는 성인들이 '꽤나'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10대들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이 용돈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화장품 살 돈이 모자랄 때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동은 용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급 4천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10대들은 용돈을 모아, 혹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으로化妆품을 사고, 옷을 사고, 핸드폰을 바꿔가면서 일상적인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물론 그 책임의 거의 모두는 10대 본인 이 아닌 10대 대상의 마케팅에 있다. "너희가 돈 관리를 잘해야지!"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이다.

10대를 판다고?

그러나 자본가들이 '소수자들'로 돈을 버는 방법은 그들을 소비자로 만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걸그룹 열풍이 그러했고 케이코드가 그러했듯이 그들 자체가 어떠한 트렌드가 되는 순간, 역시 대중은 소수자를 추앙한다. 섹스 앤 더 시티를 본 여성들은 스탠포드 같은 게이친구가 가지고 싶다고 지식인에 글을 올렸고, 왕의 남자와 브로큰백 마운틴, 앤티크와 같은 동성애 코드가 가미된 영화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면서 게이(절대 다른 성소수자를 포함하진 않는다. only 게이)에게 어떠한 지위 - 그들은 모두 여성만큼 예쁘고, 패션에 관심이 많으며 여자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 가 부여된다. 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소녀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촛불소녀의 소녀, 걸 그룹의 소녀, 이 사회가 바라는 소녀의 이미지는 하나의 지위가 되어 소녀들에게 다가간다. 그 지위에 매달려 "쉬는 시간마다 비비크림을 열심히 찍어 바르고", 서클렌즈를 꺼서 "크고 촉촉한 눈"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지위는 결국 에워드 하우스에서의 '공주님' 지위와 마찬가지로이다. '공주님'은 그들이 사게 하기 위한 지위라고 한다면, 소녀 이미지는 그들을 사게 하기 위한 지위이다. 오로지 자본가들에게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부여된 지위는 그만큼 사라지는 것도 빠르다.(사라지더라도 소수자인 그들에겐 또 다른, 이용해먹기 쉬운 지위가 부여되곤 하지만)

나를 팔아서 나를 산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사는' 과정이다. 10대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팔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 한 통에 몇 만원 씩 하는 비비크림과 파우더를 사고, 예쁜 옷들을 찾아 헤매며 작은 액세서리들을 모은

다. 하지만 말했듯이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 10대 여성으로써의 자신을 팔기 위한 과정이다.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피부도, “촉촉하고 커다란 눈망울”도 모두 남성들이, 어쩌면 어른들이, 또 어쩌면 사회가 원하고 요구하는 ‘소녀’에 맞추기 위한 허물들일 지도 모른다.

결국 근대사회에서 모든 소수자들이 어떠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소비의 공간뿐인 것이다. 그 공간 안에서 그들은 소비의 주체로만 주체화할 수 있고, 팔리는 존재로서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신을 상품화하며 다른 상품들을 소비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소비해주기를 기다리며, 훌륭한 소비문화의 일원으로써 '고객님'과 '상품'의 지위를 동시에 획득하는 영광스런 순간이다.

하지만 누가 그녀들을 욕할 수 있을까

화장하는 10대 여성에게 어른들은 발랑 까졌다고 말한다.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옷을 사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철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어른이 그녀들을 욕할 수 있을까. 결국 그녀들을 그런 길로 몰아넣은 것은 어른들인데.

그녀들은 결국 사회에서 자신의, 어쩌면 유일한 메리트를 좀 더 빨리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회에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수행하고 있는 그녀들을 어떻게 욕할 것인가.

“고객님~, 됐거든!”

난 친구들과 만날 때 마다, 밖에 나갈 때 마다, 살아 갈 때 마다 매 순간 느낀다. 돈이 없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카페에 앉아 얘기를 하고 싶어도 돈이 필요하다. 노래방에 가려고 해도, 보드게임 방에 가려고 해도, 쇼핑은 말할 것도 없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놀 수 없는 사회. 놀기 위해선 돈이 필수인 사회.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친구들 사이에서 도태되는 사회. 그렇기에 다시 다 함께 소비를 하고, '소비자'라는 권력에 매달린다. 소비의 악순환이다.

그런 소비를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 공주님이기를, 고객님이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는 아직 자신이 없다. 이 사회에서 18년간 살면서 쌓여온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너무 핑계만 대는 것 같으려나. 그럼에도 나는 무분별한 10대 대상 마케팅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반짝반짝한 광고들을, 구준표와 투애니원이 선전하는 옷과 핸드폰을 거부하고 싶다. 내가 그들에게서 고객님이라고 불리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조금 알 것 같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나를 기다린다고 말해도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에 나는 나를 보며 내 주머니를 응시하는 모든 것들에 대고 외치고 싶다.

“고객님? 됐거든!!!”

발세, 「[페미니즘인걸] 여성 청소년들의 팬덤시티를 말한다」, 인권오름 제198호, 2010. 04. 13.

[페미니즘인걸] 여성 청소년들의 팬덤시티를 말한다

발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요즘 아이돌 시장이 정말 뜨겁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만 봐도 빅뱅, 2PM, 샤이니, 소녀시대 등 한 번에 떠올리기가 쉽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모르는 신인 아이돌이 TV 브라운관을 통해 인사를 한다. H.O.T와 젝스키스, 핑클 등이 처음 국내에 생기고 나서 아이돌 전성기라 했던 시기 이후, 이렇게 많은 아이돌이 활동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부터 팬클럽 안의 실세는 여성 청소년들이었다. 여성 청소년들이 아이돌 팬덤(*) 문화의 흐름과 그 안에서 어떤 성역할을 하는 걸까?

기획사의 기획 작품 H.O.T.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10대 여성들에게 설문조사해서 탄생한 H.O.T는 기획사의 기획아래 멤버들을 모집하여 탄생한 첫 번째 아이돌이었다. H.O.T는 음악 보다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아이돌 가수로서, 시장조사를 통해 하나의 상품으로서 출시되었다. 때문에 이들을 응원하는 팬들은 기획사에게 상품인 H.O.T를 소비하는 ‘소비자’였다. 또 기획사가 직접 ‘공식’ 팬클럽을 모집하여 콘서트 때에는 버스를 대절해 주고, 정해진 응원 용품 등을 보급하기도 했다. 팬클럽에 대한 기획사의 시선은 다분히 ‘관리대상’에 머물렀다. 기획사의 관리(?) 덕분에 H.O.T의 이미지나 캐릭터를 가져온 다양한 상품들은 출시되자마다 대부분 큰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H.O.T의 팬 문화가 단순히 아이돌을 소비하는 소비자나 기획사가 의도한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입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H.O.T.



당시 코카콜라의 판매량을 넘었던 티톡 에초티 음료수

의 팬들은 팬픽, 팬코스 등의 팬덤 문화를 창조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가수들의 평소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인 팬픽, 팬들이 가수들과 같은 복장과 머리를 하고 춤을 추는 팬코스 같은 문화는 H.O.T. 팬클럽에서 처음 생겨나 잭스키스 등 당시의 다른 가수들로 또 다음 세대의 가수들로 전파되었다.

시간이 지나 이런 문화들은 팬클럽을 넘어서 하나의 여성 청소년들만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팬픽은 팬클럽 사이트의 게시판 하나를 차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팬픽만을 위한 카페들을 개설했다. H.O.T. 팬으로서 H.O.T.를 팬코스하던 이들은 H.O.T. 해체이후 신화, 동방신기 등 다른 가수를 팬코스 하기도 했다.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비공식 팬클럽이라 할 수 있는 많은 팬 카페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웹 공간을 통해 스스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했다. 이들은 다양한 비공식 카페들을 통해 가수의 사진을 보정하고 사진에 글씨를 쓰거나 동영상의 일부를 움짤(**)로 만들었다. 또한 가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화, 동영상의 재편집을 통해 만들어진 그들만의 뮤직비디오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공유했다.

과연 이는 진실로 그대들의 목소리인가?

또한 요즘 팬클럽은 각종 봉사활동, 기부활동 등 팬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즉 10대 여성들에게 팬클럽이 팬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팬클럽의 이름을 앞세운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긍정할 수만은 없다. 과연 그것이 정말 그들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수긍할 수만은 없다. 팬클럽의 이름을 앞세운 활동에서 10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름은 지워버린 채 연예인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 같다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부장제의 자기희생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어쩔 수 없이 겹쳐진다. 왜냐하면 10대 여성들이 아이돌 가수의 뒷바라지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포트? 내조!

팬클럽의 아이돌 뒷바라지 일부로 서포트(support)라는 말이 화제다. 서포트란 팬클럽에서 가수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점심 도시락 등을 돌리며, 응원하는 가수를 잘 보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이것이 화제가 된 것은 최근이나 이런 일은 사실 서태지 팬클럽 시절부터 있었다. 한 서태지 여성 팬은 당시에 이러한 행위를 ‘내조’라고 말했다. ‘내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정신이 확 드는 느낌을 받는다. 서포트라는 말에 가려져 있었던 의미가 내조란 단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주로 남성 아이돌에게 여성 팬들이 베푸는 서포트 문화는 사실 연애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챙겨주는 여성-받는 남성’ 식의 남녀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도시락이라는 것 자체가 남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여성과 먹는 남성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남성 아이돌 가수와 여성 팬들의 관계는 ‘주는 여성과 받는 남성의 관계’로 두드러지는데 반해, 여성 아이돌과 남성 팬들의 관계에서는 ‘능동적인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의 관계’로 나타난다. 남성 팬들이라고 해서 서포트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락 보다는 멤버들의 생일 선물 등을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성 팬과 여성 아이돌의 관계는 여성 아이돌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자신을 어필

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성 아이돌 그룹의 컨셉은 점점 자신의 의사 없이 ‘남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성’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나 노래가사, 안무 등은 남성 팬들을 이입시키고자 하는 직접적인 시도들이 엿보인다. 예를 들



동방신기의 팬 서포트

면 ‘소원을 말해봐’ 뮤직비디오는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남성의 1인칭 시점인 데다가 “소원을 말해봐, 다 들어줄 테니.” 하는 식이어서 많은 여성들을 불편하게 했다.

‘처음처럼’을 부르는 티아라는 신음소리 같은 창법을 사용한다. 가사는 노골적으로 성관계의 처녀성을 강조한다. 반대로 남성 아이돌의 경우, 자신의 좌절된 사랑, 혹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등 주로 노래에서 주인공 남성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최근 들어서 남성 아이돌들은 유행처럼 마초성을 어필하고 있다. 2PM은 ‘HEART BEAT’ 무대에서 얼음을 깨고 쇠사슬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샤이니의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뮤직비디오 중

‘링딩동’은 ‘넌 너무 착하고 약해 빠졌으니까 내가 널 좀 곁에 뒀어겠다.’는 가사를 노래한다. 유행이었던 유키스의 ‘강한 남자’ 춤은 보는 사람을 위축 시킬 만큼 위협적이다. 즉, 남성 아이돌이 만든 콘텐츠의 주인공은 남성 자신인데 반해, 여성 아이돌의 경우 콘텐츠의 주인공이 본인들이 아닌 남성 팬들이다.

그녀들은 진정 빠순이?

10대 여성 팬들 하면 ‘빠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쉽다. 아마 대다수 기성세대들이 10대 여성 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럴 것이다. 빠순이가 뜻하는 것이 무언가? 오직 맹목적으로 오빠만을 외치는 철없는 여성 청소년이 아닌가?

그러나 10대 여성들은 사실 처음부터 ‘빠순이’가 아니었다. ‘원조 빠순이’라고 할 수 있는 서태지 팬덤은

전부터 단지 오빠를 향해 열광하는 빠순이가 아닌 서태지의 음악을 사랑하고 뮤지션 서태지를 지지하는 ‘태지 매니아’임을 강조했다. 후에 나타난 H.O.T.나 잭스키스의 팬클럽은 맹목적인 열광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단순히 가수들에 대한 애정만이 아닌, 당시 아이돌의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전사’의 이미지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을 빠순이라 명명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서태지와 아이돌이 부르는 노랫말에 섬뜩함을 느끼고 H.O.T.의 형형색색 머리카락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들을 추종하는 여성 청소년들을 맹목적으로 오빠만을 외치는 철없는 것들이라 규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았을 이들이 아닐는지.

* 팬덤(fandom)이란 영어 'fan'과 'dom'의 합성어이다. 'fanatic'의 줄임말인 팬(fan)의 본래 뜻은 교회에 속해 있는 헌신적인 봉사자나 열성가를 의미하는 라틴어이다. 팬덤은 특정 스타나 장르를 선호하는 팬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형태를 의미한다.

** 움짤은 움직이는 찢림방지(게시판에 글쓰고 마지막에 붙이는 사진 같은 것)라는 뜻이다.

한날, 「[페미니즘인(in)걸] 여성청소년들의 팬덤시티를 말한다 2- 팬클럽의 정치화, 소비자로서의 권력인가? 10대 연예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인가?」, 인권오름 제202호, 2010. 05. 12.

[페미니즘 인(in) 걸?] 여성청소년들의 팬덤시티를 말한다 2

팬클럽의 정치화, 소비자로서의 권력인가? 10대 연예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인가?

한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지난 198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10대 여성들의 팬클럽 문화와 관련해 연재를 쓰려고 한다. <페미니즘 인 걸>을 연재하고 있는 우리는 10대 여성주의 운동이 부흥하길 고대하며 운동의 당사자인 10대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노력의 결과가 곧 바로 결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팀이 만든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감>”의 회원 수는 95명이다. 그 중에서도 절반은 남성 혹은 비청소년이다. 그 많은 10대 여성들은 도대체 어디에 모여 있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하던 중 아이돌 팬클럽이 떠올랐다. 천 단위, 만 단위를 넘어서는 거대한 10대 여성들의 공동체! 다만, 어떻게 손을 건넬 수 있을지는 막연하기만 하다. 일단은 탐구를 해보자. 그리고 글로 써보자. 이 기회에 우연히 검색이라도 걸려 어부지리로 만남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앞선 글이 여성 청소년들의 팬질 문화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글에서는 팬클럽의 정치화가 낳는 의미와 한계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취향의 정치, 감수성의 정치

팬클럽이 꿈틀거린다. 가요 프로그램 녹화장에서 풍선을 흔들며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외치는 모습만을 상상한다면, 당신은 상당히 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작년 9월,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들이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도, 슈퍼주니어의 한경이 노예계약을 문제 삼아 기획사와 소송을 벌일 때도, 2PM의 재범이 국가주의 정서에 밀려 한국을 떠났을 때도 팬클럽은 꿈틀거렸다. 그냥 주저앉아 울부짖는 게 아니다. 동방신기의 팬들은 신문 1면에 광고를 내고, 국가인권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PM 팬 연합은 재범의 탈퇴 철회를 요구하는 포스터를 전국 곳곳에 붙이고, 이후 기획사가 발매하는 음반에 대한 불매 운동과 팬클럽 탈퇴 등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획사 사옥 앞에 2000여명이 모여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09년 9월 10일자 한겨레 1면에 동방신기 팬클럽이 실은 광고

하, 참으로 개념 차다. 그리고 조직적이다. 특정 아이돌 스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모였지만, ‘팬’으로서의 정체성에만 머물지 않는다. 팬클럽 구성의 기본 바탕은 취향이다. ‘그 스타가 좋다, 나쁘냐’로 팬클럽을 구성하지, ‘그 스타가 옳냐, 그르냐’를 가지고 팬클럽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특정 국면에서는 취향의 문제가 가치의 문제로 전환되기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 되며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2008년 동방신기 팬들은 “우리 오빠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일 순 없다”며 여러 차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정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취향과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그것이 프로의 정치라고 혹자는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4대강 죽이기 사업만 봐도, 기존 남성 중심적인 엘리트 정치판에서 벌이는 부조리한 정책들이 바로 그 이성과 합리에서 출발한 것 아니었던가? 유창한 전문용어를 사용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해내진 못해도, 바로 그 아마추어리즘에서, 취향과 가치의 문제가 명확히 갈라지지 않는 바로 그 지점에서, 팬클럽들의 감수성의 정치가 탄생한다.

단순 관리의 대상에서 협상력을 가진 주체로

팬클럽 활동을 하는 10대 여성들에 대한 세간의 통칭은 ‘빠순이’다. 공부는 안하고 연예인 뒤나 쫓아다니는 광신도라고 폄하한다. 개념 찬 ‘빠순이’들은 스스로를 ‘박순희’라고 부르며 이런 시선을 되레 비꼬아 버린다. ‘빠순이’로 불리던 존재들이 자신들을 ‘박순희’로 호명하는 순간, 이들은 기획사의 단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가진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철저히 자본의 논리가 통용되는 연예 산업 판에서 지금도 물론 아이돌 스타의 흥망성쇠는 기획사의 손에 달려있다. 재범의 합류 없이 나머지 멤버만으로도 그룹 2PM이 무리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사 입장에서 입만 한 번 씩 닦고 끝내버릴 일들이 땀을 질질 흘리며 해명할만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 팬클럽의 힘 때문이다. 그 실효성은 의심되지만, 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10대 여성 팬들은 단순히 기획사의 상술에 놀아나 이리저리 때로 몰려다니는 소비 좀비가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 열심히 줄타기를 하며 ‘좋아하는 스타를 계속해서 볼 권리’, ‘좋아하는 스타가 보다 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팬클럽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이다. 특정 스타의 팬으로 모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유대감을 갖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연예인 그 자체에 대한 열광보다 오히려 또래 문화에 대한 애정이 공간 운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러 문화 활동을 기획한다. 상당한 문화적 수준을 자랑하는 '팬픽' 역시 아이돌 팬클럽들이 낳은 독특한 문화 중 하나다. 팬들은 아이돌 그룹 멤버 각자에게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것을 변형하며 놀며 소통한다. 물론 모든 10대 여성들이 아이돌 팬클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10대 여성들에게 팬클럽이 유일한 소통 공간 또는 문화 공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10대 여성들이 팬클럽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그 공간이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고, 노는 건 대학가서 하라는 학교보다 공통의 기호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생산과 소비를 행하는 팬클럽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별다른 대화 없이 묶여있는 가족보다 '오늘 그거 봤어?'로 시작해 일사천리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팬클럽 친구들이 더 편하진 않을까? 팬클럽 문화의 번성은 10대 여성들이 속해있는 학교, 가족, 지역 사회의 소통 부재, 문화 결핍을 반증해주는 한 사례기도 하다.

팬클럽의 놀라운 감수성, 그러나 악어의 눈물

연예인은 상품이자 노동자다. 팬들은 연예 시장에 상품으로 등장한 아이돌을 즐긴다. TV에 나오는, 철저히 관리된 모습으로서의 아이돌을 만나고 그들의 만들어진 캐릭터에 열광한다. 다만, 기획사가 아이돌을 상품으로만 대우할 때, 노골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할 때 팬들은 반발한다. 이 순간 상품이었던 아이돌은 인간으로, 노동자로 귀환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귀환이 일시적이라는 데 있고, 팬클럽의 정치가 낳는 한계 또한 여기서 발생한다. 팬들은 이들이 아예 상품의 지위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는다. 팬들은 '잘 팔리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고, 더 이상 매력이 없으면, 갈아타면 그만이다. 8년에 걸친 연습생 생활 끝에 2AM으로 데뷔한 조권의 이야기에 팬들은 눈시울을 붉히지만, 그 눈물이 대형 기획사의 착취적인 연습생 제도를 없애려는 강력한 탄원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어쨌든 수많은 연습생들의 경쟁 속에서 더욱 대중의 기호에 부합한 아이돌 상품이 생산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소비자로서의 팬들이 성공한 연습생 조권 뒤에 남아있는 수많은 '실패한 연습생들'을 고려해야할 이유는 없다.



2009년 9월 13일 JYP 기획사 사옥 앞에서 진행된 2PM 팬클럽의 집회

팬질을 하면 할수록, 기획사의 악행은 번창한다. 팬들의 소비와 열광이 거세질수록 대형 기획사의 기계적인 아이돌 생산 시스템은 계속 번성할 테니까. 팬들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품과 소비자로 엮인 ‘아이돌 - 팬’ 관계 자체가 낡는 모순이다. 상품으로서의 아이돌과 소비자로서의 팬은 서로를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비운의 관계다. 팬들은 폭력이나 사기 사건에 연루된 ‘리얼’ 아이돌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고, 아이돌은 팬들의 뜬구름 같은 애정을 보며 우울증에 시달린다. 결과적으로 연습생이나 아이돌을 부리는 것은 기획사이기도 하지만, 팬들 자신이기도 한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을 준비한다

더불어 팬클럽 활동을 하는 10대 여성들이 정작 자신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 씁쓸한 기분마저 든다. ‘팬질의 기본은 매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획사 매니저나 경호원들에 의한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7년에 있었던 동방신기 콘서트에서는 콘서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몇몇 팬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새벽 3시가 넘도록 귀가를 금지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는 것 자체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팬들은 스스로 쉬쉬한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소수자들의 ‘오지랖’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며,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에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는 주춤하는 우리 사회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풍경과 겹치기도 한다.

팬들이 흘리는 눈물의 본질이 ‘악어의 눈물’임을 직시할 때, 팔리는 것들만 살아남는 연예 시장과 노골적인 문화 자본주의 자체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기획사는 아이돌 생산을 중지하라!’거나, ‘팬클럽은 문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싸움에 앞장서라!’고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하고 거대한 연예 시장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10대 여성들이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우상이었던 아이돌이 팬클럽의 정치를 통해 인간의 자식, 노동자로 귀환했다. 아이돌이라는 10대 연예 노동자와 팬이라는 10대 여성들 간의 인간적 연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해볼 수는 없을까? 10대 연예 노동자들이 성접대나 노예 계약의 문제를 힘겹게 공론화하고 파업을 시도했을 때, 그들과 함께 거리 무대를 개설해 공연하는 건 불가능한 상상일까? 팬들에 대한 경호원들의 폭력에 반대해 간지나게 입장을 표명하는 아이돌의 등장을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갑을 열어야만 나의 애정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닌, 진정한 문화 생산자와 향유자로서의 인간적 만남을 꿈꾸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언젠든 이별을 준비해야 사랑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복적인 소비패턴으로서의 아이돌 문화와의 이별을 담담히 준비해야 한 인간의 노래도, 춤도, 개그도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난다어쓰, 「페미니즘인(in)걸」 “아빠, 말해주세요?!” 아빠는 말해주지 않는다!- ‘반사회적인 소녀들의 시선’으로 보는 6.2.지방선거 두둥, 인권오름 제206호, 2010. 06. 09.

[페미니즘인(in)걸?] “아빠, 말해주세요?!” 아빠는 말해주지 않는다!

‘반사회적인 소녀들의 시선’으로 보는 6.2.지방선거 두둥

난다, 어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여보, 애 키우면서도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말해줘.”, “아들아, 집안 살림 더 활짝 펼 수 있게 말해다오”, “아빠, 밤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말해주세요!” ……“6월 2일, 투표로 꼭 말해주실거죠?”

6.2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일종의 공익 광고 문구들이다. 몇몇 뉴스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는 이 광고가 기존의 광고들보다 ‘훨 낫다, 투표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네, 어찌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예전의 광고들이 ‘밝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라’였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투표하라’였기 때문이라고

국가를 위해서건, 내 가족을 위해서건, 이러나 저러나, 말해주고 싶어도 ‘투표권’조차 없는 사람으로서는 썩 ‘와 닿지 않음’이다. 와 닿지만 않을 뿐이더냐. 불편하다. 게다가 이 광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투표’로 ‘말해주는’ 주체들은 모두가 ‘남성(여보, 아들, 아빠 등)’임을 알 수 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투표하는 사람, 투표로 말하는 사람=‘남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문구들은 또 불편하다.



‘말해주세요’ 라는 부탁만 존재하는 정치

광고 속 “말해주세요”는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렇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썩는 편견 탓에 사회를 향한 어떤 목소리도 표출할 수 없다. 청소년은 법으로

교칙으로, 사람들의 편견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많은 부분을 차단당하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편집증적으로 정치에 관련한 행동이 금지되어있다. 투표권은 물론이요 선거운동, 지지 선언, 심지어 자신의 블로그나 온라인공간에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한 글을 쓰는 것조차도 특히 교육감 선거는 대다수의 학생,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선거인데, 이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방법은 거의 없고, 심지어 참여할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조차 찾을 수 없다. 자신과 가장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 청소년은 ‘말해주세요’하며 부탁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니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나올 리가 있다. 시장이고 군수고 도지사고 교육감이고 죄다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며 ‘시민-국민(=어른)’들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내세운다. 청소년들을 위하는 척, 하는 이야기들도 있긴 하다. ‘엄마’처럼 돌보겠습니다 등등의 문구를 내건 것이 그러하다. 청소년 아이들을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니까. 하지만 그러한 캐치프라이는 많이 부족하고 불편하다. ‘엄마’처럼 ‘돌보겠다’니. ‘엄마-여성’은 여성이기에 돌봄, 배려, 희생의 주체가 되고, ‘아동-청소년’들은 그 돌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가부장적인 질서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다. 위의 광고가 보여주듯 투표로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남성이니까, 그렇게 쉽게 ‘엄마’타령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순식간에 ‘엄마-여성’과 ‘청소년’을 어느 특정한 역할과 틀 속에 가두어버리는 꼴이다. 진정으로 그들이 ‘잘 돌본다’면 또 모를까.

‘반사회적인 소녀들의 시선(반소시)’으로 정책을 만들어보았더니...

그나마 학생들을 위한 공약들이 몇 있긴 하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거나, 학교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거나, 교육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라거나. 사실 대부분이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나마도 있는 정책에서 ‘여성’청소년의 시각에서 보면 또 끄덕끄덕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청소년-학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서, 코 박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미지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이미지에서는 ‘여성’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몇 만 명에게 동시에 ‘학생’이라는 단일한 굴레가 씌워지고 그로 인해 여성 등 약자-소수자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수록 소수의 이야기가 묻히기는 쉬워진다. 청소년에 관한 공약, 정책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요구되어야 하는 것처럼 청소년 안의 또 다른 소수자인 ‘여성청소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수면 위로 띄워져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사회적인 소녀들의 시선’이 탄생했다. 약칭으로 ‘반소시’로 불리기도 하는데, ‘반소시’는 요즘 인기절정의 여성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줄여서 ‘소시’라고 부른다)’에 ‘반(反)’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소녀시대’를 만들어내는 ‘이 사회’에 ‘반대’한다, 일 것이다. 예쁘고, 귀엽기도 하고, 성적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장래에 결혼해서 남편에게 ‘내조’ 잘하는 여성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부추기는 사회에 반대한다, 일 것이다.

‘반소시’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대략 이렇다. “여학생은 왜 바지 못 입게 하나? 바지도 허용하라! 이참에

복장자유화!”, “각 학교/학급 포함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무상지원! 왜 생리를 숨겨야 하나?”, “생리, 임신, 출산 휴가 보장”, “가부장적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교교육은 그만! 인권, 여성주의 교육을 하자!”

여학생은 치마, 남학생은 바지, 라는 복장으로 성별을 규정하려는 것에 맞서, ‘이 참에 복장자유화’를 주장한다. 남학생의 몽정이나 성적 호기심, 욕구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여학생의 생리나 자위 등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밝히는 애’가 되어버림에 맞서, 당당하게 생리하자고 말한다. ‘생리’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어 ‘그거, 그날..’이라고 표현되는 비싸기만 한 생리대,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주장한다. “지금 한 시간 더 공부하면 장래에 남편이 바뀐다” 라는 게 급훈으로 버젓이 걸려있는 현실에 맞서, 인권교육, 여성주의 교육을 학교 교육 편성과정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어찌 보면 이름답게, ‘반사회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의미로 지금의 사회가 ‘반인권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빠는 말해주지 않는다!

아무튼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시행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현실은 “어머니, 힘드시죠?”와 “아빠, 말해주세요!” 식이다. ‘여성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를 직접 말하고 요구할 수 있는 공간도,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이 진정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 지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광고와 캐치프라이즈가 버젓이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대신 말해 줄 테니, 잠자코 있으라 하지 않나.

그럼 어떻게? 이런 시궁창 같은 현실이 계속 존재하는데, 어떻게? 여성청소년들이 바꿀 수밖에! ‘소녀시대’를 만들어내는 사회에 저항하고, ‘반사회적인 소녀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 우리가 말할 공간이



없다면 직접 만들기. 듣지 않는다면, 듣게 하기.

“아빠, 말해주세요”, “대신 말해 줄 테니 넌 그냥 여기서 기다려.” 아니, 아니. ‘말해주세요~’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아빠는 절대 대신 말해주지 않는다.

뚝코, 「[페미니즘인(in)걸] 잔혹한 소년만화의 테제- ‘소녀’ ‘정규직’ 오타쿠가 본 소년만화 씹어주기」, 인권오름 제210호, 2010. 07. 07.

[페미니즘 인(in) 걸?] 잔혹한 소년만화의 테제

‘소녀’ ‘정규직’ 오타쿠가 본 소년만화 씹어주기

뚝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한다. 특히 일본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들을 보면 거의 시죽을 못 쓴다. 흔히들 말하는 ‘오타쿠’ 이다. 어떤 한 분야에 꽤나 심하게 열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음악 오타쿠, 와인 오타쿠, 이런 식으로도 쓰이지만 그냥 ‘오타쿠’라고 하면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정 장르의 게임(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애니, 만화를 원작으로 한 게임 같은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어쨌든 애니메이션에 엄청 빠져서, 하루에 거의 여덟 시간씩 착실(?) 보는 ‘정규직 오타쿠’ 였다. 지금도 하루에 8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틈만 나면 애니메이션을 본다.

그런데 청소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페미니즘을 알게 된 후 마냥 재미있던 애니메이션이 조금씩 불편해졌다. 내가 접하는 많은 만화에서, 혹은 주류라 불리는 많은 만화들에서 여성의 캐릭터는 언제나 비중이 적거나 존재감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남성들에게 가려져 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기도 했지만 결국 오타쿠짓은 습관이어서 그런지 금단 증상에 져 버리고 말았다.

보통 만화는 크게 소년만화와 소녀만화로 나뉜다. 소년만화는 초, 중, 고등학생 남성층을 주로 겨냥해 만든 것으로 스포츠만화나 전투만화가 주를 이룬다. 슬램덩크, 테니스의 왕자, 우에키의 법칙, 나루토, 원피스, 블리치, 은혼 등이 있다. 반면 소녀만화는 한국에서는 흔히 순정만화라고 불리고 있는데, 초, 중, 고등학생 여성층을 대상으로 애절한 로맨스를 통해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떠올리면 된다. 대표작으로 캔디 캔디, 나나, 토라도라 등이 있다. 이렇듯 독자층을 구분한 이 단어들도 여성과 남성의 고정화된 성 역할에 따라 나뉘 놓은 것이다.

모에(*)!! 만화 속의 여성 찾기

소년만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캐릭터로 여성이 나온다. 첫 번째는 ‘서비스 캐릭터’이다. 이 때 서비스란

여성캐릭터를 이용한 성적 흥분을 남성에게 서비스 한다는 노골적 의미이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만화계에서 서비스 캐릭터라는 말이 쓰인다. 이젠 거의 모든 주류 소년만화에 빠지지 않는 요소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기분 나쁜 캐릭터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많은 경우에 그런 여성 캐릭터가 적게는 두세 명에서 많게는 열 명 가까이 나와서 주 독자층인 남성들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



게 했다. 독자가 남자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만화에 나오는 여성들이 자신을 따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그런 만화로는 『에반게리온』, 『왕도독 징』(이건 매 화마다 주인공에게 반하는 서로 다른 여자들이 한 번씩 등장하는, 뭔가 본드걸 같은 느낌이긴 한데) 같은 만화를, 많은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들에서 서비스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있고(이 미.연.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서비스 캐릭터를 즐기는 것 자체가 목표다.) 전투만화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노출이 많은 복장을 하고 나오게 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을 강조한다. 『절망선생』이라는 만화에는 매번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절망하는 선생이 나오는데 그 선생을 좋아하는 열댓 명의 여학생들이 등장한다. 그 여학생들은 제각기 두드러지게 다른 성격을 가지는데 스토커, 귀국자녀, 은둔형 외톨이, 동인녀(***), 초 포지티브 소녀(****), 뭐든 계획적으로 딱 부러지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여자에 등이 나온다. 정작 선생은 그 중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느낌이다. 결국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무도 ‘선택’ 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이 맘에 드는 여성캐릭터를 고르는 상상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노림수가 있다.

두 번째는 ‘서포터 캐릭터’이다. 서포터 캐릭터는 스포츠 만화라던가, 전투만화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여성이 주로 남성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스토리가 진행 될수록 주인공과 여성 캐릭터 사이에 러브라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전투만화에서는 여성이 적에게 납치되어 남성인 주인공이 여성을 지켜주는 구도이다. 여성들도 전투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남성인 주인공보다 강하지 않다. 여성이 열심히 싸우기는 하지만 최종 승리는 언제나 남성 주연 캐릭터가 독식한다.

이런 구도에서는 ‘남자다움’ 혹은 ‘사나이들의 세계’ 같은 것이 굉장히 부각된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나이들의 세계를 좋아한다. 일본의 유명한 만화 잡지 ‘점프’의 3요소는 승리, 우정 사랑으로 모두 ‘남자의’ 승리, 우정, 사랑이다.

『블리치』, 『니루토』, 『원피스』 같은 전투만화와 『테니스의 왕자』, 『슬램덩크』 같은 스포츠만화

에서 여성들이 주로 서포터로 나온다. 하지만 뛰니 뛰니 해도 제일 애처로운, 보고 있으면 화가 치미는 서포터로 등장하는 만화는 『데스노트』라고 생각한다.

『데스노트』에 나오는 아마네 미사는 데스노트를 손에 넣어 사람을 죽이는 라이토가 세계적 탐정인 'L'에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 'L'에게 구속되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자신에게 두 번째



데스노트를 준 사신(*****)과 거래를 해서 수명을 두 번이나 깎아먹는다. 기본적으로 자신은 바보이니 라이토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고 공언할 정도로 의존적인 캐릭터이다.

『미래일기』 분홍머리 여자에 가사이 유노

서비스나 서포터 등 여성을 부차적인 존재로 다루는 캐릭터 외에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 세 번째는 전투미소녀 캐릭터이다. 이 경우 남성 주인공보다 여성이 강하다. 남성은 주로 여성에게 보호받는다. 하지만 만화의 골자가 전투라고 해도 전투 능력이 높은 여성이 주체적인 캐릭터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전투는 주로 남자 주인공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남성주인공의 도움을 받아 살아난다는 패턴이다. 결국 정신적으로 남성에게 기대고 있다는 식의 전개로 이어진다. ‘예쁜데다 강하기까지하다’는 식의 외모지상주의는 기본으로 깔려있다.

『웨딩피치』, 『세일러 문』, 『카드캡터 체리』, 『울트라매니아』, 『신풍피도 잔느』 같은 변신물은 대부분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적들과 싸우지만 위기일 때 달려오는 건 남성들이다. 『미래일기』 같은 경우 각자 고유의 능력을 지닌 일기의 소유자들이 서로를 죽여서 승자를 가리는 게임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일기를 이용한 일종의 능력자 배틀물의 형식이다. 남자 주인공은 소심하고 매사에 주눅 들어 있다. 가사이 유노라는 우등생에 역시나 일기의 소유자인 여성이 주인공을 열렬히 좋아해서 위기에 처한 남자주인공을 위해 싸운다. 일기를 파괴해서 상대방을 처치하는 마지막은 남자주인공이 하는 걸 봐서 가사이 유노가 서포터 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주인공이 너무나 하는 게 없다. 이 마지막 경우가 가장 질이 나쁘다. 여성이 고정된 역할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전면에 내세우다가 결국은 ‘그랬잖아 여자’라는 메시지가 읽히니까.

언니들이 필요하다

남성 중심의 애니메이션에서 부차적인 존재가 아닌 주체적인 여성캐릭터가 있는데, 이른바 ‘언니 캐릭터’이다. 『원피스』(물론 원피스 자체는 굉장히 뜨악할 정도로 마초스럽다.)라는 만화에는 언니 캐릭터가 등장한다. 『원피스』주연급 캐릭터는 9명인데(지금까지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457화 기준으로) 모두 ‘밀집모자 해적단’의 일원이다. 그 중에 여자 캐릭터는 딱 두 명이다. 참 난감한 성비이다. 한 명이 니코 로빈이고, 또 한 명이 나미이다.

니코 로빈, 벨메일, Dr.리누. 내가 좋아하는 세 언니의 이름이다. 니코 로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고고학 연구가 진행되었던 ‘오하라’라는 섬에서 태어났다. 로빈은 어린 나이에 고고학 자격을 취득했지만



『원피스』 그림 순서대로 로빈, Dr.리누, 벨메일

‘오하라’의 연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세계정부’가 섬을 통째로 공격해서 멸망시킨다. 유일한 생존자인 그녀는 여러 암흑의 조직에 몸담고 사는데 그 모든 조직들이 그녀 하나를 생존자로 남기고 괴멸한다. 그녀의 특기는 배신, 거짓말, 암살. 그녀는 모든 것을 내다보고 꿰뚫고 있다. 조직이나 권력을 이용하고 배신할 줄 아는 ‘악녀’ 캐릭터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주인공들 ‘밀집모자 해적단’을 뒤에서 받치고 있다. 벨 메일은 주인공중 하나인 여자에 나미의 의붓 엄마이다. 그녀는 어릴 적에 해병이 되겠다고 마을을 뛰쳐나가 입대하는데,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나미와 누군지도 모를 나미를 어르고 있던 노지코를 발견한다. 두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에 죽을 각오로 고향에 돌아와서 친딸도 아닌 두 여자애를 강하게 길러낸다. 해적인 아론이 마을에 쳐들어왔을 때도 당당히 맞서

싸우다가 “태어난 시대를 원망해서는 안 돼. 살아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라는 말을 남기고 죽는다. 그녀의 지식을 위한 희생은 전통적 ‘모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적어도 딸들에게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Dr. 리누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선의인 초과의 스승이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데리고 있던 인간사슴 초파를 맡아서, 자신의 의술을 모두 전수한다. 섬 가장 높은 산의 성에 살며 가끔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치료 하러 ‘쳐들어와서는’ 치료를 해 준 후 그 집 재산의 절반을 뜯어간다. “Happy 하나 나는 아직도 팔팔한 130 대라구!”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아름다움의 비결이 알고 싶나?” 라고 당당히 외치는 여자. 성격이 팔팔하고 똑부러지지만 초파가 정든 고향을 망설이지 않고 떠나게 해 주는 사려 깊음도 있다. 자신의 나이나 외모에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다리가 아픈 아이의 팔을 꼭 눌러서 “봐라, 다리 아픈 거 다 잊었지.”라는 농담을 던질 정도의 넉살과 “내 환자가 침대에서 나갈 때는, 완치 되거나, 죽거나. 두 경우다. 낫지도 않았는데 맘대로 돌아다니면 죽여 버리겠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 괴상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다. 다들 어느 정도 롤모델로 삼고 싶은 언니들이다.

그것 말고도 『은혼』이라는, 일본의 개화기를 판타지로 바꿔서 그린 만화에도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다. 일본이 서양의 국가가 아닌 우주인들에게 개항했다는 설정. 그래서 우주인들이 (만화 안에서 천인天人이라고 부



『은혼』 「가구라」

른다.)사회의 지배층이 된 세계를 그린다. 주인공인 킨토키는 은발의 사무라이이다. 사무라이는 품도 빛도 없는, 집세가 5달 정도 밀려있고 당뇨병 위험에 시달리는 워든지 해 주는 해결사(결국 돈은 못 버는)이다. 해결사 사무실에 얹혀사는 가구라라는 여자는 우주에서 유명한 전투민족인 야토족 소녀인데 스쿠터 정도는 한 손으로 세울 수 있고 총 맞은 구멍은 좀 있으면 막히는, 엄청난 신체 능력을 지닌 여자애이다. 무기로 총알이 나가는 우산;;을 쓴다. 전기밥솥 재료 밥을 마실 정도로 먹성이 좋고, 영똥한 성격이다. 사다하루리는 커다랗고 사람 머리를 덩석 물어버리는 견신犬神을 키운다. 해결사 일행이 범죄사건에 휘말려 경찰에게 심문을 받았는데 조사를 끝내고 풀려나오면서 ‘경찰이 엄청 열 받으니 경찰서 문간에 토해주겠다.’ 는, 만화의 여주인공 이미지가 절대로 아닌 여자애이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조직에 들어가면 짱을 먹지는 게 좌우명이라나. 만화에 나오는 여성 주연급캐릭터는 어느 정도 예쁘고, 도를 넘는 더러운 짓이나 막 되먹은 짓은 하지 않는다는 틀을 확 깨버리는 통쾌함이 있다.

우리는 애니메이션 속에 살고 있다

멋진 언니들이 많지만 애니메이션 전체에서 여성의 위치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소년만화들은 남성들 ‘만화’ 독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여성 팬 층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좋아하게 되어도 마초 세계관을 수긍하고 내면화하기 전에는 편하게 즐길 수가 없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구도가 남성이다 보니 아무리 멋진 여성 캐릭터가 나와 봤자 ‘멋진 조연’일 뿐이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멋진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 것으로 만화 안의 성 역할 구분 짓기가 해결될 수 없다. 특정 캐릭터 하나가 남녀의 성역할의 구도를 찢었다고 한들, 팔아먹기 위해 만들어 낸 수많은 여성캐릭터들에 대한 면죄부 혹은 변명정도 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좋은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애니메이션, 만화가 여성의 인기를 위한 수단 혹은 보조물로 대하지 않는 시각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여성이 ‘남성들의 뒤에서 받쳐주는, 남성들이 보기에 좋은’ 캐릭터로 나오는 걸 좋아하는 독자들이 없어져야 하고, 현실에서 성별에 따른 위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니 참 어려운 일이로세.; ㅜ;

주류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많이 읽히고 팔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들, 혹은 현실보다 훨씬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 중에 가장 부각되는 것이 성역할의 구분인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세계가 그렇다는 것을 과장되게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애니메이션이 현실의 복사판이라는 걸 알면 ‘이건 애니메이션이고, 현실이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질 것이다. 불편해진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뀌어나간다면 언젠가 불편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모에: 패티쉬와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캐릭터 자체가 아니라 어떤 캐릭터의 특징에 팬덤을 가지는 것. 대개는 아 이템이나 성격, 그 사람의 신분, 직업 등이다. 안경모에, 소꿉친구모에와 같이 쓰인다.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남성 주인공이 등장, 그것이 플레이어가 된다. 주변에 ‘선택’ 할 수 있는 많은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특정 캐릭터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지를 골라 행동하면서 마지막에는 원하는 여성 캐릭터와 맺어지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

*** 동인녀: 만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2차 제작물인 동인지를 만들어 내거나 읽는 여성을 지칭. 만화의 주인공들을 엮어서 BL(남성간의 사랑을 그림)로 만드는 종류의 2차 제작이 주를 이룬다. 다른 말로 야오녀 라고도 한다.

**** 초 포지티브 소녀: 절망선생이 모든 것을 부정적을 생각하는 반면, 이 소녀는 도저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것조차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사신과의 거래: 데스노트에 죽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죽일 수 있다. 단 본인의 얼굴을 알고 있어야 하고 본명을 풀네임으로 적어야 한다. 사신과 거래를 하게 되면 사신의 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사람 얼굴 위에 그 사람의 본명이 보이게 된다. 댓가는 남은 수명의 절반.

[페미니즘인(in)걸] 납량특집 -공포영화 그 영화가 무서웠던 더 무서운 이유

발세(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이번 페인 걸은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납량특집, 공포영화 속의 여성청소년들이다. 생각해보면 다른 장르에 비해 공포물은 유독 ‘학교’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10년 쯤 장수중인 <여고괴담>시리즈, 최근에 속편이 개봉한 <고사>시리즈 등이 모두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시위주로 모든 학생들을 경쟁자 적으로 만드는 ‘학교’라는 공간은 이제 한국에서 공포영화의 단골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포 영화가 이런 학교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업 영화의 메커니즘 안에 있는 장르 영화의 하나인 공포영화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 비판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때문에 어떤 상황 혹은 공간이 가지는 폭력성은 어떤 인물의 부도덕함이나 싸이코틱함으로 대치되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포 영화 속에 여성 청소년이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다. 여성 청소년들을 사회적인 약자로서 묘사한다고 한들, 이것이 어떤 현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단지 영화적인 재미를 돋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인 경우가 다반사다.

지못미 소녀들

그렇다면 여성청소년들은 공포영화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살펴보자. 여성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할 존재로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아랑>이란 영화에선 남자 주인공이 짝사랑했던 소녀를 지키지 못해 그녀를 강간하고 죽인 범인들을 연쇄 살인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성 청소년들은 성폭행이나 죽임을 당하여 남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겨주는 역할을 한다. <러블리 본즈>, <살인의 추억>, <마더> 등등 말이다. 이런 경우 여성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의 대표격인 셈이다. 물론 이런 설정 자체가 여성 청소년을 무기력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더 아니꼬운 것은 영화가 의도하는 것이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과 영화 밖의 관객들의 ‘순결한 소녀’의 보호에 대한 합의란 것이다. 이 사회에서 순결한 소녀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일 뿐이다. 때문에 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었을 때, 관객들은 이들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이들의 복수를 하는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주로 남성들)에게 더 쉽게 몰입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설정을 가진 영화로 <추격자>를 들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순결한 소녀가 아닌 순결하지 않은 성매매 여성이 등장하는데, 영화는 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그녀가 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임을 강조한다.

공포와 에로 사이

이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여성 청소년은 다른 한편으론 에로틱한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한다. 공포영화는 애초에 비명을 지르고 칼에 찢리는 여성들의 이미지로,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자극했었다. 여기에 소녀·여고생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공포영화는 소녀나 여고생의 순결한 몸을 파괴하는 쾌감을 주는 것이다.

<여고괴담>시리즈를 보라. 3편부터 5편까지는 본격적으로 난도질당하는 여고생의 몸이 등장한다. <고사>는 좀 더 자극적으로 수조 안에서 죽어가는 여고생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공포 영화들이 재수 없는 것은 이렇게 보여줄 건 다 보여주면서도 남성들에게 가해자의

편에 서지 않은 것 같은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고괴담>시리즈에서 여고생들의 몸이 난도질당하고 관절이 꺾이는 것은 외모나 성적에 강박적으로 집착한 여성들 본인의 탓이고, <고사>의 경우 관객은 문제를 풀어서 수조안에서 여고생을 구출하는 입장이다. 앞서 말했듯이 공포 영화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재미로 차용하는 것일 뿐 결코 약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 <아랑> 포스터



<여고괴담4> 중, 끔찍하게 살해당한 여고생의 몸

이런 예로 코드스의 또 다른 형태로, 성적인 금기를 범하는 여성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주로 임신, 동성애나 사제 간의 사랑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성적인 금기를 어기는 소녀는 성인여성보다 더 도발적인 법이다. 예로 <여고괴담>시리즈의 모든 작품에 등장한 동성애 코드, <여고괴담4>에서 다룬 사제 간의 사랑, <여고괴담5>에서 다룬 임신 등이 있다. 이 영화들은 금기를 어긴 여성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된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불완전한 존재?

또 하나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청소년의 이미지는 불완전성이다. 여성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존재인 여성과 청소년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캐릭터의 극대화를 노리는 공포영화에서 이런 이미지가 얼마나 반갑겠는가.

공포 학원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 청소년들이 외모나 성적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캐릭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캐릭터는 주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초자연적인 무엇과 결탁하거나, 죽어서도 계속 특정한 공간에 머물거나 하는 등의 형태로 공포를 만들어낸다. 드물게 공포영화에서 이성적이고 침착한 역할을 하는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더라도 다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로 <4교시 추리 영역>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은 뛰어난 추리력을 가진 대신 폐쇄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남자 주인공이 출중한 외모, 명석한 두뇌 그리고 리더십까지 갖춘 것과는 다르게 말이다. 또 이런 불완전함의 이미지는 여성 청소년들을 우정과 사랑을 혼동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여성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공포영화에 동성애 코드를 남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주체적인 귀신들

반대로 공포 영화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앞서 말한 것과는 다르게 주체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고괴담>시리즈의 1,2편, <분신사바>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여성 청소년들이 복수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귀신과 거래를 하거나, 직접 죽어서 귀신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여성청소년들이 제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선 누구를 죽이거나 괴롭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공포영화는 굳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성 청소년의 이미지를 깨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영화가 무서웠던 이유

공포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관객들을 불편하지 않으면서 무섭게 만드는 일이다. <여고괴담>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다 죽은 여고생이 귀신이 되어 학교를 떠돈다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여고괴담>의 줄거

리가 주인공 여고생이 살아서 자신을 괴롭히고 배신한 친구들을 한 명씩 살해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 영화를 편히 볼 관객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또 반대로 만약 <추격자>의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성적 무능함을 무시한 여성들에게 귀신이 되어 복수하는 내용이라면 누가 이 영화를 재밌게 보겠는가. 이렇듯 공포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여고괴담> 중 한 멧힌 여고생 귀신

관객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을 인식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공포물은 상황이나 공간의 폭력성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장르보다 사회의 병리 현상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장르라고 생각한다. 여태 그런 공포영화가 잘 없었을 뿐이다, 좋은 예로 <사이닝>이란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어느 평범한 아버지-남편이 한순간에 폭력적인 살인마가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지만 덮어두었던 아버지-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을 잘 포착하여 뛰어난 공포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처럼 공포영화는 반드시 이미 구성된 세계관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나는 더 이상 공포영화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녀들을 보고 싶지 않다. 그녀들의 캐릭터도 역할도 너무 뻔하다. 그렇다고 신개념 싸이코패스 살인마로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여성 청소년들은 청소년으로서 학교 안에서 한 인간으로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성으로서 가부장사회의 약자란 위치에 있다. 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포착하여 훌륭한 공포영화로 탄생시킬 수는 없는가? 영화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 바로 영화 속 등장인물이라는 타인의 감정을, 내 것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훌륭한 매체가 아닌가. 한 명의 영화팬으로서 공포영화에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영화가 어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지못미: 인터넷 용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줄임말.

공현, 「[페미니즘인(in)걸] "부모님 모셔와"가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청소년과 여성, 가족 제도에 스크래치 내기」, 인권오름 제218호, 2010. 09. 08.

[페미니즘인(in)걸]"부모님 모셔와"가 무섭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청소년과 여성, 가족 제도에 스크래치 내기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뭔가 규정을 어기거나 학교 눈 밖에 나는 짓을 했을 때 가장 두려운 조치는 뭘까? 그야 당연히 체벌이나 욕설, 또는 퇴학 같은 징계들 모두 다 무섭긴 무섭다. 그런데 내 경험상 가장 손쓸 도리가 없으면서도 꺾끄러웠던 것은 “집에 전화하는 것”, “부모님(혹은 집안 어른, 보호자) 불러오는 것”이었다. 뭐 이런저런 집안 사정에 따라 다들 조금씩 느끼는 정도 차이야 있겠지만… 부모/보호자 소환은 공식적인 징계도 아니고 직접 두들겨 패는 폭력도 아니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될 것 없으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참 대응하기도 어렵고 압박스러운 스킬 중 하나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의 탄압은 버텼으면서도 이 집안의 압박 — 가정탄압 앞에 굴복해야 했다.

교사들의 이 “부모님 모셔와” 스킬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을 모두 규율할 권력이 부모/보호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교에서 교사의 권한을 정당화하는 주된 논리 중에서 “부모/보호자로부터 교육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부모/보호자에게는 청소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 부모/보호자는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하고 지도할 권리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벌을 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기가 힘들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모/보호자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배력도 가지고 있다.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대놓고 대들고 반항하기가 꺾끄러운 문화적 심리적 장벽들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집에 전화를 하고 부모/보호자를 부르는 일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청소년들 입장에서 저항하기도 힘든 권력자를 불러들이는 조치인 셈이다. 학교보다 더 강력한 권력은 가족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에서라면 문제제기를 할 거리가 되는 일들도, 부모/보호자에 의해 집안에서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한다. 예컨대 학교 안에서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진단지를 나눠줬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식이 그런 진단지를 나눠줬다고 어머니가 자식을 혼내거나 용돈을 깎거나 외출금

지를 내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학교가 학교에 반항적인 학생의 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거나 하면 사회적 논란이 일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모/보호자와 자식/청소년의 관계가 권력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부모’라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 정상가족 중심적인 용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언제부터인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 몇몇은 “친권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페미니즘 : 가족 비판의 동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끊임없이 좋은 곳, 회복되어야 할 곳으로 일컬어진다. 학교에서도 음악시간이면 “즐거운 곳에서 나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라는 노래를 배우고, 동요도 엄마, 아빠와의 추억이나 화목한 가정을 소재로 한 게 많다. (“우리 아빠 꿈속에 오늘 밤에 나타나 내 얘기 좀 전해줄 수 있겠니. 먹고 싶은 것이나 놀고 싶은 것이나 모두모두 할 수 있게 해줄래.”라고 노래하는 「피노키오」 라거나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라고 하는 「어른들은 몰라요」가 가장 투쟁적일 정도) 영화에서 공익 광고에서 신문에서 법에서 가족은 계속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할 곳, 삭막한 사회에서 마지막 안식처 정도로 묘사되곤 한다. 그런 한편 ‘정상 가족’이 아닌 가족에 속한 청소년들은 ‘정상 가족’을 당연한 걸로 전제하고 있고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사회에서 ‘정상 가족’을 가지기를 소망하고는 한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의 삶을 살다보면 과연 가족이 그런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들은 가족에서는 정(情) 같은 것 말고도 생활을 하나하나 규율하고 명령하는 권력도 경험할 수 있다. 가족이 안식처라는 것은 노동에 지친 남성 가부장을 위한 판타지는 아닐까? 청소년에게 가족은 등을 누이고 쉬는 곳이 되기도 하지만 공부하라는 압박을 받는 곳, 또 다른 일터, 친권자에게 잘 보이고 생활비를 받는 곳이기도 하다. 가족에서는 친권자들에 의해 사랑과 교육의 이름을 달고 체벌이나 감금 같은 폭력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때



로는 소유욕과 의무감이나 권력의 행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진로나 생활을 놓고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청소년과 친권자 사이의 갈등은, 가족이 순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도 충분히 많은 폭력과 권력관계, 사회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가족 비판의 영역에서 청소년운동의 ‘선배’인 셈이다. 페미니즘은 결혼이 불평등한 계약이고 가족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으며 여성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족 안에서 여성들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가족 제도에 의해 여성들의 성은 통제받는다. 페미니즘은 그동안 일터와 사회는 남성들의 공간이고 가족은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여성들에게 가사노동, 양육노동, 감정노동 등을 부담시킴으로써 가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왔다. 여성들에게 가족은 안식처이자 보금자리가 아니라 일종의 일터이다. 그것도 그 일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처럼 가족이 자연스러운 운명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과 권력관계들이 얽혀 있는 사회적인 제도라는 관점이 만들어진 것에는 페미니즘의 기여가 컸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아니키즘 역시 이러한 관점을 만드는 데 일부 기여했다.)

페미니즘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을 어머니·여성에게 떠맡기는 걸 정당화하는 ‘모성’ 역시 자연스러운 게 아닌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비판은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이다. 친권자들이 가진 양육의 책임은 동시에 청소년들의 삶을 지배하고 규율할 권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 이데올로기 등을 비판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가족 안에서 겪는 억압과 갈등을 어느 개인의 문제 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여성들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사회 제도에서 가장 많은 부분 맞물려 있다. 차별이나 가정폭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과 억압 등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모두가 집에 있어야 할 존재로 취급받겠다는 점,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존재라는 점도 동일하다. 양육의 책임과 그 권력의 문제에서는 여성-어머니와 청소년의 경우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같이 극복해야 할 열리고설킨 굴레가 된다. 여성 청소년들이 남성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 안에서 더 많은 억압을 받는 현실에서도 페미니즘과 ‘청소년니즘’(청소년+이즘ism)이 만나는 교차점을 볼 수 있다.

물론 남성 가부장 역시 가족 제도 안에서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 등의 담론을 보면 지금의 가족 제도가 남성 가부장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가족의 판타지가 이를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가족 제도를 바꾸기 위해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저항할 동기가 있는 주체는 여성-어머니와 청소년이다. 가족을 비판하고 스크래치를 내고 바꾸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페미니즘 운동과 청소년운동은 동지 관계에 있다.

연대가 가능한 말든

그러나 현실을 보면 여성-어머니와 청소년이 연대해서 가족을 바꿀 수 있을지, 나는 좀 의문스럽다. 이른바 ‘정상 가족’ 속에서 청소년들은 여성-어머니와 많은 충돌과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 아버지는 좀 더 무게 있는 라스트 보스 급, 권력자로 존재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만 나서서 권력을 휘두르고, ‘정상 가족’ 안에서는 어머니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 권력자로 등장한다.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저항할 때는 청소년과 여성-어머니가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여성-어머니가 연합하여 청소년의 삶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남성 청소년과 아버지가 여성-어머니를 착취하기도 한다.

여성-어머니와 청소년은 지금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연대할 수 없다. 하긴 애초에 가족을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는 이데올로기가 강고한 이 사회에서는, 가족의 문제를 느끼더라도 그걸 가족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 짓는 사람들 자체가 드문 판이니 이 또한 하나의 탁상공론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페미니즘 운동과 청소년운동에게 가족은 같이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것이다. 역사가 짧은 청소년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페미니즘 운동 역시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족을 충분히 비판하고 바꾸는 데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우선은 가족을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는 사회에서 가족을 하나의 상대적이고 사회적인 제도로 보고 그 제도의 문제들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족끼리 서로 존중합시다.”, “서로 대화하는 가족을 만듭시다.” 같은 류의 캠페인을 넘어 가족이 사회적인 운동과 정치의 대상으로 생각되기 시작할 때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가족 안에서의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우리의 다른 이해관계를 내세워 가족 제도에 스크래치를 내고 태클을 걸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발새, 「[페미니즘(in)걸] ‘여성+청소년=여성청소년’ 이란 공식을 넘어서자- 복합차별에 대해 아시는 지?」, 인권오름 제222호, 2010. 10. 12.

[페미니즘(in)걸] ‘여성+청소년=여성청소년’ 이란 공식을 넘어서자 복합차별에 대해 아시는지?

발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실 페인걸은 매년 복합차별을 다루었었다.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없지만 한번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로, 이번 페인걸 주제, 복합차별이다.

지하철 난투극

60이 넘는 여성과 십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둘이서 치고 박고 싸우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배경이 지하철이라 “지하철 난투극”이란 이름이 붙었다. 처음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어린 것이 싸가지 없다’던 네티즌들은 나중에 그 여성청소년이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여성이 폭언을 한 상황을 듣고 여중생 vs 할머니의 싸움에서 여중생 편을 들었다. 싸움의 발발은 그 여성청소년이 신발의 흙을 실수로 옆의 그 사람의 옷에 묻힌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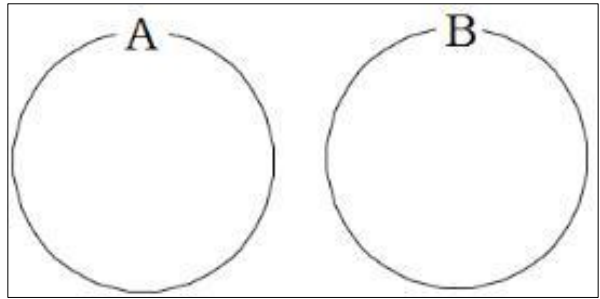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조건을 비틀어 보자. 실수로 옷에 흙을 묻힌 사람이 여성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 여성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남성 청소년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조건에서도 그 사람은 폭언을 했고 몸싸움이 일어났을까? 영상 속의 사람은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약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틀을 각각 들이대면 보이지 않던 이 상황은 여성-청소년이라는 틀 안에서 제대로 보여 진다. 이렇게 두 가지의 복합된 차별은 합집합이라기 보단 교집합의 문제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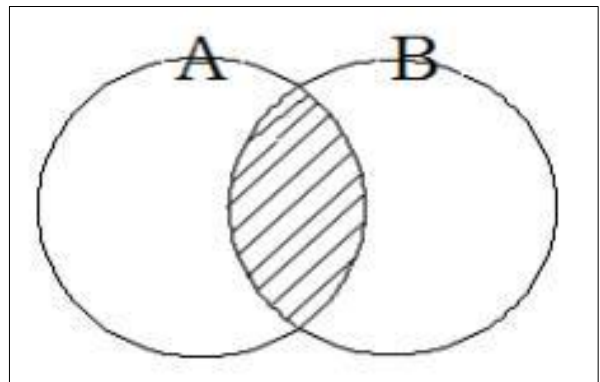
청소년 인권 운동과 여성 운동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여성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여성운동과 청소년 운동이라는 단일한 틀로 잘 담

아 지지 않는다. 청소년 인권 운동의 내부에서도 여성 청소년들은 종종 소외된다. 청소년 인권 운동의 중요 의제인 두발이나 체벌 등은 여성청소년보다는 남성 청소년에게 더 압박스러운 것들이다. 반면 여성 청소년에게 예민한 사안인 외박이나 섹스, 임신 등은 어느새 뒤로 밀려난다.



여성운동 속의 여성 청소년들의 존재는 더욱 미미하다. 결혼, 출산, 취업 등 여성 운동에서 주목해온 의제는 주로 성인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 번 더 여성청소년들이 복합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청소년 운동+여성운동=여성청소년운동’이란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여성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은 여성 청소년 고유의 경험이다.



청소년과 여성의 사이에서

너희는 안 꾸며도 예쁜 나이다. 화장할 시간에 공부나 더 하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사들한테 가장 많이 들던 말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청소년기가 안 꾸며도 예쁜 나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얼굴에 여드름 나고 한창 살찌는 신체 나인데 말이다. 이런 어조는 여성청소년에게 ‘여성’보다 ‘청소년’이 되라는 말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애나 성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외모를 치장하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순종적인 청소년 말이다.

하지만 이런 교사들에게서 조금 시선을 돌려보면 어떤가. 소녀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노골적으로 판매하는 대중매체, 외모로 서열을 매기곤 하는 또래 여자 친구들. 여성 청소년들이 마주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으로서의 이미지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 청소년들은 청소년은 물론 ‘외모에 치장하는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존재하기를 요구받는다.

여성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이 두 가지 이미지는 몹시 상반되는 것이라 양쪽의 장단을 맞추기가 힘들다. 아침 등교 시간에는 학생부의 눈을 피해 긴 치마를 입었다가, 학교에 오면 다시 바느질을 해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던 모범생들이라도 수학여행을 갈 때면 탱크 탑에 미니스커트를 입는 센스도 있어야 한다. 이 둘 중 한 가지라도 놓치는 순간 공부밖에 모르는 찌질이와 생각 없이 노는 날라리 중 하나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언어를 잃어버리다

나도 청소년기를 복합차별의 대상인 여성 청소년으로서 보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글에 담고 싶은 나의 차별 경험담이 없었다. 나의 외모는 지금이나 그때나 성별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래서인지 학교를 다닐 때 난 철저하게 청·소년'이었던 것 같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난 차별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차별에 대한 이렇다 할 기억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청소년기에 차별당한 일이 없다고 생각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사건들을 언어로 바꿔 기억할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다. 경험하는 모든 일은 적절한 언어가 있어야 제대로 기억된다. 감정의 결을 표현하는 데도 사랑, 우정, 동경 등 많은 단어가 동원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단어가 없다면 감정을 언어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나는 청소년기에 내가 당한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만나지 못했고 나의 경험들은 반편이가 되어 여성이나 청소년으로서 겪은 일이 되어 버렸다. 오히려 큼직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라도 있었으면 그 일을 다시 복합차별을 관점에서 재구성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복합차별이란 새로운 단어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경험을 기억으로 바꾸는 길목에서 옳은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교실 곳곳에서 일어나는 복합차별은 복합차별이라는 단어를 만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언어 뒤로 숨어버리고 있다.

약자들은 자신을 설명할 단어를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이 글을 쓰면서 그 말이 참 실감난다.



여러번 바느질한 교복치마

엠건, 「[페미니즘인(in)걸] 30대 여교사와 10대 남학생, ‘반차별의 눈’ 과 만나다」, 인권오름 제226호, 2010. 11. 09.

[페미니즘 인(in) 걸] 30대 여교사와 10대 남학생, ‘반차별의 눈’과 만나다

엠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이 곳, 현실’ 에서 30대 여교사 남학생 사건을 말한다

30대 여교사 남학생 사건을 이야기 할 때, “그들이 정말로 사랑했을까?” 같은 낯 간지러운 물음은 부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사랑을 논하는 낭만의 영역은 ‘이 곳,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금기에 관대해지는 건 어디까지나 드라마 같은 가상현실에서 뿐이다. (사제 간의 사랑은 영화, 드라마에서 그동안 꽤 자주 써먹었던 소재다.) 이번 일에 대한 기사 몇 개만 훑어봐도 알 수 있다시피, 가상이 아닌 실제에서는 사랑이고 자시고 명백한 ‘죄인’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 만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나? 피해야 할 질문 한가지 더, “이번 일의 어떤 점이 제일 문제인거지? 미성년자랑 자서? 아니면 두 사람이 교사였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등 한 가지 요소만이 아닌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지금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이 사건을 말한다 건 이번 일을 통해 ‘이 곳, 현실’을 되비쳐보는 일을 뜻한다. 이 사회가 ‘30대 여교사’ 와 ‘10대 남학생’ 을 어떤 존재로 규정짓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묻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혐오, 분노, 처벌을 말하는 강경한 태도 등은 사회적으로 깔린 그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숙의 아이콘 ‘여교사’와 순결의 아이콘 ‘아이’의 만남

여교사가 ‘정숙’의 아이콘이라면, 아이(학생)는 ‘순결’의 아이콘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쏟아지는 세간의 분노는 대체로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윤리적 차원의 분노, 상식이 똑바로 박힌 어른이라면 미성년자와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다는 식의 태도다. 두번째는 여교사라는 ‘여성’을 향해 쏟아지는 남성들의 분노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터져 나온 반응 중 하나가 ‘그 여자 (나이도 많은데다) 못 생겼는데’ 였다는 얘기는 이 일을 바라볼 때 여성에 대한 남성주의적 사회의 경멸, 차별 문제를 빼놓고 볼 수 없음을 말해준다.

윤리적 분노에서 중요한 건, 아직 올바로 된 판단력도 갖추지 못했을 어린이를 감히 성적 대상으로 본 어른의 ‘부도덕’이다. 그리고 그 ‘어른들의 도덕’은 성인 아닌 자들은 판단의 주체도, 성적 주체도 될 수 없다는 억압적인 요구를 품고 있다. 한 마디로 ‘애들은 어른들의 보호 아래 하라는 것만 해야 해’로 이어지는 그렇고, 그런 훈계가 도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성적인 것에 대한 통제는 이 사회가 도덕을 확립시키는 주요한 방식이었다.



[그림] 키스 해링(Keith Haring)

성과 도덕과 질서의 상관관계, 사회적 비주체들의 허가 받지 못한 섹스

도덕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연결은 어떻게? 나이에 상관없이 남성들의 성적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져왔다. 사춘기 남자에게의 왕성한 성욕은 도덕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왜?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 법칙 때문이니까. 반면 성 경험을 했다는 게 드러난 여학생들은 ‘결레’ 소리를 들으며 주위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이토록 차별적인 도덕이 유지하는 사회질서는 대체 누구의 질서인가? 여교사를 향해 “여자 노릇, 부인 노릇, 선생 노릇 못 했다.”고 지탄하는 사회가 보여주는 것은 공자 왈 시절의 유교 같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들의 도덕이다. 이런 면에서 상식적인 것이라는 듯 보편성의 얼굴을 한 윤리적 분노와 남성들의 차별적인 분노는 각각의 개별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연결된다. 남자들이 자신보다 어린 여성과 자고 싶어 하는 건 사회적으로 이미 공공연한 욕망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보다 어린 남성과 자고 싶어 하는 욕망은 섹시하고 능력 있는 여성에게만 그럴 자격이 주어질뿐더러, 대개는 숨겨져야 할 위험한 욕망이 된다. 여성의 ‘주체 넘은 성적 주체성’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의 권력관계를 어그러뜨린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분노를 산다. 여교사와 (남)학생의 섹스는 사회적으로 주변부로 밀려난 존재들의 성적 결합이었다. 그 금지된 섹스는 이 사회 ‘도덕’의 이름으로도 남성들의 ‘심기’에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인가, 또한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누구인가(누구로 규정 당했다)’ 만큼이나,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의 문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학교라는 신성한 공간에 속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성’의 존재로 탈바꿈한다. 사회로부터 성적인 권리를 빼앗긴 학생들은 물론이요, 성인인 교사들이라 해도 예외는 없다. 학교의 목표는 모두가 알다시피, ‘학생들 공부시켜서 산업사회의 유용한 인력 배출하기’ 다. 학교 안의 모든 인간들은 그 절대적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존재 각각 ‘학생’ 과 ‘교사’ 로 재구성된다.

그러나 암만 학교를 순결한 성역으로 만들어도, 성적인 사건은 학교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여학생의 임신 혹은 낙태, 남교사의 성추행 사건, 남자애들만 편애하는 여교사에 대한 소문, 또한 남학생들의 음담패설은 학교 안의 모든 여성을 재물 삼아 이루어진다. 탈성화된 학교 공간 안에서도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성적 욕망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며 은밀히 교차되고 있다. 때로는 어떠한 공간의 목표나 사회적 역할 따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부정하고, 어떤 존재인지까지도 규정짓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행사할 때가 있다. 학생과 교사에게서 인간으로서 가진 성적인 면을 지워낸 결과가 바로 신성한 학교라는 거짓된 허울이다.



[그림] 프란시스 Francis/ oil on board/ 35cmx45cm/ 2004년 [출처] <http://www2.ktrwa.or.kr/>

허술한 법체계를 논하라? NO! 차별적인 사회체계를 바라보자! YES!

청소년활동가들이 만든 공부모임 ‘저공비행’에서 얼마 전에 반차별을 주제로 공부했었다. 그 때 초대했던 활동가 분이 가져온 참고자료의 제목이 ‘특정 집단을 구획 짓는 권력에 대한 성찰’ 이었다. 한 인간이 청소년, 성인, 여성, 교사, 학생 등의 요소로 따로따로 분리 되어서 파악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권력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을 구성하는 각각의 정체성들(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결혼 여부), 섹스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 심지어 학교 공간의 특수성까지도 한꺼번에 작용한 복합적인 사건이다. 이 복합성을 무시하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 이분법은 누가 가했고 누가 당했는가를 얘기하며, 여교사를 처벌하지 못 하는 허술한 법체계를 논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두 사람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다. 죄인이 아닌데 왜 처벌할 법이 필요한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죄악시 되는 맥락 속에 이 사회가 가진 ‘차별체계’가 있다. 정작 이야기 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사람 사이의 권력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 30대 여교사와 10대 남학생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 그런 그들의 관계를 대하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차별 또한 복합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 ‘소외’

이토록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는 ‘소외’ 다. 이번 일이 만약 남교사와 여학생 간의 일이었다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수 있었을까? 기사가 터지는 순간부터 이 일을 성폭력 사건으로

단정 짓고, 여학생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만들지는 않았을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검색어 순위를 다 장식하진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무수한 다른 사건들 속에서 방금 예로 든 여학생처럼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건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조금씩만 달라져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반응은 제각각으로 달라진다.

그렇다고 모든 걸 ‘그 때 그 때 달라요’ 라고만 말하기에는 이런 사건들을 특정 방향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지배적인 질서가 있다. 그 것은 앞서 말한 ‘가부장들의 도덕’ 같은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질서이며, 중심과 주변의 구분을 갖고 주변의 존재들을 끈임 없이 소외시키는 사회구조다. ‘차별의 눈’이 주변으로 밀려난 존재들을 외면하고, 사회적 강자들의 시선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눈에 대항해 소외된 자들의 문제를 바라볼 ‘반차별의 눈’ 아닐까.

윤티, 「[페미니즘인(in)걸] 마냥 ‘시크한 차도녀’ 가 될 수 없는 ‘10대 여성’, 나의 담배 연기」, 인권오름 제234호, 2011. 01. 12.

[페미니즘 인(in) 걸]

마냥 ‘시크한 차도녀’가 될 수 없는 ‘10대 여성’, 나의 담배 연기

윤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월 1일이 되었다. 집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러 드디어 '합법적으로' 담배를 사고 한 대 피웠다. 새해 추운 바람이 싫어 집에 들어갔다. 아, 니코틴이 부족해. 방에 들어가서 빼거덕 거리는 창문을 조심스레 두 손으로 열었다. 마침 서랍에 성냥이 있어서 불을 쉽게 붙였다. 친친히 담배를 음미할 새도 없이 누군가 화장실 가는 소리에 불을 끈다. 서둘러 페브리즈를 온몸에 뿌리고 부엌에서 태연히 물을 마시고 안방으로 향한다. '다행히도' 아빠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들키지는 않았을 거다.

2년 전쯤이었나. 이사 오고 나서 드디어 내 방이 생겼다. 뽀뽀뽀 흰 연기들로 내 방 인증을 하고 서랍 속 필통에는 꾀초가 쌓여갔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엄마한테 꾀무늬가 잡혔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한테 '고자질하지도 않고 쉬웠다. 아빠한테 내 흉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엄마일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엄마는 항상 '아빠랑 맞담배라도 피겠다는 거야'라고 화냈다. 그전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해보고 싶기도 하다. 물론 그 후, 아빠한테도 걸렸다(나의 덜렁증). 아쉽게도 맞담배는 아직 이다.

담배를 편지 이제 6년쯤 되었나? 지금은 몇 살이냐고 올해로 이제 20살이 되었다. 여태껏 담배에 대한 고민이라곤 '담배 뭐가 새로 나왔지?', '돈 없어서 금연하게 생겼네…….' 정도였는데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한다. 내가 10대이자 여성으로 그 모진 시련들을 겪었지만, 여전히 담배에 불붙이고 있는 이유를.

안방에 있던 아빠 담배를 몰래 핀 것이 처음인지, 친구가 물려 준 말보루 레드의 숨 막히게 무겁던 연기가 처음이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어느 특별한 이유,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있어서 담배를 처음 몰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독이라 말할 수는 없는 정도로 지금까지 피오고 있다. 내가 겪은 '모진 시련'은 아마도 학교를 자퇴한 후부터였을 거다. 자퇴를 한 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데 사람들이 내 흡연에 대해 걱정(?)해 주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나를 보고 머나먼, 아님 영원토록 없을 뱃속아이 걱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엄마아빠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까지 걱정해주신다. 참 감사하지만, 죄송하게도 난 싫다.

내 주위 여자 친구들은 대부분 담배를 핀다. 그리고 그 중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오히려 남자애들은 담배 피는 것이 허세였지만, 우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던 것 같다. 물론 그래서 좋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남자애들은 허세가 될 수 있고, 여자애들은 처음 소개팅 나갈 때는 '예의상'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걸까? 좀 새어나가는 이야기이지만, '내 몸을 지키자'는 말이



[설명: “너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배웠니? 제대로 당당하게 피워라.” 영화 ‘여배우들’에서 윤정영이 김옥빈에게 던진 대사]

왜 여자한테 더 잘 어울리는 말이 된 걸까? 학교를 다녔을 때에도 ‘폐 검사(X-ray)해서 담배 핀 거 걸리면 어찌지’ 하며 소리 내서 걱정하는 애들은 전부 남자였다. 난 물론 '똑똑해서', 그 검사로 흡연여부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여자애들도 나처럼 검사해도 걸리지 않는 걸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학교 안에서 여성흡연자는 볼 수가 없었다. 한 학년 중에 담배 피어서 걸린 애들이 줄서서 단체로 벌서고 있을 때도 여자는 없었다. 뭔가 투명 인간 기분이다.

한 번은 친한 비흡연자 남자애들이랑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난 언제나 그랬듯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는데 다들 놀란 표정으로 '너 담배 피워?'라고 묻는다. 그 다음으로 '내 주변에서 담배 피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라는 말이 이어졌다. 영? 이상하다. 내 주변 여자들은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은데, 이 친구들 주변에는 담배 피는 여자가 나 하나라니. 물론 남자애들과 있을 때만 이리 불편한 건 아니다. 얼마 전엔 나보다 2살 많은 언니 무리들과 같이 술을 마시는데 어색하고 할 말도 없어서 담배를 폈다. 그 언니들이 다 담배를 물고 있기도 했고, 같이 피웠던 적도 있어서 아무런 긴장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한 언니가 정색하더니 진지하게 '너 담배 그만 피.'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뭐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피다가, 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한 대 때릴 것 같아서 아까운 담배를 꺾다. 같이 술 마시고 있는데 담배는 안 된다니, 아이러니하다. 내가 아직 성인이 되기에는 며칠이 남아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담배가 뭐 길래?' 라는 질문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난 그렇게 담배 불을 끄고 나서, 그 언니가 담배를 피라 말라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는 담배를 다시 피고 싶어졌다. 그런 사람 앞이니까 더 담배가 당겼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일 때, 예를 들어 지하철 앞에서 남자들만 나란히 서서 담배 피고 있을 때, 담배가 간절히 생각난다. 내 몸에서 '니코틴이 필요해'라고 외쳐서 필 때와는 느낌이 다르다. 실제로 피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담배에 불을 붙인다. 담배를 피우면 느껴진다. 10대 여성인 내가 담배를 핀다는 건, 원하는 원하지 않던,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는 일이다. 그래서 가끔은 작은 반항 같다. 사람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이 본의 아니게 내가 담배를 질리지 않고 계속 피워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성 친구 중에 같이 담배 핀지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다. 개랑 나랑 그리고 다른 흡연친구들 사이에서는 담배를 피울 때, 여자나 남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고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친구네 집에 놀러간 적이 있다. 나처럼 그 친구도 덜렁거려서인지 부모님한테 담배 피운 것을 들켰다. 그리고 혼나기도 했다. 그러나 나와 그 친구의 상황이 다른 건 개네 부모님은 그 친구 방에 재떨이를 놓아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 친구 말고도 다른 이성 친구 중에는 방에 재떨이가 있는 친구들이 꽤 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다른 여자 친구네 집들은 재떨이는커녕 매일 혼나고 또 혼날 뿐이다. 남자 애들 부모님만 쿨한 거라 보기에는 찝찝하고 억울하다.

다른 동네 친구들에 비해, 난 동네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뺑(길에서 담배 피우는 짓)'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나도 동네에서 필 때는 나도 모르게 조심하는 것들이 있다.

1. 욕하면서 피지 말기
2. 침 뱉으면서 피지 말기
3. 탈색한 머리 숨기기
4. 양아치로 보이지 말기

1.2.3.4.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런 원칙을 세워 담배를 피우니 나 자신도 어이가 없다. '나는 착한아이니까 담배 피도 되요'도 아니고 말이다. 나 말고도 '우리 끼리'가 아닐 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자 친구들은 꽤 많다. 그 친구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도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담배 피우면 마이너스+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사실을. 분명 20살 넘어서 담배 피도, 우리한테 담배 피우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람들은 많다. 다만 우리가 10대일 때 좀 더 확실히 '욕할 거리'가 생긴다. 담배 피울 때 '나도 어린것'으로 싸잡아 뭐라고 하시는 분들! 사람 골라가면서 뭐라 하지 말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죠. 물론 기왕이면 안 듣는 게 더 좋지만요.

담배가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안다. 그리고 이 글을 다 읽은 사람이라면 내가 흡연예찬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 챌으면 좋겠다. 난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리고 끊더라도 내 의지대로 끊을 거다. 언제부턴가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게 내 몸인지, 내 마음인지, 아님 내 이성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담배 피는 여성으로 존재하며, 이렇게 외치고 싶다. 머나먼 멋진 외국 차도녀(차가운 도시 여자)만 담배 피는 건 아니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엠건, 「[페미니즘인(in) 걸] 걸 페미니즘 “다시 보기” - 먼 길을 돌아와 당분간 굿바이」, 인권오름 제242호, 2011. 03. 15.

[페미니즘 인(in) 걸] 걸 페미니즘 “다시 보기”

먼 길을 돌아와 당분간 굿바이

엠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고백하자면, 사실 난 ‘페미니즘 인 걸’의 연재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올해 초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팀 편성을 다시 했다. 2년 여 활동해왔던 여성주의팀을 반차별 연구팀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기존의 여성주의팀은 활동을 끝맺었다. 까맣게 잊고 있던 ‘페미니즘 인 걸’의 얘기를 다시 듣게 되었을 때, 여성주의팀 활동과 너무 안일하게 이별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새로운 팀에서 이 연재를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덤석 한 번만 더 쓰자고 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은 내 이런 미련이 만든 ‘자투리 부록: 걸 페미니즘 다시보기’다.

걸(girl)들의 페미니즘,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그간의 연재분들을 쭉 돌아보니, 대충 성격을 네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야오이, 공포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매체를 통해 여성 청소년의 이야기를 풀어냈던 게 하나, 스무 살의 편지나 소수자의 오지랖, 담배 편처럼 여성 청소년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사적이고도 공적인 고민을 나눴던 게 둘, 청소년인권 의제였던 학교, 정치적 권리, 보호주의, 가정 등의 사안을 여성 청소년의 시점에서 다시금 파보았던 것들이 셋, 팬덤 편처럼 이름 묻혀있던 여성 청소년의 이야기를 새로이 짚어보려 했던 시도들이 넷. 여성주의팀 활동은 지금 와 생각하면 여성 청소년을 주어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걸 페미니즘의 주어는 계속해서 ‘걸(Girl)’이었다. 그 걸(girl)은 10시 땡 치면 아빠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데렐라 같은 여자애들이기도 했고, 팬클럽이라는 모임을 통해 주체적 행동을 도모하는 여자애들이기도 했다. 그녀들이 사는 현실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녀들이 어떤 억압에 처해있는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얘기하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가부장적 폭력에 반소시(반사회적 소녀들의 시선)로 맞서는 것, 때면 하려했던 건 결국 이거였다. 물론 이렇게만 단순화시키기엔, 주로 이야기 하던 것들이 점점 달라져오긴 했지만.



시간은 흐른다, 그리고 시선은 변한다

페인걸 연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주제가 원더걸스, 소녀시대 등 10대 여성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였던 건, 당연히 우연이 아닐 것이다. 소녀시대로 대표되는 여성 아이들은 여성 청소년을 둘러싼 억압과 권력이 가장 눈에 띄게 잘 드러나는 구체적인 예였고, 그건 ‘걸 페미니즘’을 처음 시작한 우리 같은 초짜들 눈에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나라했다. ‘소녀’는 순수하고, 어여쁘다. 소녀에 대한 이미지는 곧 여성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요구 받는 덕목이다. 물론 실제와는 상관없는 환상, 즉 소녀 판타지다. 소녀시대의 상품성은 남성 및 가부장 권력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동시에 지배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데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덕분에 그 당시 우리가 말하는 소녀는 가녀린 몸매에 새하얀 스커트를 입고 예쁜 표정을 지으며 춤추는 ‘바로 그 소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소녀시대의 판매 방식은 몇 년 사이에 순수에서 섹시로 변모한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 역시 변해갔다. 처음엔 ‘바로 그 소녀’에만 붙들려 있던 눈이 지금의 사회와 실제 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 지를 향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가 10대 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블링블링한 화장품 가게에서 “고객님”으로 호명되고 있는 소녀들을 통해 봤던 것처럼.

뽀인트는 맥락을 놓치지 말 것!

이제와 하는 얘기지만, 여성주의팀은 원래 ‘반차별팀’으로 시작했다. 청소년 인권과 사회에 존재하는 이런 저런 소수성을 결합해서 얘기해보자는 게 처음 계획이었고, 그 중 여성주의를 택해서 일단 한 번 해본다는 게 그만 꽤 재미져서 아예 여성주의팀 활동으로 정착했다. (맞나? ㅋㅋ) 연재 후반에 복합차별이니, 반차별의 눈으로 ‘30대 여교사 10대 남학생 사건’을 보자는 등의 얘기를 계속 하게 됐던 건 페미니즘과 청소년인권을 동시에 말하고자 했던 시도가 자연스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를 하나 이상의 시선으로 복합적으로 고민하게끔 했던 데 있다. 청소년 인권 의제의 대표주자 격인 학교 이야기에 페미니즘이 더해질 때, 교사는 무조건적인 강자라는, 성차를 무시한 관점에서 여성 교사에게는 또 다른 맥락이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 청소년이 처한 삶의 문제가 어떤 사회적 조건과 관련 있는지 생각하면서 꽤 많은 키워드를

만났다. 남성 중심성,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질서와 도덕 등. 이제 와서는 뭘 얘기하든 이 모든 키워드들이 함께 만난다. 이 모든 게 현재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섬세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익숙한 프레임을 고집하거나 모른다는 이유로 보지 않아 놓치게 되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람일 테니.



당분간 굿바이, 걸 페미니즘

“여성+청소년=여성 청소년”이라는 공식을 넘어서자”라는 지난 페인걸 연재 제목은 그동안 걸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동안 내린 최소한의 결론이다. 서원의 말처럼 여성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은 여성 청소년 고유의 경험이다. 마지막 연재가 될 뻔 했던 지난 연재는 윤티가 여성 청소년으로써 말한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어지지 못했던 건, 여성주의팀을 조금은 허무하게 마무리하게 됐던 건, 우리의 활동이 여성 청소년들의 삶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진부한 반성이지만, 그래도 덧붙이고 싶었다. 설마하니 영영은 아닐 거다. 그러니 당분간 굿바이, 걸 페미니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갬** 함께 만들기 단체 제안서」, 2009. 08. 20.

수 신 :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여성주의모임, 성소수자모임 등등

발 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팀

일 시 : 2009년 8월 20일

담 당 : 한날 011-****-****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갬> 같이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인권과 여성주의가 만나는 지점들을 모색하고 더욱 풍성한 청소년인권운동을 만들어가고, 동시에 여성 청소년(10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여성주의와 청소년인권의 이야기들 속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만들기는 저희 여성주의 팀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생각해오던 사업입니다. <갬>은 10대 여성 - 여성 청소년들이 여성주의와 청소년인권의 이야기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면서 10대 여성들이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청소년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10대 여성들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활동의 주체(활동가 이든 '회원' 이든 '페미니스트' 이든)가 되고 직접 활동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10대-청소년 여성주의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여성 청소년(1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사회적 목소리로 만들어내면서, 여성주의 운동과 청소년운동 양쪽 모두를 더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갬>을 만드는 데 여러 단체들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아마 인터넷 카페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페미니스트 언니들과 (청소년) 성소수자 활동가, 청소년인권활동가 등이 1달에 2~3회 정도 정기 연재 형식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채워나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이나 활동에 조언을 주시거나 같이 운영을 해주시면 그것도 기쁜 일일 것입니다. ^^ 주변 분들에게 커뮤니티를 적극 소개하고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상세한 콘텐츠 기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걸 페미니스트 온라인 커뮤니티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꼭! 참여해주시고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재코너, 10대 여성 위키백과, 언니들의 지혜공감 코너 특히 주목해주세요~
(저희가 만든 콘텐츠 외에 조언주시면 언제든지 반영 가능합니다! 특히, 나는 이런 연재코너 만들어 보고 싶다~하시면 망설임 없이 바로 연락 주세요!)

*** 콘텐츠:**

- 너를 보여줘

- 20문 20답 자기 소개

- 나는 표현한다, 여러모로

- 자유 글
- 자유 만화, 사진, 영상, 음악 등

- 연재 코너

- : 인권오름 “페미니즘 인 걸” 수록
- : 쟁열, 또연-> 패션 문화사
- : 공현-> 연애 혹은 사랑 관련 연재
- : 화신-> 근/자/감/ 여행기
- : 라틴-> 청소년 성소수자의 이야기(라틴에서 기획해주시기)
- : 한낱-> 페미니즘 뭐임? 먹는 거임?(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편견 다루기)
- : 엠간-> 영화, 드라마 등등 리뷰.. 걸방 메모리
- : 수다와 대담 사이-> 여성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수다, 대담

- “Don’t touch me! Don’t teach me!”(여성청소년 의제를 가지고 학교 앞 선전전)

- 학교 선전전 풍경
- 선전전 때 받은 사례 공유하는 게시판
- 걸페미니즘 행동단 항시 모집(+우리 학교 앞 선전전 요청 통로 제공)

- 어디로든 날아가(주기적으로 국가나 단체 등에 발송할 수도)

- 비밀엽서: 익명게시판으로 한겨레21처럼.
- 공개엽서: 분노어린 청원.

- 함께 만드는 10대여성 위키백과

- 사전 : 생리, 비혼, 체육복, 스타킹, 치마, 이반 (순정)만화.....
(+ 덧글로 업데이트)
- Q&A 게시판
- 이거 좀 괜찮다, 책이나 영화 등 품평

- 언니들의 지혜공감

- 비청소년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꾸미는 게시판
- 내가 10대 때 페미니즘을 알았다더라면 등 주제 선정하여 필진 섭외

- 선(line)을 넘어, 사고치기

- 오프라인 기획 행사 소개 및 조직
- 타단체 활동 홍보
- 번개 모임

- 한마디로 속닥속닥

- 짧은 메모판

- 운영자에 귀뽀하기

- 운영 권유 사항
- 등업 요청 등

- 함께하는 공간(요청받아 업데이트)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이수나로, 라틴, 모난 라디오 등 10대 커뮤니티 및 미디어 연결
- 몇몇 여성단체
- 불만한 개인 블로그

맘마다 깜깜해~

내가 가진 생각, 용기, 분노, 감정,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깜!**

명박이라 뭉쓸 교육이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함은** 한방에 알아챈 나의 **깜!**

깜

여자라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대하는 것들의 금소를 **깜!**

규칙과 질서는 내세우면서 인권은 혼란 까먹은 위선적인 사회의 거짓을 **깜!**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깜**'은 발랑까진 상상력과 충분한 인권감수성, 빈곤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쪽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깜's

- 자유분방한 수다와 나눔의 공간
- 코** -다양한 필진들과 함께하는 연재공간
- 니** -온라인의 분노를 오프라인으로! 스파이더걸
- 소** -함께 만드는 10대 여성 위키백과
- 개** -언니들의 지혜공간

이 즐겁고 신나는 **깜**의 나눔에 동참하실 분은,

cafe.daum.net/femigirl 로
들어오세요~

cafe.daum.net/femigirl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감〉 메인 화면 사진, 2012. 08. 20.



우완, 「성폭력을 ‘교권’ 문제로 보면 대책이 없다- [좌담]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 남긴 것」,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9. 09. 23.

성폭력을 ‘교권’ 문제로 보면 대책이 없다

[좌담]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이 남긴 것

우완

<여러 남성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어깨에 손을 올리며 ‘사귀자’고 종용한다. 이를 피하려고 여성이 자리를 옮기자, 놀려대며 다시 에워싸고 팔을 잡는다. 그리고 이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 외부에 공개한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성추행이다. 그런데 이 일이 교실에서 남학생과 여교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라는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워진다. 위 상황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남성-여성 간의 ‘성별 권력’ 관계를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탓이다. 하지만 성별 권력관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사건의 본질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소위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사건 이후 오기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교실 성폭력 예방하기 위한 방법’보다는 침해 당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목소리가 높다. 때마침 추진 중인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조례’ 제정움직임과 맞물려, 교권회복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철 지난 논쟁인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지는 말도 나온다.

‘성별 권력관계’라는 본질 은폐해선 안돼

19일, 이번 교실 성추행 사건을 다시금 살펴보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가 속해 있는 여성주의 교사모임 <빼빼 통스타킹>(이하 교사모임)과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여성주의팀(이하 청소년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모여 대담을 진행했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건이 ‘교권침해’사건으로 일반화되어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교사모임의 정주연 씨는 ‘교권’이 보장되던 1970~1980년대에도 “여교사에 대한 남학생들의 성희롱은 늘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교실문화를 개선한답시고 학생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할 근거를 만들어 내는 건, “엉뚱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네트워크 엠건씨도 “성희롱의 본질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어린이가 교사들한테 기어 올랐다는 것에만 집중된 언론의 태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사모임의 조영선씨는 기존에 여교사들이 겪은 성희롱보다 이번 사건이 크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 공간에 유통시킨 것이 학교집단에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영선씨는 이 사건의 여파가 핸드폰 사용금지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 9월 19일, 여성주의 교사모임 <빼빼 통스타킹>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팀이 모여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 사건을 둘러싼 논의와 대책에 대한 좌담을 진행했다.

또한 대담자들은 이번 사건이 ‘교권침해’라고 뭉뚱그려지면서, 정작 사건 당사자인 여교사 본인의 목소리는 사라져 버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청소년네트워크 한날씨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이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막상 사건을 다루는 시선에 서는 여성이 배제되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젊은 여교사의 ‘위치’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본인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당당하게 나서서 이야기하기란 아직도 어려운 일이다. 특히 비정규직 여교사의 경우라면, 학교사회에서 자신의 피해를 발언하기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교사는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아니라, 다층적인 권력관계 망 속에 놓여 있는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이라는 말로 교사집단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젊은 여교사인 만큼, 실제로 교직사회 안에서 이 교사의 정당한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교사모임에서는 전형적인 신규 여교사의 입장에 대해서 “아가씨 선생님”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학교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 처하게 되는 교무실의 현실은 배려와 우대, 그리고 무시와 하대가 묘하게 섞여 있는 분위기다.

일례로 남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여자선생님은 약하시니까 너희들이 잘 도와드려!”라고 말하는 선배 남자

교사의 ‘배려 아닌 배려’는, 학교에서 여교사의 위치를 더욱 의존적이고 나약한 것으로 만들 뿐이다.

청소년네트워크 활동기인 십대들도 입을 모아 ‘남자선생님들이 여자선생님들을 학생들 앞에서 귀엽지 않느냐고 칭찬한다’, ‘학교에서 남자선생님이 하는 역할과 여자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학교 내 가부장적 교사문화를 이야기했다.

성적 긴장감을 ‘가족적’이라고 포장하는 학교

학교운영이 가부장적 가족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남교사가 해야 할 역할과 여교사가 해야 할 역할을 나누어, 성별 분업구조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한 예로 지적됐다.

또한 남교사들은 엄하게 혼내고 규율을 잡는 역할을 한다면, 여교사들은 학생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분위기도 엄연히 존재한다. ‘남교사 할당제’를 요구하는 쪽에서 ‘여교사는 엄마, 남교사는 아빠역할이니 모두 균형 있게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를 드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교사모임의 조영선씨는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모델에 기반한 학교문화가 ‘교권을 노동권으로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문화는 엄연히 존재하는 남학생과 여교사 사이, 남교사와 여학생 사이의 성별 권력관계, 그리고 성적 긴장감을 ‘가족적’이라고 포장하는 기반이 된다.

청소년네트워크의 공기씨와 엠건씨는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아빠와 딸’ 같은 사적인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교사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강한 규제를 행사하게 되어 당황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학교 내 교사 성추행 사건’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와 맞물려 있어, 다양한 논쟁의 지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성주의 교사모임 <빼빼 룡스타킹>과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여성주의팀에서는 이날 논의결과를 담은 입장을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 내 성폭력’ 근본적 문제제기 필요해

사실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여교사의 이야기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의 고정 레퍼토리 중 하나다. 최근 여교사와 남학생 사이 로맨스드 드라마나 영화에서 몇 번 다루어졌다. 이번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사건은 어찌 보면 흔한 ‘여교사 수난시리즈’의 변주곡인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교장, 교감, 부장교사들이 신규교사에게 행하는 직장 내 성희롱, 남교사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논의 없이 ‘교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학교 안의 남성적인 훈육방식을 강화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법은 학교문화의 가부장성을 타파하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죄담이 끝나고 청소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한 청소년이 건넨 후기다. 스스로 ‘10대 여성주의자’

라고 말하는 십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보자.

<이번 사건이 터지고 ‘문제는 교권의 추락’, ‘인성교육 강화해야’ 등으로 몰리는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 한 여성에게 가해진 성적 폭력이란 사실엔 대부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감히 ‘교사’에게 기어오른 학생이라는 점에서, 극심한 반감을 느끼고 있을 뿐.

좌담 자리에서 ‘교권의 주어는 남교사’라는 말을 듣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 이런 흐름들이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사건의 대책으로 교권 신장을 주장하는 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적어도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당사자인 교사조차 배제시킨 채 이야기가 진행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 심지어 여교사들을 위한 목소리도 아니다.

교권을 사랑하는 분들께 끝으로 몇 마디! 교사들이 겪는 인권침해 때문이라도 교사의 권위가 서야 한다? 교사들의 고통이 말 안 듣는 못된 학생에게서 기인한다면, 학생들의 고통은 권위적인 교사들과 억압적인 학교와 사회로부터 기인한다는 걸 무시해선 안 된다. ‘교사들의 현실적 고통이 학생들과 대립한다고 해결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러한 해법은 학생들을 때려서 내 고통을 없애는 전형적인 강자의 방식밖에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밤마다 짹짹해

내가 가진 생각, 욕구, 분노, 감정,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짹

명백하고 뭉툭 교육이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함을 한방에 알아챈 나의 짹!

여자라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대하는 금소를 짹!

규칙과 질서는 내세우면서 인권을 몰랑 까먹은 워선적인 사회의 거것을 짹!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깡'을 발령까지 상상력과 충만한 인권감수성, 빈곤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짹 짹 성장하고 있습니다!

깡's
 -자유분방한 수다와 나눔의 공간
 -다양한 재진들과 함께하는 연재공간
 -온라인의 분노를 오프라인으로! 스파이더걸
 -함께 만드는 10대 여성 위키백과
 -여니들의 지혜공간

이 즐겁고 신나는 '깡'의 나들이 동참하십시오.
 cafe.daum.net/femigirl 로
 들어오세요~

wonderful Tonight!

"여자에게 짹짹" 으로 시작하는 강소리에 불끈 화가 난적이 있거나, "좋은 남자 만나서 서걱 가야지"라는 말에 배운몸을 내린 적이 있거나, 얼굴도, 몸매도, 공부도 보통 이하인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당신은 우리의 친구!

우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팀이에요!

10대 여성주의팀이에요!

팀원 여성주의 말마타
 한남: 정해진 길도 정해진 답도 없는 곳.
 공기: 새로운 일이 많은 곳!
 난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곳!
 웹간: 네트워크에서 제일 신선한 구역?!
 공간: 언젠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으로 기억 될 수 있을 것 같은 곳

여기서 뭐하는데?
 1. 일단 모여 공상을 즐긴다.
 "10대 여성들과 신나게 애물 수 있는 일이 뭐지?"
 여주 가끔 궁금한 게 있으면 공부도 한다.
 2. "이말 정준 꼴피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우리끼리 부족하다 싶으면 손발을 펼친다.
 3. "우리 같이 10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한번 만들어볼래?"

더 궁금하면?
 cafe.daum.net/youthhr 011-9014-8304(안남)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깡'

성폭력 [sexual violence] :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

"땀 갈아서 그런가아"

땀 갈아서 그런가아? 땀 갈아서 뭘 그랬는데? 참 이상하지. 땀 갈아서 예쁘다고 엉덩이 두드리고, 어깨 감싸고, 가슴 만났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은근히 많아. 그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그 일을 직접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자유해주시보다는 학교의 명예 운운 하며 사건을 덮어버리는 일도 많고.

하지만 성폭력/성희롱은 "재수 없어서 걸린 일"이 아니라, "땀 갈아서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쉽게 대상화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어난 '폭력'이러구.

"(짜장만거 보고) 술집 나가냐"

이건 다른 말들보다 진짜 무개념적인 발언인 것 같아. 여학생이 짜장만거, 치장을 하는 건, '청소녀' 특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할 '소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를 통제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사회에서 여성은, 특히 여성의 성은 관리대상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상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나봐. 모든 여성은 예쁘고 아름다워야 해. 직담이, 비슷한 말로, "싸보인다"는 말이 있지. 이런 여성을 그저 돈으로 사고 팔고,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야.



진짜 나뻐다니니까?



후회! 인권갈등
 학교에서, 집에서,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구린 말들!

"너 얼굴 보니까 공부 독하게 해야겠다"

여학생은 돌 중 하나다. 얼굴이 이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양성평등 시대라구요? 여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같아봐야한다. 그것에 뒤떨어진 여성은? 그저 이웃이다.

그냥 인간으로 실면 안되겠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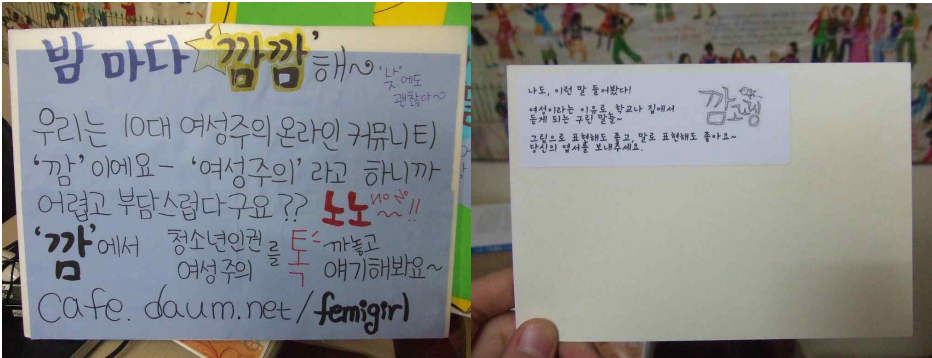
"30분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달라진다"



어떤 학교의 급훈이래. "30분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달라진다", "여자들이 이렇게 주변 정리를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시집가려고" 등의 말 속에 숨어있는 건, 여성은 당연히 결혼해야 하고, 결혼 후에는 남성에게 대해 보조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당연한 여성의 역할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남성과 여성은 다르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역할을 맡는 게 자연스럽다는 건 고정관념이러구!

이 중 하나라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나봐! 근데, 더 이상 숨기지 말지여대! 여성이라, 그리고 여성청소녀라기 보다는 이런 '주린 단' 등의 표현이 맞서 조금 더 야만적이고 반칙이러구! 맘을 나누자, '전 프리맘들의 마음으로' **100% 가정감**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1차〉 소장사진, 2009. 11. 07.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2차〉 소장사진, 2009. 11. 21.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3차> 소장사진, 2010. 05. 29.



(깜깜한)년도 쓸모있는 전국 청소년 여성주의 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섹스, 임신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대충 쓰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없으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정말 주관적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알아서 잘 답을 하기 바랍니다.

[1 ~ 2]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입니다.

1. 다음 중 가장 낮 뜨거운 단어를 고르시오?

- ① 키스
- ② 애무
- ③ 성교
- ④ 섹스
- ⑤ 자위

2. 다음 중 청소년의 성관계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개 고르시오.

- ① 여성으로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자칫 잘못하다가 임신할 수도 있다. 임신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책임질 수 없는 임신은 애초부터 근절되어야 한다.
- ③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이다. 잘못 하다가 몸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④ 청소년기에는 나이에 걸맞는 순수한 사랑이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 ⑤ 아무튼 청소년에게 '성'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3 ~ 4] 문제를 읽고, 3번과 4번의 두 물음을 한번 거듭 떠 보고 생각해볼리까.

3. 다음 글을 읽고, <낙태 금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있게, 멋대로 떠올려 보시오.

무슨 논술 시험 문제도 아니고 '낙태를 찬성하나, 반대하나'에서부터 '낙태를 금지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낙태'에 관한 말!말!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본적 있나요? '낙태'라는 단어 자체가 '태아를 죽인다'는 말로, '낙태'한 여성을 마치 '살인자'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낙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좋아하고, 생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임신은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임신에 대한 책임은 늘 여성만 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강조하던 정부가 이제는 '우리 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자!'고 이야기하는 거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성들이 무슨 아이 낳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는 건 뭣미? 출산과 양육은 사회 전체가 책임질 문제라구요! 이런 분위기에서 낙태를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낙태 시술이 늘어나 여성들이 건강을 위협받게 됩니다.

4. 다음 지문을 읽고, 거울을 본 후, 화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정을 지어 보시오.

아아, 여러분! 여성들은 직업을 갖기보다 현모양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성의 임무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고, 직업을 가지더라도 양육과 보육 등의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자들을 보니 자식빨이고, 삼촌 같은 마음이 들어 언론계 선배로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충실한 어머니와 선량한 부인만 되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몇 가지 행복이 있는데 탄탄한 남편을 만나야 하고 재물과 알맞은 일거리가 있어야 하고 행복한 자녀를 뒤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꼭 결혼해서 최소한 애를 둘은 낳으십시오!

※ 확인 사항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깜'(cafe.daum.net/femigirl)에 가입해 주시와요.

섹스, 임신 영역 정답 및 해설

이것은 아마도 해답 또는 해석

원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이거슨 아마도 위의 시험문제(?)에 대한 해답 또는 해석! 혹시 답을 찾으셨나요? 너무 어렵다구요? 다 맞는 이야기 같대구요? 아님, 이게 대체 뭐냐구요? 차근차근 살펴보지요. 고고!

• 섹스 영역 •

[문제1] 몇 번을 찍으셨나요? 무엇이 가장 부끄러웠 냐 뜨겁게 만드나요? 그런데 이 문제에 서 말하는 '낯뜨겁다'라는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의 기준은 뭘까요? 딱 답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끄러워질까요? 저 단어들이 민망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성'을 대놓고 말하는 것을 금기시해왔습니다. 게다가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할' 여성들에게 '성'은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여성이 '성욕'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나요. 그리고 그것은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낯 뜨거운' 말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성'을 말하는 것과, 남성들이 '성'을 말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남학생의 몽정이나 성적 호기심, 욕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혹은 '도전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여학생의 생리나 자위 등의 성적 욕구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밝히는 애'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쩌면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저 단어들이 웃음거리, 즐거운 대화거리가 되었을 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시험지를 통해, 여성청소년-소년(girl)들도 감히 '당당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는데 여성의 '성'은 숨어만 있어야 하나요?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 욕구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성-청소년에게만 '성'을 금기시키고, 조신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낯 뜨거움'을 선사하는 요런 '불평등함'에 맞서 발칙한 하이킥을 함께 날려요!

[문제2] 답 두 개, 잘 찾으셨나요? 헛갈리시죠? 아님 좀 짝지근하신가요? 혹은 딱 두 개를 자신 있게 고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문제에 답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청소년이 '섹스할 권리', '성적 권리'를 막

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구요?

이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은 여러 다양한 이유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여성의 '성적 권리', '야해질 권리'가 일종의 사회적 금기인 것처럼요. 위의 문제에서의 지문들이 '금지'하기 위한 이유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지금도 여러 학교에서 종종 학생들의 연애를 금지하거나 성적 행동을 규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나 학교에서의 나쁜 한담시고 하는 성교육도 결국엔 '건전한 이성교제', '책임감' 같은 것들, '순결', '자제력' 같은 것들만 강조하고 있어요.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함부로 섹스를 했다간 어떻게 될 지 모른다, 라는 것도 '금지'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괜찮은 이야기인걸까요? 청소년의 성을 금지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야한 것을 접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해롭다는 이상한 인식을 그 바탕에 깔고 있어요. 성은 더러운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입으론 말하지만, 실제로 규제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야한 게 '미성숙'할 때는 해롭고 '성숙'할 때는 안 해로운 거였나요?

이래저래 여성-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 사회와 어른들의 태도는 참으로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팍팍 들지 않나요? 예쁘고, 귀엽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그리하여 성적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거기다 푹푹하고, 그래서 장래에 결혼해서 남편에게 '내조' 잘 하는 여성으로 자리나야 한다,는 것을 부추기지만, 한편으로 '섹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이 요상한 사회! '순결'과 '순정'만이 여성의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성교육!

이 사회가 여성-청소년들의 성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게 강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하진 말건 일단 우리가 결정할 문제! 우리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함께 외쳐보면 어떨까요?

• 낙태 영역 •

[문제3] 임신, 낙태? 짹~ '날라리'들이나 고민하는 문제 아니야?

☞ 10대 여성들에게 섹스는 '해서는 안 될 것'으로만 여겨지고 있지요. 좋아하는 사람과 '안전하게' 자신의 성을 나눌 권리, 섹스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섹스에 대해 말하기도, 섹스를 행하기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섹스를, 임신을 그저 무섭게 느끼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섹스

를 하는 10대 여성, 임신한 10대 여성을 "저런 걸레 같은 년! 쫓쫓 이제 인생 끝났네!"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근까지도 임신한 10대 여성을 강제 퇴학시키거나 전학 보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10대 여성의 낙태를 예방한답시고 24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한 달에 124,000원 지원하는데, 도대체 이 돈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란 건지!

섹스와 임신을 금기시 할수록, 우리는 우리 몸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 몸에 대해 알 수도 없고, 내 몸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없습니다. 어른들 중심의, 남성들 중심의 이 사회는 이제 훈계는 집어 치우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10대 여성의 섹스 경험, 임신 경험, 출산 경험, 낙태 경험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문제4] "여성은 직업을 갖는 것 보다 현모양처 되는 것이 낫다" 이걸 또 뺨미?

☞ 무슨 조선시대 때 나온 이야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시중 씨가 여기자 분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모양처는 현명한 어머니, 선량한 부인을 뜻합니다. 언뜻 단어 뜻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여자는 집에서 애를 보는 게,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서 오는 게' 각자의 역할에 맞는다는 거지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의도가 뻔합니다. '요즘 여성들이 밖에 나와 일을 하다 보니, 결혼도 잘 안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몰아갑니다. 모두가 어머니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에게는 자신의 인생과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잔소리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무슨 여자가 주변 정리를 이렇게 못해!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어?" 이것 역시 집안일은 여성이 하는 것으로, 여성들은 남편과 아이를 챙겨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성차별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섹스를 날리며 이렇게 외쳐 봐요! "뺨미? 결혼해서 맨날 남편과 애들 뒤치다꺼리만 해야 되면, 차라리 안하고 말아요!"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5차> 전단지, 2010. 11. 06.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깜> 11월 이야기 2: “거울을 본다?” ▶ “거울을 보며 생각한다.” [작한 몸매 만들려다 영양실조 걸리겠방ㅠㅠ]

몸무게는 1급 비밀?



언제부터가 여성의 몸무게는 1급 비밀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닌 이상 여성에게 몸무게를 물어보는 사람은 “매너 없다”는 소리를 듣기 딱 좋습니다. 몸무게는 성적이나 전화번호보다도 더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인 것 같습니다. 몸무게는 단순히 여성의 몸의 무게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여성의 자기 관리 능력, 가치, 도덕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있습니다.(“몸매가 착하다” 등등)

10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살찌는 걸 무서워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몸매 관리를 합니다. 배가 고파도 밥을 조금만 먹고,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시도 때도 없이 고른 배를 잡고,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절망에 빠집니다.ㅠㅠ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식단이 하루 800kcal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던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해쳤다는 이야기들은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남자의 몸매, 여자의 몸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왜 여자들만” 그렇게 몸무게와 몸매를 ‘목숨 걸고’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남자들도 초콜릿 복근이니 꽃미남이니 하면서 ‘몸매를 만들 것’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몸매나 몸무게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자는 ‘능력’이, 여자는 ‘외모’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S라인 V라인 등등 그리고 요구되는 몸도 다릅니다. 여자들은 갈수록 가늘어지기를 원하지만 남자들은 탄탄하고 강한 몸을 원합니다. 남자들이 근육을 만들고 키우는 동안 여자들은 근육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살을 빼입니다. 남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동안 여학생들은 화장을 하고 몸매 관리를 합니다. 남자다운 몸, 여자다운 몸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남자다운 몸, 여자다운 몸을 대체 누가 정하는 건지 물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으로 내 몸 보기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_@ 하지만 그 ‘예쁨’의 기준은 누가 만든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체형’의 기준이 지금보다 좀 더 두꺼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기준은 우리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모주의’입니다. 딱 하나의 예쁜 몸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못한 몸이 되는 ‘외모주의’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눈에 맞는 몸매나 외모가 아니라고 해서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서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가 정한 딱 하나의 몸매만 ‘착한’ 몸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맘에 드는 몸매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물어보고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페미니즘’(여성주의)의 시작입니다.



▲ 영화 슈렉에서 피오나 공주는 ‘예쁜 외모’를 버리고 스스로 괴물의 모습이 되지만 행복하게 산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깜>으로 ▶ cafe.daum.net/femigirl

<깜>은 발칙한 상상력, 충만한 인권감수성, 빈곤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쪽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10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관> 11월 이야기 1: “거울을 본다?” ▶ “거울을 보며 생각한다.” [내 옷이 내 옷이 아니야~]

옷으로 ‘나’ 를 말한다?



좀 더 괜찮게, 센스 있게 입고 외출을 한 날은 걸음에 좀 더 힘이 붙습니다. 요즘 거리를 활보하는 언니들은 웬만하면 다 한 가닥 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도, 그 때문일 지도 모릅니다. 옷을 잘 차려입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달라 보이니까요.

옷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유독 여성에게 더 강합니다. 중, 고등학생인 언니들은 특히 학교에서의 썩은 두발복장 규제를 벗어난 공간에서의 꾸미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도 하고, 외모를 관리하는 것, 센스 있게 옷을 입을 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성의 경쟁력의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언니들이 입이 딱 벌어지게 높은 ‘킬 힐’ 구두를 신고 다리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레깅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입어내곤 하죠. 그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정신력의 승리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그 차림이 편안하지는 않죠. 하이힐을 신다 보면 발이 아파 오고, 발목이 꺾일 것 같고, 치마를 입고 있으면 편히 앉지도 못하고,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는 감각이 없어질 것처럼 찬바람이 다리를 휘감습니다.

내가 입는 옷은 진짜 ‘나’ 를 말할까?

그래도 언니들은 그 불편한 옷차림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건 분명 즐거운 일일 테지요. 하지만 ‘옷빨’이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차림이 촌스러운 것일까 하는 걱정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콤플렉스가 됩니다. 많은 언니들이 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TV에서,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띄워주는’ 스타일은 유행이 되고 표준이 됩니다. 예쁜 연예인들이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걸 보면 자기 자신이 정말 볼품없어 보이지요. 불편함을 대가로 하는 그 아름다움을 놓는 순간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에 빠집니다. 이건 뭐,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에 갇히는 것 같은 기분..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지 않나요?

사회는 언제나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 정도는 기본이지. 수준 미달은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자라나는 새싹인 중고생들은 화장 안 해도 예쁜 나이’ 라는 건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피부를 어찌 만드는지 모르는 어른

들의 말일 뿐이지요. 매일 8~9시간씩 책상머리에 붙어앉아 잠도 제대로 못자는 처지에 다크 서클이라도 제대로 감춰지면 다행일까요. 교복 광고에는 짧게 줄인 미니스커트 교복에 키 큰 팔등신 모델이 나와 우리를 유혹하지만, 교복을 조금만 타이트하게 줄였다 하면 학생주임과의 끝없는 실랑이를 감수해야하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까지 해 가며, 아름다움의 기준을 열심히 뒤쫓아 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요즘 여자애 A’가 되고 맙니다. 분명 자기가 예쁘다 생각하는 걸 입었는데, 사회가 정해 놓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인터넷이나 TV 같은 것을 통해 언제부터인가 자신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는 저 TV에 나오는 누구보다 덜 예뻐.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나니까 이 대로도 예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의 아름다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다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언니들이 늘어난다면 남을 의식하며 옷에 힘주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학교 앞 선전전 ‘스파이더 걸! 인권의 그물망을 펼쳐라.’ 5차〉 소장사진, 2010. 11. 06.



우완, 「10대의 ‘성’ 교사-학생의 거침없는 대화- 학교에선 말할 수 없는 솔직한 성과 사랑이야기」,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0. 02. 22.

10대의 성 교사-학생의 거침없는 대화

학교에선 말할 수 없는 솔직한 성과 사랑이야기

우완

학교의 안팎에서 이성 또는 동성과 연애관계를 맺으며 활발히 ‘사랑’하고 있는 10대들. 그리고 이들을 말할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어, 이를 바라보는 심정이 복잡한 교사들. 양측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7일 <‘사랑하는’ 학생들과 내숭 뚫고 하이킥!>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주의 교사모임 ‘빠빠 롱스타킹’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팀이 공동 개최한 워크숍에서, 10대들과 교사들이 모여 “10대의 성과 연애”를 주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10대 연애의 진실과 거짓”

행사장인 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실에 먼저 도착한 10대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10대들이 이렇게 왁자지껄하는 곳에, 교사들도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학교와 어른들의 규범을 훌쩍 뛰어 넘어 이미 왕성하게 ‘연애’와 ‘성’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과, 보수적 학교규범에 얽매어 자유롭지 못한 교사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광경이었다.



▲지난 17일 열린 워크숍 <‘사랑하는’ 학생들과 내숭 뚫고 하이킥!> © 촬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팀

드디어 시작된 생생토크 <10대 연애의 진실과 거짓>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됐다. 한 중학교 교사가 “대학생과 사귀게 되었다는 중3학생에게 ‘남자는 다 늑대니까 조심해’ 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어 답답했어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정작 17살 청소년들은 “대학생이래 봤자 네다섯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데, 그게 뭐 많이 차이 나는 건가요?” 혹은 “어른들은 열살 이상 차이 나는 연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하고 되물었다.

한 심대는 “저는 성소수자인데요” 라고 운을 똬 뒤 “여섯 살 위인 제 대학생 (동성)애인과 성에 관해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서 속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좌중을 유쾌하게 뒤흔들었다.

청소년들은 이어 10대가 연애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무조건 말리려 드는 교사들과 부모에 대해,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하면서 서운함과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내에서 공공연하게 스킨십을 하며 사귀던 커플이 학교 측으로부터 강제 전학을 당한 일, 이성교제를 시작했다고 담임선생님에게 말하자 다짜고짜 ‘부모님에게 알려겠다’고 해서 난처했던 일 등을 이야기하며, 교사들과 연애 문제를 터놓고 말할 수 없는 학교의 보수적인 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심대도 있었다.

◇연애와 섹스에 대해 서로가 궁금한 것들

심대들은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이 자신의 연애상담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연애와 성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주된 통로로 또래집단과 커뮤니티, 인터넷 등을 꼽았다.

고민의 내용도 다양했다. 한 사람과 진득하게 사귀지 못하고 상대를 자주 바꾸게 되는 것에 대한 고민, 남자친구에게 성적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망설이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갈등, 육체관계에만 몰두하는 연애관계를 다른 관계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미처 10대들의 고민일 거라곤 상상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생생토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아, 참가한 교사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어진 자유질문 순서에서는 교사들이 10대들에게 물었다. 대체 한 반에 몇 퍼센트 정도의 학생들이 연애하고 성관계까지 맺는 것인지, 학생들이 사귀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10대들이 성관계를 맺는다면 어디에서 맺는지 등. 이 같은 질문에 대해 10대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 간에도 서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10대들과 ‘연애와 성에 관한 이야기’를 터놓고 하고 싶어도, “젊은 여교사”가 이 문제를 솔직하게 학생들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교에선 편견 어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성’에 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학교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학생들의 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교사 책임이 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심대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다

이번에는 10대들의 연애 고민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상담을 실습하는 <연애팍 도사> 코너가 이어졌다. “동성 친구에게 끌려요”, “상대방과 스킨십의 진도가 달라요”, “친구가 저를 스토킹해요”, “10대의 섹스는 죄인가요?” 이상 4개의 주제를 가지고 교사들과 10대들이 모둠으로 나뉘어 어떻게 고민을 해결

할 것인가 토론하고 발표했다.

교사들은 해결책을 찾아 고심하는 반면, 10대들은 ‘동성 친구에게 끌려서 고민이라면 동성 친구에게 분위기를 있게 고백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식의 발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여자도 솔직하게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에서 걸레라고 소문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털어놓은 여학생의 말을 통해서, 남학생 중심의 왜곡된 성문화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른들도 제대로 피임 안 하면서 10대들에게만 왜 꼭 피임, 피임을 그렇게 강조하느냐’고 되묻는 한 청소년의 말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상담 실습 이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향심 상담원이 <성폭력사건 지원의 A부터 Z까지>라는 내용으로, 여성주의교사모임 조영선 교사가 <사랑하는 학생들과 학교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미니 강연을 열었다. 두 사람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현실을 못 본척하고 부정하며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차 강조했다.

‘선생님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 ‘학생들이 연애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문을 텃던 교사들과 10대들이었지만, 대화가 무르익다 보니 같은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연애와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따뜻하게 행사가 마무리됐다. 솔직한 10대들의 고백 덕분에 연애에 대해 한 수 배우고 가는 교사들의 모습이, 워크숍 장소에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밝아 보였다. 문제의 실마리는 말문을 트고 대화를 시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해솔·날토, 「[내말 좀 들어봐] '내숭' 너머의 벽을 허물기 위해- 여성주의 교사모임과 함께한 10대 연애 워크숍 '내숭 뚫고 하이킥' 후기」, 인권오름 제194호, 2010. 03. 16.

[내말 좀 들어봐] '내숭' 너머의 벽을 허물기 위해

여성주의 교사모임과 함께한 10대 연애 워크숍 '내숭 뚫고 하이킥' 후기

해솔, 날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학생들이 간혹 교사에게 연애상담을 청해올 때, 교사들은 덜컥 걱정부터 되거나 또는 자신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나 막막함을 느낀다고 한다. 여성주의 교사 모임은 이런 교사들의 막막함을 10대 당사자들의 이야기로 직접 듣고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에 워크숍 공동준비 제의를 해왔다. 여성주의 팀은 여전히도 학생들의 성과 연애를 금기시하는 학교에 대한 기본적(?) 태클과, 어른들이 애써 가리고 부정해 왔던 성주체로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워크숍 자리에서 풀어내, 식상한 표현이지만 연애나 성 문제에 있어서 (뭐, 다른 일에서는 안 그렇겠나마는;) 안드로메다만큼 떨어져 있는 청소년과 교사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싶었다. 결국에는 성주체로서 비청소년과 청소년은 다르지 않는데 사회 통념이 그것을 구분 짓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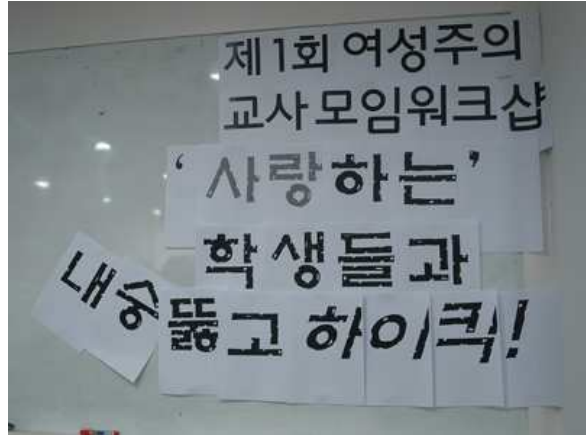
10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교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생생토크' 시간은 교사 1인, 청소년 3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인이 패널로 참석했고, 이들에게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대화를 진행했다.

패널로 나온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이 연애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반응이 '꼰대'스러운 줄 알면서도 덜컥 걱정부터 앞서고, 결국엔 '남자는 다 늑대니까, 방에 둘이만 있을 때는 문 열어 놓고.' 같은 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교사는 우스갯소리로 '반에서 몇 명이나 해 봤을까. 진짜 궁금해.' 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학교 밖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이라는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지만, 자기 반 '학생들'은 같이 터놓고 연애나 성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고민이라는 교사도 있었다.

패널로 참석한 청소년들은 어찌 되었든 연애를 상담할 일이 있을 때, 주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까칠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다. 잘 사귀고 있는 커플을 학생주임교사가 따

로 떨어뜨려 강제전학을 보내버린 주변 학교의 예를 소개하며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려는 교사에게 굳이 상담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청소년들의 연애고민은 성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상당히 구체적인 물음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한 사람만 좋아하는 1:1 연애관계가 맞지 않는다.', '여자들은 남자애들과 달리 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는 걸까?', '오랜 애인과 섹스 말고 어떤 걸로 소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남자 애인에게 나의 성감대를 설명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 등 실제 연애할 때 생겨난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학교, 성에 대한 보수적인 시선 여전

교사, 청소년 모두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로 만나는 순간 서먹해 지고,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고, 또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보수적이어서 성에 대한 이야기는 수면 위에 오르지조차 못하고, 그렇게 담론이 부족하다 보니 딱히 상담할 만한 곳도 못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이 억압되는 것만큼이나 학교에서는 '여교사'의 성도 보수적인 틀에 갇혀버린다는 이야기도 터져 나왔다.

모둠별로 가상 연애고민을 해결해보는 '연애팍 도사'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의 지점들을 확인하고 함께 조언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스킨십을 원하는 정도의 차이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동성애자 청소년을 지지하며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애와 스토킹의 차이는 무엇일까/ 10대들의 연애에 대한 부모의 간섭은 정당한가 등을 주제로 모둠별로 논의를 진행했다.

모둠별로 각각 다른 고민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핵심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모아졌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스킨십을 '해줘야' 하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 10대들에게 누구를/어떻게 사랑할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집요한 애정요구는 사랑이 아닌 폭력이라는 것, 청소년이 성에 대해 알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어야 오히려 그 '위험성'이 사라진다는 것 등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의 '청소년 성폭력 사건 해결 지원' 발제를 마지막으로 워크숍이 끝났다.

의미 있는 대화들이 많이 오간 워크숍이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아쉬운 구석은 남아있었다. 우선 청소년의 성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는 지점에는 모두 공감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성을 논할 때 늘 '성교육의 질을 높이자'라는 말로 결론이 지어질 때면, 우리는 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레테르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 시선은 우리를 오히려 억압하고, 어른들이 말하는 ‘건전한’ 쪽으로 방향선회하기를 요구받는 느낌이 들게 한다. 성교육의 내용도 대부분 성폭력 대처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피임교육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피임교육도 청소년일 때 성관계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청소년은 주체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섹스를 하게 되고,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당하는’ 입장에만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청소년 성에 대해 여전히 무지한 언론

우리가 진행한 워크숍이 한 진보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기사의 요지가 청소년들도 성에 무지하거나 무성의 존재가 아니라는 내용이긴 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을 ‘아이들’이라는 틀 속에 가두고 이들이 바른 성지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도와 줘야 한다’는 시선을 벗어나진 못했다. (더불어 꽤 널리 참여한 한 청소년의 성정체성을 동의 없이 기사에 신기도 했다.) 청소년들도 성적 욕구가 있는 존재이고, 무성의 존재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논의는 유의미하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성은 여전히 충동적인 것이고, 언제나 교육받고, 허락받아야 하는 무언가로 남아 있다. 여전히 즐거움이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성을 몰아가는 어른들의 ‘조바심’에서 청소년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청소년에게도 성은 ‘쉬쉬해야 하는 영역’이다. 성이 토론의 영역이 되지 않고, 소통의 영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왜곡된 성지식을 갖게 될 가능성은 높게 마련이다. 청소년만 유독 가르침을 받는 ‘상답’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솔직함’이 필요하다. ‘누가 더 성숙하고 미성숙한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너도 나도 무지하니 이제부터라도 함께 알아가고, 말해보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 ‘내숭’을 넘어서도 남아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좀 더 ‘과욕’을 부려야겠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논평, 2010. 04. 12.

[넬 붙잡을 논평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만' 비친고죄?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의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3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급히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글썽. 내놓은 대책을 봐도, 그 아래 깔려있는 철학을 살펴도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요원해 보인다.

개정된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감경규정도 배제된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는 여성단체들이 누누이 외쳐왔던 이야기다. 피해 여성들에게 필요한 건 '말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말할 수 없게끔 만드는 조건'의 변화다. 성폭력이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욕의 결과라는 얼토당토않은 편견, 결국 성범죄의 원인 제공은 피해 여성이 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숨기고, 신고조차 포기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 형법의 친고죄 조항은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성인 피해여성의 입지를 좁히고 고립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무력한 아동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부도덕한' 성인 여성은 스스로 비난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인가? 아직도 갈 길이 멀고도 멀었다.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보호'는 아동청소년은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도 더 취약하다는 전제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주의의 결과 아동청소년이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된다면, 성에 대해 무지한채로 남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나 폭력, 차별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만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의 경우 이미 비친고죄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합의를 강조하고, 신고

한 사람을 힐난하는 문화는 마찬가지로였다. 친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족 안에서 쉬쉬하며 조용히 묻어두는 경우도 허다하다. 비친고죄로 전환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대리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다.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명명하고 인식할 언어와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사건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성폭력 특별법 7조)을 만들기 이전에, 왜 피해 여성이 살던 지역을 떠나 이사하게 되거나 학교를 옮기게 되는지 그 맥락을 읽어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는 말이다.

백번 양보해 친고죄 폐지만큼은 칭찬해 주려고 해도 예외 조항이 눈에 밟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예외에 해당한다. 강간과 추행은 그 경계가 사실상 모호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일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함을 그렇게 말해왔건만 여전히도 성폭력을 '성기를 삽입 했나/안했나'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니 한심하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과 함께 성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반인권적 법안도 동시에 처리되었다고 한다. 형량을 강화하고, 전자발찌를 채우고,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성범죄를 줄이고 피해 여성들을 위로하는 전략인양 내세우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80% 이상이 가까운, 이는 사람에게 의해 시도된다는 점,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더하다가는 입이 닳을 것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길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은 특별히 순수한 존재도, 특별히 아름다워야 할 존재도 아니다. 단지 이 문제적인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폭력으로부터 더욱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폭력 범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바란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머리를 쓰기 바란다.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이야기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지 연구하기 바란다. 이 모든 것 이전에 좀 더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피해 여성, 그리고 피해 여성을 지원해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길 바란다.

2010. 4. 1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팀원들의 한줄 평! 평! 평!

공현: 아동 성폭력'만' 비친고죄? 얼마나 생각 없는 건지. 무상급식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잘못된 포퓰리즘이지~ ㅋㅋ

난다: 얘기 좀 제대로 들으시구! 처벌만 하면 다임? 아동청소년만 '특별히 보호'만 해주면 다임? -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 위한 '대책' 좀 내놓으시라는 말씀.

공기: 성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가해자 탓이다 감히 어디서 애매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는것이야

한낱: 뭐 찢리는 것들 많은가보오? 성폭력 가해자 엄중처벌! 외치는 모습들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 같소이다. 국K-1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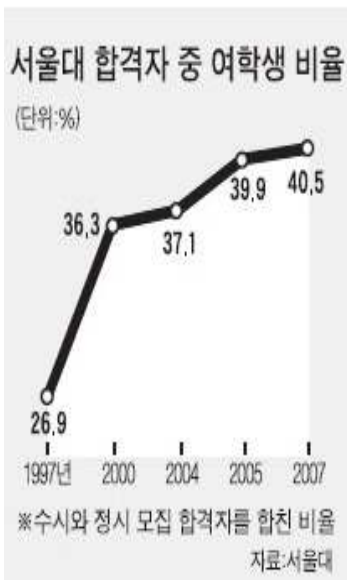
한날, 「학교, 딱 걸렸다!- 젠더의 프리즘으로 학교 들여다보기」, 「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 서울남부지회 주최 ‘좌충우돌 교사 인권내공 쌓기’ 교사직무 연수」 자료집, 2009.

학교, 딱 걸렸다!

젠더의 프리즘으로 학교 들여다보기

한날 (인권교육센터 ‘들’)

여성 상위, 알파걸¹⁾ 시대에 ‘죽어가는 여성들’



“세상 참 좋아졌네.”

한나라당이 제 1야당이던 2004년, 박근혜 씨가 당대표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서 던진 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성 정치인의 수가 매우 적은 현실에서 거대 야당의 당수로 여성이 선출된 것은 당시 놀라운 일이었다. 세상 참 좋아졌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서울대의 여학생 합격 비율은 이제 40%를 넘어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의 6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시대다. 혹자는 여성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여성부는 이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이야기한다. 현 정권은 여성의 입장에서 성평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되레 남성에게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군 가산점제 부활 등을 서둘러 논의하기도 한다.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암울한 표현은 은유이기도 하고, 은유가

1) 쉽게 말해 잘나가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 미국 하버드대 아동심리학 교수 덴 킬들러가 처음 사용. 미국과 캐나다의 15개 학교를 방문해 성적이 우수하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10대 소녀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 했음. 모든 면에서 남학생들을 능가하는 소녀집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알파걸이라 명명했다. (정미숙, ‘청소년 성평등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7 10대여성 성평등 포럼 자료집” 발표문 참조)

아니기도 하다. 앞서 말한 ‘잘 나가는 여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다수의 ‘잘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은 또 다른 낙인으로 사회적 죽음을 맞고 있다. 여성 리더 집단의 사회 진출과 약진은 환영할만한 현상이지만, 그것이 곧 모든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시기에 왜 여성이 먼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나 해직을 권고 받게 되는지, 왜 여성은 항상 다이어트에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등 여전히 유의미한 문제제기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성공하는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통계들은 더 이상 여성들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 ‘구조의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불평등한 현실을 멋지게 포장한다.

은유가 아닌 죽음 또한 자주 목격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업데이트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 군포 연쇄 성폭력/살인 사건, 제주 여교사 성폭력/살인 사건 등 불특정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준다. 비단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수차례 반복되었던 이등 성폭력 사건들에서부터 최근의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까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거리, 가정, 사회 곳곳 모두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없다는 것을 여전히 확인시켜준다.

학교의 여성화?

학교 안 구석구석을 젠더²⁾의 프리즘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남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초등학교 교사의 70%가 여성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남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하자는 학부모나 교사의 의견도 들리고, 남학생들의 여성화가 우려되니 남교사 할당제를 실시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학교가 여학생과 여교사의 약진을 그리 달가워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남학생들의 성적 우세는 당연시 되고, 여학생들이 남교사들에게 배우는 것에 대해 남성화를 염려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과 상당히 대조적이다.³⁾ 또한 학교 안의 여성들 중 누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의 초점이 달라지기도 한다. 계층적 차이, 가족형태의 차이, 인종의 차이, 장애 유무의 차이, 성적 선호의 차이 등 젠더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여성들은 서로 다른 학교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개 차별로 이어진다.

여학생과 여교사가 늘어났다고 자연스럽게 그 공간이 ‘여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성별 고정관념을 담은 교과서 삽화 수정이나, 여학생의 바지 교복 도입 등 차별을 시정하는 몇몇 조치들이 추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바탕에 깔려있는 남성 중심적 가치와 규범 자체에 대한 검토는 미비하다. 성평등한 학교란 무엇인지, 어떠한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시선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은 모두 ‘한국의 힐러리’가 돼야 한다고 믿으며, 여교사를 ‘일등 신부감’으로 위치 짓는 것은 누구인가, 누구의 시선인가. 이것을 뒤집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2) 생물학적인 성(sex)과 구분하기 위해 쓰는 용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을 의미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여성 혹은 남성적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을 통해 문화적으로 여성성/남성성을 획득함을 의미.

3) 고정갑희, ‘학교·가족·시장의 공조체제-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교육’, 여성이론 4호.

여학생의 눈으로 본 학교

1. 여성은 여성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 성별 규범 및 고정된 성역할의 학습

소위 삼중지도를 지켜야 한다고 현모양처의 부덕을 게거품을 흘리며 강연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농팽이 영감이 사람깨나 죽였다. 네 손에서 해마다 오십 명씩 졸업시킨다 하자. 그리고 네가 이십년 동안만 선생 노릇을 하였다 하자. 그러면 천명이라는 여성은 나날이 교육기계의 희생이 되겠구나. ... 그렇게 여성의 천진天眞을, 여성의 인간성을 제약하여 남성들의 완구, 씨통으로 만드느라고 현모양처라는 미명 아래 제 모습 닮은 양아들처럼 주형에 부을 용액으로 되게 하느라고 죽을 애를 쓰는구나. ... 너는 살생자의 선수로 교장이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다. 끔찍도 하다. 수천의 여자를 죽인 살인범이 백주에 횡행하다니"하고 그 떠드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 화중선(시사평론 1923년 3월호)

여학생이 늘어가고 졸업생이 많아 가는데도 왜 여성의 대부분은 점점 쇠멸의 구렁으로 기어 들어 가는가. ...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거나, 그렇지 않고 자아를 강경히 살리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여성은 자살의 길을 취하는 수밖에 없다.

- 허정숙(여성의 도태)

위의 두 인용문은 80여 년 전 근대교육을 받았던 화중선과 허정숙이 쓴 글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 0.58%의 여성만이 근대 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을 생각하면 두 여성은 행운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 대한 그녀들의 빛나는 성찰을 살펴보면 그녀들을 비롯한 여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 근대 국가 주도의 공교육은 여성도 공적인 영역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어디까지나 젠더 재생산 기능에 충실한 교육을 수행했다. 여성이 가족을 위한 감정 노동자, 가사노동자, 재생산 노동자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다. 이 틀에서 벗어나는 여성은 “조행 점(행실점수)”이 영점이라는 이유로 어머니, 오빠, 외숙 등에게 “시집 못갈 년, 기문 망칠 년 하면서 죽인다 살린다 들볶임”을 당해야 했다.

이러한 교육의 관행은 최근까지도 이어져왔다. 노골적으로 교육목표와 교과 과목을 성별화하여 분리 교육을 시행했다. 여학생은 가사, 남학생은 기술 과목을 학습했던 것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는 대학의 전공과목 선택의 성별화와 연결되었다.⁴⁾ 여학교와 남학교의 분리, 또는 여남 학급의 분리는 여학생은 여자답게 남학생은 남자답게 교육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점차 남녀 공학 학교 및 통합 학급 운영이 늘어나고 있지만,

4) 고정갑희 글. 1995년에 가정과 기술이 한 과목으로 통합되었다. 그 이전의 상황을 말함.

여전히 학교와 교실에서는 눈에 드러나는 또는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성별 규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거운 물건은 남학생이 들고, 환경 미화는 여학생 몫으로 돌아가는 모습/ 수능이 끝나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여성은 여성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류의 급훈들/ 여학생은 치마 속에 체육복을 입고 다니면 혼나는 일/ 여학생 반이 지저분하면 “여자애들이 이렇게 주변 정리를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시집가려고.”와 같은 훈계를 듣게 되는 일/ 여학생 간부들을 대상으로 신사임당 교육원에서 특별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⁵⁾

남성과 여성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성별 고정관념은 우리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 여기에 각종 영화, TV, 쇼프로 등 매스컴이 주도하는 ‘소녀 만들기’는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특정 유형의 모습으로 자신을 구성하도록 여학생들을 자극한다. 예쁘고, 날씬하며, 남자의 보호를 받는 여성 캐릭터들의 향연은 여학생(10대 여성)들로 하여금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외모 가꾸기에 몰입하도록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보다,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여자애들이 이렇게 주변 정리를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시집가려고’ 등은 여학생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언어다. 여학생들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이다.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강조는 성별과 관계없이 주되게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여성’과 연결될 때 자신의 성공을 위한 학업 수행이 아닌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한, 또는 시집을 잘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주변 정리를 못하는 것이 특히 여학생들에게 흠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결혼 후의 가사 노동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잠재적 교육은 여학생들이 자신의 생애주기에 결혼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품게 하고, 결혼 후에도 남성에 대해 보조하고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받아들이게 한다.

2. 임윤지당을 아시나요? -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겪는 여성 소외

성별 분업을 전제하는 교육은 교과서를 비롯한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교과서 내용에 여성 위인은 거의 없으며, 교과서 삽화에서 정치, 경제를 비롯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남자로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은 여자로 재현됨은 잘 알려진 사례다. 역사책의 주인공은 남성이고, 여성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자민족 남성들에 의해 보호를 받거나, 이민족 남성들에 의해 정신적/육체적 약탈을 경험한다. 철학(도덕, 윤리) 시간에도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은 배우지만 18세기 ‘성인과 범인이 본래 같은 성품을 타고났다’며 난해한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고 이기심성설에 통달했던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에 대해서는 접하지 못한

5)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세미나에서 나왔던 예시들.

다.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중립적인 지식을 줄 것이라 기대되며,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식처럼 학습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체육시간을 떠올려 봐도 마찬가지다. 운동장은 대부분 남학생들의 차지가 된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의 경기를 보며 박수를 치거나, 구석에 모여 수다를 떠다. 남학생들이 격하게 몸을 부딪치며 축구를 할 때, 여학생들은 더 좁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움직임이 적은 피구를 한다. 좀 더 활동적인 운동을 하고 싶은 여학생들은 상황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음을 깨닫고, 점차 자신의 욕구를 접게 된다. “여학생들은 축구 같은 것 시키면 싫어해,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걸 좋아하지”라는 생각은 그녀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삭제한 현상적인 판단이다. 여학생들의 생활주기와 신체조건의 차이를 반영한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과 자체에서의 소외도 발생한다.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은 다수가 문과를, 남학생은 다수가 이과를 선택한다. 문/이과 선택을 개별적인 선호도에 따른 진로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젠더적 구분이 뚜렷하다. 여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에 소질이 없다는 전통적인 편견이 젠더에 따른 진로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가 다르고 각각에 대한 기대감 역시 다르다는 것 또한 주된 요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지며, 여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공계 교과에서 여학생들이 소외되는 문제는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종 분리와도 연관된다. 국내 과학 기술 인력 가운데 여성은 2003년 전체의 11.4%, 2004년에는 12%에 그쳤다.⁶⁾ 이공계에 진출하더라도, 이공계 내부에 존재하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과도한 노동시간 때문에 중도에 이탈하는 여성들이 많다. 과도한 노동시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사와 직업을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직업이 있는 여성이어도 가사 노동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공계 업종의 경우 여성의 중도 이탈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명백한 차별이다. 불가능은 없고, 모든 꿈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표어는 능력이 뛰어난 몇몇에게만 결과적으로 유효한 말이다. 불평등한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여학생들은 자신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들을 점점 선택지에서 지워 나가며 주어진 역할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질 것이다.

3. ‘소녀에서 ‘걸레까지 - 여학생의 성(性)을 둘러싼 괴담

청소년의 성(性)은 사회의 금기로 취급되어 왔다. 여러 학교에서 종종 학생들의 연애를 금지하거나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지나친 애정행각”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키스나 포옹도 지나치다고 이야기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닌 “건전한 이성교제”, “자제력을 갖춘 만남” 등 안하면 좋고, 하더라도 매우 조심해야 할 어떤 것으로 그려진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친구 및 이성 간의 예절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⁷⁾을 봐도 우정을 넘어서는 사랑/성애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

6) YTN 뉴스 2005-08-29

7) “이성친구를 대할 때에는 언행이나 옷차림에 주의를 하고, 건전한 만남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려지고 그 속에서 같은 성의 친구와 다를 바 없는 우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

여성 친구 사이의 올바른 예절

- 서로 다른 성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대화의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우정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상대방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한다.
- 성적인 자극이나 편견을 가지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삼가도록 한다.
- 상대방이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 이성 친구와 사귀는 것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알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학생이 싫어하는 남학생

- 여자한테 잘 보이려는 남학생
- 이해심이 없는 남학생
- 남을 무시하는 남학생
- 제멋대로 행동하는 남학생
- 지저분한 남학생
- 불량기가 있는 남학생
- 까부는 남학생
- 유별난 남학생
- 어디에선 끼여드는 남학생
- 주책스런 남학생

남학생이 싫어하는 여학생

- 아무때나 나서는 여학생
- 이해심이 없는 여학생
- 내숭떠는 여학생
- 말없는 여학생
- 자기만 생각하는 여학생
-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여학생
-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여학생
- 차별하는 여학생
- 잘난 체하는 여학생
- 연예인을 흉내내는 여학생



[출처: 언니네 채널넷 88호 교육지책 '다시쓰는 교과서']

10대의 임신, 성매매, 성폭력 등 현실적인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학교 성교육은 "순결에서 피임"으로 중심이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보통 일 년에 한 시간 정도 할애될 뿐이고, 교육의 내용도 대부분 단편적인 생물학적 지식이나 피임 지식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 성교육에 이성애 권력과 성별 규범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되길 바라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제안인 듯 보인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통제가 여학생/ 남학생에게 적용되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급진적인' 인상을 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구성애 씨의 성교육을 봐도 남학생의 성욕은 인정하지만, 여학생의 성욕은 언급되지 않는다.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순결 서약을 행하고 순결 사탕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남학생에게 관심을 갖거나받는 여학생은 '밝힌다'는 평가를 듣고, 반대의 경우 남학생은 '인기가 많다'는 평을 듣는다. 섹스한 여학생은 '걸레' 등등의 악소문에 시달려야 하고, 정확 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지만 섹스한 남학생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우상이 되고, 정확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다. 함께 나눈 성에 대해서는 동등한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10대 비혼모에 대한 비난만이 쏟아질 뿐 10대 비혼부의 존재는 가시화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관리의 대상이다. 생식기능을 전제한 합법적 성관계, 즉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제외

한 여성의 성적 욕망과 경험은 통제된다. 여학생/10대 여성에 대한 통제도 이와는 연장선상에서 있다. 학교 성교육은 여학생다운 여학생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다. 합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성적 실천- 동성애, 비혼, 결혼과 분리된 성경험 등-은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실천을 한 여성은 ‘나쁜 여성’이라는 위계 의식을 갖게 한다. 성에 대해 무지한, 또는 순진한, 또는 아예 무성적인 존재로서 ‘소녀’⁸⁾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이 틀에서 벗어나는 여학생은 ‘걸레’가 된다.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가 낮설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 타인을 사랑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여/남학생 간의 연애는 말 그대로 위험해 질 수 있다. 비청소년의 연애, 부부 관계에서도 여성들의 일방적인 감정노동이나 남성에 의한 데이트 성폭력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10대들의 연애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문제들을 성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성교육이 섹스/피임으로 환원되지 않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를 조망해야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4. “딸 같아서 그런 거지.” “그냥 장난친 건데” - 남교사, 남학생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성폭력은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 영화 여고괴담에 나오는 ‘미친개’ 선생처럼 노골적으로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남교사도 있고, 브래지어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의 등을 훑는 남교사⁹⁾들도 많이 있다. 필자도 중학교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빠처럼 생각하러던 선생의 말을 떠올리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수업 중에 남교사와 남학생들 사이에 오가는 성적인 농담도 불편하긴 매한가지다. 남학생들이 특정 여학생을 못생겼다거나 몸집이 크다고 놀리는 일, 가슴을 만지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 학기 초만 되면 같은 학급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일 등 학교 안에서 성희롱/성폭력은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 안 성희롱/성폭력 또한 신체적 폭력 중심으로 규정된다. 그나마 성폭력 사건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알리고 문제 삼았던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언어폭력이나 정신적인 폭력 등 더 빈번하고 일상화된 폭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성급히 봉합하고 덮어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작년에 마스크를 많이 닦던 대구 초등생 성폭력 사건과 같은 경우도, 피해학생이나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정신적 상해를 보듬고 치유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성급히 사태를 진정시키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반복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이 문제로 불어지긴 하지만, 매년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가해자 개인의 부덕함이나 실수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엄연히 성차별적인 성별 규범과 문화, 여성-

-
- 8) 소녀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이중적 의미를 갖는데, 위에서 말한 순결의 이미지를 갖기도 하지만, ‘영계’라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 남성들에게 묘한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를 강조해서 썼다.
 - 9) 여교사가 브래지어 검사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브래지어를 꼭 착용해야하는가의 문제부터, 학생의 몸에 교사가 동의 없이 손을 대도 괜찮은 것인가 등 또 다른 맥락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성별 권력에 초점을 맞췄다.

남성 연소자-연장자 상사-부하직원 등의 위계화된 권력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 여교사를 성희롱했던 충북지역 학교장이 정직 1개월 후 쉽게 다른 학교로 발령받은 것, 자신을 놀리는 남학생을 신고하면 “그냥 애들끼리 장난인데” 식으로 반응하는 것 등은 모두 이러한 인식과 연결된다. 폭력이 일어난 배경을 살피지 않고,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재수 없어서 걸린 일”에 불과하게 돼버린다.

5. 남학생은 머리가 짧아야, 여학생은 머리가 적당히 길어야 단정하다. - 남녀분할 통제



[출처: 청소년 생생리포트 1318 바이러스]

두발 규제와 체벌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학교 규율이다. 규율이면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두발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길이 기준부터가 다르다. 남학생은 짧은 머리가, 여학생은 단발 이상의 길이가 학생다운 머리 스타일이라는 것. 두발 제한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수행되는 방식은 성별에 의존한다. 마치 교복처럼, 외모에서 남녀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여자다운 모습과 남자다운 모습이 다름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한다.

또한 두발과 체벌이 강요되는 정도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차이를 둔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데, 자칫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차별 없이 딱센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학교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규율을 유지하는가에 있다. 남학생들로 하여금 ‘여자들은 봐준다’는 식의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두발/체벌 자체에 대한 분노의 회사를 여학생들에게 돌리는 효과를 낳기도 하고 여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렇게 뻘세게 잡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해 두발

체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거두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두발/체벌 자체인데,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의 적대를 이용해 본질적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봐줘야 하는 존재’라는 뉘앙스 자체에서도 동등한 존재가 아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외의 대상이 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6.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여학생들 - 젠더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여학생들의 위치

학업 성적이 절대시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일부 여학생들은 젠더의 차별을 넘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남성 국회의원들에게 빈번하게 성희롱 발언을 듣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도 젠더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상당히 높은 지위를 인정받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성별 권력은 혼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빈곤, 성소수성, 장애, 인종 등 다양한 소수성과 결합하여 차별을 낳는다. 위에서 진행했던 논의의 가장 큰 한계는 여학생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학교 안의 차별들을 열거했다는 점이다. 공부 잘하는 여학생, 공부 못하는 여학생, 잘사는 여학생, 가난한 여학생, 이성애자 여학생, 동성애자 여학생 등등 여학생들의 위치는 다양하고, 그들은 서로 다른 학교를 경험한다. 공부 잘하는 여학생의 존재는 공부 못하는 여학생으로 하여금 “왜 너는 이렇게 되지 못하냐”는 식의 비난을 듣게 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날씬한 여학생과 비교해 뚱뚱한 자신의 몸을 비판하는 여학생도 많이 있다. 여학생들 내부에서도 경합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니, 왜 그러한 경합을 벌여야 하는지 문제의 외부(사회적 조건)를 보지 못하는 이상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을 자신 보다 많은 자원을 가진 여성에게서 찾고, 그녀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교사의 눈으로 본 학교

1. 일등 신부감, 가사와 직업을 병행하는 슈퍼우먼? - 여교사에 대한 이중 착취

여학생들 장래희망 조사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은 교사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취업이 어려워지자 철밥통에 방학까지 보장되는 교사라는 직업은 안정성에 있어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여교사의 지위는 막강한데, 나경원 의원의 “1등 신부감은 예쁜 여교사,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교사...” 발언만 봐도 알 수 있다. 여교사를 신부감으로 쟁취한 남성은 커다란 ‘보험’ 하나 쟁여 놓은 것과 같다는 말이다.

여기까지가 ‘보여지는’ 여교사의 모습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인 보수가 보장되는 것은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느 정규직 직종이 가진 공통적인 장점이다. 게다가 남교사 역시 안정적인 보수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들을 “1등 신랑감”으로 추앙하지 않는다. 여교사가 직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때는 결혼과 육아와 관련성을 맺는 경우이며, 여기서 말하는 여교사 속에 비정규직인 기간제 여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노동은 항상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가사노동은 아예 무불 노동이고,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가족의 주소득은 가장인 아버지가 벌어들인다는 전제하에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는 합리화 되었다. 여성의 빈곤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자는 시집가면 되니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지위의 다른 직업보다 교사의 월급이 적다는 인식 속에서도 여교사가 인기 있는 것은 그녀들의 수입은 남편 수입에 대한 보조적인 수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학교에 남교사 수가 적은 것은 가족 전체의 생계를 부양하는데 교사의 월급이 적다고 판단한 남성들의 선택의 결과다.¹⁰⁾



여교사가 추앙받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어도면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사/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혼한 여교사들이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헬레벌떡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남교사들이 퇴근 후 모여 술 한 잔 하는 모습과 사뭇 대조된다. 회식 중에도 안절부절 시계를 계속 쳐다보게 되는 것은 집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교사에게 시간의 여유는 다양한 연수와 교육, 연구, 승진 등을 포기한 대가로 겨우 얻어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부장 직을 맡거나, 주요한 업무를 분장할 때 남교사가 우선 그것들을 담당한다. 이는 가정을 돌봐야 하는 여교사를 ‘배려한’ 업무 분담처럼 보이고, 실제로 여교사들이 남교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천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가사노동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명백히 문제적 현상이다. 직장에서 설정하고 있는 노동자 개념은 아이나 노인을 돌볼 책임이 없고, 자기 일상을 챙겨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 즉 남성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고, 업무 수행 능력이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여교사의 비율이 74%에 이르지만, 여교장의 비율은 11.3%에 머무른다는 통계¹¹⁾를 봐도 승진 체계에서 여교사가 간접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 시간이 늘어나는 중,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여교사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 또한 ‘배우자감으로서 여교사 선호’라는 언어가 여성에 대한 안팎의 착취를 은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학교는 또 하나의 커다란 가족 - 가부장제화 되어있는 학교 구조

2년 전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적이 있었다. 출근한 첫 날부터 가슴을 덜컹하게 하는 현수막을 발견했는데, 본 교무실 중앙에 딱하니 “나는 학생들을 내 아들, 딸과 같이 사랑한다.”는 문구가 걸려 있는 것

10) 그렇기에 남교사 할당제 논의는 타당성이 없다. 할당제는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인데, 남성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진입하는데 구조적 불평등이 작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11) 아시아경제 신문, 2009-01-08

이 아닌가. 직원 조회 시 오른손을 들고 이 선서를 해야 할 때마다 나는 밀똥똥 주변을 구경할 뿐 도저히 동참할 수 없었다. 이 문구에서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일단, 학교 구성원을 가족 구성원에 빗대는 것, 선생은 부모고 학생은 아들, 딸이라는 구도는 비혼인 나와 같은 여교사에게는 매우 어색한 비유다. 자식을 길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학생을 교육할 자격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은근히 심어주는 듯하다. 또한 모든 부모가 아들, 딸을 사랑하진 않으며, 그 사랑이란 감정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부모는 사랑이라고 외쳐도 아들, 딸들은 그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거부하지만, 교사들은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처벌을 가하기도 하는 것처럼. 교사는 직업이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공적인 일임에도 그 행위가 사적인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가 여성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집에서 여성이 하는 집안일이 분명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치환해 버리는 것처럼. ‘여교사’라는 존재를 통해 학교와 가족은 이렇듯 연결된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아들답게, 딸답게, 남학생답게, 여학생답게 교육하라는 의미도 엿보인다. 가족과 학교는 그 방식은 다르지만 성별 고정관념이 학습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각각 가족 구성원에 빗대볼 수도 있다. 교장과 교감은 가족 전체의 규범을 유지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역할을, 학생부장 교사는 가족 내 규율을 엄히 다스리는 엄격한 아버지의 역할을, 담임교사는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다독이는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미 학교 구조 자체가 가부장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흔들지 않으면 여교사가 아무리 늘어나도 남성이 맡아오던 역할을 대신하게 될 뿐 학교 공간이 좀 더 ‘여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의 여성화를 걱정하며, 남교사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던 사람들에게겐 안도할 만한 일일 수도 있겠다.

3. 감당하기 어려운 남학생들 - 남학생과 여교사의 역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 관계만을 고려해 보면, 교사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교사와 남학생의 경우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피곤해 보이는 여교사에게 “선생님 어젯밤에 힘 드셨나봐요.” 라는 농담을 던지며 킬킬거리는 남학생들... ‘몽정기’ 등 남학생들의 학창 시절을 다룬 영화들이 남성 관객들에게 과거의 재밌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교사의 치마를 들여다보고 화장실을 몰래 엿보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성폭력이다. 여교사/교생은 줄곧 남학생들에게 성적인 존재로 형상화 되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남교사를 좋아하는 것과 구분된다. ‘내 마음의 풍금’과 같은 영화를 봐도 여학생들이 남교사를 좋아하는 것은 동경에 가깝다. 쉽게 말해 여학생들은 남교사와의 섹스를 상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여교사/교생과의 성적인 접촉과 섹스를 상상하고 흥분을 느낀다. 남성의 성욕은 왕성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남성의 성적 욕망은 일찍부터 주체로서 구성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성적 주체로서 남학생은 여교사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그것을 즐긴다. 남학생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는 여교사들의 걱정에서 성별 권력을 읽어낼 수 있다.

4. 어느새 커피를 타고 있는 나 - 세세한 일상 속에서 보이는 성별 분업과 성희롱

점심 식사 후 가만히 앉아 있는 남교사 동료에게 차를 타주고 있는 내 모습, 처음에는 내 것 타는 김에 동료 교사의 커피도 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이런 패턴이 반복되자 짜증이 나기도 한다. 새로운 학교에 부임하자 학생, 동료 교사할 것 없이 내가 결혼을 했는지, 남편의 직업은 무엇인지 등에 관심을 보인다. 왜 내가 아닌 내 남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걸까. 나의 많은 특징들 중 왜 결혼 유무가 중요한 비중으로 이야기 되는 걸까.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이러한 순간이 자신이 교사가 아닌 여교사로 느껴지는 때라고 말한다. 커피 타기의 문제는 성별 분업이기 보다는 동료에 대한 배려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하나 등 현상에 대한 분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왜 이런 고민들이 남교사가 아닌 여교사들에 의해 주로 행해지는지를, 왜 여교사는 순간순간 자신의 성별을 인지하며 살아야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회식 자리 술자리 문화의 남성 중심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다. 자리 앉기에서부터 새로 온 여교사를 남자 교장이나 교감 옆자리에 앉히는 등 여교사를 술자리의 ‘꽃’처럼 여기는 행동은 끊이지 않는다. 은근슬쩍 야한 농담을 섞기도 하고 술을 따르라며 손목을 잡는 일도 있다. 마시고 싶지 않은 술을 억지로 들이켜야 할 때도 많아진다. 어깨나 무릎 위를 툭툭 치기도 하며 별로 달갑지 않은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도 생긴다. 자리를 뜨고 싶어 해서 몰래 술자리를 빠져나가는 선생님들은 어김없이 팔이나 어깨를 잡힌 채 이끌려온다.¹²⁾ 싫어도 싫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은 내일 또 봐야 하는 직장 상사이자, 동료이기 때문이다. 명백한 성희롱이 술자리 예의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런 문화에 익숙한 남교사들에겐 즐거운 술자리일지 몰라도, 원치 않아도 브루스 타입에 교장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여교사에게 회식은 고달픈 자리이다.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상상력

1. **교육 과정의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비대해진 국, 영, 수 입시 과목 수업을 줄이고 학생들의 삶의 철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 자기 존중과 의사소통, 성차별과 폭력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교육 등-을 포함시

12)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5-07-04

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남성 편향적인’ 교과 수업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도 있다. 여성들의 인생이야기가 담긴 역사 수업이나 여성 철학사 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1.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전제들이 필요하다. 일단 **학교 의사 결정 과정의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교육청-교장-교사-학생으로 내려오는 수직적, 일방적 의사소통 구조로는 주어진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교육만이 가능하다. 식상한 말이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들의 적극적 참여와 민주적인 결정이 가능했다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상당수에 대한 대책을 보다 빨리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화장실 체류시간이 더 긴 여학생의 화장실을 남학생 화장실 보다 늘리는 것, 여교사-여학생 휴게실,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실, 생리하는 여성을 위한 온돌방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열악한 학교 현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시설의 확보는 아득하게 느껴 지지만, 어떠한 변화도 제 발로 찾아오진 않는다는 것을 떠올리며 직접 요구의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공간을 재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여학생과 여교사의 생활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급식실의 운영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학교의 급식실은 어머니들의 봉사를 가장한 무급 노동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여행(여성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급식 도우미로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을 고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월급은 한 달에 고작 20만원이다. 가뜩이나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 노인들의 열악한 조건을 국가가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학교 안의 여성 노동권 문제는 여교사의 노동권과도 연관되며, 앞으로 여학생들의 사회 진출 후 노동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부분들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4. **학교 안에서의 성평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 성적과 같이 남학생들이 전취하던 기준들을 여학생들 또한 획득하면 평등해지는 것인가? 학생은 학업 수행을 잘해야 하고, 경쟁에서 성공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학교의 평가 기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소수의 뛰어난 여학생만이 아슬아슬한 평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학생들을 어떻게 주류 사회에 잘 편입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경우, 여성 리더쉽 교육 등 우수한 여학생을 대상으로한 정책들만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젠더에 구분 없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어떠한 여학생들을 살피고, 역량 강화를 도와야할지 되짚어 봐야한다.

5. **변화의 집단으로서 남학생을 상징하고 이들을 재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평등의 문제는 주로 여성들과 관련된 어떤 조치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남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그 방향성과 규범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시작해야 한다. 관계성 증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기획되어야한

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권력 집중적이고, 공격적이다’와 같은 특징은 그간 남학생들이 받아왔던 성공 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화와 연관이 깊다. 또래 집단 형성 방식이나 놀이 문화 등을 어떻게 바뀌 나갈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6. 2000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작된 여학생의 바지 교복 도입과 2006년부터 시행된 생리 공결제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성평등 조치다. 그러나 바지 교복을 입는 여학생을 거의 볼 수 없고, 생리 공결제를 이용하는 여학생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별 시행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조치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여학생의 교복이 치마 교복에 맞춰 디자인되기 때문에 바지 교복을 선택할 경우 ‘어색한 코드’가 연출된다. 생리 공결제¹³⁾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적인 성(평등)교육을 통해 여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의 조치에 불과하다. ‘생리’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여학생이 교사와 급우들 앞에서 자신이 생리중임을 공개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입시 경쟁과 내신 성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빠지는 손해를 감수하며 자신의 결석권을 활용할 여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교육부와 학교는 구색 갖추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가정과 지역 사회의 연계** 역시 중요하다. 2004년 서울시가 ‘왕비간택 재현의식 재현행사’에 참여할 여학생들을 뽑는데 ‘미인대회’와 다름없는 외모 기준으로 자격을 따져 여성 단체들로부터 행사 중단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다. 삶과 배움이 함께 가야 하는 것처럼, 학교의 변화와 여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지역 사회의 변화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범 대학에서 여성학 강좌를 필수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심포지엄에 학생들의 참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딱딱하고 어려운 토론회의 형식을 과감히 벗어 던질 필요도 있다.) 가정에서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고 성별 이중 규범에 대한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모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 모든 정책적 상상 앞에 놓여야 할 것은 여학생 당사자들의 욕구를 묻는 작업이다. 어른들의 결정과 어른들의 선택 앞에 청소년들은 자기 발화의 기회를 잃고, 자기 결정권 또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목소

13) 생리 공결제 도입시 논란이 많았는데, 남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여성의 신체 조건과 주기를 교육 과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결석권은 전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대하던 사람들의 논거는 남학생들이 내신 산출에서 불리해 진다는 것이었다.)

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임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지위와 권리 보장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중에서도 남성 청소년에 비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소외는 더 견고하다. 10대 여성/여학생/여성 청소년이 정책적 고려의 대상으로 떠올 때는 임신, 성매매, 기출과 같은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문제적 현상과 연결 지어질 때뿐이다. 이들은 여성의 영역에서도 청소년의 영역에서도 소외를 겪는다.¹⁴⁾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없으면 법, 제도를 비롯한 사회 운영 원리가 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차별이 지속되듯이 10대 여성/여학생에 대한 젠더적,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약자에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여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학생들이 다이어트와 외모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 다이어트 교실을 열고, 화장 수업 여는 것이 여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일까? 여학생들의 관심과 욕구를 고려한다는 것은 남학생들과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한 방향으로 새롭게 구성하지는 것에 있다. 그녀들이 남성에 비해 실수를 두려워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차이의 경향성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문화적인 것이며,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에서 도전 과제를 스스로 만들고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걸즈 인코퍼레이티드’라는 기관에서는 ‘크고 재미있는 실수를 범하라.’, ‘으웁 요소를 극복하라’라는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엔진을 분해하거나 강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등 다양한 실수와 더럽히는 경험을 통해 실수를 회피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열어준다.¹⁵⁾이렇듯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 조건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함께 마련해주는 것이 여학생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그녀들을 주체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교실에서 여학생을 만나는 것은 많은 고민을 동반한다. ‘예민하고, 관계 문제에 집착하고, 잘 빠지고, 뒤끝 있는’ 여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혹은 그녀들을 어떻게 봐야할지 등은 현실에서 교사들이 봉착하는 난제 중 하나다. 특히 여교사들은 자신도 여성이고, 비슷한 유년 시절을 경험했기에 그녀들과 더욱 애증의 관계를 쌓게 되기도 한다. 학교 밖을 벗어난 그녀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평등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회의도 몰려올 것이다. 그러한 걱정은 여교사 자신의 현재적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젠더적 차별에 노출되는 것은 여학생뿐만 아니라 여교사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긴 글이 되고 말았지만, 이러한 고민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혹시나 학교 현장

14) 2004년 한 해 동안 74개 신문사에서 ‘여성’이 다루어진 건수는 총 127,661건임에 비해 ‘십대여성’은 669건이고 이는 0.5%에 해당한다. 또한 ‘청소년’을 다룬 36,088건 중 1.9%만이 ‘십대/여성’ 관련 기사이다. 또한 ‘십대/여성’ 자체에 대한 기사보다 정부/비정부 기관의 행사와 관련 제도나 정책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원미혜, ‘십대/여성 정책의 도전과 과제’, 2007 여성학 논집.

15) 앞 정미숙의 글.

에서 여성주의적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교사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 봤더니 여성학 소모임도 있고, 여교사 모임도 꾸려지고 있더라. 이 멋진 여성들을 소개하며 글을 끝맺을까 한다.

#. 경기지역 교사들의 '여성학소모임'

여성학소모임은 벌써 4년째에 접어든 '중견' 공부모임. 2005년 3월, 당시 '할 만한' 사업을 찾던 전교조 수원지회 여성위원회에서 여성학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모아 공부모임을 시작한 것이 지금 여성학소모임의 전신이다. 소모임은 10여 명의 초, 중, 고 교사가 매주 목요일에 모여 정해진 책을 한 장씩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취재 당일은 비키 랜달이 쓴 《여성과 정치》를 마치고 《경계밖의 페미니즘》을 읽기 시작하는 날이었다. 책만 보면 분위기가 꽤 심각할 법도 한데, 심각함 대신 오랜 시간 삶을 공유한 데서 비롯된 편안함이 가득하다.

창단 멤버인 영경미 교사(매현중)는 여성학소모임이 "지식을 축적해 가면서 여성 자신의 언어를 가질 수 있고 또 이것을 동료교사와 학생들에게 적용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지적 바탕, 배움터가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들이 공부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실천이다. 영 교사는 학교에서 있었던 한 일화를 여성주의 실천 사례로 들려주기도 했다. "우리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수업 기간 중이라 참여하기 힘든 교사가 있었어요. 나도 수유를 경험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마땅히 배려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요. 하지만 교장, 교감, 부장들이 모두 '나쁜 선례를 남긴다'며, 젓을 말리는 악을 먹고서라도 수학여행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까지 들어됐다니깐요."

이렇게 여성학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제기한 사람을 공격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의 행복만을 원하는 사람 등 다양한 각도로 평가를 받아요." 이정선 교사(이호초)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모임 교사들은 여성으로서 겪는 일상의 어려움들을 사소한 것까지 함께 나누고 서로 지지하면서 연대의 정을 더 견고하게 다진다. 이 교사는 말한다. "여기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면서 감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안이 치유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사모임이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여성학소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감정적 연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성주의를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와 교육으로 확장시켜 가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 이정선 교사는 “좀 더 공부해서 심화되면 여러 가지 좋은 교육정책을 만드는 일도 하면 좋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늘 이론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 너머의 세상에서 실천과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의 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초등 우리교육 2008년 6월호 교육계 이모저모 ‘실천적 여성학을 꿈꾼다.’

#. 여교사 수다 또는 하소연 또는 토론회

여교사들의 솔직·대담·발랄 토크!
매주 토요일, 바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

세상에선 우리를 일등신부감이라고도 하고 철밥통이라고도 합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오른 이 자리, 오늘도 또각또각, 출근을 하지만
숨가쁜 하루하루 속에서 출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답답한 교무실의 공기 속에서,
때때로 적진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로워지는 교실에서,
기댈 언덕이 필요하다, 동지가 필요하다 느꼈던 분들,
이제는 만남시다!

■ 첫 만남. <수업을 두렵게 만드는 그 녀석>

- 남학생 가르치기의 버거움 (2월 14일)

■ 두 번째 만남. <나와 그녀들>

- 여학생 가르치기의 아쉬움 (2월 21일)

■ 세 번째 만남. <내가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들>

- 가르쳐야 할 것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 (2월 28일)

▣ 네 번째 만남. <교무실에서 살아남기>

- 하고 싶은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3월 7일)

▣ 다섯 번째 만남. <멘토 찾기, 나로 서기> (3월 14일)

매주 토요일 3시, 신촌 아트레온 토즈로 오세요!

참가 신청은

우선생 : 010-7223-7907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teachinggirls>

[도움을 많이 받은 글들]

고정갑희(2001), '학교·가족·시장의 공조체제-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교육', "여성이론 4호".

정미숙(2007), '청소년 성평등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늘푸른여성지원센터 10대 여성 성평등 포럼 자료집".

조주은(2007), '여교사 권하는 사회',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민연.

우옥영(2006), '학교현장과 여성, 평등에 관한 문제와 대안',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청소년 성평등 정책 포럼: 십대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은 가능한가 자료집".

원미혜(2007), '십대/여성 정책의 도전과 과제', "여성학논집 24집 2호".

언니네(<http://www.unninet.net>) 채널넷 기획 특집 88호 '교육지책'.

박성원(2004), '모든 이를 위한 과학교육을 말하다 — 《페미니즘 과학교육이란 무엇인가》', "초등 우리교육 2004년 12월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 팀 세미나 결과 자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아수나로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발매 준비 중)

한날, 「영화 '친구사이?'를 '유해한' 영화로 만들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관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토론회』 발제문, 2010. 07. 27.

영화 '친구사이?'를 '유해한' 영화로 만들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한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유해성을 판단하는 질문의 전제를 뒤집어야

"영화 '친구사이'는 과연 '청소년'에게 유해한가?"를 주제로 발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지난주에 받았다. 모든 문제의 답은 문제 안에 있게 마련이니, 내게 던져진 질문을 찬찬히 살펴봤다. 질문 자체에 이미 '청소년'이라는 존재의 사회적 위치가 반영되어 있었다. 동성애 표현물이라고 하는 영화 '친구사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그렇지 않은지 질문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아마도 청소년은 아니다. 그렇다면 유해한지/그렇지 않은지 답변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심지어 이 또한 어른들이다. '어떻게 질문을 던질 것인가'는 상황을 해석하는 프레임과 연결되어 있다. 위의 질문에는 어른들의 판정 결과가 무엇이나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되면, 그것을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프레임 안에서 청소년은 철저히 금지 혹은 규제의 대상으로만 남아버린다.

청소년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우선 필요한 것은, 그 질문들에 답변하는 것이 아닌 질문 그 자체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비청소년과 달리 청소년에게 유독 더 해로운 것이 존재하는가? 설사 유해하다고 할지라도 청소년에게는 권유가 아닌 금지의 방식이 쉽게 취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야 모든 인간에게 성(性)적 권리(성, 사랑, 섹스, 연애에 관한 권리를 통칭)가 있다면,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토론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어떤 이유로, 청소년에게 성(性)이, 특히나 동성애는 더욱 유해하다고 말하는 건가? 그것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되돌려 놓아야, 오늘 토론회를 청소년 당사자의 시점에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성숙은 나이에 비례하는가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이나 고미숙의 <이팔청춘 꽃피는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연구물들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익숙하게 규정하는 '청소년'이라는 범주가 근대(17,18세기) 이후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아동들은 성인의 생활세계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으며 일, 놀이, 복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도 구분지어 관리되지 않았다. 10대의 어떤 인간을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와 더불어 수많은 의미의 계열이 그물망처럼 펼쳐진다. 일단, 결혼이나 동거 따위를 꿈꾸어서는 안 되고 청소년이란 미성년의 주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성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는 청소년의 경제적 지위와도 연결되는데, 청소년이 노동에서 면제된 것과 성적 주체가 될 수 없는 것, 나아가 사회 전반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청소년의 성이 언론에 등장하는 순간은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때'뿐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나 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를 논할 때 언론의 태도를 보면 '청소년의 성은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깨뜨리기 쉬운 얇은 접시 같은 것, 아니면 억압해야 하고 금지해야 하는 것' 정도로만 취급된다. 학교에서도 여전히 학생들의 연애를 금지하거나, 성적 행동을 규제한다. 교과서나 학교에서의 성교육도 결국엔 '건전한 이성교제', '책임감', '순결', '자제력' 등을 강조하곤 한다. 이런 학교의 방침을 '홀쩍 넘어선' 학생들은 실효성 없는 기준과 잣대들을 비웃는다.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다."이다. 미성숙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거나 잘못된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청소년의 성, 사랑, 연애, 섹스를 모두 이성애를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랑= 임신의 공포"로 연결 짓기도 한다.

인간의 성숙은 나이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실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비례한다. 만20세를 넘긴 비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폭력성이나 무책임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청소년들이 나이가 적어, 그만큼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미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인종주의'와 다를 바 없다.

성적인 표현이 있는 작품들을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이유 역시 "청소년들은 야한 것을 무분별하게 접해서는 안 되며,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19금', '15금', '12금' 등의 딱지는 작품의 맥락이 아닌 노출 수위에 따라 '음란성'이 결정된다. 만약 영화 <친구사이>의 노출 수위가 더 높았다면, 그것을 '19금' 처리하는 것은 마땅한 걸까? 성적인 표현에 대한 해석은 장면의 맥락 속에서,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 가슴이 나왔는지, 성기가 나왔는지, 성기 결합(입술, 손가락 등도 성기라는 전제하에 ㅎㅎ)하는 행위가 등장했는지 여부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장면이 등장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도 청소년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성=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이라는 보수적인 성윤리를 청소년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오히려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킨다.

동성애, 청소년 사랑의 시각 지대

'건전한 이성교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찌되었든 청소년의 이성애에 대해서는 그것을 윤리적으로 지

도와고, 통제하려는 행동은 여전히지만 전면적으로 금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학교나 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성적인 이미지가 이토록 범람하는 세계에서 청소년들의 성, 사랑, 섹스, 연애만을 제약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가?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동성애는 흡사 범죄의 영역처럼 다뤄진다.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방영을 반대하는 한 기독교 단체의 신문광고를 보아도,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등위의 등급 심의서를 보아도 흡사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를 우려하는 듯한 톤으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4년, 동성애 인권단체들의 투쟁의 결과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7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시킬 수 있었지만, 여전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동성애는 변태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해석과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3년 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청소년 비행의 한 부류로 단정 짓고 부정적인 어조로 '이반 문화'를 보도한 적이 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동성애 사이트를 무분별하게 접하면서 동성애 성향에 무감각해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표현되었고,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이성애적인 성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되었다. 아울러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공포심을 조장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정보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등위의 검열과 같이 사회와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관련 교육 내용을 배제하고, 왜곡해서 교육함으로써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 유발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자유롭게 고민할 권리를 억압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기 긍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지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청소년의 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에 담긴 의미

내가 본 영화 '친구사이?'는 한마디로 '건전한 동성교제(ㅋㅋ) 영화였다. 20여 분의 짧은 시간 안에 주인공들의 사랑과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커밍아웃의 실마리 등을 녹여낸 담백한 단편 영화였다. 두 주인공 중 한 명이 여성이었다면? 완전 맛있는 영화였을 거고, '19금'을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주인공이 남남 커플이기 때문에 면회를 가서 만나는 순간부터 휴가를 보내는 매순간이 극적 긴장 상황으로 유지된다. 어쩌면 영화 '친구사이?'는 '19금' 판정을 받은 것을 억울하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만큼 이 사회에 '위험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반증이니까. '남남(男男)이라고 해서 과연 모두 친구사이인가?' 라는 관춘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평등, 인권, 공동체, 생태 등 진보적인 이념들이 사회의 주된 가치로 논의되었던 프랑스 68혁명기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던 슬로건 중 하나가 바로 "성해방"이었다. 젊은 세대들은 "혁명을 생각하면, 섹스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오르가즘을 멈추지 마라!", "나는 영원한 행복 상태를 선포한다." 와 같은 구호를 거리에서 외

쳤다. 개인의 욕구에 대한 통제가 권위주의 체계의 정치적 억압과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개인의 해방과 사회의 해방이 분리되지 않음을 이야기 했다. 성의 자유와 함께 이를 공개적인 담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기존 세대의 가치관이 지닌 허구성과 위선을 폭로할 수 있었으며, 절제와 억압에 기초한 보수적 윤리 체계에 도발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었다. 68혁명 이후 동거와 피임기구의 판매가 자유화된 것과 학교에서 사제 간의 경어 사용이 폐지된 것 사이에는 재밌는 상관성이 있는 것이다.

성적 권리는 사생활과 행복 추구권, 욕망,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국가 혹은 사회가 시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시민들의 사생활과 욕망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는 '야한 짓을 먼저 규제하려 든다. 이는 이성애중심주의나 보수적 성윤리를 내면화하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성에 대한 통제는 좀 더 극단적인 단면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사실 비청소년 또한 이러한 관리와 통제 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여성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성(性)적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비청소년 동성애자들 역시 권리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프리섹스를 장려하지는 것은 아니다. 성적 권리, 성적인 관계는 인간관계의 문제이며, 그 속에서 많은 소통과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 또한 오히려 요즘처럼 성적인 이미지가 범람하고, 연애가 곧 소비로 직결되고, 애인이 없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연애를 하지 않을 권리(연애 안 해도 소외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요는, 청소년이 야한건 말건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는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는 거다.

한 청소년 활동가가 멋진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닌 권력이다."라고 성적 권리도 마찬가지다. 성적 권리가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권력이 개입해 있다는 의미고, 그 권력의 결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인권의 힘일 것이다. "청소년의 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구호는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구체적 실천으로 이끌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도 인간임을 끊임없이 선언해야 하는 이 사회에서 청소년도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설펍하고, 도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부

노동/빈곤



개요

노동/빈곤

청소년 노동 문제를 2004년부터 다루어왔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청노넷)가 2008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청노넷의 제안으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 하던 청소년활동가 한 명이 서울 관악구 순대촌에 위장취업을 하는 방식으로 잠입 조사에 함께했다. 이후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후속 토론회를 청노넷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것을 계기로 네트워크 내에 노동인권에 대한 고민이 무르익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9년 네트워크 조직 안에 노동/빈곤팀(당시에는 노동팀)이 생겨났다.

2009년 당시는 청소년인권과 소수성의 만남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면서 청소년과 여성주의, 청소년과 성정체성 등 새로운 의제가 발굴되고 있던 때라, 청소년과 노동/빈곤에 대한 고민을 가진 개인들의 의지가 모여 노동/빈곤팀이 만들어지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팀 결성 초반에는 최저임금 투쟁 기간에 연대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정도의 소극적 외부 활동이 주를 이뤘다.

세미나 등 내부 담론 형성 작업을 하던 2008년~2009년을 지나 2010년에는 청소년 노동자를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직접행동을 기획하게 된다. 알리바바 - 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 라는 이름으로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청소년 노동자를 만나고, 청소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서명을 받는 등 2010년에는 노동빈곤팀의 자체적인 활동들이 늘어났다. 또한 2009년과 2010년 노동절 집회에서 청소년 노동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부터 팀원 개개인의 의지와 결합도가 떨어지면서 팀 자체가 흐지부지 사라지게 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청소년 노동과 빈곤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빈곤’의 문제는 제대로 말하거나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남는다. 그럼에도 청소년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그 당사자성을 통해 이야기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자의 존재를 알려내려는 시도는 처음이었기에 큰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 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 및 워크숍-

1. 기획 의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채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청소년 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와 워크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과 비정규 노동의 문제, 청소년 노동에 대한 학교의 부정적인 시각, 청소년 노동의 의미와 청소년 스스로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 토론을 거쳐면서 이번 토론회와 워크숍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부 토론회는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특성 등 이슈를 짚어 보고, 노동자의 850만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청소년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먼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장으로, 2부 워크숍은 기존 운동사회의 개인 모델을 평가하면서 청소년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동인권운동 진영이 어떻게 접근하고 개입할 것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조직화 방안 등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2. 토론회 및 워크숍(안)

- 시기 : 2008년 2월 19일(화) 낮 100-6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대회의
- 주최 : 민주노동당서울본부, 전교조 실행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주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1부 토론회(100-330)

: 청소년 노동의 이슈와 대응과제

- ▶ 사회: 윤성봉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 발제: 청소년 노동의 이슈와 대응과제 - 이수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 사례발표: 청소년 노동자들
- 또또(패스트푸드) 문화정보고 학생(음식점 서빙)
- ▶ 토론: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부 교수)
 -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효관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 전체 토론

☐ 2부 워크숍 (400-600)

: 청소년 노동인권 확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사회: 배경내(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 토론:
 - 정건희 (군산YMCA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청소년 일반 실태조사와 대응 활동
 - 김진익 (민주노동당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청소년 노동자 조직화 방향
 - 전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 청소년 노동과 학교의 역할
 - 정경화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위원장): 청소년 노동과 지역운동
 - 다이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청소년 인권운동과 청소년 노동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불안정노동조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실행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청소년 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 및 워크숍〉 소장사진, 2008. 02. 19.



따이루,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은 참 어려운 일이야」, 「청소년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外, 2008. 02. 19.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은 참 어려운 일이야”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는 청소년노동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안전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노동할 권리,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권이다. 지금 말한 이 권리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을 넘어 일부 보수적인 사람 중에도 부분적으로라도 옳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현재 법적으로도 부분적으로 인정된 권리이지만 사업주 또는 기업에서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은 저 권리들이 보장되도록 하자, 저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알리는 선에서 활동해 왔다고 생각한다. 즉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청소년노동인권을 말한 게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선을 넘어선 ‘청소년노동인권’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소년노동인권운동에서는 청소년들을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운동을 해왔던 거 같다. 물론 법에서도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만18세미만)는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가 없고, 특히 만15세미만 청소년들은 보호를 위해 보호자동의는 기본이며 노동부의 승인 없이는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청소년노동보호정책이 나온 이유를 모두 무시하는 건 아니다. 기업 또는 사업주들이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두 눈깔 부릅뜨고 저렴한 노동력을 찾다 보면 가장 만만한 건 청소년,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끄찍한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청소년노동보호였을 것이다. 하지만 보호만으로는 노동착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바꿀 수 없다.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가 되고 착취당하기 쉬운 존재로 인식되는 데는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해 주입시킨 ‘미성숙한’ ‘불안정한’ ‘불완전한’ 같은 보호해야 되는 이미지가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본다. 고용주들의 생각 속에도 저런 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임금미지불 또는 폭력 같은 노동인권침해가 쉽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보호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당연시되어지고, 청소년들 스스로도 독립할 수 없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청소년노동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

소년들 스스로 이런 이미지와 대우에 저항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현재의 체제 속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 중에 보호자의 동의를 못 얻거나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을 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의 보호주의적인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시각은 그런 청소년들이 아예 노동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다고 청소년노동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을 전부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다양성 부족(학생인권중심, 주체도 학생인권쪽 사람 중심(?))

청소년들의 노동의 권리 또한 분명히 청소년들의 인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노동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많은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직접적인 행동이 없었던 이유는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내가 느꼈던 이유 중 나름 큰 이유의 변명겸 내부고발(?)을 하고자한다.

학생인권이 다였던 청소년인권

청소년인권운동은 학생인권운동으로 시작되어 학생인권운동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 또는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비청소년활동가들이 다수였다. 그와 함께 청소년인권운동의 주된 이슈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같은 ‘학생인권’이었다. 노동하는 청소년 당사자들은 그것이 직접적인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는 공감감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노동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인권운동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거나 한 번 발을 들였던 사람도 청소년인권운동을 떠나게 되었다.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있었고, 그러면서 청소년인권운동은 학생인권운동이라는 틀에 더 갇히게 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와 함께 아직 개척된 적 없는 청소년노동인권이라는 분야(?)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역량 딸리는 청소년인권운동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학생인권을 다루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조직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하면 비교적 편안하게(?)만날 수 있다. 학교에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몇 백 몇천 명씩 모여 있고, 노동인권과 비교했을 때 두발규제나 체벌에 부당함이 조금은 더 알려진 상태다. 하지만 청소년노동인권 당사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청소년들을 소규모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몇 십 개의 사업장을 찾아다녀야 겨우 백여 명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와 함께 자신의 노동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조직하는 건 학생들을 조직하는 것에 비해 더 어려운 일이다.

다른 면에서의 부담도 있다.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 처음 문제제기가 되었던 방향이 청소년노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주의적였고 사실상 지금까지 보호주의를 넘어서진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담론에 대한 진전

은 많지 않았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 아 그거 보장돼야지, 하는 뻔한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인 청소년노동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갖고 있지 못했다. ‘청소년보호’라는 불편한 주제와 얽혀 있는데다가 청소년노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가 막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진영이 청소년노동인권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아르바이트 임금 실태조사 결과」, 「'88만원 세대' 조차 될 수 없는 노동자, 청소년-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보고」, 2008. 06. 04

[자료1] 청소년아르바이트 임금 실태조사 결과

* 발표 : 하인호

문학정보고등학교 교사/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I. 조사의 목적

(1) 청소년노동의 현실

- 청소년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는 2003년 노동부가 실시한 표본조사로, 전국 중고등학생 3만6825명 가운데 22.1%인 7969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중고등학생의 수(2002년말 현재 366만3512명)로 환산하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수는 79만 명에 육박한다. 현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요즘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 청소년 노동이 증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노동력은 이미 기간 노동력을 이루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의 계산원과 조리원은 거의 대부분 청소년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편의점과 같은 대부분의 소규모 유통체인에서는 이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고, 제조업의 현장에서도 전문 계고 실습생이나, 병역특례라는 이름으로 현장 인력의 일정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 청소년노동은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인 노동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 바라보거나 청소년 노동을 온전한 개인의 노동으로 보지 않고 생계 보조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을 소비성향과 연결시켜 비필수적이거나 과외노동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청소년의 노동을 평가절하시키며,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저임금을 고착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조사의 취지

○ 청소년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노동실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며, 청소년 노동실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턱없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단지 값싼 임금으로 일을 부리기 쉬운 계층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선 아래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저임금에 방치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미흡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이다.

○ 그리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특히 청소년임금에 관련된 문제를 부각시켜내어 그 중 청소년노동의 동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맞추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임금 실태를 폭로하여,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 위한 취지로 실태조사를 기획했다.

○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노동부 대책이 확대, 보강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할 것이다.

II. 조사의 내용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의 동기, 임금수준과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여부를 중심으로 하되,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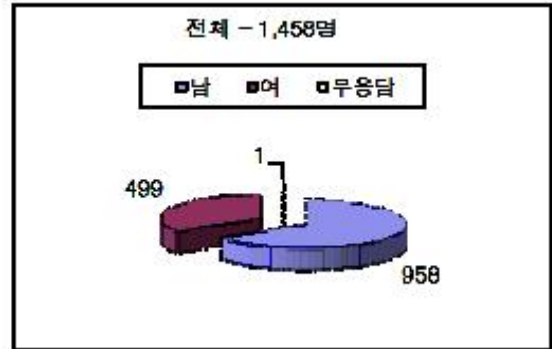
III. 조사의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2008년 5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대전, 경남, 강릉, 춘천, 전남, 전주,충북 지역 청소년
조사기간	2008년 5월
표본크기	1458부
조사방법	- 전교조 조합원 교사가 각자 소속 학교에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수거 - 탈학교 청소년 컴퓨터에 설문지 나누어주고 수거

1. 기초조사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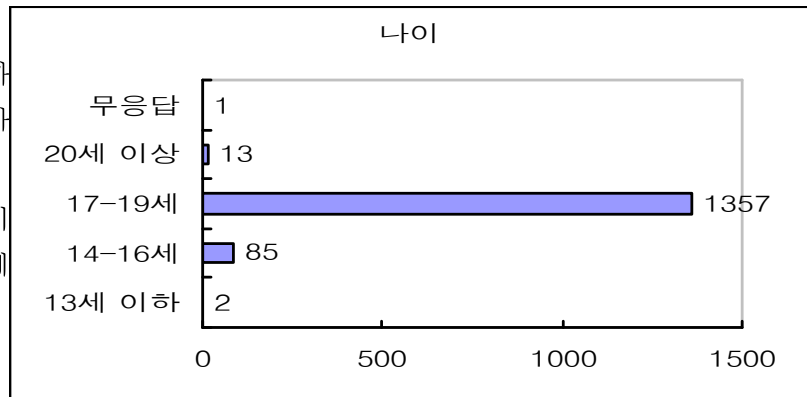
○ 전체 1458명 중 남성이 958명, 여성이 499명이고, 무응답이 1명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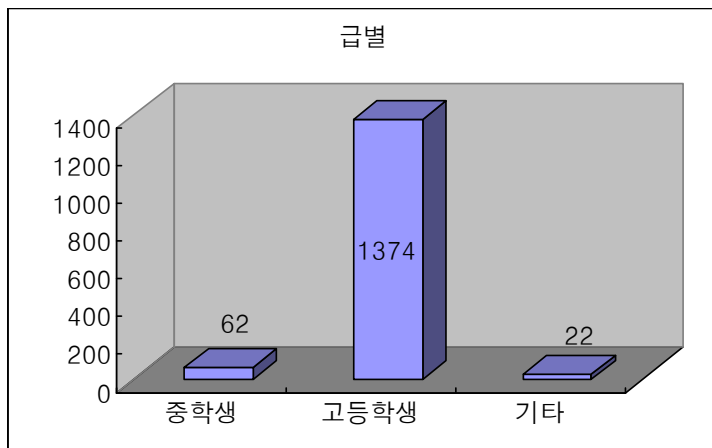
(2) 나이

○ 나이를 보면 17~19세까지가 1357명이고, 14~16세가 85명이다.

○ 노동이 금지된 13세 이하의 연소자도 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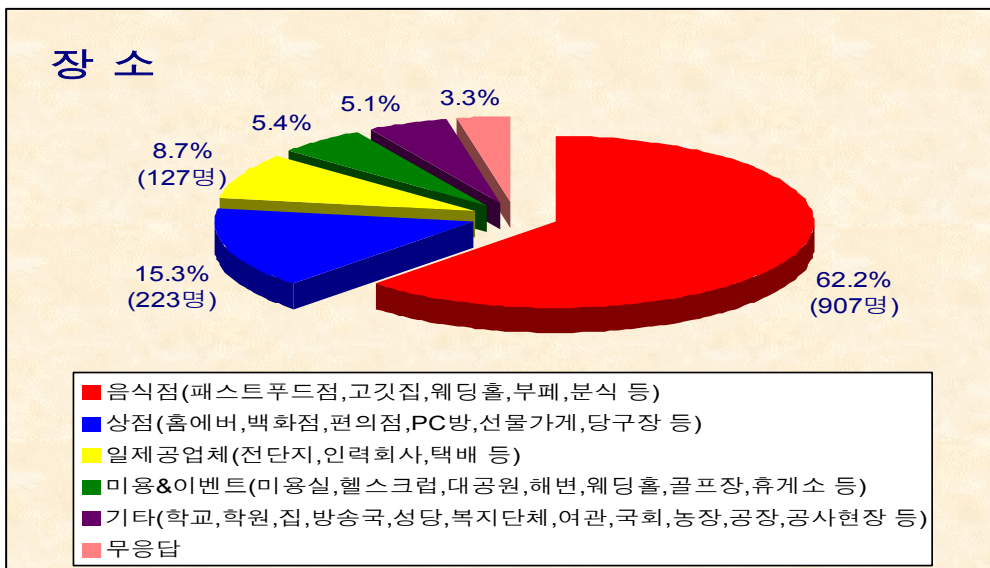
(3) 급별



- 급별로는 고등학생이 1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62명이 설문에 응했다.
- 또한 기타에는 탈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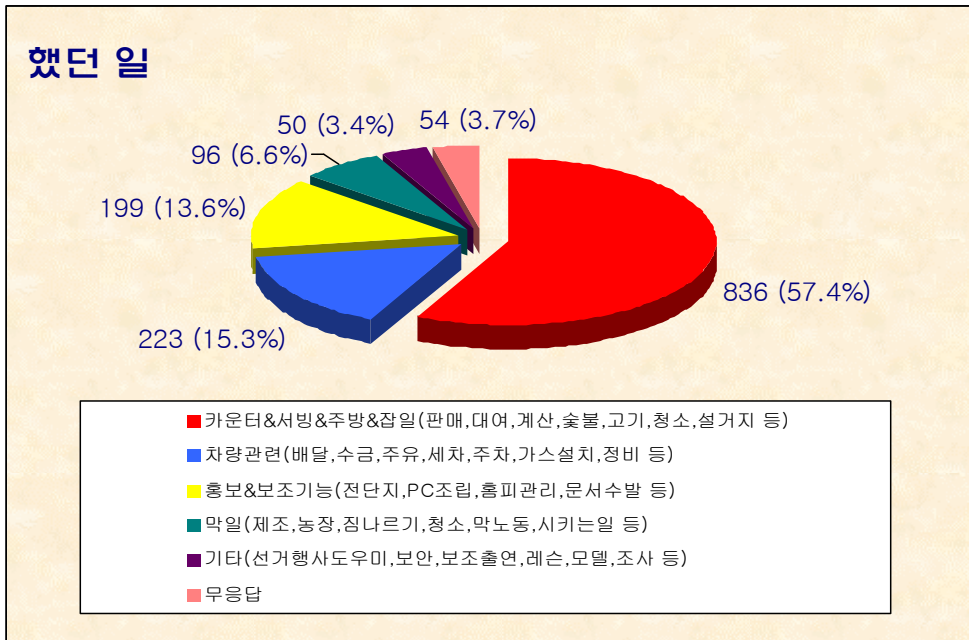
2. 아르바이트 한 곳 및 한 일

(1) 아르바이트 한 곳 (주관식 조사)



- 주관식으로 질문을 하여 얻은 결과로, 청소년들의 62.2%가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업종이 다양한 것으로 보아 전 산업적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 집중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점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숙박업 '여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 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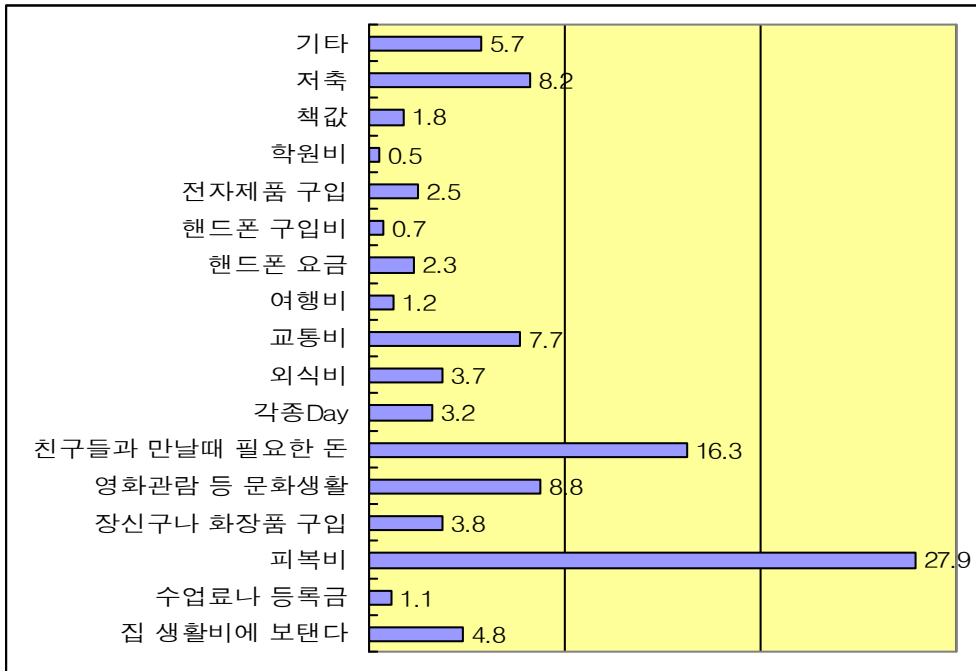
(2) 아르바이트로 한 일 (주관식조사)



- 주관식으로 질문을 하여 얻은 결과로 알바장소가 음식점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반영하듯이 음식점에서 주로 하는 카운터,서빙,주방, 잡일이 57.4%로 많았다.
- 주로 서비스업종에서 단순한 업무를 중심으로 청소년노동자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아르바이트 임금 사용처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걱정되는 것

(1) 아르바이트 임금 사용처



생계비 계측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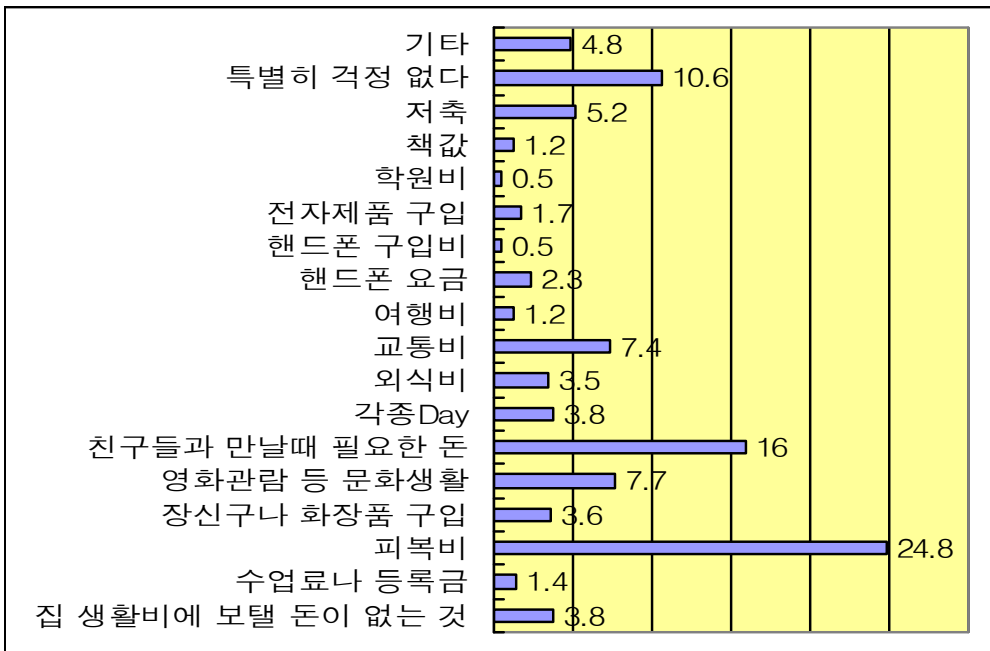
계측조사 항목	조사결과에 따른 항목	%
식료품(외식포함)	외식비	3.7%
광열수도	해당사항없음	0%
교통,통신비(휴대폰, 인터넷, 대중교통비)	교통비, 핸드폰 구입비, 핸드폰 요금	10.3%
문화오락 (영화,방송수신료 등)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8.8%
주거비	해당사항없음	0%
의료비	해당사항없음	0%
교육비 (등록금, 교재구입비 등)	책값, 학원비, 수업료나 등록금	3.4%
각종행사비 (경조사비)	해당사항없음	0%
저축, 보험	저축	8.2%
피복비	피복비	27.9%
합계		62.3%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임금을 받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복비로 27.9%가 응답했다.
- 조사를 하고 있는 항목 모두가 생활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긴 하지만 생계비 계측조사 항목에 들어가는 것만 엄선해서 계산을 해보아도 그 수치는 62.3%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때 필요한 돈 중에서도

식비, 문화생활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면 더 수치는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자들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가게에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비용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벌어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 저축을 한다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8.2%가 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노동자도 성인과 같이 똑같이 미래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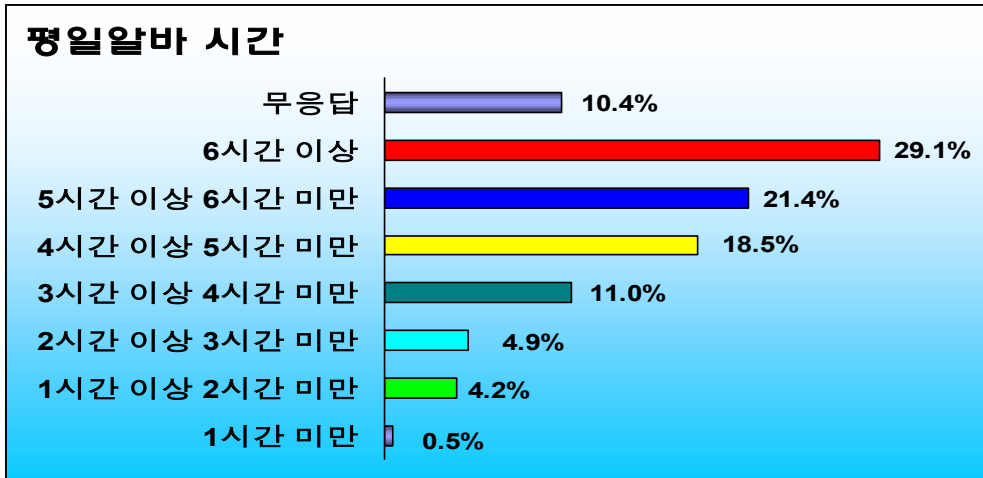
(2)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하면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걱정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0.6% 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보아 89.4%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소비욕구를 충족하기위해 사용한다는 사회적 편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89.4%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이 소비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그 외에는 특별히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4. 평일 아르바이트 노동시간과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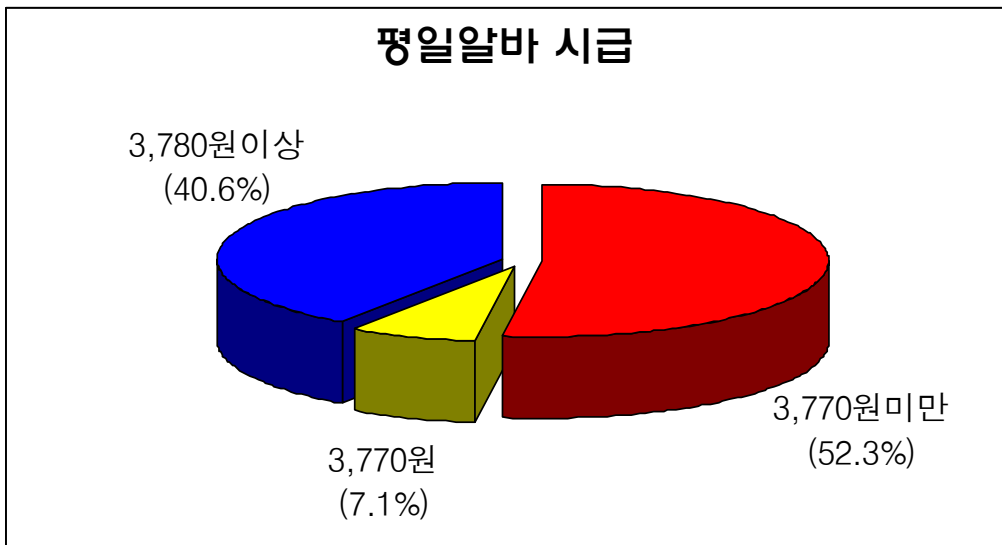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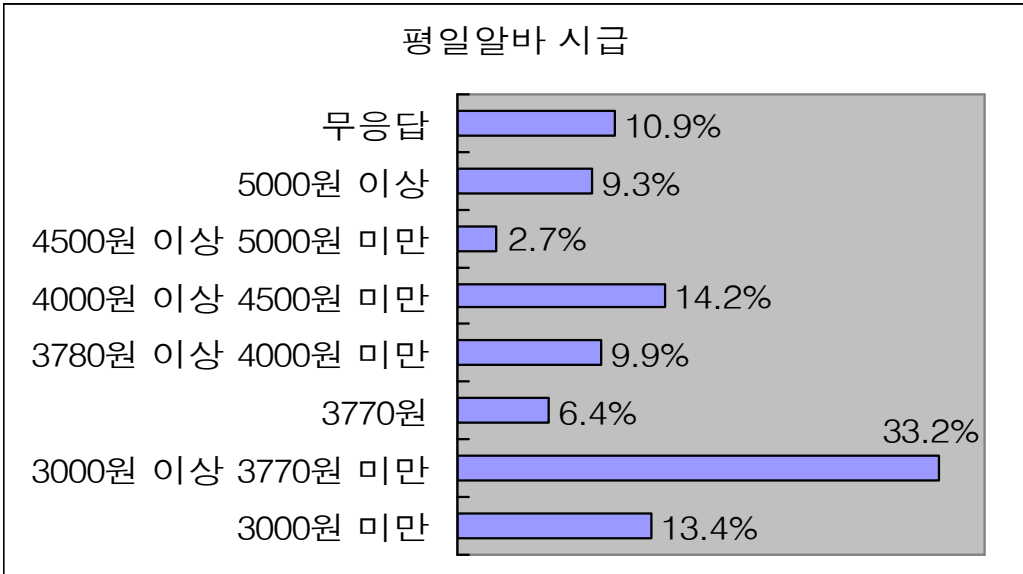
(1) 평일 1일 아르바이트 노동시간



	%
4시간 이상	69%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1%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4.9%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4.2%
1시간 미만	0.5%

- 평일 4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9% 이고, 게다가 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청소년 노동자도 29.1%나 된다.
-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할 때, 4시에 학교하여 5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6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청소년은 11시까지 노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0시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야간노동에 포함되므로 응답자의 약 30%정도는 야간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이 평일에 장시간노동 그리고 야간노동까지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임금이 워낙 저임금이므로 장시간노동, 야간노동을 해야하지만 생활할 만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2) 평일 아르바이트 임금(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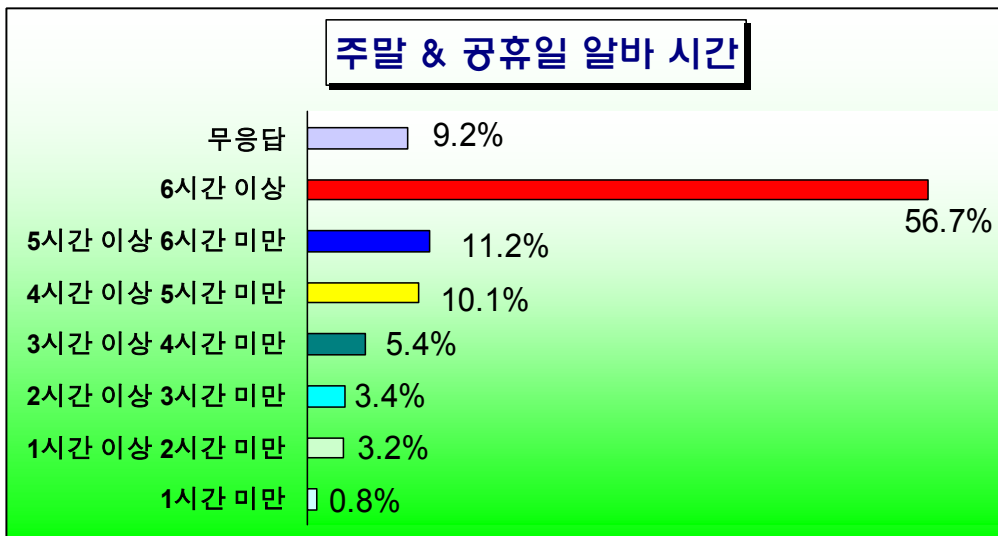


- 2008년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다.
- 그러나 응답자 중 52.3%가 최저임금미만을 받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시간당 3000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청소년노동자도 응답자 중 15.1%나 된다는 것이다.
- 또한 노동부에서 2008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조사한 연소자 사용 사업장 점검 결과로 발표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불과 4.0%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52.3%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노동부의 점검은 일부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감독을 했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감독을 나간 경우에도 사업주들에게만 조사하여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의 연소자 사용 사업장 점검 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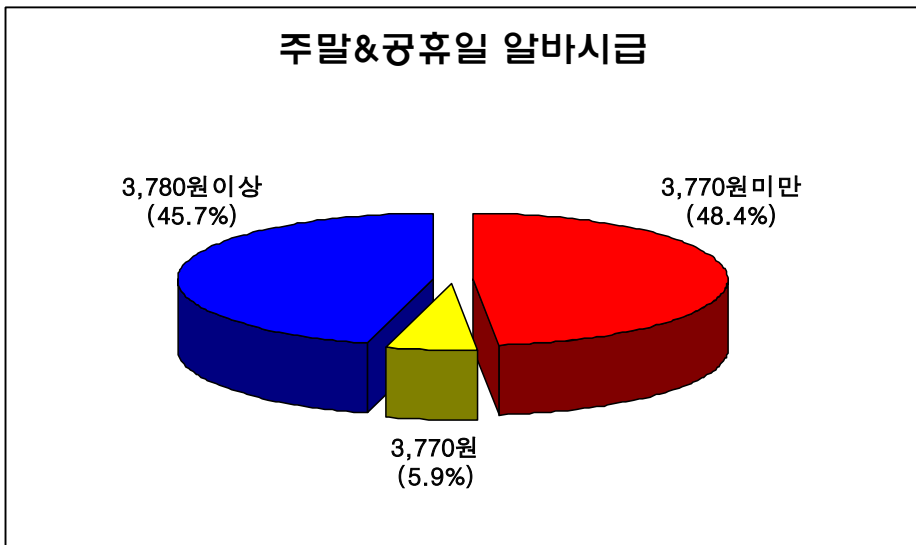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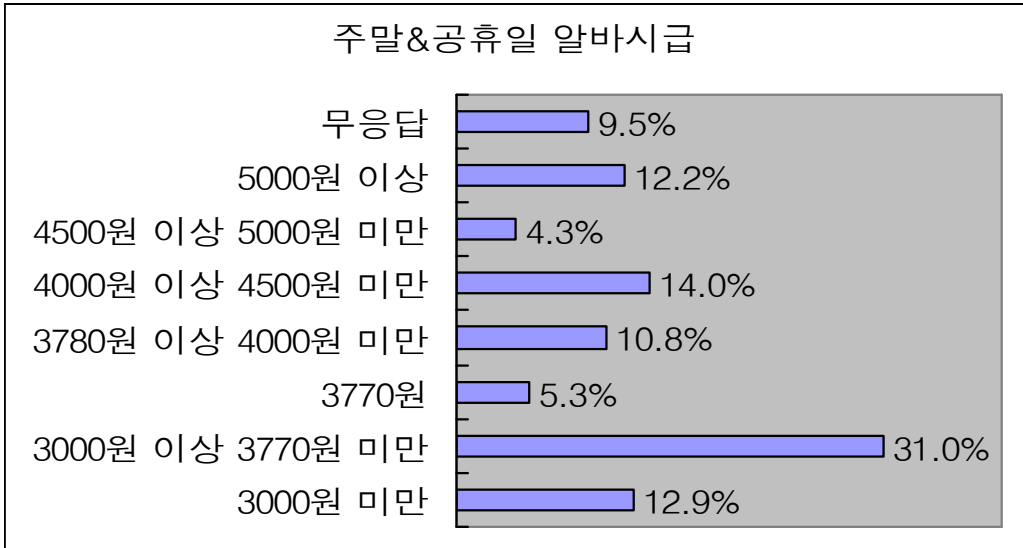
5. 주말 아르바이트 노동시간과 임금

(1) 주말 아르바이트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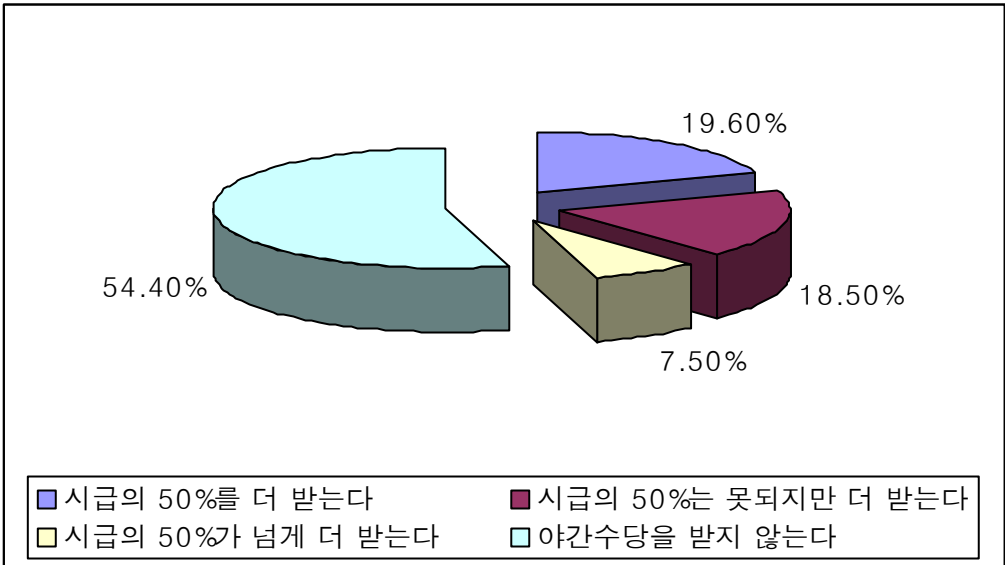
- 주말과 공휴일에 아르바이트를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중 6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6.7%나 된다.
- 이것으로 볼 때, 평일에 일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주말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고, 평일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임금노동이기 때문에 주말에 노동시간을 늘려 임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주말 아르바이트 임금



- 주말과 공휴일에 시급 3770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48.4%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급 3000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12.9%나 된다.
- 평일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이 4%정도 낮게 조사되었지만, 주말과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높은 수치가 아니다. 이러한 저임금노동이 결국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장시간노동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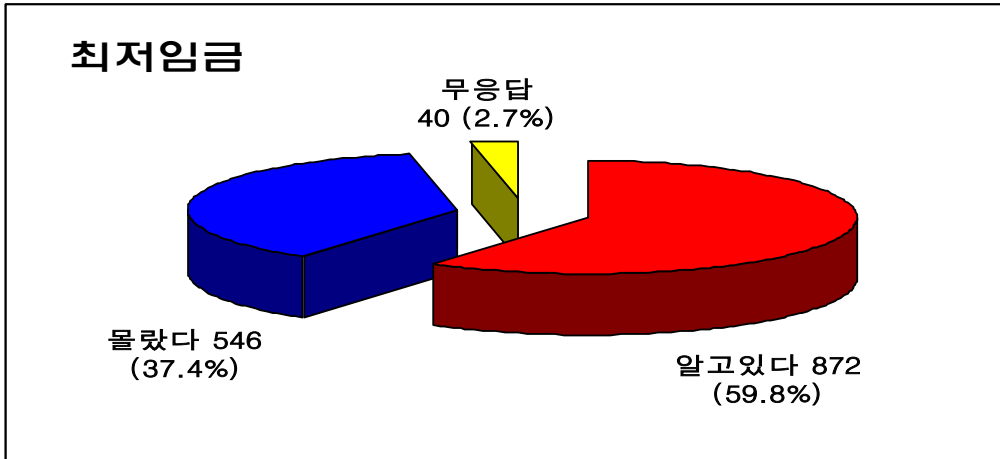
6. 야간노동임금



- 야간노동을 경험한 청소년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 중 24.8%를 차지하고 있다.
- 야간노동을 경험한 청소년 노동자 593명 중 54.4%가 야간노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2008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 해야한다는 권고를 냈고, 특히 야간노동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즉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 절반이상이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야간노동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즉시 확대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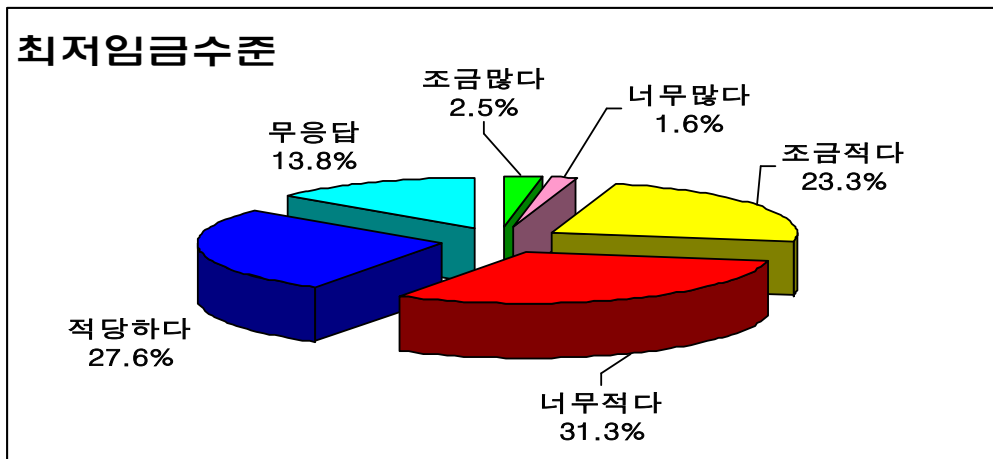
7.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

(1) 인지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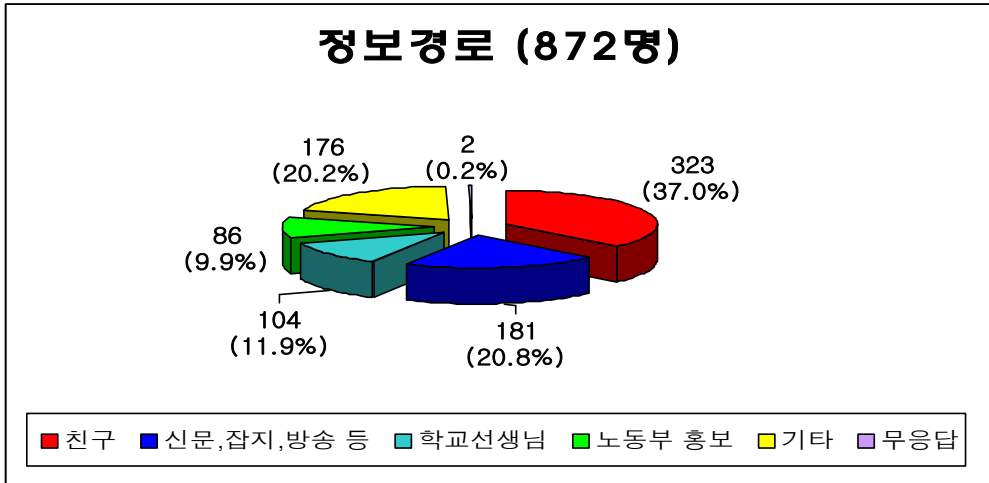
○ 법정최저임금(시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청소년노동자는 59.8%로 나타났다.

(2)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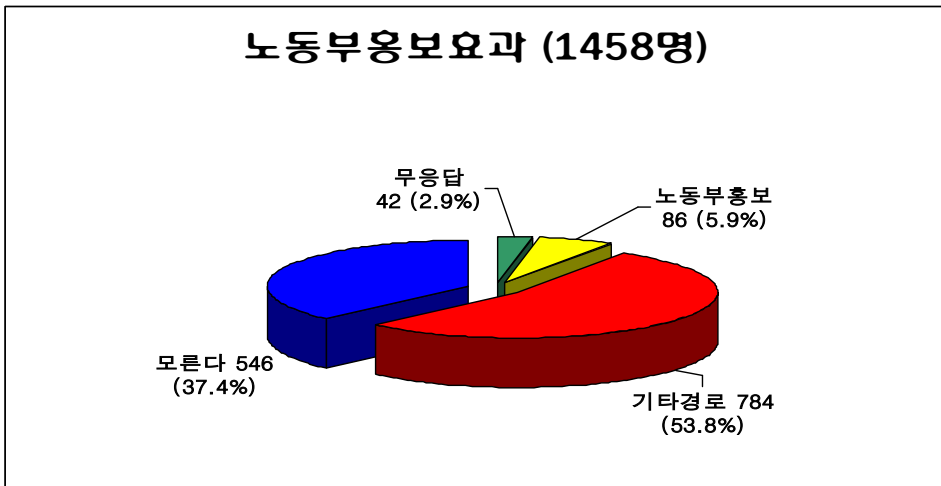
- 법정최저임금 시급 3770원 책정에 대한 질문은 하는 일에 대해 적다라고 54.3%가 응답했다. 50% 이상의 청소년 노동자가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게다가 '너무 적다'라고 응답한 청소년 노동자가 31.3%인 것으로 보아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적은 액수이며,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어야한다는 것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그리고 '적당하다'와 '많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상당수는 아르바이트 임금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3) 최저임금 인지 경로



- '최저임금을 알고있다'라고 응답을 한 872명 중 '친구를 통해 최저임금을 알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 노동자가 3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학교선생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비율은 불과 11.9% 밖에 되지 않았다. 청소년 노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노동기본법에 관련한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그것이 아직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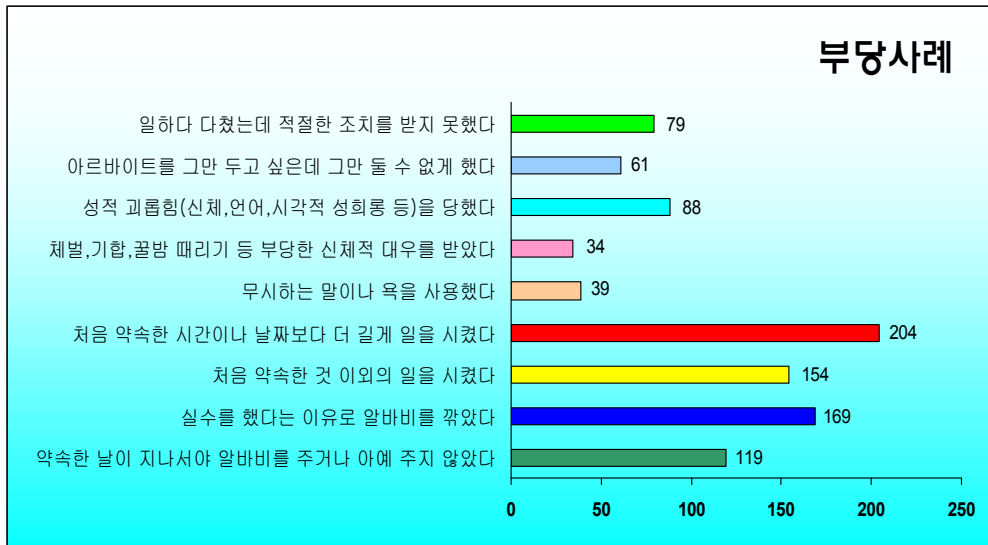
(4) 노동부 홍보효과를 통한 인지여부



- 조사한 전체 청소년 노동자 중에서 노동부 홍보효과를 통해서 알게 된 청소년 노동자는 불과 5.9% 밖에 되지 않았다.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를 통해 알고 있다는 청소년 노동자가 극히 일부인 것을 볼 때, 일부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독을 나간 경우에도 형식적인 조사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는 청소년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8. 부당한 대우에 대한 경험과 해결방법

(1) 부당한 대우에 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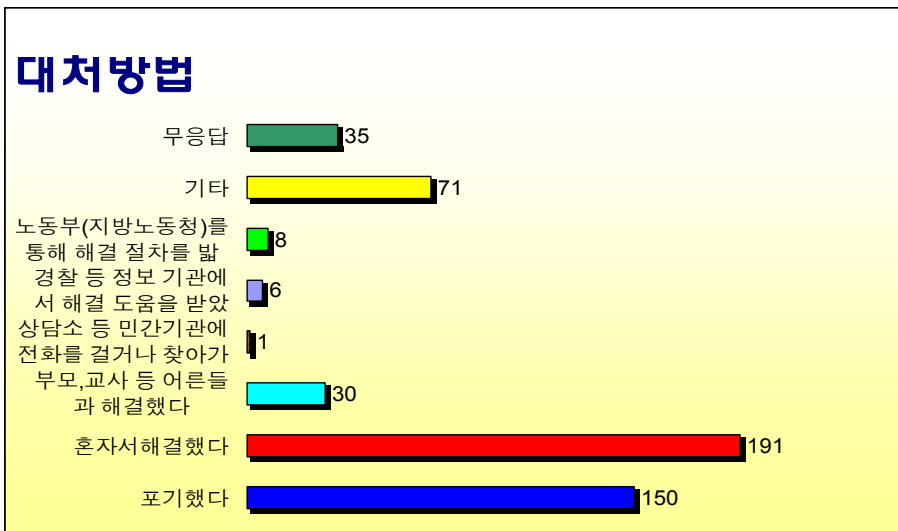


- 청소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위의 질문내용)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인원(명)	비율(%)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초과근로, 과외 업무지시, 퇴직부자유)	419	28.7%
임금 및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 업무상재해 미보상, 최저임금)	367	25.1%
인격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폭언, 체벌, 성희롱 등)	161	11%

- 즉 설문조사에 응답한 1458명의 청소년노동자 중 419명은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367명은 임금 및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 초과근로에 대한 응답이 많았는데 20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약속한 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문제 뿐 아니라, 연장근로가 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임금 관련된 부당대우는 실제로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 게다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청소년노동자가 88명이나 된다. 대부분 여성이 성희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청소년이 499명 중 17.6%의 여성 청소년노동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우 해결방법



- 혼자서 해결했다는 응답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로 해결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 기타로 나왔던 것 중 노동부를 통해 해결절차를 받았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결절차를 밟아도 명확하게 해결이 되었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

"욕설·성희롱 꼭 참고 일해도 돈도 못 받아요"

[토론회]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

올 초 출장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고등학생은 30시간을 일하고 고작 4만 원을 받았다. 시급으로 따져 보면 약 1300원 수준이다. 4년 전 주유소에서 일했던 한 여학생도 마찬가지다.

"시간당 2800원 받고 일했어요 하루에 열두 시간 이상씩 일한 것 같아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2시인가 출근해서 밤 12시 넘을 때까지 일했으니까. 주유소가 마감할 때까지 1시, 2시 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도 시급은 똑같아요 나중에 100원 올랐어요 2900원 받을 때까지 일을 했으니까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계에는 10대 청소년이 주요 인력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이 받고 있는 대우는 아주 열악하다. 청소년 노동자는 점차 늘어나지만 이들은 고작해야 값싼 인력 정도로 인식될 뿐이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에 생소한 청소년은 고용주의 각종 횡포 앞에 속수무책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4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88만 원 세대조차 될 수 없는 노동자, 청소년-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 실태 보고'라는 주제로 실태 보고회를 갖고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상을 공개했다.

"수십 번을 전화해도 돈을 안 줬어요"

2008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다(2007년 3480원). 그러나 청소년단체가 설문과 면접, 거리 상담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당수 청소년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청소년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청소년 1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3%가 최저임금도 못 받았고, 시간당 3000원 미만을 받는 청소년도 15.1%나 됐다.

야간수당(근로기준법상 야간노동에 속하는 10시 이후의 노동은 보통 임금의 1.5배를 받는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54.4%가 야간노동수당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이들은 실수나 규칙 위반에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임금에서 손해액만큼을 차감하는 일을 비밀비재 겪는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고생도 그런 경험을 했다.

"미리 달력 스케줄에 내가 언제 안 된다는 걸 써놔야 하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시험이 있어서 안 되는 날을

안 써놓은 거예요 다른 친구랑 바꾸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려면 10만 원을 내리면서 월급에서 까는 거예요 또 실수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요 근무를 변경할 땐 도장을 10개 받아요 도장이 10개 쌓이면 하루 5시간 무봉으로 뛰는 거예요"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도 있다. 뷔페에서 일한 여고생은 억울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3일 일했는데 9만 원 아래예요 그 사람들이 장부에 (출근) 기록을 해요 근데 하루치를 잃어버렸대요 못 찾겠다고 돈 못 준다고, 제 것만 없어졌대요 계속 안 줘서 전화를 했어요 계좌번호를 불러 달래요 안 들어와요 전화를 또 하니깐 또 불러 달래요 그게 수십 번이었어요 아예 못 받았어요 받고는 싶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올해 초 돈 받으러 또 갔었는데요 계좌번호를 불러 달래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잠시 앉아 쉬는 것도 눈치 보여요"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사업주는 청소년들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했다. 특히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 등은 일의 강도에 비해 거의 험값으로 청소년들을 혹사시키고 있었다. 현재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이 일상을 전했다.

"주방에 의사 같은 것도 없고 테이블이나 쓰레기통 위에 앉았다가 매니저한테 걸리면 엄청 욕을 먹어요 일이 없다 하면 다른 일들을 막 시켜요 어디를 닦아라, 청소해라. 절대 쉬는 시간 없이 일을 계속 시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마음 편히 쉴 시간조차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 일한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주는 거의 없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CCTV로 녹화돼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고 대형 음식점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손님 없을 때 잠깐 쉬는 것조차 많이 눈치를 봐야 했다.

청소년들은 일터에서 안전과 위생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청소년은 "고기를 굽는 프라이팬에 손이 닿아 화상을 많이 입는데도 안전장비 없이 비닐장갑 두 개를 겹쳐 끼고 만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유소에서 일했던 한 학생도 상황은 비슷했다. "휘발유 냄새가 워낙 심해 마스크를 써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장갑을 끼고 주유를 하는 건데 안 쓰고 일할 때가 더 많았어요 비뿔 때는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일 끝나고 가면요 손등이 다 벗겨져요"

욕설과 성희롱까지

청소년은 인격 모독과 폭력도 감수해야 했다. 나이가 어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은 반말과 욕설 등의 언어 폭력을 자주 경험했다. 이들은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고, 성인이나 기성 사회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다. 한 고등학생이 결혼식 출장뷔페에서 일할 때 이런 경험을 했다.

"접시를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매니저가 욕을 막 해요 미쳤냐는 둥, 돌았냐는 둥, 그것도 고객들이 계시



▲ 청소년들은 일터에서 안전과 위생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청소년은 "고기를 굽는 프라이팬에 손이 닿아 화상을 많이 입는데도 안전장비 없이 비닐장갑 두 개를 겹쳐 끼고 만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는 앞에서... 되게 놀랐죠. 처음으로 일하는 건데... 말투도 툭툭 쓰는 편이고요, 매니저 자체가 거칠고 험해요. 반말하고..."

폭력에 노출된 건 남자 청소년만이 아니었다. 주유소에서 일한 한 여고생은 직원으로부터 맞기까지 했다.

"기름 총 쏘다가 몇 방울 흘렸어요 호스 안에 남아있는 걸 털다가. 근데 차가 가자마자 직원이 발로 허리를 차 가지고... 진짜 아팠어요. 파스 붙이고 일했어요. 제가 질뚱거리고 다니면 사장님은 오히려 저를 혼내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여고생은 "시간이 지나서 폐기된 삼각김밥 하나를 밥으로 주더라"며 "아예 주지 말든가 주려면 든든하게 배가 채워지게끔 줘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정말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숯불고기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학생은 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

"(사장님이) 자연스러운 스킨십 같은 거, 딸 같이 여겨져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서 팔 같은 데 만지고 허리 감싸고, 처음에는 얼어가지고 말도 못하다가 짜증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술 먹고 꺾안기도 했어요. 옷 갈아입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부의 관리·감독 개선이 필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의 이수정 노무사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노동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은 임금 때문에 청소년의 장시간 노동, 중노동의 구조가 양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또 그는 청소년들이 노동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으며 후사당히는 측면이 있고 어른과 똑같이 일하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실태도 개선될 부분으로 지적했다.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된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청소년 단체의 조사를 토대로 한 50%와 비교해 크게 동떨어진 수치다.

이수정 노무사는 "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업주에 대한 형식적인 질의응답으로 근로감독을 대신하고 있다"며 "또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이나 후속조치가 없어 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소년 단체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6월 한 달 동안 웹사이트(☞바로 가기)를 통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례·노동법 위반 사업장을 접수받아 결과를 취합해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 집회 탓에 장사 안 되는데…뒤통수를 쳐"

[현장]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신림동 '순대촌'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점점 늘면서 그들의 노동 인권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단체는 지난 4일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 인권 실상을 고발한 데 이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12일 오후 청소년을 착취하는 곳으로 유명한 서울 신림동의 이른바 '순대촌'을 직접 찾아가 업주를 직접 만났다. 이 곳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주로 법정 최저 임금에 모자라는 2000원대의 시급을 받으면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정한 시급은 3770원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다그치는 업주들

활동가와 취재진 10여 명이 우르르 순대촌으로 들어서자 순간 응성거리는 분위기가 됐다. 업주들은 "요새 촛불 집회 때문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와서 업무 방해하면 어떡하냐"며 "우리는 영세민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어떤 업주는 "대기업 세금도 제대로 못 건으면서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냐"고 항의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시급 2500원을 준다고 알려진 한 순대집을 찾아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비를 물어봤다. 학생이 "처음엔 2000원을 받았고 지금은 3000원을 받고 있다"고 대답하자 업주가 "뚝바로 말하라"며 "정말 2000원 받았냐"고 학생에게 따져물었다.

학생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업주는 끝내 "2000원은 준 적 없다"며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몰아세웠다. 업주가 큰 소리로 다그치자 아르바이트 학생은 아무 말도 못했다.

다른 업주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묻자 업주는 "최저 3000원이지, 그래서 3000원씩 줬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 한 업주는 못 받았던 임금을 받으러 온 학생에게 결국 돈을 줬지만 돌아서는 학생을 건물 밖까지 따라 나와 "학교로 찾아가겠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학생을 몰아세우고 으름장을 놓았다. ©프레시안

는 다른 활동가가 최저임금이 시간당 3770원이라고 알려주자 바로 업주는 "우린 3800원, 4000원씩 줬어"라고 말을 바꿨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다고 말하던 다른 업주는 "다 알아보고 왔다"고 말하자, 그때야 말을 바꾸기도 했다.

협약해진 분위기

최저임금에 못 미쳤던 임금을 받으러 단체와 함께 온 학생에게 업주들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며 크게 화를 냈다. 다른 업주들까지 몰려들자 순대촌 일대 분위기는 협약해졌다.

일부 취재진이 플래쉬를 터뜨리며 촬영하자 업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하고 방송 기자가 들고 있던 녹음기를 땅바닥으로 던져버리기도 했다.

한 업주는 동행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에게 "인간성을 그렇게 살면 안된다" "자식같이 잘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는 등 거칠게 말했다. 한 업주는 "개인적으로 따로 찾아오면 그 때 돈을 주겠다. 지금은 못 준다" "학교로 찾아가서 직접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에게 위협적으로 말했으나 결국 활동가들의 성화에 못 이겨 돈을 줬다.

그러나 한 업주는 돌아서는 학생을 건물 밖까지 따라 나와 "학교로 찾아가겠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학생을 몰아세우고 으름장을 놓았다.

스티커 붙일 때도 실랑이

최저임금 홍보 스티커를 붙일 때도 업주와 활동가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업주는 흔쾌히 법정 최저임금 스티커를 붙였지만 다른 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앞으로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스티커는 결코 붙이지 않겠다고 거세게 저항했다. 그 업주는 "먼저 붙이면 욕 먹는다"며 "다른 집이 전부 다 붙이고 나면 나도 붙이겠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활동가가 스티커를 업소에 붙여버리자 업주가 다시 떼고 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업주들은 "나만 그러는 게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더한 데도 있지 않냐"고 항의했다.

한 업주는 아예 내놓고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게 부당한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업주는 "전례가 그래왔다. 2500원 아니 3000원 줬다. 알바가 일하다가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을 배우는 데 두 달은 걸리니까 돈을 많이 못 준다. 손이 빨라져야 돈을 많이 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동행했던 이수정 노무사가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고지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잠잠해졌다. 업주의 거센 항의로 결국 경찰까지 들이닥쳤으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경찰 외에도 덩치 좋은 남성이 나타나 '왜 영업방해하냐, '신고한 청소년을 데려오

라고 욕박지르기도 했다.

순식간에 사라진 아르바이트 청소년들

업주 외에도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순대촌 일대에 시민단체에서 감시를 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인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다 내보낸 것.

업주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아르바이트 안 쓴다"며 손사래를 쳤다. 시민단체 감시단이 업주와의 길고도 거친 실랑이를 마치고 나오자 한 무리의 교복 입은 청소년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뒷문에 숨어 있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다시 들어온 것.

이들은 활동가들이 다가가자 하나같이 "아르바이트 학생 아니에요" "친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시선을 피했다. 또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답한 학생도 하나같이 입을 맞춰 4000원, 5000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지나가던 다른 학생에게 확인해본 결과 하루 전날인 11일 노동부에서 순대촌을 다녀갔고 이후 업주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시간당 3800원을 받는다고 말하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활동가는 "법률을 제정하고 실태 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주들을 직접 만나 최저임금에 대해 알리고 교육시켜 이런 흐름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또 불시에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업주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한 활동가가 스티커를 업소에 붙여버리자 업주가 다시 폐고 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프레시안

[설문지]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 ▶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노동빈곤팀에서는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 ▶ 이 설문지는 2009년 겨울방학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상 권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간단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이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내용은 서울지역의 청소년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2009. 3.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cafe.daum.net/10alibaba)

1. 성별	① 남 ()		② 여 ()			
2. 나이	① 13세 이하	② 14-16세	③ 17-19세	④ 20세 이상		
3. 급별	① 초등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④ 탈학교	⑤ 대학생	⑥ 대안학교
일한 장소와 하는(했단) 일은 무엇입니까?	4. 일한 장소 () 전화번호 ()					
	예시> 일한 장소는 ‘녹두거리 베스킨라빈스 00점’라고 자세하게 써주세요.					
	5. 하는(했단) 일 ()					
	6. 일한 장소의 전체 사람 수(사장 제외) ()명					

1-1. 「근로기준법」상 2008.1.28.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업주(사장 등)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등

노동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인쇄물 등)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인쇄물 등)으로 교부받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거나 요구했습니까? 해당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구 분	예	아니오
나이		
연소자 증명서		
야간(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노동 동의		

1-3.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일한 사람에게 직접 정해진 날에 주기로 한 금액 모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구 분	예	아니오
미리 받기로 했던 금액 모두를 받았다.		
임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에 받았다.		
임금을 나에게 직접 주었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임금을 통장으로 받았다.		

2-1. 귀하가 현재 일하고(일했던) 곳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1~3개월 ③ 3~6개월 ④ 6개월~1년 ⑤ 1년 이상

2-2. (2009년 1월~2월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평일과 주말에 한 시간은?

구분	평일	주말·공휴일
일한 시간	① 1시간미만 ()	① 1시간미만 ()
	② 1시간이상 2시간미만 ()	② 1시간이상 2시간미만 ()
	③ 2시간이상 3시간미만 ()	③ 2시간이상 3시간미만 ()
	④ 3시간이상 4시간미만 ()	④ 3시간이상 4시간미만 ()
	⑤ 4시간이상 5시간미만 ()	⑤ 4시간이상 5시간미만 ()
	⑥ 5시간이상 6시간미만 ()	⑥ 5시간이상 6시간미만 ()
	⑦ 6시간이상 ()	⑦ 6시간이상 ()
	⑧ 평일에 일하지 않는다 ()	⑧ 주말·공휴일에 일하지 않는다 ()

2.3. (평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간 평균 일한 시간은 얼마입니까?

1주일간 평균 일한 시간은 _____ 입

니다

2.4.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야간 노동에 해당합니다. 야간 수당은 어떻게 받습니까? ()

- ① 시급의 50%를 더 받았다
- ② 50%는 못되지만 더 받았다
- ③ 50%가 넘게 더 받았다
- ④ 야간노동을 하지 않았다
- ⑤ 야간노동은 하지만 야간수당은 받지 않았다

3-1.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신 장소에서 받은 시급은 얼마입니까?

2008년 시급	① 3000원 미만 ② 3000원~3770원 미만 ③ 3770원 ④ 3770원~ 4000원 미만 ⑤ 4000원 이상 ⑥ 2008년에 일을 하지 않았다
2009년 시급	① 3000원 미만 ② 3000원~3770원 미만 ③ 3770~4000원 미만 ④ 4000원 ⑤ 4000원 이상 ⑥ 2009년에 일하지 않았다.

3-2. 2009년 1.1~12.31까지 최저임금은 4,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4,000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① 해결이 됐다

② 해결이 되지 않았다

5-1. 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 ① 아르바이트 동료 ② 친구 ③ 가족 ④ 선생님 ⑤ 인터넷 ⑥ 상담소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5-2.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두 개를 골라주세요(,)

- ① 월급이 작아서 ②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③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④ 업무가 많아서 ⑤ 사장 혹은 매니저와의 관계 ⑥ 동료들과의 관계
⑦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5-3.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무엇입니까? ()

- ① 취업 및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정보
②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임금 갈취, 성폭력, 저임금 등) 대처하는 법에 대한 정보
③ 근로조건과 관련된 정보
④ 노동법과 관련된 정보
⑤ 기타 (_____)

수고하셨습니다.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빈곤팀에서는 일하는 청소년과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작은 발걸음을 떼기 위해 다음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할 때 필요한 법과 정보 등이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또한 일을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이 들려주세요. (cafe.daum.net/10alibaba 10대 알바 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질문이 있거나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연락처(e-mail 혹은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작은 힘이라도 꼭 보태겠습니다. ()

〈메이데이 집회 1차 퍼포먼스〉 소장사진, 2009. 05. 01




〈메이데이 집회 2차 퍼포먼스〉 소장사진, 2010. 05. 01



2009년 진행했던 노동인권 연속 내부 세미나 커리큘럼

주제	소주제	교육	일정	담당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위치에 대한 학습과 우리가 투쟁해야하는 이유(책: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김혜진(철폐연대 대표)	9월 17일 (목)	안그라미
		내부발제	9월 25일	나정훈
	자본주의 하에서 청소년 노동의 역사와 위상	발제와 토론	10월 9일	나정훈
한국사회의 비정규직과 청소년노동	비정규직의 유형과 실태	교육 (철폐연대)	10월 16일	안그라미
	청소년 노동의 실태	내부발제	10월 23일	
청소년노동자와 조직화	노동자 단결의 필요성과 다양한 조직화 사례교육	교육 (미정)	10월 30일	안그라미
	청소년 노동자 조직의 필요성	토론	11월 6일	
실무준비	임금, 최저임금, 생활임금	교육 (미정)	11월 13일	안그라미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법 살펴보기	이수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11월 20일	안그라미



**알바권리,
바로내가!바로지금!
직접행동**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너무 짜다! 너무 짜!
그러나 현재,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이 4,110원이라고 알고 있는
알바(청소년노동자)너무 적어요.
그리하여,
청소년 노동자들과 함께
최저임금이 4,110원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한 4,110원은 너무 적다! 그 이상을 달라는
이야기를 소박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2010년 2월 6일 11시 신촌일대에서
44만원 세대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자 하는
청소년, 비청소년 모두모두!
모여주세요!

blog.daum.net/10alibaba

〈알리바바(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1차 직접행동〉 소장사진, 2010. 02. 06



blog.daum.net/10alibaba

소금보다 더 짠 최저시급에 자신있는 목소리를,
청소년 노동자라고 무시하는 어른들에게 통쾌한 한마디를,
짜증나는 점장에게 시원하게 하이킥을!!

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2차 직접행동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최저시급이 4,110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을 써야 한다는 점

알고 계세요?

4시간 일하면 30분 간 쉴수 있다는 점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권리

사장들도 알려주지 않는 권리

그러나 일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권리

우리 알아봅시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도 찾아봅시다!!




언제? 3월 13일 오후 14시

어디서? 신림역 부근

연락처 10-6877-4648(공기)

〈알리바바(알바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 2차 직접행동〉 소장사진, 2010. 03. 13





알바권리실천세관망

3차 직접행동

에스프레소보다 더 짙 시급을 받고 있나요?
 청소년노동자 : 네_T_T

청소년 노동자라고 무시하는 비청소년들에게
 시크한 한마디가 필요하군요?!
 청소년노동자 : 주문하면 다야? 뭘데 반말?ㅋㅋ
 왁짜증나게 간섭하는 사장님에게는
 사업장을 뚫고 하이킥을!
 청소년노동자 : 올해 최저임금(4110원)이나 재매겨!


근로계약서

가 뭐 O 미? 먹는거임? 우적우적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권리
 사장들도 알려주지 않는 권리
 그대나 일할때 꼭 필요한 권리!
 잘 알아보고 우리가 그 권리를 찾아보아요!

연 제 : ?
 2010년 4월 10일 3차!
 신림역 북근!

연 락 처 :
 010-6877-4648 (공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 「햄버거 100개 팔고, 정작 받는 시급은 1개 값도 안된다고? 이것은 무슨 경우? 44만 원 세대임을 거부한다. 최저임금 팍팍 올려라!! -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1811선언-」, 기자회견문, 2010. 06. 25.

햄버거 100개 팔고, 정작 받는 시급은 1개 값도 안된다고?
이것은 무슨 경우?
44만 원 세대임을 거부한다. 최저임금 팍팍 올려라!!
-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1811선언-

우리는 알바생이다.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그 이름,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그 이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 우리는 알바생이다.

우리는 44만원 세대이다. 우리가 지은 이름도, 우리가 원했던 이름도 아니지만 우리는 44만원 세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랍시고 정해져있던 4,110원, 그 돈을 받으며 우리가 죽도록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겨우 44만원. 하지만 그보다 죽을 ‘사’를 써서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나타낸 ‘死死만원 세대’라는 말이 더 와닿는, 그리고 더 슬픈 현실이기도 하다.

4,110원이 최저임금이란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위해 법에서 보장한 시급이 4,110원 이란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시간 죽어라 일해서 햄버거 백 개 팔아도 그래서 받은 돈은 햄버거 세트 하나 사먹기도 빠듯한, 그런 시급으로 생계를 보장한다. 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가장 낮은 임금이어야 한다. 지금 청소년들에게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사업장이 그나마 좋은 사업장인 지금 현실처럼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도 경총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사장들의 요구에 분노하여 우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청소년 노동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최저임금을 제대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요구한다.

최저임금을 정말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몇 퍼센트 인심 쓰듯이 올리지 말고 팍팍 올려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햄버거 하나 사 먹지도 못할 만큼 낮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은 직접행동을 통해서 44만원 세대라는 청소년 노동자의 끔찍한 현실을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2010년 6월 25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청소년노동자와 그의 지지자 1811명 일동

청소년 “최저임금 받는 우리는 44만원 세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기자회견 열어

청소년 노동자가 1~2시간 동안 파는 햄버거 세트는 수백 개
청소년 노동자가 1시간에 받는 임금은 4,110원
4,110원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세트는 없음

최저임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은 25일 오전 10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며 요구했다.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청소년 노동의 열악한 환경과, 평가절하 된 그들의 노동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청소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44만원 세대”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44만원 세대의 목소리를 알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요구 할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실제 청소년노동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참석해 그들의 노동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다. 현재 청소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형우씨는 “알비를 한 달 동안 해서 받는 돈은 단지 40만원”이라면서 “집이 없거나 집을 나오게 되면 40만원으로는 살 수 없다. 적어도 독립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장 증언자인 날토씨는 “청소년들은 특히 알바 구하기가 어려우며, 나 역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장에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깃집 알바를 시작했는데 시급 4000원, 한 달 30만원에 식비도 지급되지 않았고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 해야 했다”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도 경총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을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몇 퍼센트 인심 쓰듯이 올리지 말고 딱딱 올려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청소년 노동자 1811명의 선언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해왔다. 이에 청소년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넉넉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받고 싶어 하고, 그것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어쓰, 「청소년도 노동자다? - 청소년 노동의 쟁점 우적우적 씹어먹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식지, 2011. 3.

청소년도 노동자다?

- 청소년 노동의 쟁점 우적우적 씹어먹기

어쓰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

청소년과 노동, 혹은 학생과 노동. 언뜻 잘 연결되지 않는 단어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소년임에도, 혹은 학생임에도 엄연히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지금, 여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노동자들을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밑바닥 인생, 44死死만원 세대, 그리고 알바생.

나를 포함해서, 주로 청소년인 내 친구들 중 소위 말하는 ‘알바’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근 4년 이내에 노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0%에 다다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死死만 원 세대라 일컬어지며 정말 최소한의 노동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작년 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노동할 당시 시급을 ‘4,000원(그 당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4%에 이르렀다. 이는 노동부에서 그 해 여름방학동안 807개 사업장을 근로감독 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사례가 28건으로 1.3%’라고 발표한 결과와는 사뭇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휴일을 받는 경우는 유급 6%, 무급 34%로 약 40%였다. 그 밖에도 노동재해가 발생하였어도 대부분은 제대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청소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력에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의 탄생

그렇다면 청소년 노동자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이것은 청소년기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아동기, 청소년기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성인과 아동, 청소년

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그 시대의 가족은 생산과 소비, 재생산의 통합된 단위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미 그 때부터 온전한 한 인간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상황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가구 단위였던 경제활동이 점차 사회의 영역으로 넓어지고, 가족이 더 이상 생산과 재생산의 장소가 아니게 된 부르주아 가족들이 등장하면서 ‘경제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써의 가족의 개념이 생겨났다.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초기까지만 해도 청소년 노동력은 굉장히 주요했다. 작은 기계 사이사이를 기어다니며 사이에 낀 물건 따위를 빼는 등의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아동과 청소년이 맡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는 사회 전체의 인구수에까지 타격을 주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은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시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회적 담론이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돈 버는 ‘아빠’와 집안일하는 ‘엄마’, 그리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길러지는 ‘아이’로 이루어진,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이데올로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자본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여성과 청소년은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었다. 이때 노동현장에서 쫓겨난 여성은 가정에, 그리고 청소년은 학교에 갇히게 되면서 여성인권과 청소년인권 -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또한 - 크게 실추된 것이다.

학생이 무슨 돈을 버냐고?

“학생은 공부나 해야지”, “용돈벌이 아냐?”,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힘든 노동을 해서야...” 등등.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여러 가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청소년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은 ‘알바생’, 즉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다. 결국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는 시선의 제일 밑바닥에는 학생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여전히 깔려 있고, 그런 인식이 “학생이 무슨...” 따위의 말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기에 엄연히 존재하는 청소년 노동자는 부정된 채 “미래를 짊어질 우리 사회의 기둥”, 즉 지금 죽어라고 공부해서 미래에 화이트칼라의 직장을 얻을, 미래의 노동력이라고만 말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과 요식업들, 그리고 영세한 사업장들에서는 거의 100% 청소년 노동력만으로 그 시스템을 굴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노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 노동자들을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밀어넣는 것 밖에 되지는 않는다. 그 의도가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이 노동하려고 할 때 부딪치는 수많은 ‘보호’라는 이름의 장벽들이 있다. 부모님 동의서, 노동시간 제한 등 어른들이 “다 너희를 위해서야”라고 말하면서 세우는 장벽들에 청소년 노동자들은 수없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다는,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한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할 경우에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들켜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주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호주의는 이런 식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끝으로

성인들이 노동을 할 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 하지만 청소년이 노동을 할 때 어른들은 “돈 벌어서 뭐하고 놀려고!”라며 청소년들을 ‘선도’한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신의 노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단지 나이가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이다. 모든 청소년=학생이라는 명제를 이마에 써 붙이길 강요하는 사회에, 청소년도 노동자일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할까.

〈청소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기자회견〉 소장사진, 2010. 06. 25



3부

보호주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보호주의’라는 벽에 부딪히곤 했다. 청소년 미성숙론은 늘 보호주의라는 울가미를 불러오곤 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인권 담론의 사회적 확장을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주의에 정면으로 맞설 만한 대안적 담론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적 요청이 2007년 무렵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11월 ‘아이건강국민연대’ 포럼에서 발표된 이용중 사무총장의 글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와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극단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운동사회 내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또한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청소년의 야간 집회 참여를 경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또 한 번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하반기, 네트워크 내부에 ‘보호주의팀’을 결성하여 청소년보호주의에 대한 대항 담론을 만든 이후 보호주의 깨기 활동의 방향을 잡아가기로 했다. 보호주의팀에는 개굴, 난다, 또또, 주맹, 게로게론, 쩡열이 활동하였다. 보호주의팀은 셋다문제, 교과서 속의 보호주의, 성적(性的) 보호주의 등에 관한 몇 차례 내부 세미나를 거쳐 ‘보호와 보호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보호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집중 논의했다. 2008년 11월 무렵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09년 4월 네트워크의 교육 워크숍이었던 ‘빨강물고기’에서 발표되었다.

2008년 하반기 의욕적으로 팀이 구성되었지만, 보호주의라는 모호한 대상을 붙들고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또 팀이 결성된 지 얼마 못가 팀원들 여러 명이 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팀의 활동력이 대폭 축소되었고, 일제고사 대응 등 다양한 현안들에 밀려 세미나가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못했다. 결국 의욕적으로 구성된 보호주의팀은 몇 차례의 세미나 결실을 2009년 4월의 워크숍 <‘레드 존’(청소년 금지구역)을 탈출하라! -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기>를 통해 발표, 공유하는 것을 끝으로 왜소하게 막을 내렸다.

그렇지만 워크숍을 통해 보호와 보호주의의 차이가 조금은 명확히 구분되면서 이후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청소년 보호주의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한결 수월해졌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의 이용중 사무총장의 사과와 추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사업에 대한 미발표 성명서, 2007. 12.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의 이용중 사무총장의 사과와 추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저소득·빈곤 아동의 영양과 건강권 증진을 위한 기획포럼' 자리에서 우리는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의 이용중 사무총장의 발제문을 접하고 그 논리가 지니는 심각한 위험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용중 사무총장이 그간 '국민연대' 활동을 통해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법안'을 안민석 의원실에 제안하여 발의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공약으로까지 제안해 왔기에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급한 대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와 같이 성명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이용중 사무총장과 '국민연대'는 아동·청소년과 국민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중 사무총장은 '국민연대' 결성 제안글을 비롯한 모든 글에서 '환경오염과 컴퓨터 중독,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 경쟁중심의 양육문화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불임증가, 선천성 장애아 증가, 습관성질병 창궐, 각종 정신질환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노동력 상실과 노동력 저하가 심화되고 이는 결국 국가의 지속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용중 사무총장이 지적한대로 환경오염과, 시장논리, 경쟁 중심의 양육문화가 아이들의 건강 문제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용중 사무총장의 논리가 결국 '국가(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력 관리'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대'의 대신 정책 제안 자료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활기차게! 한반도를 청정하게! - 아이들 건강 나라의 미래를 되흔들고 있다'라는 글을 보면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 '젊은이들의 정자 수와 정자의 운동성', '조기생리 실태', '청소년 흡연 실태', '게임중독 실태', '양수의 오염실태', '비만실태,

'제왕절개 및 유도분만 실태', '모유수유율' 등을 국가가 매년 기본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최악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을 만든다'고 서술하면서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한 실천 강령'을 만들어 광범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력진단, 게임중독 진단, 비만진단, 흡연실태 등을 통계 처리하여 학교평가의 척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를 위해 섣다운 제도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게임등급을 강화하며, 자녀의 게임시간 정보 등을 친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호자의 권리를 강화하지는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국민연대가 제안하여 안민석 의원실에서 발의한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법안'에서는 학생체력증진과 비만관리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관할 기관, 학교에서 각종 정책 수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가 매년 학생의 체력 및 비만상태 등을 검사하여 건강기록부에 그 등급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제안들은 결국 청소년을 자기 주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로부터 보호,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국가 노동력 관리를 위해 출산과 양육 문제까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용중 사무총장의 글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극단적 민족주의에 근거한 우생학적 접근의 위험성.

이용중 사무총장의 주장이 지니는 보다 심각한 위험성은 그 논리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근거한 우생학적 유전자 결정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글들에서 이용중 사무총장은 '동성애자/트랜스젠더 증가', '장애아/ADHD/아토피/정신질환 증가' 등이 모두 환경오염, 식습관 문제 등으로 인한 유전자 변형, 양수와 모유 오염의 결과인 듯이 서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족유전형질 퇴행'을 앞으로 발생할 심각한 문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용중 사무총장의 논리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생학적 유전 형질을 보존하기 위해 국

민들을 관리, 통제해야 한다는 위험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둘째,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조장.

또한 이용중 사무총장의 글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증가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현대사회의 주요 병리현상으로 지적하고 '장애아/정상아',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아이들의 ADHD'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동성애와 ADHD, 그 밖에 선천성 장애와 정신질환 등에 관해 오해와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논리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생태계 파괴와 유전자 조작, 방사선 처리, 각종 화학물의 남용도 서슴지 않는 무책임한 시장주의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환경오염, 아동/청소년의 감수성을 메마르게 하는 경쟁 위주의 교육, 정보화 사회의 각종 문제 등 이용중 사무총장과 '국민연대'가 지적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이 각종 선천성 질환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 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태농업 지원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지원, 예방의학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동성애자/트랜스젠더와 장애인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이용중 사무총장의 주장은 엄청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왜곡된 논리이며 심지어 섀도우세 도입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통제하고 '양수검사' 등의 통계처리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수집, 관리하는 등 여성의 출산, 양육을 국가가 관리, 통제해야 한다는 제안은 자율적 주체로서의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이용중 사무총장이 '국민연대'의 결성을 주도하고 주요 정책들을 작성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이용중 사무총장의 논리가 17대 대선 정책 제안서를 비롯한 '국민연대'의 사업과 정책들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이용중 사무총장은 자신의 글에서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 대해 사과하십시오.

하나,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의 이름으로 제안된 법안과 정책들이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연대’의 사업과 법안,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

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아동/청소년을 자기 결정권을 지닌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 통제하고자 하는 섣다운제 도입, 게임/비만/체력/흡연 관련 통계를 학교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는 정책 제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국민연대’의 사업을 전교조 핵심사업에서 제외 하십시오.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는 이용중 사무총장과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규탄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7. 1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화연대 + 연명단체

촛불이 낳은 고민들 속에서

이수나로 이야기 - 공현

촛불과 청소년인권 사이

이수나로 서울지부에서 최근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단연 그 촛불집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자율화가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할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출하고, 쿼터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빨강물고기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도있기는 했으나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촛불집회에 관련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촛불과 청소년인권사이"라고 달아보았지요.

이수나로(서울지부뿐 아니라)가 처음에 초점을 맞춘 것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찰이나 교육청 그리고 학교들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청소년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보호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수나로 차원에서 <현재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에 대한 청소년인권단체로서의 우려>라는 글을 써서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들이나 카페들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좀 까칠한 글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그리 좋았던 거 같진 않습니다. ㅋㅋ;

(참 관련 글로 <청소년들을 평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라!> 요런 성명서도 썼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5월 17일에 '휴교시위'를 하지는 문자메시지가 돌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청소년들의등교거부에 대해 그토록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이 사회는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불복종 행동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을 반겼던 것에 비하면 잘 이해가가지 않는 모습이지요. -_-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의 표현이었던 5월 17일 휴교시위문자메시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나다 및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5.17 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을 꾸리고 열심히준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단체들과의 의견 충돌이나 마찰도 좀 있었구요. 여하간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5.17 청소년행동을 끝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후후... (휴교시위 문자 처음 돌린 사람을 잡아서 집회 준비에동참시켜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수나로 서울지부는 5.17 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에서, 이 이른바'촛불정세'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와 청소년들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촛불정세는 분명청소년인권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전개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촛불정세는 여러 가지이야기들을 모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광우병" 또는 "반 이명박"에 묻히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으며, 더 많은청소년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묻어버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 안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이나 보호주의적인시선들은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5.17 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in 서울)은 "거리를 학교로 도로를칠판으로"라는 표어와 함께 거리에 락카칠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분필로 아스팔트에 글씨를 쓰며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단지외선전물 등으로 청소년들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효과는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촛불소녀"

이수나로 서울지부가 활동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이제 이 촛불정세가 던져주고 있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이 촛불정세는, 청소년들(10대들)이 그 처음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사회 참여와 그런 정치/사회참여를 이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측면이 모여 있는 상징적 아이콘이바로 "촛불소녀"입니다.

"촛불소녀"는 처음에는 나눔문화라는 단체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기획의도가 청소년들의주체성, 적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 그려내는 것이었는지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있습니다. 제가 나눔문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순 없는 노릇이니깐요.

그러나 나눔문화가 촛불소녀를 만들기 전부터"아이들이 무슨 죄나 우리들이 지켜주자"("우리들"이란 표현도 문제지요)라는 종이피켓을 나눠주고 있었고 촛불소녀 기획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나비판은찾아볼 수 없었으며, 촛불소녀를 만든 이후에도 그런 종이피켓들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나눠주고 있었다는 점은 지적해야 합니다.또한 <촛불소녀의 코리아> 카페의 공지에 올라가 있는 글 중에는, 우리 10대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다며, 청소년들의행동을 깜짝하다고 표현하는, 기존 비청소년들(어른들)의 여러 차별적 시선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촛불소녀"라는 상징의 내용과 뉘앙스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주의적/차별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촛불소녀는 현재 집회현장이나 운동 속에서의 청소년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문제작이었으며, '촛불'이라는상징과 함께 '소녀'라는 이미지를 내세움으로써 지켜줘야 할 약자, 혹은 순수한 존재로서의 (여성)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는기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촛불소녀"는 이 촛불정세 곳곳에서 눈에 띄는 청소년들에 대한차별적/보호주의적 시선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럼에도 촛불소녀의 이미지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촛불소녀가,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나타난 상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소녀는, 처음 그 아이콘과 단어를 만들어냈던 기획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간에, 촛불정세 속에서 두드러지는 청소년들의 활발한 활동 속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성을 표현하는 아이콘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집회 현장에서 "촛불아줌마" "촛불노동자" "촛불대학생" "촛불회사원" 기타 등등의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처음에 '촛불'과 '소녀'를 결합시킴으로써 강조되었던 촛불소녀의 그 '특별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희석되기도 했습니다.

촛불소녀는 요컨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촛불집회 안에서도 강고한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보호주의 사이에서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리고 그런 변화하는 면들, 이중적인 면들이 이수나로와 같은 청소년인권단체를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이지요. 청소년들의 평등한 정치적 권리나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촛불정세와 청소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런 이중적인 부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서울지부는,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 더욱 더 집회 현장과 촛불정세 속에도 고집스레 자리잡고 있는 '미성년자' 보호주의나 차별별에도 전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겠군요. ^^;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더 나누고 심화시킬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참고>

<성명서> 청소년들을 평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라!

이 땅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는 오래전부터 무시당해 왔다. 특히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이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과민 반응들은 그런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치사찬란한 태클을 걸고있는 정부와 일부 언론들에게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는 짜증의 마음을 듬뿍 담아 전달한다.

잠시 과거를 상기하자면, 2003년에도, 2005년에도 청소년들의 집회에 대해 정부는 까칠하게 반응했었다. 법을 개정해서 '미성년자'를 집회에 동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사들과 장학사들을 동원해서 청소년들의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와 두발자유 집회 참가를 봉쇄하려고 했었다. 많은 언론들이 청소년들의 집회 뒤에 배후세력이 있을 거라고 떠들어댔으며, 청소년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왔다.

2008년, 올해에도 발전은커녕 퇴보한 빨깃들만 눈에 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점점 커지

자, 교육부와 교육청은 또 ‘감수성이 예민하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회 참가를 막도록 하는 지침을 학교로 내려 보내고 있다. 교사들을 동원해서 집회장 주변에 배치하고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괴악한 짓도 여전하다. 몇몇 언론들은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를 놓고 “연필 대신 촛불”을 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배후세력이 있을 거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연예인들이 몇 마디 하나까 10대 팬들이 무작정 따라 나왔다, 아직 미성숙하고 충동적이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에 속은 거다, 등등헛소리를 하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놀이문화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놀러나오는 거라는 이상한 분석을 내놓으며 청소년들을 어떻게든 ‘정치적이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려 애쓰고 있다.

올해에는 경찰과 검찰까지 가세해서, 5월17일에 휴교시위를 하지는 문자를 얼토당토않게도 “업무방해”니 어쩌니 하면서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말이지 이런 발언을 하는 인권의식 미성숙한 검찰총장부터 인권교육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문자메시지를 추적해서 학교까지 찾아가서학생들을 만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교장을 만나고 왔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며, 이미 인터넷에서는 ‘미성년자가 촛불집회 참가하면 사법처리 된다.’라는 식의 사실과는 다른 공포 조성 유언비어가 떠도는 판인데, 이에 대해 경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도대체 경찰이나 교육청,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안전과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교육청 같은 애들을 막는 것 아닌가 싶고, 만일 정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는 평화적인 집회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할 권리,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류의 캠페인이라도 전개해야 하지 않나 싶다. 자신들이 정말 민주 정부이고 인권 경찰이라면 해야 할 일들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저 안타까운 정부기관들은, 정말이지 언제까지 그따위로 할 건지 모르겠다. 답이 안나온다.

또한 이수나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들이 비단 정부나 경찰, 일부 언론들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보호주의, 청소년들을 ‘철없는’ ‘충동적인’ ‘미성숙한’ ‘미래로 유보된’ 존재로 보는 인식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소년들조차 거리로 내모는 정부”라는 표현 속에도, “철없고 순진한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지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주장에서도, “어른들이 잘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어린 학생들이 거리에 나왔다.”라는 탄식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광우병이 아닌 미래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여는 주최측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동의서가 없으면 연행당할 수도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은 자진 귀가 조치시킵니다.”라는 안내 문구에서도, 모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도 가입한 아동권리협약 등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의견반영권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비청소년들과 대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 이 사회에 커다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의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 ‘특별한’ 시선을 보내왔다. 비단 정부나 언론 뿐 아니라 많은 ‘어른들’과 때로는 몇몇 ‘청소년들’ 또한 청소년들을 평등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 결과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의 행동 자체에 반대하진 않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를 뭔가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시혜대상인 것으로 위치시키거나 그 행동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누가 내몰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학업에만 열중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마냥 철없고 순진하지도 않고, 부모동의서가 없다고 연행당한다거나, 밤 10시 이후에 집회장에서 쫓겨나야 할 이유도 없고, 미래가 아닌 현재에 살고 있다. 청소년들은 비청소년들과 평등하게 연대하는 운동의 주체이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사회를 ‘물려받는’ 그런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인권의 주체이자 정치의 주체이며,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나 학교자율화 조치 등의 정부 정책들에 대해 스스로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찰, 검찰, 교육청,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언론들, 그리고 행사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언론 등은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고 깎아내리는 모든 조치와 발언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1.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행동 등에 개입하고 있는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을 보호주의적, 시혜적, 차별적 태도로 대우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는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 진정이나 다른 항의/불복종 활동,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응팀 구성, 청소년들이 평등한 주체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과 발언 등을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함께 적극 조직하고 계획할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2008년 5월 8일

"미성년자 석방하라"의 함정

자유기고 - 난다

"고시철회, 협상무효",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촛불집회의 사람들은 거리행진을 계속하고있다. 경찰은 이것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면서 행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해가고 있다. 연행된사람들 중에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연행된 청소년들에 대한 기사가 뜨면서 인터넷이시끌시끌하다.

기사의 내용은 주로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학생들', "집에 가고 싶어요" 여중생의 눈물, "미성년자는석방하라"... 끝내 모두 연행 등의 내용이다.

나는 최근 촛불집회와 가두시위에 몇 차례 참가했던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자량은 아니지만 시위 때 경찰에연행도 한 번 당했었던 청소년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지금 '미성년자 연행'에 대한 언론의 시선은, 무고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해가는 상황에 대한 것보다는'연약하고 어린 여중생', '눈물 짓는 어린 학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기사를 보면,'여중생'으로 보이는 10대가 연행버스 창문을 통해 "집에 가고 싶다"라고 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들을 연행해갔다, 는 내용인데 현장에 있던 당사자로서 말하자면 사실 그 때 그 청소년은 "집에 가고 싶다"가 아닌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 촛불집회의 정당함을 알리는 얘기를 외쳤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여중생, 중학생'이라는 이미지(?)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못미"라는 목소리를 담고서 '중학생', '어린 학생' 등 '약한 자의 이미지'로 비치게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그저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청소년을 청소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에서 나는 문제를 느끼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행동하고 직접자기 요구를 말하는 것에 "미성숙하니까", "위험하니까" 등등의 이유로 한계를 두고 비청소년들이 그걸 대신 해주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청소년을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부당한 연행 자체보다는 '저 어린 애들까지 연행해가는 것에 더 분노하고 있다. 마 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저 어린 애들까지도 거리로 나오게 내모는 정부를욕하며,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정지으려 한다. 여성과 남성

등 성별의 차별이 부당한 것처럼, 청소년과 비청소년도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또 집회에서 시간이 늦어지거나 전경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청소년들은 그만 집에 가지 그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는 '보호주의'의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자주 눈에 띄는 문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그래서 내 친구는 "어른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피켓을 만들어서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위험한 건 다 같이 위험하지 않은가? "미성년자는 석방하라!"는 얘기도, 결국 '미성년자'에 대한 평소의 좀 차별적인 상식에 근거한 것일 뿐, '미성년자'만이 특별히 석방되어야 할 논리적인 근거는 별로 없다.

우리 이제 "왜 우리만 풀어주냐. 모두 다 석방하라."라고 청소년들이 피켓을 들고 참여하거나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가 아닌 "모두 함께 우리의 삶을 지키자", "서로를 지켜주자"는 구호를 함께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배경내(개굴), 「우리 안에 나부꼈던 너, 넌 누구였니? - 촛불의 ‘아이콘’ 들에게 보내는 투덜거림」,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08년 9·10월호

우리 안에 나부꼈던 너, 넌 누구였니?

촛불의 ‘아이콘’ 들에게 보내는 투덜거림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이 글은 ‘촛불’에 대한 전체 평가가 아니다. 촛불의 거리에 등장했고 사람들과 함께 나부꼈던 촛불의 아이콘들에 대한 그저 그런 투덜거림이다. ‘아이콘’에는 우상이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촛불의 아이콘들 역시 우상처럼 많은 이들의 마음을 끌어 모았고 비틀거리며 진화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우상이 수행하는 역할에 불편함을 느꼈고 이탈을 꿈꾸었다.

촛불의 아이콘들을 고정된 무엇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진화해 나갔는지, 적어도 촛불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촛불이 사그라지고 있는 지금 촛불의 아이콘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철 지난 해수욕장에서 냉차를 파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래도 뜨거웠을 때 차마 꺼내기 힘들었던,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 똑같은 순간을 함께 했어도 기억을 편집하는 방식은 다르니까.

아래 촛불 아이콘들에게 보내는 편지 평소 한 투덜 하시기로 소문난 입담꾼 네 사람과 나는 긴 수다를 바탕으로 쓰였다. 함께 쓴 글인 셈이다.

<함께 수다 떠는 사람들>

- 김강기명, 안티고네(수유+너머)
- 양아치(교육공동체 나다)
- 용석(전쟁없는세상)

1. '촛불소녀야, 그 많은 '소년들은 어디로 갔니?

촛불의 거리에서 처음 너를 봤을 때, 가슴이 몽클했었어. 한국사회가 이제야 십대 여성들을 조금은 정당하게 대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5월 2일 첫 촛불이 타올랐을 때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 중에 십대 여성들이 정말 많았잖아. 그녀들은 당당했고 발랄함과 절절함을 잘 버무려 맛깔나게 외칠 줄 아는 듯이 보였어. 그녀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뇌리에 깊이 아로새겨졌고 더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는 주문이 되었어. 그리고 얼마 후 바로 네가 나타났던 거야. 십대 여성 말고 누가 촛불집회의 상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겠어? 왜 하필 교복을 입고 있는 거야(복장자유 좀 하지), 왜 하필 '몽실언니' 머리아(두발자유 좀 하지), 왜 혼자 촛불을 들고 있는 거야(십대여성들은 관계와 연대를 바탕으로 촛불에 나왔건만), 뭐 이런저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것까진 욕심이다 싶었지.

그런데 돌아켜보면 넌 차라리 만들어지지 않는 편이 더 나왔겠다 싶어. 네가 등장하고 특정한 방식으로만 소비되면서 오히려 십대, 특히 십대 여성의 주체성과 역동성을 묶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너, '촛불소녀'를 처음 만들었던 나눔문화에선 거리에 쏟아져 나온 소녀들의 순수함과 민감한 감성,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기획이었다고 이야기했지. 정부가 탄압의 강도를 높여갈 때마다 너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해갔어. 성난 표정으로 마이크를 들고 일침을 가하는 모습으로, '물 쏘지 마'란 머리띠를 동여맨 다부진 모습으로. 그렇게 겉모습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넌 여전히 '소녀' 안에서 맴돌았던 것 같아.

거리로 나온 십대 여성들을 단지 본 땀을 뻘인데 뭐가 문제냐고? 촛불의 상징으로 '소녀'를 선택한 이유가 단지 그뿐이었을까? 소녀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순수함, 순결함 때문에 넌 촛불집회가 지금까지의 정치적 집회와는 다른 집회임을 드러내는 데 아주 적합했어. 정치적이지 않은 행위란 없는데도 말이지. 또 아버지나 남성으로 상징되는 기존 권력의 대척점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성이 적합했기에, 성인 여성에 비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남성들이 덜 적대감을 갖기에 '소녀'인 네가 촛불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게다가 십대 여성이 거리로 나온 이유를 보살핌에서 찾는 사람도 여럿이었어. 군에 간 오빠, 자기가 열광하는 연예인 오빠들을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왜 십대여성은 순수함과 보살핌의 코드를 통해서만 정치화될 명분을 얻게 되는 걸까. 왜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만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너의 탄생뿐 아니라 네가 촛불집회에서 소비되는 방식 역시 그랬어. 너를 만들어낸 나눔문화에선 이런 피켓을 함께 들고 나왔지.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가 지켜주자." 소녀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순간, 십대들은 끊임없이 변주하는 역동적 주체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었어. 소녀라는 이미지에 갇힌 순간, 거리에 실재했던 십대들, 특히 십대 여성들의 그 다채로웠던 모습도 가려지기 시작했어. 노가바로, 핏대 세운 구호로, 재기발랄한 피켓으로, 걸쭉한 욕지거리로, '우리가 두렵지 않느냐'는 으름장으로 거리를 다채롭게 나부꼈던 십대 여성들의 모습 말이야. 같은 시위대의 밤 10시 귀가 종용에도 '어차피 학원도 새벽 2시에 끝나요'로 되받아치던 배짱마저도. 대신에 촛불집회의 정당성과 송고함을 보여주는 순결한 상징으로만 주로 호명되곤 했

지. 고 이병렬 씨 노제에서 너를 가슴에 달고 나온 십대여성이 맡은 역할만 봐도 그래. 왜 그녀는 동지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숭고한 죽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만 동원된 듯이 보였던 걸까?

아마도 십대들을 두려워한 건 이명박만이 아니라 촛불의 성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이 정부에 대한 분노가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예측불가능한 세대에 대한 초조함, 상징으로 머무는 것으로 충분하니 안전하게 공부나 해라라는 그런 마음들 말이야. 그래서 너라는 아이콘 안에 십대들을 가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학교 운동장 한 가운데 배치된 구령대는 학교 권력의 상징이야. 남근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 십대들은 교장의 호출 없이도 연대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어. 스스로 주체가 되고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닌 십대들을 운동이 외려 가뒤편에서는 안 되지 않나. 국민 여동생 '문근영'만 남기고 그 당췌던 '쏘녀'들을 쫓아버려서는 안 되지 않나.

코스프레에서 군대로 변해간 '예비군복'에게

이런 코스프레도 나오다니!!! 처음 네가 촛불집회에 나타났을 때 제법 괜찮은 의상 연출이라는 생각을 했었어.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을 상징하기 위해 너를 입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국가의 상징인 군복을 입고 국가에 반기를 든다니, 카~ 예비군까지 시위대 안에 있는 걸 보면 청와대에 있는 그 양반 심장이 좋아들 거야, 보는 전경들도 참 마음이 어지럽겠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 시민들에게 갈채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비군복 입으면 개 된다는 이야기도 이젠 좀 달라지겠구나 싶었지.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나 봐. 너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집단화되면서 너는 어느새 군복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 있더군. 소대를 만들고 보급병을 세우고 무전병을 세우고 명령체계를 갖추면서 예비군 놀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어. 너를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입기 시작하면서 너는 촛불 안에서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처럼 보였어. 시위대의 일부인가, 아니면 시위대를 보호하는 중립지대인가 사이에서의 혼란. 네가 중립자이자 보호자를 자처하는 순간, 너는 어느새 시민과 분리되어 호령하는 자가 되어 있더군. 알다시피 보호자와 명령자는 동전의 양면이잖아.

처음 너를 불러낸 건 무엇이였을까. 평범한 시민들이 전경에게 토끼몰이를 당하면서 무적의 예비군을 떠올려냈을 수 있어. 운동 경험이 없으니 시수대가 아니라 예비군을 생각해낸 거겠지. 20대 초반 그 눈부신 시기에 군대에 끌려갔고 제대 후 살인적인 취업 준비에 내몰려 있던 젊은이들이 일종의 해방구를 촛불에서 발견하고 예비군으로서 당당하게 입성했을지도 몰라. 그래, 넌 국가에 의해 착취당했던 너를, 백수 공포에 내몰린 너를 중심으로 촛불을 들었어야 했어. 그런데 급진적인 '반국가'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너는 외려 '또 다른 국가'가 되어 버렸지. 예비군제도에 태클을 걸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어.

네가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야. 폴리스라인을 자처하니 최선두에 서게 되고 그만큼 많이 다치고 연행의 표적이 되는 일도 많아졌을 테니까. 그런데 바로 수고가 문제였어. 네가 군으로서 보호자를 자처하는 순간, 이전까지 힘을 모아 스스로를 방어하던 시민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응석을 부리기 시작했어. 너와 시민은 합

게 하지 못하고 서로를 대상화시켜 버린 셈이지. 보호자라는 강박에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일까. 너는 집회 안에서 너무 많은 불안감과 경계를 조성했어. 피해라, 뒤로 빠져라, 산성 쌓기는 안 된다,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 등등. 그렇게 보호에 대한 강박은 촛불의 역동을 가로막고 분노를 조절하고 자신감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지.

너는 촛불을 남성화, 군사화하는 데도 한 몫 단단히 했어. “여성들과 청소년은 뒤로 빠지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이른바 ‘성지순례’가 시작됐지. 너를 불편하다고, 너의 보호 따윈 받고 싶지 않다고, 너는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의 블로그를 찾아다니며 공격을 해대는 남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민이 아니라 군이 되는 순간, 모종의 엄숙주의가 생기잖아. 국가와 똑같이 조롱이나 비판을 견디지 못하지. 보호자라는 대의가 부정되는 순간, 피해의식이 폭발하면서 보호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 거야. 네가 일사분란 군대체계를 갖추면 갖출수록, 시위대 안에 군대를 가져오면 올수록, 시민들 속에서도 ‘대열 정비’, ‘뺑세게’와 같은 구호들이 떠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전경들을 패러디하기 위해 등장했던 그 구호들이 시위대 내부의 행동 통일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더라고.

넌 국가의 폭력을 조롱하는 상징으로서, 다양한 이유와 정체성에 기반해 거리를 메운 시민들 가운데 일부가 되었어야 했어. 국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할 수 있었던 네가 국가의 일부로 다시 흡수되어 버린 그 불편한 진실과 네가 마주했으면 좋겠어.

3. 달라진 ‘태극기’, 여전한 ‘태극기에게

확실히 2002년 월드컵 때와는 달랐어. 2008년 촛불의 거리에서 너는 정말 다양한 의미로 나부꼈고 새로운 쓰임새를 보여줬지. 사람들이 너를 들고 촛불집회에 나온 이유는 다양했던 것 같아. 쏟아지는 물대포 앞에서 네가 “대~한민국 짹짹짹” 구호와 함께 버티고 있을 때, 넌 촛불의 당당함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지. 누구에게 넌 ‘광장’의 출입증과 같은 의미로 다가가는 듯 보였어. 반미의 상징으로도 안성맞춤이었고, 독도 논쟁과 ‘건국절’ 논쟁이 불붙고 난 지난 광복절, 유관순 열사 퍼포먼스에서 ‘대한 촛불 만세’ 구호와 나란히 등장한 너는 제국의 오만과 친일 역사를 지우고 싶은 욕망에 제동을 거는 상징이기도 했어. 물대포를 막는 우산으로, 젖은 몸을 닦는 수건으로도 쓰이는 너를 보면서도 너를 바라보는 엄숙주의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 좋기도 했고.

의미와 쓰임새가 다양해졌다곤 해도 너를 보는 마음이 마냥 편해지지는 않아. 어떤 사람에게겐 네가 ‘난 빨갱이가 아니야’라는 표식처럼 보였어. 자기와 운동권을 구분하기 위한 신분증명서를 찾는 레드컴플렉스의 발현. 너는 또 촛불을 끄고 싶어 안달난 이들에게도 꽤나 쓸모 있는 녀석 같았지. 촛불 반대 집회에서도 나부꼈던 너, ‘명박산성’이라 불린 컨테이너 박스 위에 경찰이 떡 하니 붙여뒀던 너. 시민들이 스티로폼 계단과 토성을 쌓아 명박산성을 밟고 올라섰을 때 결국 쫓았던 것도 너였지. 그걸 보면서 왜 우리는 저항의 상징을 따로 만들지 못했을까, 국가에 저항하는 공간 안에서도 국가의 상징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까 씩씩해지더라고.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부강한 나라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촛불 안에 이식시키고 싶었던 존재도

바로 너였어.

국가의 상징을 저항의 상징으로 자꾸만 차용하다 보면, 그 저항은 결국 국가주의 틀 안에 갇혀버리지 않을까. 시민들의 주체성과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밀어가지 않고 공화정(온정적 국가와 대의민주주의)을 염원할 때,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느냐에 대한 경계심은 흩어져버리는 게 아닐까. 너를 들고 시민들이 국민으로 자기를 호명할 때, 국민이 되지 못한, 국민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배제되어 버리는 건 아닐까. 이명박을 찍었던 부국강병의 욕망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명박을 반대하는 모순을 넘어서야 하지 않나.

사실 내가 불편한 이유는 우리 운동의 빈곤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게 더 솔직하겠지. 87년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가 저항의 상징으로 나부껴야 한다는 건 우리 운동의 상상력과 문화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국가는 아주 정상적일 때조차 감시와 통제의 대상일 뿐 우리가 기댈 만한 무엇이 아닌데 국가의 상징에 계속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그래서 국가가 만든 경계를 넘어 집단적 저항의 기억을 상징할 다른 무언가, '반정부면 어때?'를 욕망할 수 있는 상징을 찾아내는 건 꼭 필요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 이제 너와 안녕을 고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4. 불청객에서 환영받는 손님으로 진화한 '깃발'에게

처음 넌 촛불의 거리에서 잘 볼 수 없었어. 네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촛불을 분열시키고 싶어 안달이 난 언론들은 그랬었지. “거봐. 이제 촛불엔 일반 시민은 사라지고 운동권만 남았다고” “순수했던 촛불이 반정부시위로 변질됐다.” 그런 공격 탓이었을까. 촛불을 든 시민들 중에서도 널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물대포도 끄지 못한 촛불, 깃발이 끌 수 있다. 깃발 내려!” 깃발=과격=빨갱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먹히고 있다는 건 참 비참한 일이야. 꼭 레드컴플렉스가 아니래도 넌 누군가에게는 불안한 존재였다. 촛불이 단합과 일치의 상징인 반면, 넌 그 아래 나는 속해 있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촛불을 가르는 무엇이라는 인상을 줬으니깐 말이야. 그런데 처음엔 불청객이었던 네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운동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요구를 담은 너의 등장은 재치 넘치는 수제 피켓만큼이나 촛불의 역동성을 잘 드러내주었지. 5월말 인터넷 패션동호회 소울드레서는 ‘너, 배운 여자인가’라는 수컷 흥미로운 문구가 쓰인 너를 들고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지. 그렇게 ‘운동권’의 전유물로 보였던 넌 점차 다양한 색깔로 자기를 표현하는 매체가 되었지. 확실히 네겐 ‘우리가 바로 해방된 거리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드러내는 미학적 힘이 있는 것 같아. 네가 나부껴줘야 풍광이 나온다고나 할까. 넌 실용적으로도 꽤 쓸모가 있음을 증명해줬지. ‘토론의 성지 아고라’ 깃발처럼 개인으로 나온 이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처음 나온 이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규합하는 실용적 중심이 바로 너였거든. 물대포를 막고 소화기 가스를 거둬내고 불법채증을 막는 데도 넌 그만이었어.

그렇지만 때로 네가 조직의 선도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때, 덩치를 키워 뾰대를 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낼 때, 넌 불편한 존재로 다가오기도 했어. 신부님들이 깃발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침묵시위 다짐

을 받아냈을 때처럼, 넌 너의 아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지워버리는 본질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싶었지. 스티로폼 계단과 토성을 쌓아 명박산성 위에 올라갔을 때 힘차게 나부꼈던 너를 바라보는 마음도 착잡했어. 앞다투어 너를 들고 올라가는 이들을 보면서, 산성 위의 너는 고지를 '점령'하고 달을 '정복'하고 적지를 '탈환'할 때 꽃혔던 너와 다를 바 없어 보였거든. 점령의 끝은 내리막. 승리를 선언하는 순간, 우리가 넘지 못한 벽이 여전히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현실은 지워지지. 네가 문제를 만들어냈다가보다 문제가 널 불러낸 것이었겠지만. 그 너머를 꿈꾸고 결행하지 못한 채 이제 그만 멈추고 싶은 자신없음이 거꾸로 승리의 상징으로 너를 흔들게 한 것일지도 몰라. 그때 그 명박산성 위에서 네가 나부끼지 않고 멋진 춤판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기타를 들고 흥겹든 절절하든 노래를 불러 제쳤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넘지 못한 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나부꼈더라면 어땠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네가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고, 너를 앞세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인 사람들을 가르지 않을 때 넌 이름답고도 힘찬 나부낌이 될 수 있을 텐데……. 너에게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을 밀어내는 일도 없어지겠지. 어쩌면 하트 모양의 네가 나타나는 날도 있을지도 몰라. 하트 모양의 너라니! 어머 꽤 괜찮은 풍광인걸.

돌아온 <빨강물고기- 청소년인권놀이터> 2009년 첫번째



???

'레드 존' (청소년 금지구역)을 탈출하라!

-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기 -

- ※ 탈출 일시 : 2009년 4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 ※ 탈출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 9층 강당
- ※ 탈출 도우미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보호주의팀

“레드존을 탈출하라!”

-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기 -

다들 모이셨나요? 오늘 이렇게 진행돼요 ^^~

*** 몸 풀기 맘 열기 (10분)**

- 진행 : 개굴

- ♫ 자리 바꾸기 놀이를 하면서 몸을 풀어보아요.
- ♫ 무궁화 꽃, 아님 난다 꽃, 개굴 꽃, 주뎡 꽃! 이게 뭐냐구요? 쯤만 기다려보시라~

*** 당신의 선택은?? (40분)**

- 진행 : 주뎡, 난다

♫ 보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호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호주의를 벗어난다면 어떤 관계가 가능해지는지를 살펴보아요.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 이런 상황에 놓일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보호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당신의 선택은?

☞ 모둠별로 상황 한 가지씩을 가집니다. 모둠별로 의논해서 2가지 이어진 상황극을 만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보호주의를 넘어서 상황을 장면으로 연출해주시길 되어요. 상황극 속엔 그런 선택이 일어난 이유를 잘 담아주시길 되겠죠?!

[상황 1]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 비청소년인 당신에게 담뱃값은 줄 테니 담배 좀 사달라고 조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 2] 당신은 청소년. 집에서 야동을 보고 있는 동생을 발견했다. 뭐라고 할 것인가?

[상황 3]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청소년. 오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 비청소년인 당신에게 부모한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상황 4] 당신은 교사. 그런데 당신의 학교 앞에 어떤 인간들이 일제고사 반대 어찌구 이러면서 전단을 뿌리고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당신의 선택은?

* 10분 휴식 *_* 랄랄라~

* 쟁점 토론! 두구두구두구두구 (50분)

- 진행 : 개굴

♫ 상황극에서 나타난 쟁점들, 그리고 평소 보호주의에 대해 품었던 의문들을 몽땅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이야기를 펼쳐주세요~

[이런 쟁점은 어떨까?]

1. '청소년 보호주의'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청소년 보호주의를 반대해야 할까요? 청소년 보호주의는 청소년만 괴롭히는 걸까요? 그 동안 두루뭉술하게만 갖고 있던 청소년 보호주의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시원하게 풀어봅시다. 청소년 보호주의와 청소년보호법, 제대로 짚어보자구요!
2. 성, 외박, 정치, 술, 담배,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것들. 이것들은 왜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왔을까요? 그리고 왜 금지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두구두구두구...
3. 사람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서 청소년에게만 특별히 더 해로운 것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4. 청소년이 원래 취약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모로 취약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소년의 조건을 고려하면서, 보호주의로 흐르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호주의의 딜레마 아닌 딜레마! 함께 얘기해 봐요..

* 우리 안의 보호주의 (40분)

- 진행 : 난다

♪ 우리는 청소년 보호주의를 아작아작 씹어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인권을 고민하는 우리들 안에도 보호주의의 흔적들이 남아 있지요.

♪ 그동안 “이것도 보호주의일까?”하며 가웃거리졌던 것들, “이것도 보호주의면 어찌라는 거야???” 하며 불편했던 것들, “나 실은.. 보호주의 이용했어”라는 고백. 무엇이든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털어놓는 시간이예요! 자자, 우리 솔직해지자구요~

♪ 나눠준 말풍선에 우리 안의 보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은 ‘비밀로 해줘~’라고 함께 써주세요. 그럼 진행자가 대신 읽어드립니다ㅋㅋ

[읽을거리 1]

청소년보호법, 도대체 넌 누구냐?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보호주의팀

(난다, 주맹, 개굴, 엠진이 청소년보호법을 함께 공부하고 정리한 글이에요. 짹짹~^^)

□ 청소년보호법의 탄생

- 1997년 청소년보호법(정보법)이 제정됨.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고(인터넷을 통한 매체들의 생성, 유통의 범람 가능성) 청소년들이 사회나 문화 속에서 주체로서 한참 등장하기 시작하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름.

□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 핵심 개념들부터 짚어볼까?

•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생일이 아니라 연 나이로 계산.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정보법 올라미에서 벗어난다는 말짱~)

• **청소년 유해약물** 등: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

• **청소년 유해물건** :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 **청소년 유해업소:**

-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노래방, 사행행위영업, 무도장업,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 매개업, 유해매체나 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제공업, 유독물영업, 만화대여업 등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청보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음.

- 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 금지, 제한구역은 일정시간 동안 통행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함.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음.

● **청소년 유해행위**

△성적 접대나 이러한 행위의 알선·매개

△접객 행위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청소년 학대 행위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 문란 영업행위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

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청소년 유해매체** :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법 10조)

-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은 성적 욕구를 느끼면 안되나? 범죄 충동은 매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폭력을 미화하거나 시민의식을 해치는 것은 청소년에게만 금지되어야 하는 것일까?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비윤리성 등등 이 모든 모호한 기준을 판단하는 건 도대체 누구야?

□ **청보법 때문에 나타나는 장면들**

-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포장, 판매 금지/ 등급 또는 나이 제한 표시
- 청소년 구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무인판매장치에 의한 전시 금지
- 방송시간 제한, 방송 제한 조치
- 광고 선전 제한
- 노래방, 찜질방 등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 또는 시간 제한
-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 사이트 접속, 게임물 등 차단

- 청소년 유해행위 처벌
- 기타 등등

☞ 이 모두가 가능해지려면 **불심검문**(경찰, 업소 주인 등),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선도위원회 활동**(청소년선도 떠를 두른 분들이 준 사법권력으로 기능), **사전심의**(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미리 판단) 등이 이루어지기 마련.

□ 청소년보호법의 역할

: “너희에겐 보호라는 울가미가 필요해!”

○ 엄청 존존한 왕 중의 왕 - 정보법

- 정보법은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물건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고용되는 것 ▶청소년을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음.

- 왕 중의 왕: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때, 영비법(영화및비디오의진흥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 다른 심의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그만큼 유해성을 판단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힘이 막강.

- **왕 존존 시스템** : 정보법은 국가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청소년 관리·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있음. 가정과 사회에는 청소년을 제지, 선도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무엇보다 일상 곳곳에 ‘금지된 것’을 탐하는 청소년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번득이도록 만들었다는 점, 청소년 스스로도 이 시선을 의식하고 조심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존존하다고 볼 수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 규제하기 위한 정부기관. 다른 심의기관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심의하지 않을 경우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유해매체물 관련 단체에 자율 규제를 요구하고, 결정 내용의 확인을 청보위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법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나?

- 청소년보호법의 1차 규제 대상은 비청소년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을 통제하는 효과를 낳게 됨. 처벌되거나 처벌의 위협을 받는 것은 비청소년이지만, 이로 인하여 원하는 표현물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청소년임. 또한 청소년은 금지된 물건, 금지된 장소 등에 접근할 때 비로소 자신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게 되고 통제와 감시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검열을 하게 됨. 게다가 이 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불심검문, 보호 처분 등이 가능해짐.

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그 파생 효과

=> 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 청소년은 사회가 허락한 공간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청소년임을 알게 됨.

=>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주들에게도 유리하고 여성의 성을 매수하는 이들에게도 유리함. 청소년의 존재는 가족의 존재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존재. 따라서 청소년이 그 구역에서 사라질 때 그 구역은 더 자유롭게 성업할 수 있음.

=> 국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이 보이게끔 하는 선전 효과.

□ 정보법에 따라 떠오르는 의문들

1) 청소년의 심신에만 독자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주는 매체, 약물 등은 존재하는가?

-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심리적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다. 개인 단위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닐까? 사실 사춘기라는 규정조차 거짓으로 꾸며낸 시기는 아닐까?

-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것은 (유해성 판단에 대한 세부 논의는 제쳐두고서라도)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은 아닐 것임.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더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차이보다는 유해약물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갖는 동일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함. 또 어떤 신체적 조건에 놓인 청소년과 어떤 질환에 걸린 비청소년의 동일성이 더 클 수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상만을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겐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다는 차별적 인식을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은 폭력성, 선정성 등이 주로 이유로 제시되는데, 이는 청소년을 우발적, 충동적 범죄를 잘 저지르는 위험한 존재로 은연중에 그려내고 있음.

2) 유해 매체, 어떻게 규제하는 게 맞나?

- 청소년에게 특별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있든 없든, 나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쁜 매체는 있을 수 있음. 그렇다고 그걸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괜찮은가? 표현 자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표현물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규제(사회적으로 도태시키는 것)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예) 포르노에 대한 규제 시도

캐서린 맥किन(Catharine Mckinnon & 안드리아 드워킨(Andrea Dworkin)은

반포르노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포르노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례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더 큰 해악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성평등의 이익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음.

그녀들이 제시한 포르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 △ 여성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성적 대상이나 상품으로 묘사된 경우
- △ 여성이 수치나 고통을 즐기는 성적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 △ 여성이 강간당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
- △ 여성이 묶이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당한 상태에서 성행위의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 △ 여성이 종속되거나 노예의 모습으로 성적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 △ 여성의 신체가 부분화되어 그 부분으로 여성이 축소된 경우
- △ 여성이 본래 창녀인 것처럼 묘사된 경우
- △ 여성의 성기가 사물이나 동물에 의해 삽입되는 것을 묘사한 경우

☞ 이에 대해 김도현 교수(서강대 법대)는 포르노가 자행하는 '해석폭력'에 대하여 즉자적,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현행 정보법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음. 해석폭력에 대해서는 해석폭력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것. 포르노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야 하고, 왜 문제인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왜곡된 재현에 대해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정한 보호'일 수 있음.

3) 정보법은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가?

- 정보법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보장하지 않음. 청소년들을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리는 셈. 그 바람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지 못했던 청소년들은 또 다른 삶의 계획이 아니라 도피로서

의 가출이나 성매매 문화, 상업적 놀이문화를 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정작 '보호'가 필요한 곳에 정보법은 없다 : 금지된 청소년 유해행위는 정보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제 가능. 학교와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진정으로 유해한 행위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 고용 제한 업소를 통해 청소년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외려 비공식 노동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정보법은 청소년들을 무력화시킨다 : 청소년을 계속 약자인 상태로 고정시켜 버리고 비청소년이 대신 보살펴주는 일방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청소년을 취약한 존재로 계속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필요한 정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고 성찰하고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청소년의 힘은 커질 수 있음.

-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는 모든 '보호', 아니 지원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단, 보호라는 것이 청소년을 약자의 상태로 고정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 보호의 철회가 아니라 보호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호와는 다른 것이어야 함. 누군가가 보호의 대상으로만 고정될 때 통제가 허용되기 마련. 정보법과 보호주의는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전제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음.

4) 정보법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정보법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객체화하고 있고 청소년의 욕망과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세대간 연대를 막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함.

- 대개 유해성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폭력성, 음란성, 선정성, 사행성 등을 떠올리지만 '반사회성'은 잘 떠올리지 못함. 반사회성은 청소년의 정치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예) 1997년 8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계간 회원지 <서울청년> 8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적이 있음. 노동자연대가 펴낸 소책자도 반사회성을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적 있음. 이 사례를 볼 때, 청소년 유해성을 기준으로 정치사회 관련 출판물에까지 정보법 확대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음.

-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조갑제는 야간 광화문을 청소년 통제제한구역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음.

4) 비청소년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의 생활세계 전반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음. 생활세계 전반이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됨. 비청소년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짓눌리고 자기 삶과 인권을 반납하는 일들도 일어남.

- 세대간 분리와 불평등 : 성년과 미성년을 기준으로 두 세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새로운 적대전선이 형성. 청소년의 세계가 순수의 세계인 양 허구화. 다양한 문화경험 차단. 또한 청소년은 보호의 객체로, 비청소년은 보호의 의무자로 만듦으로써 평등한 관계를 원천적으로 배제

- 하나의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 : 국보법이 '빨갱이'가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비로소 개인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정보법은 청소년 유해에 관심을 표하고 통제함으로써 비로소 윤리적 시민권이 획득할 수 있도록 함. 사실상 특정 집단의 도덕적 히스테리를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이기도 함.

-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함 : 자체 '가위질' 유도.

5) 보호주의를 넘어선 지원은 어떻게?

-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고려할 때 그들에게 독자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

엇일까? 보호주의를 넘어서면서도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읽을거리 2]

※ 어떤 맥락에서 보호가 동원될 때, 보호주의로 전환될까?

- 1) 사람이 가진 보편적 욕구를 청소년에게는 인정하지 않을 때
- 2) 청소년을 너무 특별한 존재로 일반화할 때(일반화는 대상화와 같은 말)
- 3)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을 때
- 4) 청소년에게 기회 자체를 차단할 때
- 5) 어떤 부족함 또는 어떤 실수를 청소년이란 존재 전체의 무능력, 미숙함으로 곧장 등치시킬 때
- 6) 구조나 타인의 잘못을 청소년의 미성숙함, 잘못으로 돌려버릴 때

- 보호주의는 채찍뿐 아니라 당근을 제공하고 있기도 함. 그렇다면, 보호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이런 ‘당근’을 주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

[예 1]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비청소년보다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훈방이 된다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기도 함. 가벼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청소년기에 자유의 박탈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의 제한, 심리적 영향 때문. 대신에 형사처분보다 더 사법적 엄격성이 덜 요구되기도 함.

[예 2] 성을 판매하는 10대 여성이 있을 경우, 현재는 그 여성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10대의 성을 매수한 성인만을 처벌하고 있음. 보호주의에 기반한 청소년성매매방지특별법이 10대 여성에게는 처벌을 피할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 셈.

청소년보호주의 씨에게 보내는 결투장

- 공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보호주의 씨. 앞으로 이름이 기니까 “정보 씨”로 부르겠습니다. 아 참, 세상에 “청소년보호주의”라고 불리는 동명이주의(同名異主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내는 이 결투장이 잘못 배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결투를 신청하려는 ‘청소년보호주의 씨’가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줘야 할 것 같군요.

제가 결투를 신청하려는 당신은, 대략 두 개 정도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면서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PC방, 노래방, 야한 것 등을 금지시키고 규제하는 것(정보 씨 ①)입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만 아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눈망울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눈에 잘 띄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을 미성숙하거나 능력이 없는 약자로 간주하고 청소년들을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정보 씨 ②)입니다. 편의상, 두 사람(사실은 한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 걸지도 모름! 매우 비슷하고 종종 같이 다님!)을 그냥 한 사람, 한 팀인 걸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결투를 신청하는 이유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정보 씨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 씨가 청소년들의 인권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입니다. 정보 씨 당신은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라거나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라는 식의, 청소년들에

대한 현재의 차별과 인권제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차별과 인권제한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죠. 또한 당신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청소년들의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제약하고 청소년들을 사회경제적 약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당신은 청소년들에게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비청소년들(어른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비청소년들을 차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만19세 이상보다 더 짧은 노동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갱도(땅굴) 안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보호'들은, (특히 노동시간이 더럽게 긴 편인 한국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 씨 당신은 이런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청소년에게만 '특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 씨 당신은 매우 발이 넓고 권세도 제법 있어서, 못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당신을 옹호하거나 당신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결투가 정당한 것임을, 당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반인권적인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결투장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저는 당신의 잘못을 좀 더 시시콜콜 지적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보 씨 당신은 청소년들의 밤 10시 이후 PC방, 노래방,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청소년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사례지요. 당신은 그 이유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잠을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가출을 막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들의 자기 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막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PC방을 예로 들어볼까요?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에 PC방에 있을지, 잠을 잘지는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 충고나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은 불합리합니다. 게임 중독이나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죽는 사건 등은 청소년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도 아닐뿐더러, 밤 10시 이후에 PC방만 못 가게 하면 게임 중독이 치료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게임 외의 현실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일 터인데, 정보 씨 당신은 이런 현실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지 청소년들의 '도피'만을 강제로 막으려 들고 있습니다.

찜질방만 해도 그렇습니다. 밤 10시 이후 찜질방 출입금지, 가출한 청소년들이 종종 찜질방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과연 '가정'이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공간인지, 반드시 청소년들은 '가정'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청소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가정' 밖으로 나오는 걸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이 조성된다는, 당신이 로비 활동으로 꼬드긴 정부와 법원의 주장도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일 뿐이지요. 정보 씨가 생각하는 "유해환경"은 대체 그 실체가 뭐니까?

아주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술, 담배 이야기도 해봅시다. 흔히 정보 씨 당신과 당신의 지지세력들은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이유로 청소년의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기에 술, 담배를 섭취하는 것이 몸에 더욱 해롭다는 거지요. 하지만 술과 담배는 청소년이나 청소년이 아니냐를 떠나서 해롭습니다. 특히 담배는 어떻게 이야기하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률이나 사회통념상으로는, 당신의 활약 덕에, 비청소년의 경우에는 담배가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담배가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비례에 맞는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술, 담배 등은 비청소년에게는 거의 해롭지 않고, 청소년에게는 매우 해로운 것이란 겁니까?

당신이 술, 담배를 금지하는 그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비청소년들은 스스로 판단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연 캠페인이나 절주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알아서 덜 하도록 할 수밖에 없지만,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금지해야 한다는 차별적 인식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과 친한 '국가주의' 씨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삶을 통제하고 쓸 만한 도구(노동력, 인적자원 등)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마 건강에 해로울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사실 서로 그 작용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많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청소년이나 비청소년이나를 가리지 않고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절주나 금연을 하도록 캠페인을 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담배나 술의 해악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것을 절제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담배는 아예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던가 하지는 이야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해서만 술, 담배를 금지하겠다는 정보 씨 당신의 발상은,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상물이나 게임물, 음악 등에 7세, 12세, 15세, 19세 등으로 나이 등급을 매기는 ‘사전검열’도 정보 씨 당신의 주된 업무 중 하나지요. 당신이 들이대는 주된 기준은, “선정성”(얼마나 야하거나 성(性)적인가)과 “폭력성”(얼마나 치고 부수고 죽이는가)입니다. (야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글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기에 생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종종 그 내용이나 맥락이 성폭력적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것인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인지, 인권침해적인지 같은 걸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 장면에서 사람의 벗은 몸이 얼마나 나오는지, 라거나 얼마나 피가 많이 튀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등급 딱지를 붙이고 있죠. 음악을 가지고 별 같지도 않은 가사 한두 개 가지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먹이기도 하죠. 그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등급 딱지를 붙이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생각이 라거나 가치관이 라거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이 없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이러한 규제는 부당하게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영상 등을 통해 자주 접하거나 하면 폭력에 무뎌지고 폭력을 쉽게 받아들이기/사용하게 된다든가, 성폭력적인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되면 강간이나 성폭력에 관대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는지 판단력이 미숙하다느니 청소년

들에게만 그것을 금지하는 이유를 이것저것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도의 차이가 청소년들에게는 그것을 금지하고 비청소년에게는 그것을 허용할 기준이 되는 걸까요? 그럼 제가 한국의 이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대다수의 남성들이 성폭력에 관대하거나 무감각한 이유로 군대(징병제)와 더불어 성폭력적/폭력적 영상물에 무제한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니 이 둘만 없으면 성폭력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고 주장해도 무방하겠군요?

특히 정보 씨 당신은 청소년들을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것들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을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위험한 존재로 은연중에 규정짓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어서 폭력적이거나 성폭력적인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실제 범죄율 통계를 봐도 청소년 집단의 범죄율은 비청소년보다 훨씬 낮고, 또한 어느 집단이 통계적으로 범죄율이 높거나 낮거나, 그런 것이 그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성폭력적/폭력적 영상물이나 게임물은 그 생산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분위기를 만들으로써, 그것을 위해 인권교육을 보급하고 성평등적/비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감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몇 세 이하 관람불가 하는 식으로 딱지를 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보 씨?

마지막으로, 정보 씨 당신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면서 청소년들을 오히려 사회경제적 약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약자’니까 보호해준다면, 청소년들이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박탈하고, 정치적으로 발언할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권리 등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약자’로 만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노동에 따라붙은 여러 제약들 중에서도 친권자(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든가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제한해둔 것 등은 청소년들이 알바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 씨 당신이 만들어내고 부추기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을 금지 않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걸림돌이 되지요. 노동

착취를 해결하거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노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상한 발상입니다.

청소년들을 노동착취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마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아, 물론 정보 씨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경제력을 행사하게 되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그런 것으로부터도 청소년들을 '보호'해서 청소년들이 돈을 자유롭게 못 쓰게 해야겠죠.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이 있는 사회,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권리나 자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자인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쪽이 훨씬 편할 테니까요.

물론, 청소년들의 노동을 제한하는 제도 등은 자본주의 초기에 아동들에게 가해지던 심각한 노동 착취를 제한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허나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 그리고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는 생활이 어려운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노동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약자로 만들고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친권자 등에게 종속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쁜 노동조건에서 일하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인데, 정보 씨 당신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노동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청소년노동에 대해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곤 합니다. 정보 씨의 영향력이 큰 탓이지요. 하지만 청소년노동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이 사회의 노동 전반에서 일어나는 착취 등을 없애려 노력하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존재를 걸고 당신을 부정하겠습니다

정보 씨 당신의 죄를 낱알이 열거하자면 이보다 더 끝이 없겠지만, 우선은 이 정도에서 줄이고자 합니다. 결투를 신청하는 이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이상할 테니까요.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마무리하자면, 정보 씨 당신은 청소년들을 사회경제적 약자로 만들고,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향을 받아서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한다는 몇몇 사람들조차도 청소년들을 약자로 생각하고 뭘 베풀려고 하고 차별하게 만들곤 합니다. 당신은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일 뿐 아니라 바로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지요.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은 보호는 통제나 억압이 되기 십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한 여러 '보호'들이 단지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죠.

청소년이건 비청소년이건 범죄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삶의 시기에서, 다양한 '첫 경험'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그에 대해서는 몇몇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규제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 또한 그 실체가 모호하기도 하지만)이 있다면 그 '유해환경'을 없애거나 바꾸려고 해야 하지, 청소년들을 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답시고 가둬두는 것은 이상한 발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사회경제적 약자인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지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정당한 대우와 경험, 기회 등입니다.

저는 정보 씨 당신에게 맞서 싸울 것을 이 결투장을 빌어 선언하는 바이며, 저와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도 '청소년 보호주의'를 없애고 새로운 청소년인권을 만들어내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보호는 통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모든 '보호'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키겠지요. 그러나 보호는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 몰라도, 미봉책이고 문제를 지속시키는 것일 뿐 해결도 대안도 아닙니다. 저는 청소년 보호주의 이상의, 더 나아간 해결책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지금의 보호들 중 꼭 필요한 일부(상당수가 규제와 통제 목적만을 가진 보호라고 생각합니다.)는 일단 유지시키더라도 그것들을 줄여나가거나 없앨 수 있도록 사회를 바꿔가자는 것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선도보호”라는 말이 사라질 때까지,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청소년보호주의가 없어질 때까지 그 존재를 걸고 당신을 부정할 것입니다. 결투 일시는 당신이 없어질 때까지이며, 결투 장소는 정보 씨 당신이 있는 곳 전부입니다.

* 출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인권을 넘보다ㅋㅋ>,
메이데이 출판사, 2009.

정열, 「내 말 좀 들어봐」 그놈의 보호주의가 대체 뭐길래?! -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어 보니...」, 『인권오름』 제150호, 2009. 04. 29.

[내 말 좀 들어봐] 그놈의 보호주의가 대체 뭐길래?!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어 보니...

정열(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레드존(청소년 금지구역)을 탈출하라!'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 레드존 탈출이라는 미션을 갖고 청소년 보호주의를 아작아작 씹어 먹어보자는 '빨강 물고기가 열렸다. 빨강물고기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준비한 인권놀이터다.

보호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고 새롭기도 했다. 그 후 동생 앞에서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하면서도 때때로 이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혼란을 느낀 적도 있다. 그러다가 빨강물고기에서 보호주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고민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슬쩍 놀러가는 기분으로 참여했다. 그럼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스타트!

보호주의 vs. 보호주의 탈출하기

[1]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 비청소년인 당신에게 담배 값은 줄 테니 담배 좀 사다달라고 조른다. 어떻게 할 것인가?

[2]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청소년. 오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 비청소년인 당신에게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3] 당신은 교사. 그런데 당신의 학교 앞에 어떤 인간들이 일제고사 반대 어찌구 이리면서 전단지 뿌리고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당신의 선택은?

[4] 당신은 청소년. 집에서 야동을 보고 있는 동생을 발견했다. 뭐라고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상황을 모둠마다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보호주의를 벗어나서 이 상황에 대처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지를 의논해서 상황극으로 발표했다. 제시된 상황들은 청소년이든 비청소년이든 한 번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본 적이 있을 법한 이야기였다. 그 때문인지 비슷한 경험과 고민이 풀어져 나왔다.



첫 번째 상황에서 보호주의 입장에서는 “어린 게 짭수가 노랑구만! 담배는 무슨 담배야! 너 학교 어디야?”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럼, 보호주의를 벗어난 비청소년이라면? 상황극에 등장한 비청소년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당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담배 자체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설득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배를 사주긴 할게요.” 그러나 이 비청소년은 결국 담배를 사지 못했다. 지문날인을 거부하느라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황극이 끝나고 담배나 술 같은 것들이 왜 청소년들에게만 금지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담배나 술이 나쁘다면 그걸 규제해야지 왜 청소년들만 규제할까, 19살 마지막 밤까지는 몸에 너무 안 좋다가 자정을 넘기고 20살이 되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다 “대학이란 하나의 출구만 만들어둔 채 청소년들이 그 출구만 바라보도록 다른 모든 욕망을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건강 건강 하지만

진짜로 우리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일꾼이 될 몸, 아이를 낳을 몸’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내가 함께했던 팀에서는 두 번째 상황극을 만들었다. 보호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외박은!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다음날 학교도 가야 하구. 어서 집에 들어가!”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을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청소년은 무조건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특히 '여자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소년은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걸까? 학교라는 틀에 꼭 매일 들어가야 하나? 밤거리가 위험하면 위험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면 되지 왜 청소년의 발을 묶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고 우리 팀에서는 외박을 하겠다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쪽을 택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노노~ 거짓말을 하는 것도, 거짓말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자꾸만 이런저런 이유로 청소년을 가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거짓말을 해서 숨 쉴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닐까?



세 번째 상황에서는 보호주의에 물든 교사라면 “애들이 뭘 안다고 이런 서명을 받아? 우리 애들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얼른 치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알고 들을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청소년의 주체성을 아예 무시하는 입장이다. 반면 이 상황극에 등장한 교사는 “비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다 성숙하지 않은 것처럼 청소년도 다 미성숙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이 잘 모른다면 그만큼 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학생들을 불러모아 서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일제고사 문제라면 청소년이 당사자인 만큼 충분히 알 기회를 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하다. ‘너희는 어려서 몰라’라

는 식으로 정치와 담을 쌓게 하고 감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야동을 보는 것도 권리다?

야동을 보고 있는 동생을 발견한 마지막 상황은 좀더 상황이 복잡하다. 청소년이라고 보호주의적 입장을 가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야동이라는 것 역시 그냥 넘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청소년이라면 “뭐 이런 걸 보냐. 얼른 안 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상황을 맡은 모둠에서는 동생이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반발할 수 있으니 일단 모른 척 한 뒤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보호주의는 ‘보지 마!’ 하고 금지하는 입장이고, 보호주의를 벗어난 것은 ‘네 자유니까 난 상관 안해!’ 하고 외면하는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야동에는 여성이나 성소수자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 성(性)에 대한 청소년의 권리, 야한 것을 볼 동생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야동에 담긴 내용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또 하나, 비청소년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왜 그렇게 성적인 장면은 못 보게 난리를 치면서 집단구타나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관계가 미화된 장면이 수두룩한 드라마나 영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두고 보는 걸까?

우리도 보호주의에 길들여져 있었네!

상황극을 보며 쟁점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호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조차 보호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자기고백(?)을 말풍선에 적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보호주의를 비판하지만, 사실 스스로 쟁기게 행동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말풍선에 담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비청소년들과 밥을 먹을 때 돈을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당연히 돈을 안 내도 된다고 나도 은연 중에 생각하고 있었어. 사실 가난한 비청소년도 많은데…….”

“비청소년이 나에게 무턱대고 반말 쓰는 건 보호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나보다 나이 어린 청소년을 보곤 내가 반말을 쓰고 있더라.”

“청소년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보면 걱정되고 쟁기게 되더라.”

“행사 끝나고 청소년들은 놀고 흥겨워하고 있을 때 비청소년들이 알아서 뒷정리할 때. 청소년은 행사에 초대받은 거고 비청소년은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인가?”

“‘청소년을 왜 잡아가냐?’ ‘청소년을 석방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쟁기는 게 있지.”

스스로 찢찢했던 부분들을 툭 까놓고 이야기하고 나니 다들 얼굴이 불그스레해졌다.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청소년도, 비청소년도 보호주의에 몰들어 있거나 보호주의를 이용해 편한 길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이에 보호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만큼 강렬한 것이다.

우리가 찾아냈던 실마리들

이 날 했던 이야기들은 청소년과 비청소년 모두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줬던 것 같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가장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건 ‘보호주의로 흐르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다. 사실 우리가 보호주의를 탈출하기 위해 찾아낸 이런저런 실마리들은 여전히 미흡하고 혼란스럽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나간다면 ‘청소년 보호주의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분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물론 우리 속에 숨어있는 '보호주의'의 조각들과 혼란스러움도 극복할 수 있을 테고 말이다.

[고덕고덕 맞장구] 보호주의는 참으로 질긴 껌이야~

안녕~짱열.

이번 빨강물고기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보호주의(아래 보호주의)를 아작아작 씹어먹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더랬지. 하지만 짱열의 말대로 요 놈이 여간 질긴 녀석이 아니더라구. 그대 말대로, 보호주의를 넘어서는 관계, 보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은 여전히 희뿌연기만 해. ‘보호주의를 넘어서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해답을 당장 내놓을 수는 없다 해도 보호주의가 미심쩍은 이유, 시비를 걸고 싶은 이유를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자.

보호주의나 그 결정체인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청소년은 이런 존재로 규정되고 있지. 나약하다, 충동적이다, 자기규제 능력이 없다, 스펀지 마냥 쪽쪽 받아들인다, 본대로 따라한다 등등. 그래서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고 제대로 보호하려면 ‘하지 마!’, ‘보지 마!’, ‘가지 마!’, ‘민중 까봐!’와 같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지. 여기엔 청소년에 대한 털끝만큼의 존중도, 대화의 여지도 없어. 이래서야 청소년 인권 주장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 턱이 있나.

게다가 보호주의는 엉뚱한 곳에만 왕 쫓쫓 감시시스템을 쳐두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그토록 읊어대는 사람들이 차별이나 청소년노동 착취 현장에는 왜 그토록 관대한 걸까. 게다가

가 ‘약자’라서 보호가 필요하다던 청소년이 자기 힘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 그런데 요즘의 보호주의는 그게 여간 달갑지 않은가봐. 지난해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조감제라는 양반이 야간 광화문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하지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은 속셈이 뭐였겠어? 청소년이 정치적 힘을 드러내는 것을 억누르고 싶었던 게지.

그렇지만 보호주의를 막상 벗어던지고자 할 때 우리 자신도 주저되는 점들이 있지. 담배나 폭력매체, 폭력적인 성 경험 등이 청소년에게 나쁜 건 분명하지 않나? 뭔가 ‘보호’가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발목을 잡지. 이럴 때면 나도 머뭇거리려곤 해. 하지만 무언가가 청소년에게 더 나쁠 수 있다는 ‘차이’에만 주목하다 보면, 본래 문제였던 것은 그대로 둔 채 청소년 접근을 막는 데만 골몰하게 되더라고. 반면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나쁠 수 있다는 ‘동질성’에 주목하면, 본래 문제였던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를 찾게 되지. 그래서 후자가 더 현명한 길이 아닐까 싶어.

물론 보호주의를 없애자는 말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없애자는 말로 오해되어서는 곤란할 거야.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독립해 생활하고자 할 때, 보호주의가 나쁘다고 했으니 너 알아서 살라는 식으로 대해선 안 되지.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해 소득과 주거를 보장할 방안을 찾아줘야 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도 무조건 일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더 괜찮은 일자리를 지원해 줘야 하고 사법절차에서나 학교 징계절차에서 청소년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보조인 동석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지. 물론 그 보조인이 청소년의 의견을 거슬러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야. 아무튼 보호주의를 넘어선 관계와 질서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일단 보호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구. [배경내]

공현, 「[청소년과 인권] 보호주의를 넘어서야 다른 길이 보인다」, 『교회와 인권』 156호, 천주교인권위원회, 2009. 05.

보호주의를 넘어서야 다른 길이 보인다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혹시 선생님... 당신은 환자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약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정의의 아군인 자신이 지켜주고 있다... 그 감각이야말로... 바로 차별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차별이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자를 지키려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론 차별입니다... 즉 당신은 환자를 자신보다 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선입니다...

- 『헬로우 블랙잭 9』

한국 사회에서 “~주의”라는 말이 붙은 단어들은 보통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의미로 유통되지는 않는 것 같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이념 알레르기’ 때문일까? 여하간 여기 제목에 단 “보호주의”라는 말 또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무슨 무역 보호주의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청소년보호주의다. 본의 아니게 “~주의”의 부정적인 용례를 하나 더 만든 셈이 되었다.

그렇다고 뭐 내가 “보호는 필요하지만 보호주의는 싫다!” 뭐 이렇게 “보호”에 “~주의”를 붙이면 주의해야 할 나쁜 게 됩니다, 하는 식의 나이브(naive:소박한)한 말장난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굳이 ‘청소년보호’라고 하지 않고 ‘청소년보호주의’라고 한 것은 청소년(=아동, 미성년자 등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발상이 어느 특정인의 의견이나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제도들로 짜인, 제법 잘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아, 물론 보호주의와 별 연관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행위나 생각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보호주의는 싫다!”라는 말이 100% 틀린 것만은 아니긴 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소년보호주의가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대체 뭐가 그리도 듣기 싫어서 “~주의”씩이나 붙여가면서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걸까?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나 특별히 보호해주겠다는데 싫다고 하는 게 이상한 노릇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보호가 그렇게 좋기만 할 것일까? 골목골목마다 포돌이와 같이 붙어 있는 안내문에 써있는 말들처럼, 정말로 청소년선도, 청소년보호는 우리 사회와 인류가 지켜나가고 실현시켜야 할 가치일까?

보호라는 건 보통 누가 받는 것인가? 바로 약자가 받는 것이다. 아무래도 약자에게는 강자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약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보호를 제공받게 되며,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 ‘보호’의 영역은 실로 광범위해서 정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수많은 ‘보호’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보호주의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의심이 든다. 이진 보호를 핑계로 한 통제일 뿐인 것 아닐까? 특히 청소년보호주의가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데 동원되는 순간 이런 의문은 확신으로 굳어진다. 학교에서 학적을 정하는 일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권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때조차도 보호주의가 작동하고, 집회에 나가거나 할 때도 보호주의가 적용되면서 “밤10시 이후 안전 귀가”하라거나 “집회장을 청소년유해매체,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으로 하자.”(by 조감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부당하게 적은 임금을 받는 때에도 보호주의가 내놓는 대안은 하나, 바로 ‘보호자동의서’가 있어야 일할 수 있다는 식의 대안뿐이다.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면서 성에 관한 정보들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하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차별 속으로 내몰던 것도 청소년보호주의였다.

왜 보호해준다는 좋은 소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까? 그건 청소년보호주의가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주의의 가장 커다란 전제는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주의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비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 선도, 관리할지를 생각한다. 청소년보호주의는, 청소년에 대한 무시, 배제, 차별과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주의는 다른 청소년인권 침해를 정당화해주는 알리바이, 변명거리가 되어주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현재 사회에서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청소년들이 약자인 것은 불가피하고도 본질적인 것인가? 그리고 청소년보호주의는 과연 적절한 대안인가?

청소년보호주의가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청소년보호주의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경험을 쌓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청소년보호주의는 청소년들

은 ‘미성숙’하다면서 정치에 참여할 기회, 경제활동을 할 기회, 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한다. 그리고 그 결과 청소년들은 더욱 더 가정과 학교에만 갇히게 되고, 더욱 더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지고,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만을 얻게 된다. 청소년들이 약자라며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청소년보호주의는 결국 청소년들을 약자인 채로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최윤진 교수는 청소년 권리 제한의 부당성을 고찰하면서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므로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경험을 쌓고 실수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미성숙’ 상태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이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약자인 것, ‘미성숙’한 것은 비단 청소년들의 생물학적인 특성 때문만은 아니다.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약자이거나 ‘미성숙’한 것은,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그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험의 총량이 적다거나 신체적으로 좀 약하다거나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약자가 되는 것은 어른(실은 주로 30~50대) 중심의 방식 및 가치관,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회,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세상의 인식 속에서도이다. (#심리학자 로버트 엡슈타인 박사는 10대들의 충동적 행동이나 범죄 등에 대해서 10대들의 뇌가 어찌구저찌구하는 경향에 반대하면서, 그들이 판단력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듯이 보이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회가 그들을 어른들과 격리시켜 행동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성(性)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청소년들의 성(性)을 통제하는 이유는, 물론 뒤 16살 전에 임신을 하면 자궁에 질병이 생길 위험이 몇 배 더 높다거나 하는 이유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애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느냐는 거다. 그런데 임신했을 때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건 사실 청소년들이 근본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는 경제력이 거의 없고 청소년들의 독립이나 자립을 잘 인정하지도 지원하지도 않는 사회 구조 때문이며, 비혼모나 10대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성(性)적 권리도 보장하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년들이 더 이상 경제적 약자도 아니게 되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청소년들이 학교와 보호자(부모 등)의 품 안에서만 살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주의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성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쪽을 택한다. 성교육도 실제적인 것보다는 통제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만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요컨대 청소년보호주의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진 뒤 ‘병 주고 약 주고’인데 그 약도 증상을 완화하는 진통제인 정도이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놓고서 “너희들은 약자니까 보호해줄게.”라고 말하지만, 청소년들이 약자인 상태를 극복하게 도와주기는커녕 청소년들이 계속 약자인 상태로 남아있게 하고, 그 와중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데 그치고 있다는 소리다. 청소년보호주의는 또 하나의 차별이다.

그러므로 보호주의를 넘어서는 일은 당장 모든 보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상태를 그대로 둔 채로 모든 보호를 철회해버리면, 이 살벌하고 비인간적인 사회에서 이젠 뭐 그냥 죽어나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보호주의보다 더 근본적이면서 진정한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온갖 부작용들이 산재한 진통제나 증상 완화가 아니라, 그 원인을 치료하고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면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그 길들은 청소년보호주의를 극복한 다음에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보호주의라는 색안경을 끼고 청소년들의 문제, 청소년인권을 바라보는 한, 그것은 한 푼대 ‘비청소년’들의 시혜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